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음악박사학위논문

20세기 줄풍류 해금 선율의 비교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정겨운

20세기 줄풍류 해금 선율의 비교 연구

지도교수 노 은 아

이 논문을 음악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정 겨 운

정겨운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5월

위 원 장 이 지 영 (인)

부 위 원 장 성 기 련 (인)

위 원 박 소 현 (인)

위 원 류 정 연 (인)

위 원 노 은 아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20세기 줄퐁류 해금 선율의 전개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고찰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을 검토하여 줄퐁류 해금 선율 전승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았다. 둘째, 악곡별로 피리·거문고 선율과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민간퐁류 계통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계통별로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을 확인하여 음악적 특징 및 시기별 전개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연구 대상은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김창규, 김천홍의 음원 자료 5종,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구례향제줄퐁류, 이리향제줄퐁류, 대전향제줄퐁류, 국립국악원의 악보 자료 7종이다. 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줄퐁류 해금 선율은 모두 전문음악인에 의해 전승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전문음악인의 참여가 많은 가야금·거문고·양금·단소 등과는 다른 전승 형태로, 해금의 경우 전문음악인들에 의해 연주되며 자유롭게 선율을 운용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악보 자료를 통해 각 줄퐁류는 악곡 구분 및 분장구조·대강구조 등 계통별로 악곡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구분법이 서로 상이하았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위의 음원 자료 5종, 악보 자료 6종과 국립국악원의 줄퐁류를 포함한 12종을 피리·거문고의 선율과 비교하여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민간퐁류 계통으로 분류하였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퐁류에서는 피리의 선율과 가깝게 연주하고 민간퐁류 계통은 모두 거문고 선율에 가깝게 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왕직아악부 계통보다 민간퐁류 계통의 퐁류방에서 상대적으로 관악기의 편성은 어려워 현악기 위주로 연주하였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민간퐁류 계통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 및

전개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을 살펴보았다.

리듬꼴의 경우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는 16분음표를 2회 반복하는 리듬(♩)에서 점 16분음표와 32분음표로 분할한 부점을 활용한 리듬(♩)으로 정착되었다. 민간풍류 계통의 경우 2분박 리듬(♩), 16분음표를 2회 반복하는 리듬(♩)과 점 16분음표와 32분음표로 분할하는 리듬(♩), 그리고 이를 당김음 박자를 사용하는 리듬(♩) 등에 따라 리듬꼴 사용에 있어 큰 편차가 나타났다.

꾸밈음의 경우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는 앞꾸밈음으로 연주하여 꾸밈음 자체에 강세를 더하는 방법에서 점차 본음을 강조하는 뒷꾸밈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간풍류 계통에서는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구례향제줄풍류는 모두 앞꾸밈음을 연주하였고 김창규, 지영희, 이리향제줄풍류는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국악원은 모두 뒤꾸밈음을 연주하였고 대전향제줄풍류에서는 꾸밈음이 나타나지 않았다.

운궁법의 경우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는 잉어질이 대동소이하게 전승되었으며 김천홍의 경우 잉어질의 휴지부를 길게 사용하여 긴장감을 높였다. 민간풍류 계통의 운궁법을 확인한 결과 김창규, 지영희, 이리향제줄풍류에서만 잉어질이 확인되었으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구례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는 잉어질을 연주하지 않았다.

운지법의 경우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는 전곡에서 모두 동일한 운지법이 사용되었으며, 운지를 이동하는 장단까지 동일하여 큰 변동 없이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풍류 계통의 운지법의 경우 김덕진과 류대복의 연주에서 개방현과 潢 운지법이 확인되는데, 이는 현재 전승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현재 전승되고 있는 국립국악원 줄풍류 및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전승되고 있는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의 해금 선율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의 활용이 단순화되는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주자 별로 다채롭고 유연하게 운용되었던 선율이 탈락하고 음악적 요소가 정형화된

형태로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줄풍류 해금 선율이 확인되는 12종의 계통을 분류하여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시기별 전승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일정한 틀 안에서 유연하게 변주가 허용되었던 줄풍류의 본질을 상기하고, 획일적인 현행의 줄풍류에서 벗어나 기존의 생명력 있는 줄풍류가 다시금 연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줄풍류, 영산회상, 향제풍류, 선율비교, 해금선율전개양상
학번 : 2017-31886

목 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대상 및 방법	9
II. 연구 자료의 검토	21
1. 음원 자료	21
1) 지용구	21
2) 김덕진	25
3) 민완식	26
4) 김창규	28
5) 김천홍	30
2. 악보 자료	32
1) 이덕환	32
2) 류대복	36
3) 지영희	38
4) 구례향제줄풍류	40
5) 이리향제줄풍류	44
6) 대전향제줄풍류	47
7) 국립국악원	51
3. 소결	54

Ⅲ. 20세기 줄풍류 해금 선율 비교	62
1. 상령산	62
2. 중령산	84
3. 세령산	109
4. 가락덜이	125
5. 상현도드리	137
6. 하현도드리	155
7. 염불도드리	171
8. 타령	190
9. 군악	214
10. 소결	240
Ⅳ. 20세기 줄풍류 해금 선율의 음악적 특징 및 전개 양상	250
1. 이왕직아악부 계통	250
1) 리듬꼴	250
2) 꾸밈음	292
3) 운궁법	295
4) 운지법	297
2. 민간풍류 계통	300
1) 리듬꼴	300
2) 꾸밈음	367
3) 운궁법	370
4) 운지법	374
3. 소결	380
Ⅴ. 결론	384
참고문헌	389
Abstract	393
부록악보	397

<표 목차>

<표 1> 연구 대상 목록	15
<표 2> 줄풍류 해금 선율의 분류 방법	18
<표 3> 피리, 거문고 선율 일치도 및 독자적 선율 산출법	19
<표 4> 지용구의 줄풍류 음원 목록	24
<표 5> 김덕진의 줄풍류 음원 목록	26
<표 6> 민완식의 줄풍류 음원 목록	28
<표 7> 김창규의 줄풍류 음원 목록	29
<표 8> 김천홍의 줄풍류 음원 목록	31
<표 9> 이왕직아악부 오선악보 채보 담당 아악부원	35
<표 10> 이덕환의 줄풍류 분장 구조	35
<표 11> 류대복의 줄풍류 분장 구조	37
<표 12> 지영희의 줄풍류 분장 구조	39
<표 13> 구례향제줄풍류의 분장 구조	42
<표 14> 이리향제줄풍류의 분장 구조	46
<표 15> 대전향제줄풍류의 분장 구조	50
<표 16> 국립국악원의 분장 구조	52
<표 17> 줄풍류 해금 악보 자료별 대장 구분	57
<표 18> <상령산> 초장 선율비교	65
<표 19> <상령산> 초장의 선율 일치도	67
<표 20> <상령산> 제2장 선율비교	69
<표 21> <상령산> 제2장의 선율 일치도	71
<표 22> <상령산> 제3장 선율비교	73
<표 23> <상령산> 제3장 선율 일치도	76

<표 24> <상령산> 제4장 선율비교	78
<표 25> <상령산> 제4장 선율 일치도	82
<표 26> <상령산> 선율 일치도	83
<표 27> <중령산> 초장 선율비교	86
<표 28> <중령산> 초장 선율 일치도	89
<표 29> <중령산> 제2장 선율비교	91
<표 30> <중령산> 제2장 선율 일치도	94
<표 31> <중령산> 제3장 선율 비교	96
<표 32> <중령산> 제3장 선율 일치도	98
<표 33> <중령산> 제4장 선율비교	100
<표 34> <중령산> 제4장 선율 일치도	102
<표 35> <중령산> 제5장 선율비교	104
<표 36> <중령산> 제5장 선율 일치도	107
<표 37> <중령산> 선율 일치도	108
<표 38> <세령산> 초장 선율비교	111
<표 39> <세령산> 초장 선율 일치도	113
<표 40> <세령산> 제2각 선율비교	115
<표 41> <세령산> 제2각 선율 일치도	116
<표 42> <세령산> 제3장 선율비교	119
<표 43> <세령산> 제3장 선율 일치도	120
<표 44> <세령산> 제4장 선율비교	122
<표 45> <세령산> 제4장 선율 일치도	123
<표 46> <세령산> 선율 일치도	124
<표 47> <가락달이> 초장 선율비교	127
<표 48> <가락달이> 초장 선율 일치도	128

<표 49> <가락덜이> 제2장 선율비교	130
<표 50> <가락덜이> 제2장 선율 일치도	131
<표 51> <가락덜이> 제3장 선율 비교	134
<표 52> <가락덜이> 제3장 선율 일치도	135
<표 53> <가락덜이> 선율 일치도	136
<표 54> <상현도드리> 초장 선율비교	139
<표 55> <상현도드리> 초장 선율 일치도	140
<표 56> <상현도드리> 제2장 선율비교	143
<표 57> <상현도드리> 제2장 선율 일치도	144
<표 58> <상현도드리> 제3장 선율비교	147
<표 59> <상현도드리> 제3장 선율 일치도	148
<표 60> <상현도드리> 제4장 선율비교	150
<표 61> <상현도드리> 제4장 선율 일치도	152
<표 62> <상현도드리> 선율 일치도	153
<표 63> <하현도드리> 초장 선율비교	156
<표 64> <하현도드리> 초장 선율 일치도	157
<표 65> <하현도드리> 제2장 선율비교	159
<표 66> <하현도드리> 제2장 선율 일치도	161
<표 67> <하현도드리> 제3장 선율비교	163
<표 68> <하현도드리> 제3장 선율 일치도	164
<표 69> <하현도드리> 제4장 선율비교	165
<표 70> <하현도드리> 제4장 선율 일치도	167
<표 71> <하현도드리> 선율 일치도	168
<표 72> <염불도드리> 초장 선율비교	171
<표 73> <염불도드리> 초장 선율 일치도	175

<표 74> <염불도드리> 제2장 선율비교	177
<표 75> <염불도드리> 제2장 선율 일치도	179
<표 76> <염불도드리> 제3장 선율비교	182
<표 77> <염불도드리> 제3장 선율 일치도	182
<표 78> <염불도드리> 제4장 선율비교	184
<표 79> <염불도드리> 제4장 선율 일치도	186
<표 80> <염불도드리> 선율 일치도	187
<표 81> <타령> 초장 선율비교	191
<표 82> <타령> 초장 선율 일치도	194
<표 83> <타령> 제2장 선율비교	197
<표 84> <타령> 제2장 선율 일치도	200
<표 85> <타령> 제3장 선율비교	203
<표 86> <타령> 제3장 선율 일치도	205
<표 87> <타령> 제4장 선율비교	207
<표 88> <타령> 제4장 선율 일치도	209
<표 89> <타령> 선율 일치도	210
<표 90> <군악> 초장 선율비교	213
<표 91> <군악> 초장 선율 일치도	216
<표 92> <군악> 제2장 선율비교	218
<표 93> <군악> 제2장 선율 일치도	221
<표 94> <군악> 제3장 선율비교	223
<표 95> <군악> 제3장의 선율 일치도	230
<표 96> <군악> 제4장 선율비교	232
<표 97> <군악> 제4장 선율 일치도	234
<표 98> <군악> 선율 일치도	235

<표 99> 줄풍류 선율 일치도	237
<표 100>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줄풍류 해금 선율 일치도	244
<표 101> 민간풍류 계통의 피리, 거문고 일치도 및 독자적 선율	245
<표 102> 이덕환 <상령산>의 리듬꼴	248
<표 103> 김천홍 <상령산>의 리듬꼴	248
<표 104> 국악원 <상령산>의 리듬꼴	249
<표 105>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상령산> 리듬꼴	249
<표 106> 이덕환 <중령산>의 리듬꼴	251
<표 107> 김천홍 <중령산>의 리듬꼴	252
<표 108> 국악원 <중령산>의 리듬꼴	253
<표 109>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중령산> 리듬꼴	254
<표 110> 이덕환 <세령산>의 리듬꼴	256
<표 111> 김천홍 <세령산>의 리듬꼴	256
<표 112> 국악원 <세령산>의 리듬꼴	257
<표 113>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세령산> 리듬꼴	258
<표 114> 이덕환 <가락덜이>의 리듬꼴	260
<표 115> 김천홍 <가락덜이>의 리듬꼴	261
<표 116> 국악원 <가락덜이>의 리듬꼴	262
<표 117>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가락덜이> 리듬꼴	262
<표 118> 민완식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264
<표 119> 이덕환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265
<표 120> 김천홍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265
<표 121> 국악원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266
<표 122>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상현도드리> 리듬꼴	267
<표 123> 민완식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269

<표 124> 이덕환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270
<표 125> 김천홍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271
<표 126> 국악원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272
<표 127>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하현도드리 리듬꼴	272
<표 128> 민완식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275
<표 129> 이덕환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276
<표 130> 김천홍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276
<표 131> 국악원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277
<표 132>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염불도드리> 리듬꼴	278
<표 133> 이덕환 <타령>의 리듬꼴	280
<표 134> 김천홍 <타령>의 리듬꼴	281
<표 135> 국악원 <타령>의 리듬꼴	282
<표 136>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타령> 리듬꼴	282
<표 137> 이덕환 <군악>의 리듬꼴	284
<표 138> 김천홍 <군악>의 리듬꼴	285
<표 139> 국악원 <군악>의 리듬꼴	285
<표 140>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군악> 리듬꼴	286
<표 141>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리듬꼴 출현 양상	287
<표 142>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앞꾸밈음과 뒤꾸밈음	289
<표 143>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연주된 악곡별 잉어질 주법	292
<표 144>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운지법	294
<표 145> 지용구 <상령산>의 리듬꼴	296
<표 146> 류대복 <상령산>의 리듬꼴	297
<표 147> 지영희 <상령산>의 리듬꼴	298
<표 148> 구례풍류 <상령산>의 리듬꼴	299

<표 149> 이리풍류 <상령산>의 리듬꼴	299
<표 150> 대전풍류 <상령산>의 리듬꼴	300
<표 151> 민간풍류 계통의 <상령산> 리듬꼴	301
<표 152> 지용구 <중령산>의 리듬꼴	304
<표 153> 류대복 <중령산>의 리듬꼴	305
<표 154> 지영희 <중령산>의 리듬꼴	305
<표 155> 구례풍류 <중령산>의 리듬꼴	307
<표 156> 이리풍류 <중령산>의 리듬꼴	307
<표 157> 대전풍류 <중령산>의 리듬꼴	308
<표 158> 민간풍류 계통의 <중령산>의 리듬꼴	309
<표 159> 지용구 <세령산>의 리듬꼴	312
<표 160> 김덕진 <세령산>의 리듬꼴	313
<표 161> 류대복 <세령산>의 리듬꼴	313
<표 162> 김창규 <세령산>의 리듬꼴	314
<표 163> 지영희 <세령산>의 리듬꼴	315
<표 164> 구례풍류 <세령산>의 리듬꼴	316
<표 165> 이리풍류 <세령산>의 리듬꼴	316
<표 166> 대전풍류 <세령산>의 리듬꼴	317
<표 167> 민간풍류 계통의 <세령산> 리듬꼴	317
<표 168> 지용구 <가락덜이>의 리듬꼴	320
<표 169> 류대복 <가락덜이>의 리듬꼴	320
<표 170> 김창규 <가락덜이>의 리듬꼴	321
<표 171> 지영희 <가락덜이>의 리듬꼴	322
<표 172> 구례풍류 <가락덜이>의 리듬꼴	323
<표 173> 이리풍류 <가락덜이>의 리듬꼴	324

<표 174> 대전풍류 <가락덜이>의 리듬꼴	324
<표 175> 민간풍류 계통의 <가락덜이> 리듬꼴	325
<표 176> 지용구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327
<표 177> 김덕진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328
<표 178> 류대복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328
<표 179> 지영희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329
<표 180> 구례풍류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330
<표 181> 이리풍류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331
<표 182> 대전풍류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332
<표 183> 민간풍류 계통의 <상현도드리> 리듬꼴	332
<표 184> 지용구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334
<표 185> 류대복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334
<표 186> 지영희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335
<표 187> 구례풍류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336
<표 188> 이리풍류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337
<표 189> 대전풍류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337
<표 190> 민간풍류 계통의 <하현도드리> 리듬꼴	338
<표 191> 지용구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340
<표 192> 류대복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341
<표 193> 지영희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341
<표 194> 김창규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342
<표 195> 구례풍류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343
<표 196> 이리풍류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344
<표 197> 대전풍류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344
<표 198> 민간풍류 계통의 <염불도드리> 리듬꼴	345

<표 199> 지용구1 <타령>의 리듬꼴	347
<표 200> 지용구2 <타령>의 리듬꼴	348
<표 201> 지용구1 <타령>의 리듬꼴	348
<표 202> 류대복 <타령>의 리듬꼴	349
<표 203> 김창규 <타령>의 리듬꼴	350
<표 204> 지영희 <타령>의 리듬꼴	351
<표 205> 구례풍류 <타령>의 리듬꼴	352
<표 206> 이리풍류 <타령>의 리듬꼴	352
<표 207> 대전풍류 <타령>의 리듬꼴	353
<표 208> 민간풍류 계열의 <타령> 리듬꼴	353
<표 209> 지용구 <군악>의 리듬꼴	356
<표 210> 김덕진 <군악>의 리듬꼴	356
<표 211> 류대복 <군악>의 리듬꼴	357
<표 212> 지영희 <군악>의 리듬꼴	358
<표 213> 구례풍류 <군악>의 리듬꼴	358
<표 214> 이리풍류 <군악>의 리듬꼴	359
<표 215> 대전풍류 <군악>의 리듬꼴	359
<표 216> 민간풍류 계통의 <군악> 리듬꼴	360
<표 217>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 출현 양상	361
<표 218>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된 악곡별 앞꾸밈음과 뒤꾸밈음	363
<표 219>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된 악곡별 잉어질 주법	366
<표 220> 민간풍류 계통의 운지법	370
<표 221> 류대복의 줄풍류 개방현 사용 양상	371

<그림 목차>

<그림 1> 구례향제줄풍류 해금 전승 현황	42
<그림 2> 이리향제줄풍류 해금 전승 현황	46
<그림 3> 대전향제줄풍류 해금 전승 현황	50
<그림 4> 줄풍류 해금 선율의 전승 계보	59

<악보 목차>

<악보 1> <상령산> 초장 제1각 제1-10박	64
<악보 2> <상령산> 초장 제3각 제1-10박	65
<악보 3> <상령산> 제2장 제2각 제1-10박	69
<악보 4> <상령산> 제3장 제2각 제11-20박	74
<악보 5> <상령산> 제4장 제5각 제1-10박	79
<악보 6> <중령산> 초장 제1각 제1-10박	87
<악보 7> <중령산> 제3각 제1-10박	92
<악보 8> <중령산> 제3장 제1각 제1-10박	97
<악보 9> <중령산> 제4장 제3각 제1-10박	101
<악보 10> <중령산> 제5장 제1각 제1-10박	105
<악보 11> <세령산> 초장 제3각	112
<악보 12> <세령산> 제2장 제1각	116
<악보 13> <세령산> 제3장 제3각	119
<악보 14> <세령산> 제4장 제3각	122
<악보 15> <가락달이> 초장 제1각	127

<악보 16>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131
<악보 17> <가락덜이> 제3장 제1각	134
<악보 18> <상현도드리> 초장 제1각	139
<악보 19> <상현도드리> 제2장 제1각	143
<악보 20> <상현도드리> 제3장 제2각	147
<악보 21> <상현도드리> 제4장 제2각	151
<악보 22> <하현도드리> 초장 제7각	156
<악보 23> <하현도드리> 제2장 제6각	160
<악보 24> <하현도드리> 제3장 제1각	163
<악보 25> 하현도드리 제4장 제2각	166
<악보 26> <염불도드리> 초장 제4각	171
<악보 27> <염불도드리> 제2장 제12각	177
<악보 28> <염불도드리> 제3장 제2각	182
<악보 29> <염불도드리> 제4장 제1각	185
<악보 30> <타령> 초장 제5각	191
<악보 31> <타령> 제2장 제11각	197
<악보 32> <타령> 제3장 제3각	203
<악보 33> <타령> 제4장 제5각	207
<악보 34> <군악> 초장 제4각	214
<악보 35> <군악> 제2장 제8각	219
<악보 36> <군악> 제3장 제9각	224
<악보 37> <군악> 제4장 제5각	233
<악보 38> <상현도드리> 초장 8각	294
<악보 39> <염불도드리> 제3장 제3각	368

<악보 40> <세령산> 초장 제2각	369
<악보 41> <세령산> 초장 제1각	370
<악보 42> 류대복의 개방현 사용 예시	373
<악보 43> 민간풍류 계통의 <타령> 제2장 제7각	374

I.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줄풍류는 보편적으로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방중악(房中樂)을 의미하며, 그 대표곡으로는 《현악영산회상(絃樂靈山會相)》으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등 9곡의 모음곡을 칭한다.

줄풍류를 대표하는 《현악영산회상》은 18세기에 이르러 『어은보(漁隱譜)』와 『한금신보(韓琴新譜)』에 전하는데, 현행 <중령산>에 해당하는 <영산회상갑탄(靈山會相甲彈)>이 《어은보》에 나타나고¹⁾, <영산회상환입(還入)>과 <제지(除指)>가 『한금신보』에 등장한다.²⁾ 《영산회상》의 이러한 파생곡들은 18세기에 이르러 영산회상이 풍류방의 율객(律客)들에 의해서 애탄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19세기에 영산회상은 『삼죽금보(三竹琴譜)』, 『현금오음통론(玄琴五音統論)』, 『학포금보(學圃琴譜)』 등에 전하는데, 『삼죽금보』의 영산회상은 <영산회상>, <중영산>, <소령산>, <가락더리>, <환입>, <염불>, <타령>, <군악> 등으로 구성됐다.³⁾ 현행 영산회상의 완전한 모습은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확립되었다.⁴⁾

20세기에 줄풍류는 방송과 음반취입의 주요 레퍼토리가 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널리 연주되었다. 민간풍류의 경우 전승 지역이나 연주자의 음악적 배경, 악기 편성 등에 따라 음악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져

1) 홍선례, 「漁隱譜의 靈山會相甲彈」, 『한국음악연구』 제10집(한국국악학회, 1980), 25~62쪽.

2) 국립국악원 편, 「韓琴新譜: 靈山會相還入·靈山會相除指」, 『韓國音樂資料叢書』 제18집(국립국악원, 1985), 참조.

3) 국립국악원 편, 「三竹琴譜」, 『韓國音樂資料叢書』 제2집(국립국악원, 1980), 참조.

4) 송방송, 「조선 후기의 문화: III.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3. 음악」, 『신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1998), 572쪽.

왔다. 특히 각 지방에서 연주되었던 줄풍류는 율객들의 상황에 따라 들 또는 셋이 모이는 경우도 많았고 이마저도 현악기 중심의 편성이었다. 해금과 피리의 경우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⁵⁾ 이러한 분위기는 각 지역의 풍류가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도 하였으나 음악이 정형화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악곡명, 장별 구분, 연주법, 선율 진행 등에서 차이를 가져왔으나 전체적인 골격 자체는 같은 음악이다.

현재 줄풍류는 전승 양상에 따라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국악원 줄풍류’와 지방에서 전승되는 ‘지역 줄풍류’⁶⁾ 그리고 산조 명인들에 의해 전승되는 ‘개인줄풍류’⁷⁾ 등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⁸⁾

1930년대 후반까지 활발하게 연주되던 줄풍류는 1970년대 이후 전승 양상에 있어 큰 변화를 겪는다. 이왕직아악부와 그의 후신인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되던 줄풍류 선율은 고등교육과정에 포함되면서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갖추게 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연주되던 풍류는 단절될 위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문화재관리국은 수도권을 제외한 호남(이리, 구례, 김제, 광주, 목포 등) · 내포(대전, 예산, 공주 등) · 영남(부산, 대구, 경주 등) · 해서(해주 등) 지역의 풍류를 조사하였다.⁹⁾ 비교적 전통이 잘 유지된 구례와 이리의 줄풍류는 ‘향제풍류’로 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¹⁰⁾ 대전 지역의 줄풍류는 시도무형문화재¹¹⁾로 지정되었다.

5) 임미선, 「20세기 풍류방 문화의 지형과 역사적 변동」, 『한국음악연구』 제59집, (한국국악학회, 2016), 127쪽.

6) 호남풍류(이리, 구례, 김제, 광주, 목포 등), 내포풍류(대전, 예산, 공주 등), 영남풍류(부산, 대구, 경주 등), 해서풍류(해주 등) 등.

7) 산조와 풍류에 두루 뛰어난 명인들과 그 제자에 의해 전승되는 풍류.

8) 류지연, 「가야금 줄풍류 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승아, 「음악 및 문학 부문: 인천 줄풍류 가야금가락 연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을 중심으로」, 『한국음악학』 제21호, (한국고음악연구회, 2011), 111쪽.

9) 이보형, 『무형문화재 보고서(6) 향제줄풍류』,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5)

10) 향제풍류는 1985년 9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될 당시, 전북 익산(옛 이리)의 강낙승과 전남 구례의 김무규가 보유자로 지정되어 1987년 구례향제줄풍류는 제83-가호, 이리향제줄풍류는 제83-나호로 분리되었다. 이후 2012년 5월, 문화재 지정번호의 한글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번호를 숫자로 통일하여 이를 제83-1호, 제83-2호로 개칭되었으며, 2022년 11월 이후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모두 삭제되었다.

11) 대전향제줄풍류는 2016년 2월 12일, 대전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왕직아악부 계승의 줄풍류를 경제풍류로, 다른 지역의 풍류는 모두 향재풍류로 일괄되었는데, 이는 시조를 경제와 향재로 나누는 구분법에서 착안한 것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각 지역의 풍류는 물론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연주되던 민간의 풍류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방송 및 음반취입, 연주를 통해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서울, 경기 지역의 해금 명인 지용구, 김덕진, 지영희 등의 연주는 경제와 향재의 구분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충분히 주목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되던 줄풍류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연주되던 줄풍류 해금 선율은 그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금은 팔음(八音)을 기준으로 한 악기분류법 중 사부(絲部)인 현악기로 구분되나, 지속음을 내는 해금의 특성상 모든 관악합주에 편성되어 비사비죽(非絲非竹)이라 불리며 관현합주에서 중용적인 역할을 해왔다. 피리가 주선율을 이끄는 것과는 당악 혹은 향악과는 달리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줄풍류에서 해금 선율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더 나아가 각 줄풍류에서 나타나는 해금 선율의 음악적 특징 및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줄풍류의 해금 선율에 관하여 전개 양상에 따른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금 연주자로서 줄풍류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해금 연주자와 학계에 해금 음악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줄풍류 음악에서의 해금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줄풍류의 해금 선율에 대한 선행 연구는 첫째, 이왕직아악부 계열의 풍류 연구, 둘째, 민간풍류에 관한 연구, 셋째, 이왕직아악부 계열의 풍류와

12) 임미선·남상숙, 『이리향재줄풍류』, (서울: 민속원, 2006), 16쪽.

민간풍류와의 비교 연구, 넷째, 줄풍류의 해금 선율과 다른 악기와의 선율을 비교한 연구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왕직아악부 계열의 풍류 연구를 살펴보면, 국립국악원 줄풍류의¹³⁾ 해금 선율을 분석한 연구¹⁴⁾가 있으며, 이왕직아악부의 줄풍류 선율에 대한 연구¹⁵⁾, 관악영산회상이나 평조회상의 선율과 비교한 연구¹⁶⁾, 줄풍류 해금 선율의 시김새에 대한 연구¹⁷⁾ 등이 있다.

둘째, 민간풍류에 대한 연구로는 지역과 지역 풍류 간의 선율을 비교한 연구¹⁸⁾와 지영희의 풍류에 관한 연구¹⁹⁾가 있다.

13)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해 국립국악원 줄풍류를 국악원 줄풍류로 약칭하여 사용하겠다.

14) 강리경, 「현악영산회상 해금선율의 분절과 구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김민정, 「중광지곡 상·중령산의 반복선율에 관한 연구: 해금선율에 기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박혜진, 「해금정악의 반복선율에 관한 연구: 가진회상, 평조회상, 관악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방병일, 「현악영산회상 해금선율의 非絲非竹性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윤찬구, 「영산회상 연구: 상·중령산의 해금 선율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5) 양희진, 「국악원·김천흥·김종희 해금 선율 비교 고찰: 영산회상 상령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오미진, 「현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의 해금 장식음에 대한 연구: 아악부모와 현행보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갑수, 「김천흥과 김종희의 해금 연주법 비교연구: 현악영산회상 선율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2).

16) 강예원, 「현악영산회상과 관악영산회상의 종지선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장윤미, 「영산회상의 해금선율 연구 : 관악, 현악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7) 김찬미, 「해금 정악곡의 시김새에 관한 연구: 현악영산회상, 평조회상, 관악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송권준, 「영산회상의 해금 시김새에 관한 고찰」, 『예술논문집』,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1989), 제5집, 189-209쪽.

18) 김동준, 「줄풍류 해금선율 비교 연구 : 석암·대전 풍류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이진, 「줄풍류 해금선율 비교연구: 이리·구례·광주·대전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19) 김현희, 「지영희 해금 줄풍류의 시김새 연구」,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2019), 제 40호, 99-126쪽.

이승희, 「지영희 해금 줄풍류 전승의 음악적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7).

셋째, 이왕직아악부 계열의 풍류와 민간풍류를 비교한 연구로는 구례·이리·대전·인천·광주 등의 지역 풍류와 국악원 줄풍류를 비교하는 연구²⁰⁾, 조선정악단, 빅타조선악단, 정악구락부 등의 1930년대의 민간 연주단체가 남긴 유성기 음반 자료와 국악원 줄풍류를 비교한 연구²¹⁾, 지영희의 줄풍류와 국악원 줄풍류를 비교한 연구²²⁾가 확인된다.

넷째, 국악원 줄풍류 해금 선율을 다른 악기의 선율과 비교한 연구로는 거문고·피리 선율과의 비교 연구²³⁾, 가야금·거문고 선율과의 비교 연

20) 강돌이, 「이리풍류 해금풍류 고찰 -국립국악원 줄풍류와의 상량산 선율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3).

류정아, 「이리풍류줄풍류와 국립국악원줄풍류의 비교연구: 상량산, 중령산의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은희, 「국립국악원줄풍류와 현행 구례줄풍류의 비교 연구: 중령산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진아, 「국립국악원줄풍류와 향재줄풍류의 비교 연구 : 상량산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오나래, 「현행 줄풍류와 민간풍류의 비교연구: 천년만세의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이유경, 「대전풍류뒤틀풍류와 국립국악원 천년만세 비교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이주영, 「구례 줄풍류와 국악원 줄풍류의 <군악> 선율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순임, 「천년만세 해금선율의 비교연구: 국립국악원 줄풍류와 풍류 줄풍류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한지우, 「남·북한연산회상의 해금 가락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21) 김미영, 「1930년대 고음반과 현행 영산회상의 해금 선율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준희, 「1930년대 영산회상의 해금 선율 비교 연구 : 이왕직아악부와 조선정악단, 빅타-조선악단의 연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송영선, 「지용구 해금 줄풍류 가락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20).

최수진, 「조선정악전습소 음반과 현행 연산회상의 해금 선율 비교 연구 : 삼현도드리·하현도드리·염불도드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허시라, 「지용구의 음악활동 및 초기 해금산조 창제의 음악사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4).

22) 고수영, 「줄풍류의 선율 구성에 관한 연구: 국악원줄풍류, 구례풍류줄풍류, 지영희줄풍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김성아, 「줄풍류 해금가락 비교 고찰 : 국립국악원 가락과 지영희 가락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수아, 「인천 줄풍류 해금선율 연구: 상현도드리·하현도드리·염불도드리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혜진, 「국립국악원 줄풍류와 지영희 줄풍류의 비교 : 상량산의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구²⁴⁾, 거문고 선율과의 비교 연구²⁵⁾ 등이 있다.

이왕직아악부 계열의 풍류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강리경은 줄풍류 해금 선율을 기·경·결·해의 관점에서 논하여 선율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였다. 피리의 선율 분절 요소인 악구, 쉽표, 숨표를 해금 선율에 대입하여 지속형 분절과 하행형 분절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악절의 기능을 기·경·결·해로 구분하고 악곡별 단락의 기본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경-결-해’로 나타나는 민속음악과는 달리 현악영산회상의 경우 ‘기-경-결’ 혹은 ‘기-경-해-결’의 두 가지로 나타남을 밝혔다.

송권준은 《영산회상》에 쓰인 해금 선율의 시김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각 악곡에 따른 쓰임, 선율 진행상의 쓰임, 주법상의 쓰임이 서로 다름을 밝혔다. 즉, <상령산>은 앞시김새, <중령산>과 <세령산>은 뒷시김새가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게 쓰였으며, 선율의 상행 진행시와 동일음 진행시 사용되는 시김새가 다르다는 논증이다. 이는 해금 운지법의 제한과 특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며 시김새라는 음악적 요소를 통해 전통음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민간풍류에 대한 연구를 보면, 유성기 음반으로 남은 정악구락부, 조선정악단, 조선정악전습소에 대한 연구가 확인된다. 이승희는 지영희 줄풍류와 빅타-조선악단, 조선정악단, 조선정악전습소의 <세령산> · <상현> · <타령> · <군악> 등에 나타나는 골격선율·경과음·리듬꼴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지영희는 음악적으로 김덕진보다 지용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풍류 가락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풍류를 배운 지영희는 다채롭고 화려한 가락을 만드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 선율 운용에서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송영선은 지용구의 연주로 밝혀진 조선정악단 음원을 통해 그간 알려지

23) 고진명, 「현악영산회상의 상현도드리 선율비교 연구: 해금과 거문고·피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모선미, 「현악영산회상 해금과 피리 선율 비교 분석: 중령산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4) 이경은, 「천년만세 선율 연구: 해금 선율을 중심으로 가야금, 거문고 선율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5) 이서윤, 「별곡의 해금과 거문고 선율형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지 않았던 정악구락부의 해금 연주가 지용구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지용구의 음악적 특징을 조명하기 위해 현을 훑어내리는 운지법과 음을 짧게 끊는 운궁법을 근거로 잔가락이 많고, 다양한 음에서 농현을 하는 점, 남려(南呂)와 무역(無射)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위의 특징은 대부분의 민간풍류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대동소이하여 지용구의 독자적인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두 연주단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타령>과 <계면가락도드리>에 대한 상호 선율 비교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논증의 한계점이 있다.

한편 이왕직악부 계열의 풍류를 민간풍류와 비교한 연구를 보면, 고수영은 국악원줄풍류와 구례풍류, 지영희줄풍류의 비교를 통해 줄풍류는 관악기와 현악기 선율을 넘나들며 연주 주체에 따른 변주 방식을 통해 완성된 음악으로 다채로운 변주가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구례풍류의 독자적 선율은 국악원에 비해 완전 4도 위, 완전 4도 아래, 완전 5도 위 등의 음정으로써 진행되며, 지영희 줄풍류의 독자적 선율은 국악원에 비해 장 2도 위와 장 2도 아래의 음정으로 진행함을 밝혔다.

강달이는 이리풍류의 역사에 대해서 밝히고, 2005년 학계에 소개된 이리풍류 국악원 줄풍류의 <상령산>을 대상으로 해금 선율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이리풍류는 거문고나 가야금 선율을 참고하여 간결한 선율 진행을 보이고, 국악원 줄풍류는 대금이나 피리의 관악 선율을 참고하여 잔가락이 많고 화려한 선율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수진은 유성기 음반에 나타난 조선정악전습소의 <삼현도드리> · <하현도드리> · <염불도드리> 등을 국악원 줄풍류의 선율과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리듬 형태와 꾸밈음, 농현, 운궁법, 호흡 등이 부분적으로 상이하였으며, 조선정악전습소의 가락은 현행의 국악원 《영산회상》 가락보다 화려하고 과감하게 연주된다고 주장하였다.

박수아는 인천 줄풍류의 악곡 중에서 <상현도드리> · <하현도드리> · <염불도드리> 등을 국악원 줄풍류와 및 지영희 줄풍류와 비교하였다. 인천줄풍류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지영희 줄풍류와의 선율 비교를 통해 분장 구조 및 빠르기, 선율 구성이 유사함을 검토하며, 인천과 경기 지역의 줄풍류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조명하였다.

국악원 줄풍류를 다른 악기의 선율과 비교한 논문을 보면, 모선미는 국악원 줄풍류 중 <중령산>의 해금 선율을 피리 선율과 비교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 선율 29.5%, 유사선율 65.0%로 이루어져 총 94.5%가 유사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선율은 5%의 낮은 수치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다른 선율 유형의 형태는 상·하행 진행이 다르거나, 각 악기가 요성을 서로 다른 박(拍)에서 연주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밝혔다.

고진명은 국악원 줄풍류 중 <상현도드리>의 해금 선율을 거문고, 피리 선율과 반각 단위로 비교하여 동일선율, 유사선율, 서로 다른 선율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상현도드리>의 해금 선율은 거문고 선율과 비교하였을 때 63.9% 동일하며, 피리 선율과는 73.6%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리와 동일한 선율이 더 많아 해금 선율은 피리와 더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방병원은 국악원 줄풍류 해금 선율에서 골격음을 한 정간 단위로 파악하여 가야금·거문고와 비교하였을 때 상이하게 나타나는 선율이 26.6%, 대금·피리와 비교하여 5% 상이함을 밝혔다. 또한 거문고와도 다르고 피리와도 다른 해금만의 독자적인 선율 진행을 뜻하는 비사비죽성 선율은 11.6%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악원의 해금 선율은 피리에 가깝게 연주되고 있음을 조명하여, 상제한 모선미와 고진명의 연구를 전악곡으로 확대 연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줄풍류 해금 선율에 관한 연구는 민간풍류 중 그 일부만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줄풍류의 해금 선율에 관한 음악적 통시성을 조명할 수 없었다. 또한 민간풍류에 관한 기존 연구의 다수는 특정 인물에 대한 연주법에서 나타나는 개성 혹은 특점을 파악할 수는 있겠으나, 제한된 연구범위에서 도출된 특징을 특정 줄풍류만의 특징인 것으로 잘못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악곡 일부만을 연구범위로 한 기존의 연구성과는 <상령산>부터 <군악>에 이르기까지 모음곡으로 구성되어 전승되어온 《영산회상》과 같은 줄풍류의 총체적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줄풍류의 음악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해금 선율을 중심으로 수집된 음원 및 악보 자료 총 12종을 종합하고, 전하는 다수의 민간풍류와의 상관성 및 음악적 특징을 도출하여 줄풍류의 해금 선율에 관한 전승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음원 및 악보로 기록된 줄풍류 《영산회상》의 해금 선율을 연구 범위로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지용구(池龍九, 1857~1938), 김덕진(金德鎭) 연대 미상), 민완식(閔完植, 연대 미상), 김창규(예명 김창희, 1898~1973), 김천흥(金千興, 1909~2007), 이덕환(李德煥, 1918~1955), 류대복(流大福, 1907~1964), 지영희(池瑛熙, 1909~1979),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 국립국악원 등에 의한 음원과 악보로 총 12종이다.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12종의 음원 및 악보를 상세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용구의 음원 자료로는 정악구락부와 조선정악단의 유성기 음반²⁶⁾ 2종이 있다. 정악구락부 음반의 녹음 시기는 미상이나 해당 음반에 대한 광고가 1929년 2월에 게재된 바 있어²⁷⁾, 녹음일은 이보다 더 이전일 것으로 추측된다. 녹음된 악곡은 <상령산>, <타령>, <웃도드리>,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등이며 연주자는 김상순(거문고), 조이순(현금), 조동석(단소), 김계선(대금), 지용구(해금), 김경식(장구)로 총 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주를 복각한 『정악의 원류

26) 정악구락부, 조선정악단, 빅타조선악단, 조선정악전습소의 민간 연주단체가 일제강점기에 취입된 유성기 음반(SP, Standard Playing)에 수록된 음원 자료와 이왕직악부의 악보 자료가 있다. 음원 자료의 경우 유성기 음반이 각각 A면, B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면당 약 3분 정도 녹음이 가능한 용량이므로 실제 악곡의 구분과는 다소 다르게 녹음되어 있다. 재생 주파수 범위가 좁으며 잡음이 많아 음질이 좋지 않으나 1950년대 LP(long-playing record)가 보급되기 전의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며 연구 가치가 높아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27) 『동아일보』, 1929년 2월 22일 기사, 『매일신보』, 1929년 2월 24일 기사 중.

를 찾아서(기악편)』 DISC 128)에 수록된 악곡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지용구가 조선정악단에 소속되어 녹음한 줄풍류 영산회상 악곡으로는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계면가락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로 총 10곡²⁹⁾이다. 조선정악단의 구성원은 대금 김계선, 피리 고재덕, 단소 조동석 · 윤종선 · 김명수 중 1인, 거문고에 조이순, 해금 지용구, 장구 김경식으로 추정된다.³⁰⁾ 조선정악단 음반의 녹음 시점은 미상이며 <타령>, <군악>, <계면>, <우조> 등은 1930년 9월, <중령산>은 1931년 6월,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등은 1932년 2월, <하현도드리>와 <염불도드리>는 1932년 11월에 발매되어 모두 발매된 일자도 다르고 발매 순서도 악곡의 연주 순서와 다르다. 그러나 전 악곡의 녹음 상태 및 악기 편성이 동일한 점을 보아 같은 날 녹음하였으나 일정 기간을 두고 발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김덕진의 음원 자료로는 빅타레코드사에서 제작한 유성기 음반이 확인된다. 본 음반을 함께 녹음한 연주자로 정해시(대금), 한성준(장고), 심상건(가야금)으로 명기되어 있다. 빅타조선악단은 판소리, 무악반주, 민요합주 등 민속악 전반에 걸쳐 녹음하였으며, 풍류 기악 연주자는 7인으로 설명하고 있어 위의 4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의 경우 때에 따라 확대·축소 편성하거나 일회성으로 연주하는 객원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³¹⁾ 또한 빅타레코드사에서 위의 4인을 소속 연주자로 하여 사진과 이름까지 게재하고 있어 이들은 음반취입을 위한 단순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오랜

28) “정악구락부 음반은 황종을 f음으로 조율하여 연주하고 있는데, 이는 테이프를 복각하면서 음고의 유동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판 녹음이기 때문에 음고가 정확히 재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60여 년 전의 <상령산>과 현재 연주되고 있는 <상령산>의 속도와 비교해볼 수 있어, 이 음반의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진원, “콜롬비아유성기 원반(7) <정악의 원류를 찾아서> -기악편- 해설지”, (LG미디어, 1996), 43쪽.

29) 용량이 한정적인 유성기 음반 특성상 악곡별로 트랙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중령산(10분 19초), 세령산(2분 53초), 세령산~가락덜이(3분 18초), 가락덜이~상현도드리(2분 45초), 상현도드리~하현도드리(3분 6초), 하현도드리~염불도드리(2분 36초), 염불도드리(2분 32초), 타령(3분 17초), 군악(2분 56초) 등이다.

30) 각주 15)와 동일, 16쪽.

31) 김희수, 「일제강점기 음반사의 전속악단 연구 -전통음악 연주단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9).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하나의 연주단체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빅타 조선악단의 단체명으로 기록된 <세령산>, <상현>, <타령>, <군악>의 음원을 연구 범위로 삼는다.

③ 민완식의 음원 자료는 조선정악전습소라는 단체명으로 녹음한 유성기 음반이 있다. 해당 단체에 소속된 해금 연주자는 지용구와 민완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용구가 일본에서 해당 음반이 녹음된 1938년 당시에 조선정악전습소의 연주자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국내 활동이 잦았다는 점에서 해당 음원의 녹음은 민완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³²⁾ 조선정악전습소 음반의 녹음일은 1938년 3월 23일로, 『빅터 유성기 원반 시리즈 15 -30년대 전통 기악연주 선집-』(SRCD-1148)으로 복각되어 있으며 음원은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타령> 등 세 악곡이 남아있어 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④ 김창규의 음원 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7 내포향제줄풍류』³³⁾ 음반에 수록된 음원에 기록되어 있다. ‘내포향제줄풍류’란 충청도 지역에 전승되는 줄풍류를 의미하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의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내포향제줄풍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³⁴⁾ 본 음원은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권용세(대금, 단소) 및 충남의 이수재(거문고), 김덕규(거문고), 이규성(피리) 등이 참여하였으며 오필순(가야금), 김창규(해금), 이경오(단소), 조동호(장구) 등 경기도 지역에서 초청한 전문 국악인도 참여하였다.³⁵⁾ 본 음반의 수록곡 중 줄풍류와 관련된 <세령산>, <가락덜이>, <염불도드리>, <타령> 등이 녹음되어 있어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⑤ 김천홍의 음원 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16 김천

32) 이진원, “정악 기악 녹음 소사”, 『(콜럼비아 유성기 원반 7) 정악의 원류를 찾아서(기악편)』, (서울: LG미디어, 1996).

3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7 내포향제줄풍류”,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34) 이후영, 『대전향제줄풍류』, (한밭정악회, 2005).

35) 이보형, 『내포향제줄풍류 해설집』, (국립무형유산원, 1999).

흥 해금독주』 앨범에 수록되어 있다. 본 음원은 1972년 9월 11일 KBS 연주실에서 녹음되었으며, <상영산>부터 <군악>까지의 총 9곡이 해금 독주로 수록되어 있어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⑥ 이덕환의 악보 자료는 이왕직아악부 《중광지곡》 오선악보로, 이덕환이 직접 기록하였다. 해당 악보는 이왕직아악부에서 1928년부터 1939년까지 시행된 오선보 채보 및 악보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음악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해금은 아악부원양성소의 4기생인 이덕환이 채보를 맡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덕환이 채보한 악보 자료 중 <상령산>부터 <군악>에 해당하는 악곡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⑦ 지영희의 악보 자료는 1969년,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발행한 『해금교본』³⁶⁾에 수록된 《영산회상》의 오선보이다. 해당 자료에는 <다스름>부터 <우조가락도드리>에 해당하는 악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지영희가 <풍류 굿거리>까지 연주하였으므로 후에 김영재가 <풍류 굿거리> 악보를 따로 실어 재발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령산>부터 <군악>까지의 9곡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⑧ 류대복의 악보 자료는 1959년 9월 25일 조선음악출판사에서 발행한 『해금교측본』에 《령산회상》³⁷⁾이라는 악곡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해당 교측본은 북한의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사용된 전통해금 교육용 교재로 다양한 운궁법, 운지법 연습곡을 포함하여 《령산회상》, 민요, 산조 등 다양한 악곡이 수록되어 있다. 줄풍류 관련 악곡으로 <본령산>, <중령산>, <잔령산>, <가락도리>, <상현>, <도도리>, <하현>, <넘불>, <타령>, <군악>, <계면>, <량청>, <우조>라는 악곡명으로 총 13곡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민회상에 해당하는 9곡을 한정하여 이를

36) 지영희, 『해금교본』,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 1969).

37) 류대복, 『해금교측본』, (조선음악출판사, 1959), 50-68쪽.

연구 대상으로 한다.

⑨ 구례향제줄풍류는 전용선(全用先, 1888~1965년)으로부터 이어온 가락을 기반으로 연주하고 있다. 전용선의 호는 추산(秋山)으로, 전추산으로도 널리 불리는 단소의 명인이며 젓대, 거문고, 피리, 해금, 가야금 등에 능한 인물이다. 구례향제줄풍류는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22년 4월, 구례향제줄풍류의 해금 예능보유자로 신상철이 지정되었다. 신상철은 지영희에게 풍류 선율을 사사 받은 바 있어 1960년대에 서울에서 전남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겨 구례향제줄풍류의 율객으로 합류할 당시에는 지영희의 선율을 그대로 연주했으나, 선율이 맞지 않아 단소와 대금 선율에 맞게 수정하여 연주하였다. 그러다 현재는 2008년, 이순조³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된 ‘추산 해금보’를 기반으로 연주하고 있어 해당 악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⑩ 이리향제줄풍류는 역시 공식적으로 발행된 이리향제줄풍류 악보³⁹⁾에 수록된 해금보를 연주하지 않고 현재 2005년 남상숙에 의해 발견된 장상철⁴⁰⁾의 이리향제줄풍류 악보에 근거하여 연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⁴¹⁾ 그러나 연구자가 확인한 결과 최근에는 다시 1990년에 발행한 이리향제줄풍류 악보를 기반으로 연주하고 있다고 하여⁴²⁾ 해당 악보와 1994년 발매한 공식 앨범을 참고로 하여 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⑪ 대전향제줄풍류는 2016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연구 대상으로는 한밭정악회에서 출판한 『대전향제줄풍

38) 우당 이순조(李順祚, 1933~2001)는 일본 나고야 출생, 본관은 경남 진양으로 젓대에 능한 명인이다. 1959~1964년 전주의 한 풍류방에서 추산 전용선(구례풍류)에게 대금, 단소를 사사받았고 1970~1972년 석암 정경태에게 거문고 풍류를 배웠다. 1996년 구례풍류줄풍류의 대금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39) 『향제(鄕制)줄풍류보(風流譜)』,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1990)

40) 장상철(1933-)은 이리향제줄풍류에서 가야금, 거문고, 대금, 단소, 해금을 배운 승려로 전 바탕을 악보로 기록해두었다.

41) 남상숙, 「호남풍류의 전승사 및 음악적 특징」, 『국립민속국악원논문집』, (민속원, 2006), 제5집, 69쪽.

42) 이리향제줄풍류 이수자 오정무와의 인터뷰 내용 중. (2022. 9. 15).

류』 43)에 수록된 해금 정간보를 사용한다. 대전향제줄풍류는 매사 이경호 선생이 1935년 봄에 기록한 거문고, 단소, 가야금 악보에 따라 연주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영에 의해 정리되어 악보가 출판된 바 있어 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2022년 5월 15일 대전연정국악원에서 연주된 실황 연주 영상을 참고자료로 삼는다.

⑫ 국립국악원에서 출판한 해금 정악보 중 <<영산회상>>에 해당하는 악보는 1969년에 발행된 오선보 『한국음악』 44), 1976년에 발행된 정간보 『국악전집』 45), 2015년에 발행된 정간보인 『해금 정악보』 46)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발행된 『해금 정악보』는 국립국악원에서 공식적으로 정악 전곡을 담아 발간한 최초의 악보이며, 기존 악보의 기호 및 용어를 보완하여 현재의 해금 정악을 기록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 이를 오선보로 역보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국악연구실에서 녹음한 음원을 국악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어 해당 음원을 참고하여 악보에 시김새를 반영한다.

이상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줄풍류 해금 선율의 음원 및 악보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 47)과 같다.

43) 이후영, 『대전풍류줄풍류』 (대전: 한밭정악회, 2005).

44) 『한국음악, 제5집 : 중광지곡, 천년만세』, (서울: 국립국악원, 1969).

45) 『국악전집, 제4집 : 영산회상』, (서울: 국립국악원, 1976).

46) 『해금 정악보』, (서울: 국립국악원, 2015).

47) 본 연구 대상인 악보와 음원 자료의 목록은 악곡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렬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목록

자료 유형	편성/형태	발표 일시	연주단체/연주자	음반, 악보명	악곡
음원 (SP)	합주48)	1929. 1	지용구	Columbia 40006-A	<본령산>
		1930. 5		Columbia 40190-A	<중령산> 1장
				Columbia 40190-B	<중령산> 2장
				Columbia 40191-A	<중령산> 3, 4장
				Columbia 40191-B	<중령산> 4, 5장
		1931. 8		Columbia 40240-A	<세령산>
				Columbia 40240-B	<세령산>
		1932. 1		Columbia 40290-A	<가락>, <상현>
				Columbia 40290-B	<상현>, <하현>
		1932. 11		Columbia 40368-A	<하현>
				Columbia 40368-B	<염불>
		1929. 1		Columbia 40006-B	<타령> I
				Columbia 40128-A	<타령> II
	1930. 9	Columbia 40128-B	<군악>		
		합주49)	1936. 3	김덕진	VictorKJ1077-A
	VictorKJ1077-B				<상현>
	VictorKJ1084-A				<타령>
	VictorKJ1089-B				<군악>
	합주50)	1938. 3	민완식	VictorKJ1329-A	<상현>
VictorKJ1329-B				<하현>	
VictorKJ1222-A				<염불>	
VictorKJ1222-B				<타령>	
음원 (LP)	합주51)	1965	김창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7 내포풍류줄풍류	<세령산>, <가락덜이>, <염불도드리>, <타령>
	독주	1972	김천홍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16 김천홍 해금독주	<상령산>~<군악>

악보	오선보	1939	이덕환	중광지곡 해금보	<상령산>~<군악>
		1959	류대복	해금교측본	<본령산>~<군악>
		1969	지영희	해금교본	<본영산>~<군악>
	정간보	미상	구례향제줄풍류	추산 해금보	<본령산>~<군악>
		1990	이리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본령산>~<군악>
		2011	대전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	<본령산>~<군악>
		2015	국립국악원	해금 정악보	<상령산>~<군악>
		2015	국립국악원	피리 정악보	<상령산>~<군악>
	2015	국립국악원	거문고 정악보	<상령산>~<군악>	

- 48) 본령산(Columbia 40006-A), 타령 I (Columbia 40006-B)은 정악구락부의 음원이며, 연주자는 김상순(거문고), 조이순(가야금), 조동석(단소), 김계선(대금), 지용구(해금), 김경식(장구)이다. 이를 제외한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II, 군악은 조선정악단의 음원이며, 연주자는 조이순(가야금), 조동석·윤종선·김명수 중 1인(단소), 김계선(대금), 고재덕(피리), 지용구(해금), 김경식(장구)이다. 정악구락부에는 가야금, 거문고가 편성되었고 피리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조선정악단은 반대로 피리가 편성되었고 가야금, 거문고는 편성되지 않았다.
- 49) 해당 음원의 악기 편성 및 연주자는 심상건(가야금), 정해시(대금), 김덕진(해금), 한성준(장구)이다.
- 50) 해당 음원의 악기 편성 및 연주자는 김상순(거문고), 거문고(미상), 김계선(대금), 이병우(피리), 김일우(장구)이다.
- 51) 해당 음원의 악기 편성 및 연주자는 오필순(가야금), 이수재(거문고), 김덕규(거문고), 권용세(대금), 이규성(피리), 단소(이경오), 해금(김창규, 김창희), 조동호(장구)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줄풍류 해금 선율의 분류 방법

표기법	분류 방법
◎	거문고·피리와 모두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
●	피리와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
○	거문고와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
⊙	거문고·피리와 동일한 음을 연주하지는 않으나 다른 악기(가야금·대금·양금)와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
울명 기입	다른 악기에서는 연주되지 않는 독자적인 음정을 연주하는 경우

분류 후 거문고·피리와의 선율 일치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피리와의 선율 일치도를 파악할 때, 거문고·피리와 모두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와 피리와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를 합산한 값을 총 정간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산출할 것이다.
- ②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를 파악할 때, 거문고·피리와 모두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와 거문고와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를 합산한 값을 총 정간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산출할 것이다.
- ③ 독자 선율이 나타나는 비율을 산출할 때, 다른 악기에서는 연주되지 않는 독자적인 음정을 연주하는 경우를 합산하여 총 정간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산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금 선율을 거문고, 피리와 비교하여 각 악기와의 선율 일치도 및 독자적 선율을 파악한 후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민간풍류 계통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위의 선율 일치도 산출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리, 거문고 선율 일치도 및 독자적 선율 산출법

① 피리 선율 일치도	
$\frac{\text{거문고·피리와 모두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 + 피리와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text{총 정간수}} \times 100$	X 100
② 거문고 선율 일치도	
$\frac{\text{거문고·피리와 모두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 + 거문고와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text{총 정간수}} \times 100$	X 100
③ 독자적 선율	
$\frac{\text{다른 악기에서는 연주되지 않는 음을 독자적인 음정을 연주하는 경우}}{\text{총 정간수}} \times 100$	X 100

셋째, 앞서 파악한 상이 선율을 중심으로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 등 음악적 요소를 고려하여 각 계통 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리듬꼴은 각 악곡 당 사용된 리듬꼴의 개수를 파악하여 비교할 것이며, 꾸밈음은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의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운궁법은 잉어질의 사용 횟수 및 음정을 중심으로 파악할 것이며, 운지법은 각 악곡에서 사용하는 운지법을 확인하고 운지를 이동하는 구간과 횟수, 개방현 사용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줄풍류에서 추성·퇴성·농현 등의 시김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악보 자료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시김새를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음원 자료에서 확인되는 시김새는 오선보에 표기하였다.

같은 계통 안에서는 연구 대상의 자료 연대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구분하여 전승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본고에서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1929년부터 1939년까지를 제1기, 1959년부터 1972년까지를 제2기, 1990년부터 2015년까지를 제3기로 구분한다. 구분의 기준이 되는 요인으로는 시기 사이에 약 20여 년의 자료 공백기가 있는 점, 1985년에 향제풍류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승 양상에 변화가 생긴 점을 그 근거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전승 양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편의상의 구분이며, 각 시기의 음악 양식을 분류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님을 밝혀둔다.

본 논문의 전개 방식은 먼저 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연주자 및 연주단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문고와 피리 선율과의 비교를 통해 계통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후 각 계통별 음악적 요소 즉,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을 확인하여 시기별로 어떤 전승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모든 자료는 오선보 및 정간보로 역보하여 사용한다. 음원 자료인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김창규, 김천홍의 경우 황종의 실음이 모두 다르나 황종을 E♭로 통일하여 채보하였으며 추성·퇴성·농현 등의 시김새가 연주되는 경우 악보에 기입한다. 악보 자료인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의 경우 오선보로 되어 있으나 황종을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이를 E♭로 통일하여 역보하며, 2분박으로 기보된 경우 악보를 3분박으로 재역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정간보로 기보된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 국립국악원의 악보는 모두 오선보로 역보하며, 시김새의 경우 시가에 맞추어 역보한다. 거문고 악보의 경우 음역에 차이가 있어 오선보의 가독성을 위해 해금에 맞게 한 옥타브 위로 표기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범위와 방법으로서 줄풍류의 해금 선율을 비교하고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 자료의 검토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줄풍류 해금 선율의 음원 및 악보 자료는 총 12종이다. 본 장에서는 각 풍류의 음악적 양식을 비교하기에 앞서 각 연구 대상을 음원 및 악보 자료로 나누고 자료상의 연대순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음원 자료

1) 지용구(池龍九, 1857~1939년)

지용구는 경기 수원 출생으로 정악과 민속악 모두에 능통하였으며, 줄풍류와 관련하여 정악구락부⁵³⁾와 조선정악단⁵⁴⁾의 연주단체에 소속되어 줄풍류를 유성기 음반으로 남겼다.

정악구락부의 연주자로는 김상순(거문고)⁵⁵⁾ · 조이순(현금)⁵⁶⁾ · 조동석

53) 정악구락부는 1922년 7월에 조직된 단체로 조선정악전습소 출신의 홍공섭과 한귀호 등이 주도하여 설립하였다. 조선정악전습소 출신의 음악가들이 '구락부(俱樂部)'를 이루어 정악을 연주하던 모임으로, 1928~1934년 콜럼비아 레코드사에 여러 장의 줄풍류 및 민요를 취입한 기록이 있다.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매주 수요일 명인·명창의 연주회를 개최하는 '수요회'를 설립한 바 있는데, 정악구락부의 일부 회원들은 이 수요회와 활동이 중복되어 혼동될 수 있으나 두 집단은 활동 성향에서 차이가 있다. 정악구락부는 음악계로의 진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교육적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조선음악전습소와는 별개의 음악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민속악과 양악집단이 주를 이루던 1920년대에 정악을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전개하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해 유지되던 정악계 음악인들에게 연주 활동의 기반에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발족 이후로 세간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으며 외부 활동에 대한 문헌적 기록 또한 전해지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풍류방 성격의 모임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한국민족음악대백과』 참조.)

54) 조선정악단은 일본에서 음반을 취입하고 연주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사용했던 단체명으로 추측된다. 그 근거로는 콜럼비아에서 1930-32년에 발매한 음반 외에 조선정악단이라는 연주단체명으로 연주를 개최하거나 방송에 출연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55) 김상순(1881~1949)은 서울 태생으로 1909년 조양구락부가 설립될 당시 교사진 중 한 명이었으며, 1911년에 설립된 조선정악전습소의 1회 졸업생이다. 1920년대 경성방송국에

(단소)⁵⁷⁾ · 김계선(대금)⁵⁸⁾ · 김경식(장고)⁵⁹⁾ · 지용구(해금) 등이다.⁶⁰⁾

정악구락부 소속으로 남긴 <본영산>이란 악곡명의 2분 53초 음원은 현행 국립국악원의 <상령산> 제1장부터 제2장 둘째 각에 해당하는 총 5각의 선율이 녹음되어 있다. <잔도드리>는 SP음반의 용량 상의 문제로 상·하로 나누어 녹음되었으나 위의 음반에서는 이를 합쳐 총 5분 53초의 길이로 합쳐서 복각되었다. <타령>의 경우 11분 18초로 복각되어 있는데, 이는 확인 결과 복각 앨범에서의 오류이며 다음 트랙의 조선정악단의 연주인 <중령산> 연주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타령>은 2분 51초로 확인된다.

조선정악단의 연주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음반이 녹음되었을 시기로 추측되는 1930년 5월경, 조선정악단의 일본 순회 연주에 참여한 사람과 같은 해 9월 발매된 음반의 연주자가 동일했을 것으로 보는 의견⁶¹⁾이 있

출현하여 영산회상, 여민락, 평조회상, 남창가곡 등을 연주하였으며 창부타령, 춘향가를 포함한 수많은 민요 음반을 남겼다. (『한국민족음악대백과』 참조.)

56) 조이순(연대 미상)은 한말 거문고 삼절(三絶)의 한 사람인 김경남의 가락을 이어받아 우람하고 여운을 길게 남기는 거문고 연주자로, 조양구락부 및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스승인 김경남과 함께 거문고 교사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한국민족음악대백과』 참조.)

57) 조동석(연대 미상)은 단소 연주자로 1912년 조선정악전습소의 단소 선생으로 부임하여 192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가사, 남창가곡, 영산회상, 여민락, 평조회상, 방아타령, 경성좌창 등의 음반을 남겼다. (『한국민족음악대백과』 참조.)

58) 김계선(1891~1943)은 대금 연주자로 김기선(金基善)에서 개명하였으며 호는 죽농(竹濃)이었으며 본관은 경주이다. 1906년 주전원내취, 1908년 장악원내취, 1911년 이왕직 세악내취, 1913년 이왕직 아악수로 봉직하다가 1939년 사퇴하였다. 당적, 생황, 단소는 물론 양악기인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색소폰에 이르기까지 피리에 정통했다고 전해진다. (『한국민족음악대백과』 참조.)

59) 김경식(1895~1939)은 김수천, 김일우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던 장구 명인이다. 본관은 의성이며 서울 출생으로 이왕직의 아악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연례악, 가악, 정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악 분야에 정통하였으며 하규일이 주재하는 조선권번의 전속악인이기도 하였다. (『한국민족음악대백과』 참조.)

60) 이 음반 이후로 정악구락부에서 지용구의 활동은 나타나지 않는데,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목록을 살펴보면 1930년 1월 26일과 같은 해 2월 20일에 확인되는 정악구락부 연주자는 김상준(거문고) · 조이순(현금) · 조동석(단소)와 고병찬(해금)이며 1930년 2월 28일의 연주자는 고재덕이고, 1931년 이후에는 민완식이 해금 연주자로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다. 고병찬이라는 해금 연주자는 위의 2회의 방송기록을 제외하면 활동 기록 및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아명을 자주 사용하던 당시 시대상황 및 바로 1주일 뒤부터 1931년까지 고재덕이 총 22회 해금 연주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고병찬과 고재덕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해본다.

61) 임혜정, 「조선정악단에 관한 일고찰 -일본 연주회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회』(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12), 제49호.

다. 따라서 윤종선⁶²⁾·이승환⁶³⁾, 심상건⁶⁴⁾, 장고는 방성조, 거문고는 윤기선이 참여하였으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2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과 함께 연주한 활동 내역을 토대로 지용구, 이완, 이명호⁶⁵⁾ 등을 조선정악단의 구성원으로 추론하였다. 이 중 지용구는 음반 녹음 시기로 추정되는 193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국내 활동 기록이 없었고, 일본에서 활동하던 이승환과 함께 연주한 기록을 토대로 조선정악단의 연주자를 지용구라고 추측하였다.

조선정악단 소속으로 남긴 음원은 총 10곡으로,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계면가락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가 있다.

지용구가 남긴 줄풍류 음원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62) 윤종선(연대 미상)은 일제강점기 그가 취입한 단소독주·단소병주는 일본 콜럼비아음반에 전한다. 1935·1936년 사설시조·시조·평시조·여창지름 방송을 위해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하였다. 1931년 10월 28일 여성회보사(女性會報社)와 중앙기보사(中央奇報社) 주최 조선정악대회(朝鮮正樂大會) 때 최덕인·장성관과 함께 시조(詩調) 공연에 출연하였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63) 이승환(연대 미상)은 1930년 9월 15일에 팔도명창대회 때 김기풍·방용현·심상건 등과 함께 "풍류"(風流) 공연에 출연한 바 있으며, 1934~1941년 단소·거문고로 김경실·김목운·최수성과 함께 "굿거리"·"방아타령"·"사설시조"·"산염불"(山念佛)·"영산회상"(靈山會相) 등 여러 갈래의 음악을 방송하기 위해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하였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64) 심상건(1889~1965)은 충청남도 서산 출신으로 가야금 산조의 명인이다. 가야금 이외에 병창으로도 명성을 떨쳤고, 거문고와 거문고 풍류 및 해금도 능하였다. 흔히 아버지 심창래(沈昌來)에게 음악을 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65) 이명호(연대 미상)는 1933년 8월 12일 조선악협회(朝鮮樂協會) 주최 「조선악 감상 밤」 때 이동백·최수성·강태홍 등과 함께 출연했다. 1933년 8월 20일 조선음악학원(朝鮮音樂學院) 설립을 위한 「전통악과 무용의 밤」 이연식·이성환·김용승 등과 함께 출연한 바 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표 4> 지용구의 줄풍류 음원 목록

연주자	음반명	악곡	음원 시간	비고
지용구	Columbia 40006-A	<본령산>	2:53	정악구락부 (<상령산> 1장~ 2장 둘째각)
	Columbia 40190-A	<중령산> 1장	2:45	조선정악단
	Columbia 40190-B	<중령산> 2장	2:40	조선정악단
	Columbia 40191-A	<중령산> 3, 4장	3장 1:09 4장 0:46	조선정악단 (<중령산> 3장~ 4장 두 번째 각 1대강)
	Columbia 40191-B	<중령산> 4, 5장	4장 1:06 (총 1:52) 5장 2:04	조선정악단 (<중령산> 4장 두 번째 각 2대강~ 5장)
	Columbia 40240-A	<세령산>	2:53	조선정악단
	Columbia 40240-B	<세령산>, <가락>	3:18	조선정악단
	Columbia 40290-A	<가락>, <상현>	3:18	조선정악단
	Columbia 40290-B	<상현>, <하현>	2:45	조선정악단
	Columbia 40368-A	<하현>, <염불>	2:36	조선정악단
	Columbia 40368-B	<염불>	2:32	조선정악단
	Columbia 40006-B	<타령> I	2:51	정악구락부
	Columbia 40128-A	<타령> II	3:17	조선정악단
Columbia 40128-B	<군악>	2:56	조선정악단	

2) 김덕진(金德鎭, 연대 미상)

김덕진(金德鎭)은 김덕준(金德俊)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였던 해금 연주자로, 경기 수원·여주 지방에서 활동하였다고 전해지나 생몰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지용구보다는 연배가 낮다고 알려져 있으며⁶⁶⁾ 문화재 연구소에서 경기시나위 명인을 연구할 1967년 당시에는 생존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에 별세한 것으로 보인다.⁶⁷⁾ 민속학자 이자균의 증언에 따르면 김덕진은 경기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말투를 사용하였으며 무가 반주를 하는 등 국악을 가업으로 하는 집안의 출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⁶⁸⁾

빅타조선악단의 연주자로는 심상건(가야금)⁶⁹⁾ · 정해시(통소)⁷⁰⁾ · 김덕진(해금) · 한성준(장구)⁷¹⁾이 있다. 위의 4인은 빅타 레코드의 대표적인 연주자로 소개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악기 구성을 확대 또는 축소 편성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⁷²⁾ 김덕진과 심상건은 한성준과 함께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창립할 때 발기인 중 한 명이었으며,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빅타조선악단은 레코드사에 전속 소속된

66) 구수정, 「봉장취 음악에 관한 고찰」-김덕진의 해금가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7쪽.

67) 이진원, “경기시나위와 남도시나위”, CD해설집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2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68) 이귀영, 「김덕진의 산조합주 분석 연구」 - 김덕진의 해금가락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6쪽.

69) 각주 42)와 동일.

70) 정해시(연대 미상)는 통소산조의 창시자로, 일제강점기 그가 취입한 "봉장취"(鳳長醉)·"새타령"은 일본 콜럼비아음반에 전하고, 김덕진(해금)·김매홍(탐부린)·김덕준(해금)·이소향(가야금) 등과 함께 취입한 "가난타령"·"고당상"(高堂上)·"고산염불"(高山念佛)을 포함한 10여 곡의 노래는 일본 빅타음반에 전한다. 오태석·정남희·조앵무 등과 함께 취입한 "까투리타령"·"남도잡가(南道雜歌)" "농부가"·"동계타령"·"매화타령"(梅花打令)·"문경새재"·"성주푸리"는 폴리돌음반에 전한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71) 한성준(1874~1942)은 명고수이자 민속무용가이다. 일찍이 8살에 복채를 잡은 뒤 17살 무렵에는 명고수로 인정받아 오랫동안 여러 명창과 함께했다. 또한, 그는 무용에도 남다른 재능을 가져 전통 민속춤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우리나라 신무용의 선구자가 되었다. 당시 놀이마당에서나 행해지던 민속춤을 무대예술로 승화시켰으며, 1930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해 전통무용의 대중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공헌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72) 김희수, “일제강점기 음반사의 전속악단 연구 -전통음악 연주단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9), 44쪽.

악단으로 일회성으로 연주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하나의 연주단체로 볼 수 있다.

김덕진의 유성기 음반 취입 이력을 살펴보면, 정악 관련한 음반 녹음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민속악 성악 관련 17장, 민속악 기악 관련 10장에 앨범을 발매하였다. 그러나 경성방송국에 151회의 방송 출연 경력 중 정악 성악 반주 5회, 정악 기악 연주 75회, 민속악 성악 반주 9회, 민속악 기악 반주로 71회 출연하여 정악과 민속악에 모두 능통한 연주자임을 알 수 있다. 지용구와 김덕진이 함께 섭외되었을 경우 지용구가 장구를 잡았다. 지용구가 별세한 이후, 지용구가 함께 연주하던 이연식(현금), 이승환(거문고), 최수성(단소), 조재필(필률)의 구성원에 해금 연주자로 합류하여 활동하였다.

김덕진이 남긴 줄풍류 음원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김덕진의 줄풍류 음원 목록

연주자	음반명	악곡	음원 시간	비고
김덕진	VictorKJ1077-A	<세령산>	3:02	심상건(가야금) 정해시(통소) 김덕진(해금) 한성준(장구)
	VictorKJ1077-B	<상현>	2:29	
	VictorKJ1084-A	<타령>	3:02	
	VictorKJ1089-B	<군악>	2:41	

3) 민완식(閔完植, 연대 미상)

민완식(閔完植)은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나 해금, 양금, 거문고, 장구를 잘 다루던 명인으로, 경성방송국에서 줄풍류를 연주한 횟수가 79회에 달하여 정악에 능통한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이 중 66회는 장구 반주자 없

이 연주하였으며, 2인·4인·5인·6인·7인 등 다양한 편성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931~1943년 임성철⁷³⁾, 한정자⁷⁴⁾, 광명월⁷⁵⁾, 김일순⁷⁶⁾과 함께 경성정악단(京城正樂團)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노들강변"을 포함한 수십 곡의 민요와 세령산(細靈山)·세악(細樂)·속곡(俗1曲) 등의 곡을 방송하기 위해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하였다. 고재덕⁷⁷⁾·김계선⁷⁸⁾ 등과 함께 취입한 신민요는 일본 콜럼비아 음반에 전하는 것을 보아 정악뿐만 아니라 민속악에도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 보인다.

민완식은 조선정악전습소⁷⁹⁾가 운영을 중단하던 1943년까지 마지막으로 남아 활동한 인물이다. 조선정악전습소는 1911년에 발족된 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음악교육 기관인 조양구락부의 후신이며, 조선정악전습소는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악서와 악보 편찬 등의 활동을 하였다. 편집위원으로는 전습소의 소감인 홍금섭과 거문고 함재운, 가야금 명완벽, 가곡 하규일이 참가하였으며 서양악 교사인 김인식이 참여하여 영산회상과 여민락을 오선보로 채보하였다. 이는 정악을 오선보로 옮긴 최초의 시도로,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조선악과 서양악을 함께 가르쳤기 때문에

73) 임성철은 1934년 경성정악단의 피리잡이로, 경성방송국에 세령산, 염불, 타령, 하현을 연주한 기록이 있다.

74) 한정자(한정현)은 서울 출신의 경서도 명창으로 김광석에게 시조·가사·경서도창을, 박춘재에게 노래를, 박인섭에게 서도소리를 배웠다. 김영근, 민완식, 이춘선과 함께 경기가요와 조선민요 방송을 위해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75) 광명월은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민완식, 고재덕, 광산월과 함께 가야금병창 및 경기가요·경기속요 및 밀양아리랑을 포함한 40여 곡을 방송하였다. 구재회·이병우와 함께 빅타선양합주단 반주로 취입한 경산염불, 구조 청춘가 등은 빅타음반에 전한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76) 김일순은 일제강점기에 개성난봉가를 포함한 20여 곡의 민요를 취입한 성악가이다. 그는 서울소리와 서도소리를 일촉음반에서 취입하였다. 또한 1933~1945년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김본영근, 김봉산 등과 함께 계락, 건곤가 등을 취입하기도 하였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77) 고재덕(1889~1950)은 피리와 대금의 명인이다. 192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대금으로 경성좌창과 줄풍류를 취입했고, 피리로 관산용마와 시조 등을 콜럼비아음반에 취입한 바 있다. 또한 해금과 거문고 또한 잘 다루었다고 전해진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78) 각주 36)과 동일.

79) 조선정악전습소의 한 학년의 학생 수는 50명으로, 조선악과 서양악의 두 개의 학과로 구분되었으며 총 3학기 제도로 운영되었다. 조선정악전습소의 교사진은 가곡의 하순일·이영환, 가야금의 명완벽·함화진·한규우, 거문고에 조이순, 김경남, 거문고에 김상순·백용진, 생황에 한진구, 단소에 조동석·이춘우 등이 있다. 서양음악을 전공한 김인식도 교수진에 포함되어 음악이론 및 창가곡조, 풍금 등을 가르쳤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가능한 작업으로 보인다. 1914년, 김인식 편저로 영산회상 거문고보가 출판되었으며 1928년 3월에 조이순이 교열한 재판이 나타난다.

민완식이 남긴 줄풍류 관련 음원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민완식의 줄풍류 음원 목록

연주자	음반명	악곡	음원 시간	비고
민완식	VictorKJ1329-A	<상현>	3:00	가야금, 거문고,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장구 편성. 민완식을 제외한 연주자 미상 ⁸⁰⁾
	VictorKJ1329-B	<하현>	2:36	
	VictorKJ1222-A	<염불>	3:01	
	VictorKJ1222-B	<타령>	3:03	

4) 김창규(1898~1973년)

김창규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인적사항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본 음반에 줄풍류와 더불어 삼현육각과 살풀이, 시나위와 해금산조 자진모리를 연주한 것으로 보아 전문적인 음악인으로 추측된다. 내포향제줄풍류⁸¹⁾ 음반을 취입하였으나 녹음을 위해 잠시 일회성으로 참여한 전문연주자라고 전해진다. 류대복이 9세 때 김창규의 집에 들어가 가야금, 거문고, 장

80) 조선정악전습소라는 단체명으로 연주한 기록만 나타나 있어 다른 연주자는 확인이 어렵다. 조선정악전습소에서 활동했던 해금 연주자는 지용구, 민완식이다. 그러나 지용구가 연주한 조선정악단의 선율과 조선정악전습소의 선율은 한 사람이 연주했다고 보기에는 가락의 차이가 크므로 조선정악전습소의 연주는 지용구가 아닌 민완식이 연주했을 가능성이 더 높음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승희, 「지영희 해금 줄풍류 전승의 음악적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7, 22쪽.

81) “내포향제줄풍류는 충청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줄풍류로, 내포는 이중환(1690~1752)의 『택리지』(1751)에 따르면 가야산 앞뒤의 10고을인 결성, 해미, 태안, 서산, 면천, 당진, 홍주, 덕산, 예산, 신창 등을 지칭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금강 유역을 ‘내포’라고 지칭하면서 내포의 개념이 왜곡되어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충청남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내포’향제줄풍류는 사실 대전풍류를 지칭하고 있다.”, 이후영, 『한발정악회』, (대전: 한발정악회), 2005, 10쪽.

고 등 각종 악기를 배웠다고 알려진 인물로⁸²⁾, 김창희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창규는 사랑방에 율방을 차리고 율회도 개최하였다고 하며,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소와 거문고를 잘했다고 전해진다.

김창규가 남긴 줄풍류 관련 유성기 음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김창규의 줄풍류 음원 목록

연주자	음반명	악곡	음원 시간	비고
김창규	내포향제줄풍류	<세령산>	3:18	이수재(거문고) ⁸³⁾ 김덕규(거문고) ⁸⁴⁾
		<가락덜이>	2:12	오필순(가야금) ⁸⁵⁾ 김창규(해금) ⁸⁶⁾
		<염불도드리>	4:13	권용세(대금) ⁸⁷⁾ 이규성(피리) ⁸⁸⁾
		<타령>	2:44	이경오(단소) ⁸⁹⁾ 조동호(장구) ⁹⁰⁾

82) 장영철, 『조선음악명인전 2』,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 2000), 273쪽.

83) 이수재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으나, 가야금 연주자 오필순의 손녀라 알려져 있다. 아마 오필순에게서 거문고를 배운 것으로 보인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7 내포향제줄풍류』,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8쪽.

84) 김덕규는 충청남도 공주 사람으로 대전에서 살며 의사로서 병원을 하였는데 윤기선이라는 이에게 거문고를 배워 웬만큼 탔다고 한다. 그는 68세로 작고하였다. 윤기선은 충청남도 청양 사람으로 예산에서 살았는데 윤종선(권용세의 스승)의 형이라 한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윤기선은 거문고, 거문고를 잘했다 한다. 각주 83)과 동일.

85) 오필순은 그가 일명 오옥순이라는 것만 알 뿐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이 자료에서 그가 가야금으로 내포향제줄풍류를 연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리로 무용 삼현육각과 살풀이 시나위를 연주한 것으로 봐서 전문적인 음악인으로 보인다. 권용세 씨는 그녀가 경기도에서 불러온 전문 국악인일 것으로 말하고 있다. 각주 83)의 7쪽.

86) 김창규는 김창희라고도 불리는 해금연주자로, 권용세는 경기도에서 불러온 전문 음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그가 해금으로 삼현육각과 살풀이 시나위와 해금산조 자진모리를 연주한 것으로 봐서 전문적인 음악인인 것 같다. 각주 83)과 동일.

87) 권용세의 호는 서원(瑞園)으로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정생리에서 태어나서 해방되기까지 공직에 있다가 해방 후 대전에서 사업을 하였다. 권용세는 35세 때 대전에서 박흥태에게 가야금 병창을 배웠고, 방호준에게 가야금 풍류를, 김명진에게 단소 풍류를 배웠다. 각주 83)의 6쪽.

88) 이규성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용두리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다가 1·4후퇴 때부터 대전 대사동에서 살고 있다. 호는 월정(月廷)으로 이기석에게 단소 풍류를 배웠다. 이기

5) 김천흥(金千興, 1909~2007년)

김천흥은 서울 출신으로 1909년에 출생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정동보통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김천흥이 14세 되던 해에 부친이 당시 아악부 아악수장직을 지내던 고익삼과 친교가 있어 아악부 2기생으로 입소하였다. 1923년 순종 황제 오순 탄신연에 무동으로 참가하였고, 해금을 전공, 거문고를 부전공으로 1926년에 졸업하였다. 1940년까지 이왕직아악부에 근무하며 아악수, 아악수장을 역임했다.

1940년부터 민완식⁹¹⁾, 전용선⁹²⁾ 등 민간음악인들과 함께 연주 활동을 한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이화여전의 음악과 강사, 조선권번의 사무원으로 활동했다. 광복 후 대한국악원 이사 겸 무용부장을 맡았고, 1951년 국립국악원 예술사가 된 후 2007년까지 연주원, 자문위원, 원로사범, 명예종신단원으로 활동했다. 1968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해금과 일무), 1971년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사단법인 대악회(大樂會) 이사장, 정농악회(正農樂會) 회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무형문화재예술단 단장, 거문고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기악, 무용 분야에서 궁중과 민속을 넘나들며 활동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김천흥이 남긴 줄풍류 관련 음원은 1972년 9월 11일 KBS 연주실에서 취입된 음반으로, 전곡 해금 독주와 장구 반주로 이루어져 있다. 장구 반

석은 안성 출신으로 해금, 거문고, 거문고 풍류를 잘 했으며 안성 율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각주 83)의 7쪽.

89) 이경오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은 알기 어려우나 그가 대금으로 무용 반주음악 삼현육각, 살풀이 시나위, 대금산조 진양과 중모리를 연주한 것으로 보아 대금 전문음악인으로 보인다. 각주 83)과 동일.

90) 조동호는 이경오, 김창규와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을 알기 어려우나 전문음악인으로 보인다. 각주 83)과 동일.

91) 김천흥은 1940년 6월 19일, 이승환(현금), 김상순(거문고), 고영원(단소), 김영근(대금), 민완식(장구)와 함께 조선정악전습소의 구성원으로 염불, 타령, 군악을 해금으로 연주한 기록이 있다. (동아일보 1940년 6월 19일 기사)

92) <신비의 가락 추산 전용선 단소>. (서울음반, 1996)에는 본령산, 중령산, 잔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세현입,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가 수록되어 있다. 연주자는 전용선(단소), 김천흥(해금), 임석윤(거문고)이다.

주자는 미상이다. 해당 음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김천홍의 줄풍류 음원 목록

연주자	음반명	악곡	음원 시간	비고
김천홍	김천홍 해금 독주 1 《현악영산회상》	<상영산>	11:26	해금 독주
		<중영산>	10:35	
		<세영산>	3:31	
		<가락덜이>	2:18	
		<상현도드리>	4:20	
		<하현도드리>	2:57	
		<염불도드리>	4:44	
		<타령>	3:22	
		<군악>	4:07	

2. 악보 자료

1) 이덕환(1918~1955)

이덕환(李德煥)은 8.15 광복 후 이왕직아악부에서 교육과 강좌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교양부원으로 활동하였다. 아악부양성소의 4기 졸업생으로 해금과 단소, 아쟁도 능통하게 다루어 1936~1944년 단소 · 아쟁 · 해금 · 노래로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바 있다.

1936년 6월 4일 이습회(肄習會)⁹³⁾의 제44회 공연 때 송구여지곡 및 장춘불로지곡을 연주한 이후부터 1944년 1월 13일 제135회까지 공연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였다.

1947년 전속조선음악회(專屬朝鮮音樂會) 정악 분야의 단원으로 문교부 편수국의 장사훈 및 서울중앙방송국의 이혜구 · 이계원 · 이덕근 · 송영호의 도움으로 전속조선음악회(專屬朝鮮音樂會)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단체는 1947년 12월 장사훈의 주도로 창단되었으며 서울중앙방송국에 소속되어 한 달에 90회 정도 방송활동을 전개했고,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회원은 당시의 회원은 이덕환을 비롯하여 성경린(成慶麟)⁹⁴⁾·김준현(金俊鉉)⁹⁵⁾·김성진(金星振)⁹⁶⁾·김보남(金寶男

93) 함화진은 1933년 10월부터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의 제6대 아악사장(雅樂師長)을 지낸 인물로, 아악부원양성소(雅樂部員養成所) 출신 아악수(雅樂手)의 연주기량을 향상시키고 연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습회를 조직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매일 목요일 밤에 공개연주회를 개최하였다. 합주보다도 독주력(獨奏力)의 함양에 힘을 쏟은 이습회의 연주곡목과 일자를 아악수장(雅樂手長)이 주관했다. 연주회 전에 반드시 전날 연주자의 연주평을 발표했고, 아악수장의 평가를 종합해 함화진 아악사장에게 보고했으며, 1년에 한번 대규모의 이습회를 열어 우수한 아악수에게 포상했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참조.).

94) 성경린(1911~2008)은 서울 출신으로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를 수료하고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수와 아악사를 거쳐 국립국악원 악사장,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다. 거문고 연주자와 교육자, 이론가로서 국악 발전에 계승에 공헌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95) 김준현(1918~1961)은 충남 연기 출신으로 국악사장 종남(宗南)의 손자이며, 아악사장 영제(甯濟)는 그의 외숙이다. 1931년 14세에 아악부원양성소 4기생에 입소하여 피리를 전공하였다. 최순영, 김계선에게 사사받았고 정재국이 그의 뒤를 잇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96) 김성진(1916~1996)은 서울 출신으로 1964년 중영무형문화재 중요제례악으로, 1968년 대금 정악으로 각각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인물이다. 그의 스승인 김계선 명인이 작고

)97)·김영운(金永胤)⁹⁸)·봉해룡(奉海龍)⁹⁹)·김태섭(金泰燮)¹⁰⁰)·김광식(金光植)¹⁰¹)·성금연(成錦鸞)¹⁰²)·지영희(池瑛熙)·김광채(金光彩)¹⁰³)·이충선(李忠善)¹⁰⁴)이었다.¹⁰⁵)

1950년 6·25전쟁 때 국군장병을 위문하기 위하여 창설된 군예대(軍藝隊) 국악소대 소속으로 활동했고, 1951년 4월 9일 부산에서 이주환이 국립국악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예술사(藝術士)로 임명되었다. 국립국악원 장악과 국악사(1951~1955)를 역임한 바 있으며, 1952년에는 관현합주곡 "찬해쇄"를 작곡하였다. 그가 남긴 줄풍류에 관련된 자료로는

한 이후 전속조선음악회에 합류하였고 이후 국립국악원 장악과장, 원로사범 등을 지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97) 김보남(1911~1964)은 민속무용가로 아악수, 아악수장, 아악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이왕직아악부의 제3기생으로 입소하여 피리를 전공하였으나 따로 정재를 이수받고, 한성준으로부터 민속무용을 배웠다. 광복 후 아악부 재건에 힘썼으며 여러 중고등학교와 대학, 국립국악원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쳤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98) 김영운(1911~1972)은 서울 출신으로 1926년 이왕직아악부 제3기생으로 정악과 가야금을 전공하였다. 1931년 졸업과 함께 아악수보로 임명되었으며 국립국악원 개원 초기부터 가야금 주자 겸 국악사로 활약하였고 국악사 양성소의 가야금교사를 역임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99) 봉해룡(1911~1995)은 서울 출신으로 대금, 당적, 단소연주자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제39호 처용무 예능보유자이다. 유의석에게 사사 받았으며, 아악부원양성소 제3기 졸업생이다. 1950년 6.25전쟁 때 국군장병 위문을 위한 군예대 소속으로 활동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100) 김태섭(1922~1993)은 서울 출신이며 호는 화정(和靜)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기예능보유자로 이왕직아악부 제5기생으로 궁중음악과 무용을 전공하였다. 전공은 피리이고 김준현에게 사사받았으며 장구, 생황, 태평소 등에도 능통한 악사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101) 김광식(1911~1972)은 보통학교 재학시절 양경원에게 피리를, 방용현과 박종기에게 대금을 배웠다. 이후 조선창극단에 입단하여 활동했고, 특히 민속악 반주에 능통하였다. 한 국민속예술학원을 운영하고 1965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102) 성금연(1923~1986)은 전라 광주 출신으로 1935년 조명수에게 가야금풍류와 판소리를, 1936년 안기옥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야금 산조를 개척하여 문하에 지성자, 이재숙, 황병주 등 수많은 명인을 배출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103) 김광채는 첫대의 명인 김광식의 형으로 1950년 군예대 소속으로 군예대 대장 성경린, 대원 김보남, 김친흥, 봉해룡과 함께 활동하였다. 심상건, 이동백 등과 함께 꼭씨부인 별세“등 수많은 판소리 눈대목을 방송한 바 있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참조.)

104) 이충선(1901~1990)은 경기 광주 출생으로 고재덕과 이재규에게 사사받았다. 빅타레코드사의 전속악사로 활동하였고 피리를 비롯하여 대금, 해금, 단소, 장구를 모두 능숙하게 연주하였다. 피리산조와 대금산조를 창시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105) 조선음악회 [朝鮮音樂會]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송방송)

중광지곡 오선보가 있다. 이왕직아악부의 구성원들은 일제 강점기 현실적인 기관운영이 어려워 교육에 시간적 여유를 쏟을 여력이 없었다. 게다가 아악생들은 여민락·영산회상·평조회상·보허사·취타·가곡 등의 길고 느린 곡을 대체로 악보 없이 구음을 통한 구전심수로 배웠으며, 다음날까지 암기해야 더 배울 수 있었다.¹⁰⁶⁾ 악보를 사용하여 교육하면 그간 체득하기 위해 음악 이습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왕직아악부의 구성원들은 1928년부터 악보 제작 사업¹⁰⁷⁾을 추진하였다.

이왕직아악부 오선악보 제작에 백우용¹⁰⁸⁾이 주도하였으나 1930년 타계하여 악보 편찬 진행에 문제가 생기자, 이종태와 일본의 이가라시, 이시가와 등이 참여하여 1935년 1차적으로 악보를 발간하였다.¹⁰⁹⁾ 그러나 이를 확인한 아악부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며 직접 악보 제작에 참여하여 1939년에 완성본이 나왔다. 그러나 오선보 제작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져 널리 쓰이진 못하였다. ¹¹⁰⁾ 다음 <표 9>는 이왕직아악부 오선악보 채보를 담당한 아악부원을 정리한 것이다.¹¹¹⁾

106) 위의 책, 545쪽.

107) 조선일보 1930. 3. 18 조선 아악 음보(音譜)를 작성

“조선 고대로부터 전하여 내려온 아악은 그 수효가 백여 가지에 달하나 정확한 음보가 없어서 그 곡조를 다만 선생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뿐이므로 우아한 맛이 해마다 없어져 유감으로 생각한 이왕직에서는 이 아악의 특수한 아미(雅味)를 후세까지 전하기 위하여 정확한 음보를 만들려고 이왕직 아악부장 백우용(白禹鎬) 씨에게 부탁하여 음보를 만드는 중인데 그 수효가 육일무(六佾舞), 태평악(太平樂) 외에 백여 종이 넘으므로 수년 후에나 완성될 것 같으며 이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삼천여년 전부터 전하여 오는 조선 독특한 아악은 세계 유일의 음악이 될 것이다.” 김성혜, 『朝鮮日報』의 國樂記事 (I),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1994), 제13집, 257쪽.

108) 백우용(1883~1930)은 1904년 대한제국 시위연대 군악중대의 군악장으로 활동하였고, 제실악대의 음악사장이었다가 1911년 개편된 이왕직 양악대장, 1919년 이왕직 양악대 해체와 함께 민간 단체인 경성악대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한반도에 양악을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던 독일인 에케르트(Eckert)의 제자이기도 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109) “애석하게도 백씨는 몇 곡을 옮길 사이도 없이 2년 후인 30년 6월 그만 타계하고 말았다. 그 뒤 일인 이가라시(五十嵐 梯三郎), 이시가와(石川義一), 그리고 이종태(李鍾泰) 씨 등이 관여하였고, 다시 아악부 소장들의 노력과 20년의 장구한 세월로써 아악곡 전곡과 가곡, 가사, 시조와 정가까지를 완전히 번역하여 놓았다.” 성경린, 「국악의 과거와 장래」, 『아악』, 경원각, 1975, 132-133쪽.

110) 『朝鮮日報』, 1938년 1월 4일 기사 참조. “음감의 유현경(幽玄境)! 심수 이외의 전수 방법은 실패 “양악보 편곡”의 성적은 의문”.

111) 「이왕직아악부 오선악보 해제」(서울: 국립국악원, 2014), 6쪽.

<표 9> 이왕직아악부 오선악보 채보 담당 아악부원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성경린	아악곡 속도 측정	장사훈	가곡, 가사, 시조
이창규	가야금	김기수	대금, 당적, 단소
이주환	거문고	주성배	총보 청서
김종희	총보 청서	김철영	거문고, 비파
이재천	피리	이덕환	해금

이덕환의 줄풍류 악보 자료에 나타난 분장구조를 표시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이덕환의 줄풍류 분장 구조

연주자	악보명	악곡	분장구조	
이덕환	「重光之曲 奚琴譜」 (중광지곡 해금보)	<상령산>	초장	3각
			2장	4각
			3장	4각
			4장	6각
		<중령산>	초장	4각
			2장	4각
			3장	3각
			4장	3각
		<세령산>	5장	4각
			초장	4각
			2장	3각
			3장	3각
		<가락덜이>	4장	4각
			초장	4각
			2장	3각
			3장	3각
		<상현도드리>	초장	9각
			2장	11각
			3장	6각
			4장	9각
		<하현도드리>	초장	16각
			2장	6각
			3장	7각
		<염불도드리>	초장	8각
2장	13각			
3장	6각			
4장	5각			

		<타령>	초장	9각
			2장	22각
			3장	7각
		<군악>	초장	10각
			2장	9각
			3장	22각
			4장	7각

2) 류대복(流大福, 1907~1964년)

류대복은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과남리 출신으로 피리의 명수로 알려진 큰아버지와 해금의 명수로 알려진 아버지의 밑에서 일찍이 음악을 접하였다. 큰아버지의 실명은 알 수 없으나 ‘류피리’라는 별명으로 알려졌으며 1920년대 초엽까지 활동하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해금과 노래를 잘했는데, 류대복은 이러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나 6살 때 양금으로 영산회상을 연주하였다. 그러나 네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인근 마을에 사는 김창규의 집에 들어가 집안일을 하며 가야금, 거문고, 장구를 비롯한 여러 악기를 배웠다.

이후 류대복은 15살이 되던 1923년에 한성준을 찾아가 장구와 한국무용을 습득하였고, 18세인 1925년부터 한성준이 조직하고 송만갑, 김창록, 심상건 등이 속한 단체에서 함께 공연 활동을 하며 전문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였다.¹¹²⁾ 또한 일본 도쿄에 가서 배구자 무용단에서 기악 연주 및 무용수로도 출연하여 학춤과 소고춤을 춘 기록이 있다.

류대복은 1930년, 활동의 주 근거지를 평양으로 옮겼다. 평양 경삼골에 위치한 민간음악교육기관인 가무양성소의 교원으로 활동하며 가야금, 거문고, 장고, 무용 과목을 맡아 가르쳤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까지는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였는데, ¹¹³⁾ 류대복은 조선성악연구회가 주최

112) 장영철, 『조선음악명인전 2』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 2000), 274쪽.

113)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Ⅱ)-1920~1940년-”, (『한국음악사학회』 13집, 1999), 207쪽.

“1936. 9. 25 창극사상의 신기축 가극 “춘향전” 대공연 보라 적재 적역의 명창들!

한 창극 춘향전에 조상선, 강태홍, 정남희, 심상건, 송만갑, 정정렬, 박록주 등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평양에서 교원으로서 또 연주자, 작곡가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류대복은 1940년, 일본 군가만 부를 수 있는 탄압적인 분위기가 되고 일체의 징용 영장이 오자 이를 피하여 중국으로 피신하였다. 2년간 떠돌다 1942년 말 기림리(모란봉지구)에 돌아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다 광복이 되고 나서야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류대복은 평양에서 안기옥, 최옥삼, 윤석봉, 정남희와 함께 활동하였으며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악장과 국립고전예술극장의 작곡가를 맡게 된다. 1945~1950년 사이에는 해금산조를 비롯한 창극 <홍보전>, <배뱅이굿>을 남겼으며 1958년에는 평양음악대학의 기악강좌 교원이 되어 114)을 발간하였으며, 『해금교측본』을 집필하던 중 타계하였다.

류대복의 줄퐁류 악보 자료에 나타난 악곡 구분을 표시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류대복의 줄퐁류 분장 구조

연주자	악보명	악곡	분장구조
류대복	『해금교측본』	<상령산>	17각
		<중령산>	18각
		<잔령산>	14각
		<가락도리>	19각

지휘 : 이동백, 송만갑 / 연출 : 정정렬 / 각색 : 김용승

배역 : 신관사또 : 김창룡, 이도령 : 정남희, 춘향 : 박록주, 춘향모 : 임소향, 방자 : 오태석, 향단 : 김임수, 운봉 : 이동백, 임실 : 정정렬, 곡성 : 송만갑, 옥사정 : 심상건, 급창 : 서흥구, 집사 : 정원섭, 수형리 : 한성준, 사령 : 김세준, 조남승, 역졸 : 조상선, 류대복, 통인 : 도점이, 집장사령 : 강태홍, 행수기 : 조앵무, 기생 : 이계선, 성수향, 이옥화

시간 : 9월 24일부터 5일간

장소 : 동양극장

주최 : 조선성악연구회

114) 류대복, 『해금교측본』 (평양: 평양음악출판사, 1959).

		<상현>	26각
		<하현>	26각
		<넙불>	51각
		<타령>	32각
		<군악>	47각

3) 지영희(池瑛熙, 1909~1979년)

지영희는 경기 평택 출신으로 해금, 피리의 명인인 아버지 지용득이다. 1918년 이석은에게 승무, 검무, 굿거리 등의 춤을 배웠고, 1928년에는 조학윤에게 호적을 배우게 된다. 1930년에는 정태신에게 거문고, 단소, 통소를 배웠으며 1931년에 지용구에게 해금과 풍류시나위를, 양경원에게 피리 삼현육각과 시나위를 공부하였다. 1932년에는 김계선에게 풍류 대금을, 방용현에게 대금 시나위를 배웠으며, 1935년 지용주에게 무속장단 12채를 배웠다. 1934년에는 박춘재에게 경서도 민요를 학습하였다. 1936년에는 김덕진에게 해금 시나위를 배웠다.

1937년부터 한성준이 창립한 조선음악무용연구소에 입소하며 본격적으로 전문 악사로서 방송활동을 하게 된다. 1937년부터 경성방송국의 관악 담당악사로 선임되었고, 1938년 무용단원으로 일본 동경·오사카·나고야·교토 등지에서 순회공연을 하였다. 1941년 최수성에게 단소를 사사했으며, 1943년 최승희 무용단에서 무용곡을 편곡하였고 1946년에는 서울중앙방송국 전속국악사가 되었다. 또한 빅터, 고려,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민요와 대풍류 등의 민속음악을 취입하였다.

해방 후 1946년 취타 변주곡을 편곡하고, 고려레코드사에서 민요 60여곡을 취입하였으며, 같은 해 가을 서울방송국 전속악사가 되었다. 1947년 12월에는 문교부 편수국의 장사훈과 서울중앙방송국의 이해구·이계원·이덕근·송영호와 함께 전속조선음악회에서 방송활동을 시작하였다.

1953년 대한국악원 산하 지영희고전음악연구소를 창단하였다. 1960년부

터는 서울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하여 12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쓴다. 당시 예고 7기 졸업생들까지 교습하였는데 최경만, 이종대, 박승률 등은 지영희에게 직접 피리 줄풍류를 사사 받았다. 1963년에는 국악예술학교 산하 국악관현악단을 조직하였고, 교육용 교재로 『해금교본』, 『대금교본』, 『피리교본』, 『아쟁교본』을 발간하였다. 1965년에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및 2대 지휘자로 발탁되어 시나위, 민요, 판소리, 산조, 병창 등 민속악곡을 주로 하여 연주하였다. 1966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였으며,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지영희의 줄풍류 악보 자료에 표기된 줄풍류 분장구조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지영희의 줄풍류 분장 구조

연주자	악보명	악곡	분장구조	
지영희	『해금교본』	<다스름>	21박	
		<상령산>	초장	3각
			2장	4각
			3장	4각
			4장	4각
			5장	2각
		<중령산>	초장	4각
			2장	4각
			3장	4각
			4장	2각
		<세령산>	5장	4각
			초장	4각
			2장	3각
			3장	3각
		<가락제지>	4장	4각
			5장	4각
			초장	3각
			2장	3각
		<상현도드리>	3장	9각
			초장	11각
			2장	5각
<하현도드리>	3장	10각		
	초장	9각		
	2장	5각		

			3각	12각
		<염불도드리>	초장	6각
			2장	9각
			3장	15각
			4장	8각
			5장	5각
			6장	8각
		<타령>	초장	8각
			2장	13각
			3장	7각
			4장	4각
		<군악>	초장	3각
			2장	6각
			3장	9각
			4장	7각
			5장	4각
			6장	12각
			7장	7각

4) 구례향제줄풍류

구례향제줄풍류는 전남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연주된 줄풍류로,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던 김무규의 조상이 대대로 연주했던 절골 풍류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절골¹¹⁵⁾에서는 대대로 풍류를 한 내력이 전해지는데, 김녕(金寧) 김씨로 김무규의 고조부 되는 김영국¹¹⁶⁾과 김용식¹¹⁷⁾, 김학권¹¹⁸⁾과 그의 부친인 김형석¹¹⁹⁾까지 대대로 줄풍류에 능하였다고 한다.

115) 절골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산성리 사동 사성리 566번지에 있었으나 현재는 건물 그대로 옮겨 약 50여km 떨어진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옮겼다.

116) 김영국(1816~1894)의 출생지는 절골로 전해진다. 자는 평욱(平郁)이며 호는 농와(龔窩)라 한다. 진사 벼슬을 하였는데 스승은 알 수 없으나 거문고를 잘 타 풍류를 하였다고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구례향제줄풍류』, 민속원, 2007. 참조.).

117) 김용식(1836~1903)은 김영국의 장남으로 자는 군중(君中)이며 진사 벼슬을 하였다 한다. 풍류를 하였다고 하나 주로 다루었던 악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거문고로 추정하고 있다. (각주 117과 동일.).

118) 김학권(1860~1919)은 김용식의 장남으로 자는 성좌(聖佐)이며 사헌부 감찰과 중추원 위관 벼슬을 하였다. 거문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주 117과 동일.).

119) 김형석(1886~1975)은 절골 풍류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김학권의 장남으로 자는 보경

풍류활동은 구례향제줄풍류 예능보유자였던 김무규의 선친인 김형석 당대에 절정에 이르렀다고 한다. 절골에는 풍류객과 송만갑, 임방울, 김소희와 같은 전문 국악인까지 드나들며 음악 활동을 하였으며 구례향제줄풍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전용선은 절골에 기거하며 조계순에게 가야금 풍류를, 이순조에게 대금 풍류를 가르쳤다. 단소산조로는 전무후무한 실력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대금, 거문고, 피리, 해금, 가야금 풍류에 능하였으나 거문고는 즐겨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전용선은 한 곳에 머물기를 싫어하여 평생 유랑하며 풍류를 즐기던 이로, 호남과 영남 일대에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게 된다. 그러나 전용선의 가락을 온전히 계승한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그 중 구례의 김무규, 이철호, 조계순, 그리고 조계순에게 사사 받은 이순조가 그의 가락을 이었다.

김무규(1908-1994)는 구례향제줄풍류의 최초 예능보유자이다. 절골에서 태어나 많은 율객들의 풍류를 들으며 자랐던 김무규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전용선에게 단소 풍류를 배웠고, 30세 때는 조선정악전습소에서 김운덕에게 거문고 풍류를 배웠다.

구례향제줄풍류의 해금 선율은 이순조가 정리한 악보를 토대로 연주하고 있다. 이순조는 1959년부터 1964년의 기간 동안 전용선에게 대금, 단소, 가야금, 거문고, 해금 등의 악기를 익혔다. 전용선이 타계한 이후, 조계순과 함께 가야금 가락을 다듬어 완성하였고 이리에서 활동하는 석암 정경태와는 거문고 풍류를 다듬었다.

구례향제줄풍류의 악곡은 <다스름>, <본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제지>, <상현환입>, <하현환입>, <염불환입>, <타령>, <군악>, <계면환입>, <양청환입>, <우조환입>, <풍류굿거리>로 총 14곡에 전한다.

구례향제줄풍류의 해금 부문의 명예보유자로는 신상철이 있다.¹²⁰⁾ 신상철은 국악예술고등학교의 제7회 졸업생으로, 재학 시절 지영희에게 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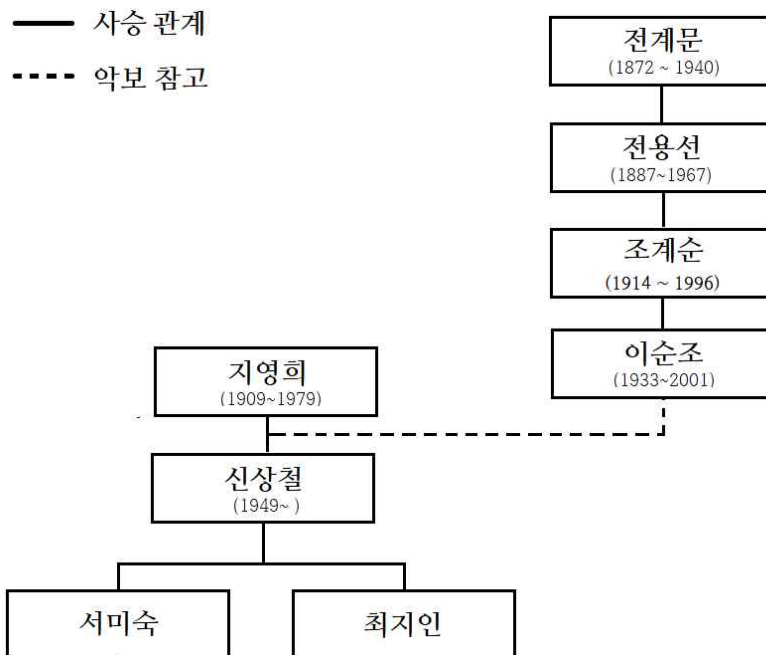
(保卿)이고 호는 연계(蓮溪)이다. 그는 구례는 물론 남원, 곡성 등지에 토지를 사 가산을 모았으며, 거대한 절골 풍류방을 꾸며놓고 풍류를 즐겨 풍류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각주 117과 동일.).

120) 신상철은 1994년 4월 1일 전승교육사로 지정된 이후 2022년 7월 7일, 구례향제줄풍류의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또 다른 명예보유자로는 장명화(단소)가 있다.

을 사사 받았으며 종로3가에서 지영희, 성금연 내외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따로 풍류를 배웠다고 한다. 신상철은 25세 되던 1981년에 재직중이던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을 그만두고 전남 화순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1985년부터 구례풍류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지영희의 풍류 선율을 연주하였으나 잘 맞지 않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이순조의 해금 선율을 연주하게 되었다. 전남대, 원광대에서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광주시립 단 단무장 및 전남도립국악단의 지휘자를 역임하였다. 현재 신상철의 뒤를 이어 구례향제줄풍류를 이수 중인 해금 연주자로는 서미숙과 최지인이 있다.

구례향제줄풍류의 해금 전승 현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구례향제줄풍류 해금 전승 현황



구례향제줄풍류의 분장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구례향제줄풍류의 분장 구조

연주단체	악보명	악곡	분장구조	
구례향제 줄풍류	『구례향제줄풍류』	<다스름>	21박	
		<본령산>	초장	3각
			2장	4각
			3장	4각
			4장	4각
			5장	2각
		<중령산>	초장	4각
			2장	4각
			3장	3각
			4장	3각
			5장	4각
		<세령산>	초장	4각
			2장	3각
			3장	3각
			4장	4각
			5장	4각
		<가락제지>	초장	3각
			2장	3각
			3장	9각
		<상현환입>	초장	11각
			2장	6각
			3장	10각
		<하현환입>	초장	9각
			2장	5각
			3각	12각
		<염불환입>	초장	12각
			2장	10각
			3장	8각
			4장	8각
			5장	5각
		<타령>	초장	6각
			2장	6각
3장	9각			
4장	6각			
5장	5각			
<군악>	초장	10각		
	2장	8각		
	3장	12각		
	4장	11각		
	5장	7각		

5) 이리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는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서 연주되던 풍류를 말한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익산시로 개칭되었으나 줄풍류에서는 이리라는 옛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악곡으로는 <다스름>, <본령산>, <중령산>, <잔령산>, <가락제지>, <상현>, <세환입>, <하현>, <염불>, <타령>, <군악>, <계면환입>, <양청환입>, <우조환입>, <풍류굿거리>까지 총 15곡이 전해지고 있다.

정읍에서 초산율계가 성세를 이루다가 기울어질 무렵에 이리에서는 이리와 인근 율객들이 이리율림계를 조직하였다. 일제 말, 율객들은 이리시 갈산동의 하일환의 율방에서, 해방 후에는 서정철의 율방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1958년경에 채규환, 진양수, 황상규, 진중하, 정길선, 이보한 등의 10여명의 율객이 참여하였으며, 이때 계장에는 황상규, 총무간사는 강낙승이 맡았다. 이후 1968년 이리정악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4년 뒤인 1972년 이리정악회 등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강낙승(1916~2010)은 이리향제줄풍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당시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그가 처음 풍류를 접하게 된 것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남원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매일 권번에 들러 <잔영산>부터 <군악>까지 익혔다고 한다. 이후 이리시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풍류를 배우게 되었다. 또한 1950년에는 황상규에게 거문고를, 1953년에는 정읍에 살던 박흥규에게 장단을 배웠고 채규환에게는 거문고풍류를, 1956년에는 전용선의 제자 진중하에게 단소풍류를 전수받았다. 익산역에서 근무할 당시 서울을 오가기 수월하여 국립국악원에서 줄풍류를 배우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다 1960년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남은 생애를 풍류에 진심을 다하여 전북 지역의 향제 줄풍류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성악에도 일가를 이루어 1973년 남창가곡 26곡을 모두 완창하는 발표회를 가지고 1975년에는 원광대에서 현존 12가사를 모두 발표하였다.

현재의 이리향제줄풍류는 강낙승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다. 가

야금, 거문고, 단소, 거문고, 장단까지 모두 그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소개된 이리향제줄풍류 회원들은 거문고, 가야금, 거문고, 대금, 단소, 장구는 다루었으나 피리와 해금은 다루지 않았다. 현재도 위의 두 악기는 전승 계보가 없다. 피리의 장준철은 단소보를 기본으로 하여 피리악보를 만들어서 연주하고, 해금의 김소운(김은주)은 거문고와 피리악보를 참고하여 해금 악보를 제작하여 연주하고 있다. 이리풍류의 경우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의 다섯 악기를 모두 전용선에게 배운 일암 장상철 스님의 해금 악보가 2006년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된 바 있으나 현재는 1995년 제작한 김은주의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고 필요에 따라 국악원 줄풍류의 악보를 참고한다고 하며,¹²¹⁾ 현재 계속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리향제줄풍류의 해금 전승교육사는 없으며, 이수자인 김소운(김은주)¹²²⁾와 전승자 오정무¹²³⁾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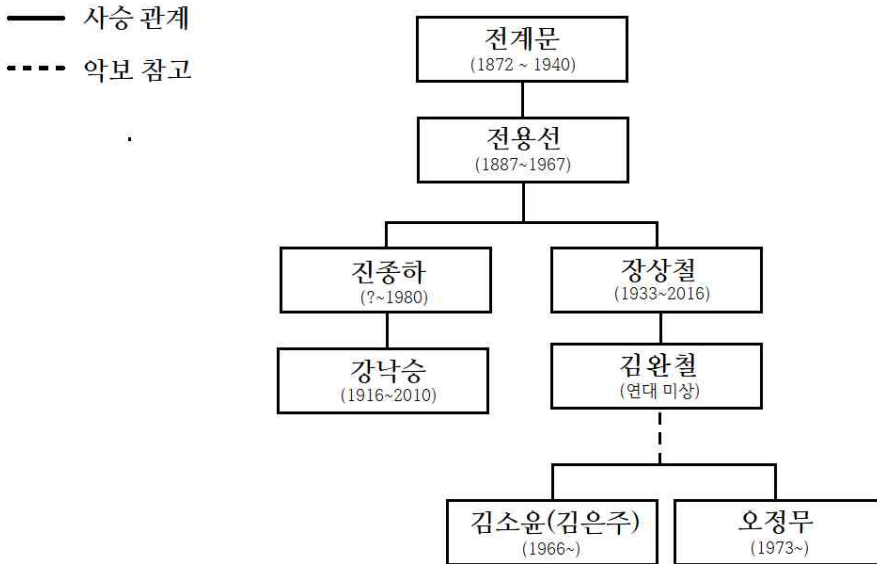
이리향제줄풍류의 해금 전승 현황을 정리해보면 <그림 2>와 같다.

121) 2022년 9월 15일 이리향제줄풍류 이수자 오정무 전수자와의 인터뷰 중.

122) 김소운은 우석대 국악과 및 남부대 음악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 기악분과 위원장 및 전라북도립국악원에서 해금 교수를 맡고 있다.

123) 오정무(1973~)는 전주 출생으로, 우석대와 경북대 석사, 전북대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대구시립국악단 상임단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주해금연주단 단장,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심인택, 강은일, 주영위, 홍옥미, 양경숙, 김애라에게 사사 받았다.

<그림 2> 이리향제줄풍류 해금 전승 현황



이리향제줄풍류의 분장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이리향제줄풍류의 분장 구조

연주단체	악보명	악곡	분장구조	
이리향제 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다스름>	21박	
		<본령산>	초장	3각
			2장	4각
			3장	4각
			4장	4각
			5장	2각
		<중령산>	초장	4각
			2장	4각
			3장	3각
			4장	3각
			5장	4각
		<세령산>	초장	4각
			2장	3각
			3장	3각
			4장	4각
5장	4각			

		<가락제지>	초장	3각
			2장	3각
			3장	9각
		<상현환입>	초장	9각
			2장	7각
			3장	10각
		<하현환입>	초장	7각
			2장	7각
			3장	12각
		<염불환입>	초장	11각
			2장	9각
			3장	6각
			4장	4각
			5장	21각
		<타령>	초장	8각
			2장	4각
			3장	9각
			4장	6각
			5장	5각
		<군악>	초장	10각
			2장	9각
3장	12각			
4장	3각			
5장	3각			
6장	4각			
7장	7각			

6) 대전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는 서강 권용세(1915-2002)를 비롯한 이수재, 김덕규, 이규성 등 충남 지역 풍류객들에 의해 보존된 풍류로, 구성악곡은 <풍류치음>을 비롯해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제지>, <상현>, <세환입>, <하현>, <해탄>, <염불>, <타령>, <군악>, <계면가락>, <양청환입>, <우조가락>, <국거리> 등 총 16곡으로 되어 있다. 풍류치음은 다스름에 해당하여 음정 조율과 완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민간풍류의 다스름은 일반적으로 21박으로 연주되는데 대전향제줄풍류의 풍류치음은 10박 3장단으로 30박으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이

다.

대전향제줄풍류의 역사는 매사 이경호¹²⁴)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1934년 이왕직아악부 교사인 최응모¹²⁵)에게 줄풍류를 배웠다. 최응모가 신병으로 치료차 1934년 현 계룡시 암사동에 머무는 동안 풍류를 배우게 된 것이다. 후에 그가 익힌 음악을 1935년 『금쟁보』에 한자 및 한글의 두 본으로 기록하였다. 그는 악보를 기록하면서 ‘옛날 들었던 것을 다수 기술하고 옛 악보를 참고하고 모범을 삼아 찾아 모아 책을 만든다.’라고 하였다. 1950~1960년대 피리, 대금, 해금의 관악기 악보도 있었다고 하나 실전(失傳)하였고 1980년대 초에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복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 악보는 십이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음보와 일치하고 있다.

이경호에게 풍류를 배워 대전 지역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로는 권용세¹²⁶)가 있다. 학교를 마친 후 공직 생활을 하던 그가 국악에 뜻을 두고 배우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부터였다. 당시 권 선생의 스승은 대전·충남 지역의 명인들로, 1946년부터 조병직, 윤종선¹²⁷)에게 시조와 거문고를 배운 것을 시작으로 방호준¹²⁸)에게 가야금을, 예산 율객인 김명진에게 단소를, 성낙준에게 대금을 배웠으며 1962년부터 5년간 매사 이경호 선생에게 대금, 단소, 거문고를 배웠다.

이후 대전정악원을 설립하고 1962년 한국국악협회 충남지부 부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유지들과 함께 본격적인 국악 보급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대전정악원에서 줄풍류 학습을 위한 사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전

124) 이경호(1911~1983)는 충남 연산 출신으로 유성우체국장 등을 역임하며 공직에 있었다. “1974년 지병을 얻은 후 1978년 고향인 충남 논산으로 낙향하여 1983년 작고하였다. 노사(老師)들은 이경호 선생의 낙향으로 이 지역 풍류가 쇠미해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후영, 『대전풍류줄풍류』 (대전: 한밭정악회, 2005), 25쪽.

125) 최응모(연대 미상)의 호는 낙산(樂汕)으로 이왕직아악부 교사로 근무하였다. (각주 125와 동일.).

126) 권용세(1915~2002)는 대전시 중구 정생동에서 태어났다. 청주농고에서 수학한 후 대덕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961년 대전정악원 설립, 1976년 충남대학교 국악연구회 창립, 1978년 공주대학교 금슬악회 창립, 1991년 한밭정악회 창립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대전 지역 국악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각주 125와 동일.).

127) 윤종선(1884~미상)은 충남 청양 미당 사람으로 호는 미당(美堂)이다. 시조, 단소, 피리, 거문고, 가야금 등을 두루 잘하였다고 전해진다. (각주 125와 동일.).

128) 방호준(1900~미상)은 현 대전 가수원에 거주하였다. 가야금, 대금 풍류에 능했다. (각주 125와 동일.).

지역 국악인들을 모아 가무악 공연 및 교육에 일조하였는데 1964년 무렵 대전정악원의 회원수는 120여 명에 육박하였다. 당시 시장과 도지사 역시 대전정악원의 회원이었음을 볼 때 대전 내에서 국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991년 한밭정악회를 창립, 대전 줄풍류의 전통을 잇는데 공헌하여 대전향제줄풍류는 2016년 2월 12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대전향제줄풍류는 거문고의 경우 2~3명씩 복수 편성하게 되고 관악기는 한 명이 있거나 혹은 전혀 없이 연주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거문고가 항상 다수 편성이 되었던 관례상 거문고가 음악의 완급을 조절하고, 거문고 칠점을 거문고가 연주하면서 악곡을 이끄는 등 거문고 중심의 풍류가 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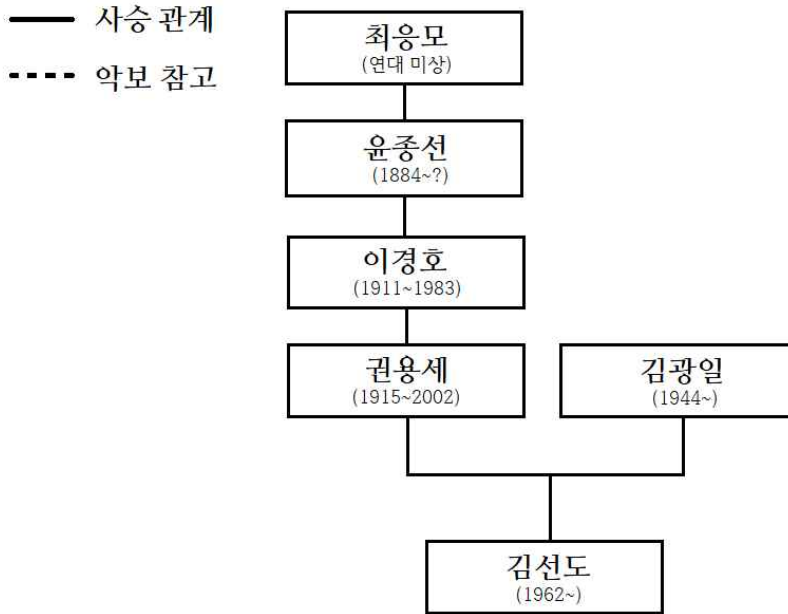
대전향제줄풍류의 해금 계보는 최응모와 매사 이경호에서 서강 권용세, 김광일¹²⁹⁾, 그리고 김선도(1962~)¹³⁰⁾로 전해지고 있다. 김선도는 1981년 충남대학교에 입학한 후 국악연구회에 입회하여 권용세 선생님께 대전 풍류를, 이왕직아악부 출신의 김광일에게 해금을 배웠으며 한밭정악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대전향제줄풍류 해금 전승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129) 김광일(1944~)은 국악사양성소 3기생으로 젊은 시절 사업에 임하였고 현재는 국악 교육에 힘쓰고 있다. 한밭정악회 2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각주 125와 동일.).

130) 김선도(1962~)는 대전 출생으로 대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와 1981년 충남대학교에 입학한 후 국악연구회에 입회한 계기로 풍류에 입문하였다. (각주 125와 동일.).

<그림 3> 대전향제줄풍류 해금 전승 현황



대전향제줄풍류의 분장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대전향제줄풍류의 분장 구조

연주단체	악보명	악곡	분장구조	
대전향제 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	<풍류치음>	10박 3각	
		<상령산>	초장	3각
			2장	4각
			3장	4각
			4장	3각
			5장	3각
		<중령산>	초장	4각
			2장	4각
			3장	3각
			4장	3각
			5장	4각

		<잔령산>	초장	4각
			2장	3각
			3장	3각
			4장	4각
			5장	4각
		<가락제지>	초장	3각
			2장	3각
			3장	9각
		<상현>	초장	11각
			2장	15각
		<하현>	초장	14각
			2장	12각
		<염불>	초장	11각
			2장	9각
			3장	10각
			4장	8각
			5장	13각
		<타령>	초장	8각
			2장	13각
			3장	11각
<군악>	초장	10각		
	2장	9각		
	3장	10각		
	4장	12각		
	5장	7각		

7)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에서 2015년 발간한 『해금정악보』¹³¹⁾는 국립국악원에서 개원 65년 만에 발간한 공식 정간보이다. 해금 정악보의 경우 이왕직아악부의 악보를 필사한 『아악부해금보』¹³²⁾, 국악사 양성소에서 발행된 『국악교재(해금)』¹³³⁾와 개인이 발행한 해금 정악보인 김기수, 강사준의 『해금정악』¹³⁴⁾, 강사준, 윤찬구(김천홍 감수)의 『정악해금보』¹³⁵⁾, 안희봉의

131) 『해금정악보』, (국립국악원, 2015)

132) 『아악부해금보』, (이왕직아악부, 1930년대)

133) 『국악교재(해금)』, (국악사양성소, 1960년대)

134) 김기수, 강사준, 『해금정악』(서울: 은하출판사, 1979).

135) 강사준, 윤찬구(김천홍 감수), 『정악해금보』(서울: 은하출판사, 1988).

『해금정악 I』 136), 강사준의 『정악해금보』 137)등 6권이 있다. 2015년 발간된 『해금정악보』는 기존 악보의 기호 및 용어를 보완하여 현재의 해금 정악을 기록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해당 악보의 책임감수는 정재국(전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책임 채보는 김기동(전 국립국악원 정악단 악장)이 맡았다.¹³⁸⁾

국립국악원의 분장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국립국악원의 분장 구조

연주단체	악보명	악곡	분장구조	
			초장	3각
국립국악원	『해금정악보』	<상령산>	2장	4각
			3장	4각
			4장	6각
			초장	4각
		<중령산>	2장	4각
			3장	3각
			4장	3각
			5장	4각
		<세령산>	초장	4각
			2장	3각
			3장	3각
			4장	4각
		<가락달이>	초장	4각
			2장	3각
			3장	3각
		<상현도드리>	초장	9각
			2장	11각
			3장	6각
			4장	9각
		<하현도드리>	초장	16각
			2장	6각
			3장	7각

136) 안희봉, 『해금정악 I』(서울: 은하출판사, 2004)

137) 강사준, 『정악해금보』(서울: 은하출판사, 2006)

138) 채보에는 황애자 · 김주남 · 윤문숙 · 류은정 · 전은혜 · 고수영 · 사현욱 · 공경진 · 김용선 · 한갑수(국립국악원 정악단)가 참여하였다.

		<염불도드리>	초장	22각
			2장	16각
			3장	6각
			4장	7각
		<타령>	초장	8각
			2장	13각
			3장	6각
			4장	5각
		<군악>	초장	10각
			2장	9각
			3장	23각
			4장	6각

3. 소결

지금까지 20세기 줄풍류 해금 선율이 확인되는 음원과 악보를 검토하였다. 이 중 연구 대상별로 악곡명을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연구 대상의 악곡명 대조표¹³⁹⁾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김창규	김천흥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립 국악원
							<다스름>	<다스름>	<다스름>	<풍류치음>	
<본령산>				<상영산>	<상령산>	<상령산>	<본영산>	<본령산>	<본령산>	<본령산>	<상령산>
<중령산>				<중영산>	<중령산>	<중령산>	<중영산>	<중령산>	<중령산>	<중령산>	<중령산>
<세령산>	<세령산>		<세령산>	<세영산>	<세령산>	<잔령산>	<세영산>	<세령산>	<세령산>	<잔령산>	<세령산>
<가락>			<가락달아>	<가락달아>	<가락달가>	<가락도리>	<가락제자>	<가락제자>	<가락제자>	<가락제자>	<가락달아>
<상현>	<상현>	<상현>		<상현 도드리>	<삼현환입>	<상현>	<상현 도드리>	<삼현환입>	<삼현환입>	<상현>	<상현 도드리>
<하현>		<하현>		<하현 도드리>	<하현환입>	<하현>	<하현 도드리>	<하현환입>	<하현환입>	<하현>	<하현 도드리>
<염불>		<염불>	<염불 도드리>	<염불 도드리>	<염불환입>	<념불>	<염불 도드리>	<염불환입>	<염불환입>	<염불>	<염불 도드리>
<타령>	<타령>	<타령>	<타령>	<타령>	<타령>	<타령>	<타령>	<타령>	<타령>	<타령>	<타령>
<군악>	<군악>			<군악>	<군악>	<군악>	<군악>	<군악>	<군악>	<군악>	<군악>

<표 16>과 같이 연구 대상의 음원 및 악보에 표기된 악곡명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먼저 줄풍류에서 다스름을 연주하는 경우는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이며, 대전풍류의 경우 다스름을 풍류치음이라고 표기한다.

또한 줄풍류의 모곡이 되는 <상령산>을 <본령산>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상령산>이라 표기하는 경우는 이덕환, 김천흥, 류대복이며 <본령산>이라 표기하는 경우는 지용구,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

139) 이하 본문부터 편의상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 국립국악원은 모두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으로 짧게 표기하고자 한다. 또한 악곡명을 지칭할 때는 국립국악원의 악곡명을 따른다.

풍류, 대전풍류이다.

또한 이덕환, 김창규, 김천홍,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국악원은 <상현도드리> 혹은 <상현환입>, <하현도드리> 혹은 <하현환입>, <염불도드리> 혹은 <염불환입>으로 표기하고 있다. 악곡명 뒤에 ‘도드리’ 혹은 ‘환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현> · <하현> · <염불>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류대복, 대전풍류이다.

<타령>과 <군악>은 모든 연구 대상에서 동일한 악곡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세기 줄풍류 해금 선율이 나타나는 총 12종의 연구대상에서는 악곡명을 조금씩 다르게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원 자료에서는 악곡의 분장구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악보 자료에서는 각 악곡의 분장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악보 자료를 통해 살펴본 줄풍류의 분장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줄풍류 해금 악보 자료별 분장 구조

	국립국악원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다스름>				21박			30박
<상령산>	3	3	17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6	6		4	4	4	3
				2	2	2	3
<중령산>	4	4	18	4	4	4	4
	4	4		4	4	4	4
	3	3		4	3	3	3
	3	3		2	3	3	3
	4	4		4	4	4	4
<세령산>	4	4	14	4	4	4	4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가락덜이>	4	4	19	4	4	4	4
	3	3		3	3	3	3
	3	3		3	3	3	3
<상현 도드리>	9	9	26	9	9	9	9
	11	11		11	11	9	11
	6	6		5	6	7	15
9	9	10	10	10			
<하현 도드리>	16	16	26	9	9	7	14
	6	6		5	5	7	
	7	7		12	12	12	12
<염불 도드리>	22	22	51	6	12	11	11
				9	10	9	9
	16	16		15	8	10	6
	6	6		8	8	8	4
		7	7	5	13	13	21
<타령>	8	8	32	8	6	8	8
					6		4
	13	13		13	9	13	9
	6	6		7	6	7	6
		5	5	4	5	4	5
<군악>	10	10	48	3	10	3	10
				6		6	
	9	9		9	8	9	9
				7	12	7	10
	23	22		4	11	4	12
				12		12	
6	7	7	7	7	7	7	

이상의 표를 살펴보면 분장구조가 모두 일치하는 <중령산>을 제외하면 각 악보마다 악곡별 분장 구조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분장 구조를 기보하지 않은 류대복의 경우 악곡의 총 장단 수를 확인한 결과 다른 줄풍류와 모두 일치하고 있다.

국립국악원과 이덕환의 분장구조는 <군악> 3장과 4장을 제외하고 전 악곡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상령산>의 경우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5장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령산>의 경우 <가락덜이> 1장까지를 <세령산> 4장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악원에서 돌장을 포함한 <상현도드리> 1장까지의 가락을 <가락덜이>의 3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현도드리> 이하 <군악>까지의 악곡에서도 각 악보마다 분장구조에서 대동소이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국립국악원과 이덕환을 제외한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서로 다른 계통의 풍류를 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악보 자료를 통해 살펴본 줄풍류의 대강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줄풍류 해금 악보 자료별 대강 구분

악곡	대강 구분	연주단체 및 연주자
<상령산> <중령산>	6 · 4 · 4 · 6	이덕환, 지영희, 국악원
	6 · 4 · 6 · 4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10 · 10	류대복
<세령산> <가락덜이>	3 · 2 · 2 · 3	이덕환, 국악원, 이리풍류
	3 · 2 · 3 · 2	구례풍류, 대전풍류
	5 · 5	류대복,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6	모두 동일
<타령> <군악>	3 · 3 · 3 · 3	모두 동일

<상령산>, <중령산>의 경우 이덕환, 지영희, 국립국악원은 6·4·4·6박을 기준으로 대강을 구분하고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6·4·6·4박¹⁴⁰⁾, 류대복은 10·10박으로 대강을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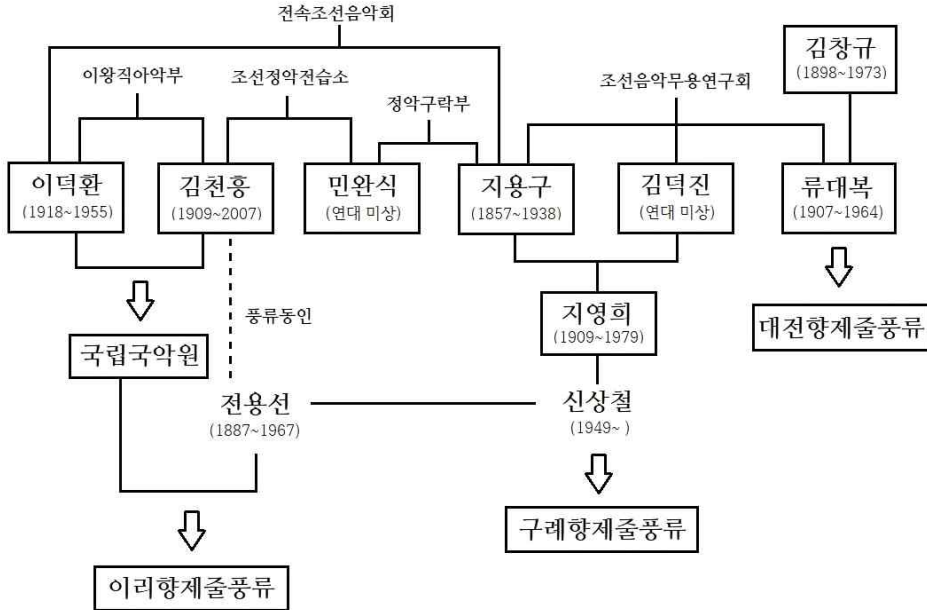
<세령산>, <가락덜이>의 경우 이덕환, 국악원, 이리풍류의 경우 3·2·2·3박을 기준으로 하며 구례풍류, 대전풍류는 3·2·3·2박을 기준으로 대강을 구분하고 있다. <상령산>을 6·4·6·4의 박자로 구분한 이리풍류의 경우 <세령산>에서 대강 구분에 변화가 나타났다. 지영희의 경우 <상령산>과 <중령산>은 6·4·4·6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세령산은 류대복과 동일하게 5·5박을 기준으로 대강을 구분한다.

이하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에서는 모든 연구대상에서 대강 구분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연구 자료를 검토하는 동시에 연주자 별 활동 양상 및 전승 계보를 살펴본 바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9>과 같다.

140) 『금은금보』, 『동대가야금보』, 『방산한씨금보』 등의 고악보에서도 6·4·4·6박의 구분법과 6·4·6·4박의 구분법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이에 대해 거문고 선율의 제 17박의 ‘흥’ 위치에 따라 대강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해구의 연구(이혜구, 『井間譜의 井間 大綱 및 장단』 (서울: 세광출판사, 1987)가 있다.

<그림 9> 줄풍류 해금 선율의 전승 계보



연주자들의 활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연주자들 간의 많은 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가장 활발히 활동한 지용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용구와 이덕환은 장사훈이 창단한 전속조선음악회에서 활동하며 서울방송국의 전속국악사로 한 달에 90여 회의 방송활동을 한 바 있다. 또한 지용구는 민완식과 정악구락부로 활동한 바 있는데 다른 악기 연주자들로는 1926년부터 1929년까지 조이순(현금), 김상순(거문고), 조동석(단소), 김영근(대금)이 고정적으로 활동하였으며 1932년부터 해금 연주자만 지용구에서 민완식으로 교체되었다. 이후 지용구는 정악구락부 소속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연식(현금), 이승환(거문고), 최수성(단소), 조재필(필률)과 함께 줄풍류를 연주하였는데 지용구가 타계한 이후 김덕진이 그 뒤를 이어 위의 구성원과 함께 줄풍류를 연주한다.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은 경기·충청 출신 음악가와 무용가로 조직된 조

선음악무용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이력이 있다. 경성방송국 방송 목록을 살펴보면 지용구와 김덕진이 동시에 섭외되었을 경우 지용구는 장구를 연주하고 김덕진이 해금을 연주하였다. 또한 지용구와 김덕진은 지영희에게 해금을 가르친 스승이다.

류대복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해금·아쟁·가야금·장고·피리·대금·무용 등 전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류대복은 9세 때 충남 청양의 김창규의 집에 들어가 어렸을 때부터 해금, 가야금 및 다수의 음악을 익혔다. 김창규는 류대복의 스승으로, 사랑방을 운영할 정도로 풍류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며 대전향제줄풍류의 초청으로 줄풍류 및 음반을 취입한 바 있다.

이덕환과 김천홍은 같은 이왕직아악부 출신의 해금 연주자로, 국립국악원이 개원한 이후 예술사 및 촉탁으로 임명되었다. 이덕환은 4기, 김천홍은 2기생으로 입학하였다. 이덕환은 단소와 아쟁을 잘 다루었으며 김천홍은 여러 악기를 다재다능하게 다루었고 동시에 무용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김천홍은 조선정악전습소 출신 민완식과 풍류의 대가로 알려진 추산 전용선과도 교류하였다. 전용선은 전국적으로도 풍류를 널리 알리던 인물로 함께 줄풍류 전 곡을 음반으로 취입하였다. 그의 풍류 선율은 구례의 이순조, 이리의 장상철이 악보로 정리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순조와 장상철은 종종 만나 구례와 이리지역의 풍류를 나누곤 하였다고 하나,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두 지역 간에 교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구례 풍류는 지영희의 제자인 신상철이 이순조의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고 있으며, 이리풍류의 경우 이리의 장상철 악보와 국립국악원 줄풍류를 참고하여 연주하고 있다.

이렇듯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해금 연주자 및 연주단체는 서로 사승 관계 혹은 동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음악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후학을 양성하거나 방송 및 음반취입, 공연 활동을 하는 등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연주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금을 비롯한 다른 악기도 뛰어나게 잘 다룬 인물들로 비전문음악인

의 참여는 전무하였다. 전문음악인들은 줄퐁류를 암기하여 연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악보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해금 교본 혹은 1980년대 후반 문화재로 지정된 향채퐁류를 제외하고는 악보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는 줄퐁류를 연주하는 비전문음악인의 참여의 폭이 넓어¹⁴¹⁾ 악보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가야금, 거문고, 양금의 줄퐁류 전승 양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전문적으로 해금을 연주하던 연주자들은 연주단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악과 민속음악의 구분 없이 서로 잦은 교류를 하였던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주자들 혹은 연주단체의 특성만으로 계통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 중 음원 자료는 분장구조를 확인할 수 없어 악곡 별로 선율을 분석하고 거문고·피리와의 선율 비교를 통해 계통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전승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1) 임미선, 「20세기 풍류방 문화의 지형과 역사적 변동」, 『한국음악연구』 제59집, (한국국악학회, 2016), 100쪽.

Ⅲ. 20세기 줄퐁류 해금 선율 비교

본 장에서는 앞서 개관한 연구 대상의 줄퐁류 해금 선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악곡은 《현악영산회상》으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등 총 9곡이다.

악곡별 선율분석에 앞서 음악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악곡 구조 및 분장 구조를 검토한 후, 1 정간(井間)당 가장 긴 시가로 연주되는 주요음 1음(音)을 산출하여, 국립국악원 편 『거문고 정악보』¹⁴²⁾와 『피리 정악보』¹⁴³⁾의 선율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선율의 유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상령산>

<상령산>은 1각에 20박으로 이루어진 곡으로, 영산회상 중 가장 첫 번째 악곡이다. 총 17각으로 구성된 상령산을 각 장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령산> 초장

(1) 제1각¹⁴⁴⁾

거문고 칠점에 해당하는 <상령산> 초장 제1각 제1-10박의 경우, 해금은 연주하지 않고 거문고만 연주한다. 그러나 류대복과 대전퐁류는 거문고 칠점에 해당하는 선율이 기보되어 있다. 제1-8박은 거문고와 동일하며 제9-10박은 가야금, 양금 선율과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류대복은 악

142) 『거문고 정악보』, 서울: 국립국악원, 2015.

143) 『피리 정악보』(서울: 국립국악원, 2015).

144) 오선보 선율 진행 확인 시 거문고 선율과 같은 경우 점선, 피리와 같은 선율일 경우 실선, 독자적 선율의 경우 동그라미로 표시할 것이다.

보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연주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대전풍류의 경우 해금을 포함한 모든 악기가 거문고 칠점에 해당하는 선율을 연주한다.

<악보 1> <상령산> 초장 제1각 제1-10박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2 staves, each labeled with an instrument name on the left. The instruments are: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흥, 구래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and 국악원 피리. The score is in a key of three flats and 3/4 time. The melody is shown in the Ryudabok, Daeryongryu, and Gukakwon Geomgo staves, with dotted lines indicating that other instruments are silent during this section.

<상령산> 초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상령산> 초장 선율비교

◎ = 피리, 거문고 모두 동일 ● = 피리와 동일 ○ = 거문고와 동일

⊙ = 가야금·양금·대금과 동일 / 율명 = 독자선율

<상령산>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장	1		ㄴ				○						○		
	2		ㄴ				○						○		
	3		ㄴ				○						○		
	4		ㄴ				○						○		
	5		橫				○						○		
	6		橫				○						○		
	7		ㄴ				○						○		
	8		ㄴ				○						○		
	9		ㄴ				⊙						⊙		
	10		ㄴ				⊙						⊙		
	11	ㄴ	ㄴ	◎			◎	◎		◎	◎	◎	◎	◎	
	12	ㄴ	ㄴ	◎			◎	◎		◎	◎	◎	◎	◎	
	13	ㄴ	ㄴ	◎			◎	◎		◎	◎	◎	◎	◎	
	14	ㄴ	ㄴ	◎			◎	◎		◎	◎	◎	◎	◎	
	15	ㄴ	ㄴ	◎			◎	◎		◎	◎	◎	◎	◎	
	16	仲	ㄴ	●			●	○		●	●	○	黃	○	●
	17	黃	黃	◎			◎	◎		◎	◎	◎	仲	◎	◎
	18	黃	黃	◎			◎	◎		◎	◎	◎	◎	◎	◎
	19	黃	黃	◎			◎	◎		◎	◎	◎	太	◎	◎
	20	太	黃	●			●	●		●	●	●	●	●	●
2장	1	ㄴ	ㄴ	◎			◎	◎		◎	◎	◎	◎	◎	
	2	ㄴ	ㄴ	◎			◎	◎		◎	◎	◎	◎	◎	
	3	ㄴ	ㄴ	◎			◎	◎		◎	◎	◎	◎	◎	
	4	仲	ㄴ	●			●	○		○	●	●	●	○	●
	5	黃	黃	◎			◎	◎		◎	◎	◎	◎	◎	
	6	黃	黃	◎			◎	◎		◎	◎	◎	◎	◎	
	7	太	太	◎			◎	◎		◎	◎	◎	◎	◎	
	8	太	太	黃			◎	◎		◎	◎	◎	◎	◎	
	9	太	太	林			◎	◎		◎	◎	◎	林	◎	◎

	10	黃	黃	◎			◎	◎		◎	◎	◎	◎	◎	◎
	11	倝	倝	◎			◎	◎		◎	◎	◎	◎	◎	◎
	12	仲	倝	○			●	○		○	●	○	○	○	●
	13	黃	黃	◎			◎	◎		◎	◎	◎	◎	◎	◎
	14	仲	倝	○			●	○		○	●	●	○	○	●
	15	黃	黃	◎			◎	◎		◎	◎	◎	◎	◎	◎
	16	黃	黃	◎			◎	◎		太	◎	◎	◎	◎	◎
	17	仲	仲	◎			◎	◎		◎	◎	◎	◎	◎	◎
	18	仲	仲	◎			◎	◎		◎	◎	◎	◎	◎	◎
	19	黃	黃	仲			倝	◎		◎	倝	◎	◎	◎	倝
	20	林	倝	◎			黃	◎		◎	黃	◎	◎	◎	黃
32	1	仲	仲	黃			黃	◎		◎	黃	◎	◎	◎	黃
	2	黃	仲	林			●	○		○	●	○	太	○	●
	3	仲	仲	◎			◎	◎		◎	◎	◎	◎	◎	◎
	4	仲	仲	◎			◎	◎		◎	◎	◎	◎	◎	◎
	5	仲	儻	●			●	●		●	●	●	●	●	●
	6	仲	儻	●			●	●		●	●	●	●	●	●
	7	仲	黃	○			●	○		○	●	○	○	○	●
	8	仲	黃	○			●	○		太	●	●	○	○	●
	9	黃	倝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11	黃	黃	◎			◎	◎		◎	◎	◎	◎	◎	◎
	12	黃	黃	◎			◎	◎		太	◎	◎	◎	◎	◎
	13	仲	仲	◎			◎	◎		◎	◎	◎	◎	◎	◎
	14	仲	仲	◎			◎	◎		◎	◎	◎	◎	◎	◎
	15	林	倝	◎			◎	◎		◎	◎	◎	◎	◎	◎
	16	黃	黃	◎			◎	◎		◎	◎	◎	◎	◎	◎
	17	仲	仲	◎			◎	◎		◎	◎	◎	◎	◎	◎
	18	仲	仲	黃			◎	◎		◎	◎	◎	◎	◎	◎
	19	倝	倝	◎			◎	◎		◎	◎	◎	◎	◎	◎
	20	黃	黃	◎			◎	◎		◎	◎	◎	◎	◎	◎

<상령산> 초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상령산> 초장의 선율 일치도

<상령산>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7			39	40		40	39	42	39	40	39
●	2			8	3		1	8	4	1	0	8
○	5			0	15		6	0	4	5	18	0
⊙	0			0	2		0	0	0	0	2	0
기타	6			3	0		3	3	0	5	0	3
총 개수	50			50	60		50	50	50	50	50	50
피리 일치도	78.0%			94.0%	71.6%		82.0%	94.0%	92.0%	80.0%	80.0%	94.0%
거문고 일치도	82.0%			77.6%	91.6%		91.0%	78.0%	92.0%	88.0%	96.6%	78.0%
독자적 선율	12.0%			6.0%	0.0%		6.0%	6.0%	0.0%	10.0%	0.0%	6.0%

지용구는 피리와 78.0%, 거문고와 82.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2.0%로 나타났다. 이덕환은 피리와 94.0%, 거문고와 77.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6.0%로 확인된다. 류대복의 경우 71.6%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91.6% 일치하였다. 독자적 선율은 0.0%로 나타났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82.0%, 91.0%로 나타났으며 6.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4.0%, 양금과 78.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6.0%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거문고 모두 92.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0.0%, 거문고와 88.0% 일치하였으며 1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80.0%, 거문고와 96.6% 일치하였으며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4.0%, 거문고와 78.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6.0%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구례풍류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동일하였다.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상령산> 제2장

<상령산> 제2장 제7-10박에서 국악원 거문고 선율은 ‘黃- 侏 仲’으로, 지용구 · 류대복 · 지영희 · 구례풍류 · 이리풍류 · 대전풍류가 동일한 선율로 진행된다. 국악원 피리 선율은 ‘仲- 黃 仲’으로 연주하는데, 이덕환 · 김천홍 · 국악원 해금 선율이 위와 같은 진행을 보인다.

<악보 2> <상령산> 제2장 제2각 제1-10박

<상령산> 제2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상령산> 제2장 선을비교

<상령산>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林	侏	○			○	○		○	○	○	○	○	○
	2	林	侏	○			○	○		○	○	○	○	○	○
	3	仲	仲	○			○	○		○	○	○	○	○	○
	4	仲	仲	○			○	○		○	○	○	○	○	○
	5	太	橫	○			●	○		○	●	○	○	○	●
	6	黃	橫	○			●	○		○	●	○	○	○	●
	7	仲	仲	○			○	○		○	○	○	○	○	○
	8	仲	仲	○			○	○		○	○	○	○	○	○
	9	林	侏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11	黃	橫	○			○	○		○	○	○	○	○	○
	12	黃	橫	○			○	○		○	○	○	○	○	○
	13	林	侏	○			○	○		○	○	○	○	○	○
	14	林	侏	○			○	○		○	○	○	○	○	○
	15	仲	仲	○			○	○		○	○	○	○	○	○
	16	黃	橫	○			○	○		○	○	○	○	○	○
	17	林	侏	○			○	○		○	○	○	○	○	○
	18	仲	侏	●			●	○		○	●	○	○	○	●
	19	橫	仲	○			●	○		○	●	林	林	○	●
	20	仲	侏	○			●	○		○	●	●	●	○	●
2각	1	黃	橫	○			○	○		○	○	○	○	○	○
	2	黃	橫	○			○	○		○	○	○	○	○	○
	3	仲	仲	○			○	○		○	○	○	○	○	○
	4	仲	仲	○			○	○		○	○	○	○	○	○
	5	仲	橫	○			○	○		○	○	○	○	○	○
	6	仲	橫	○			○	○		○	○	○	○	○	○
	7	仲	仲	○			○	○		○	○	○	○	○	○
	8	仲	仲	○			○	○		○	○	○	○	○	○
	9	黃	橫	仲			○	○		○	○	○	○	○	○
	10	仲	侏	○			●	○		○	●	○	○	○	●
	11	林	仲	黃			●	○		○	●	○	○	○	●
	12	林	仲	○			●	○		○	●	○	○	○	●

	13	仲	仲	◎			◎	◎		◎	◎	◎	◎	◎	◎	
	14	仲	仲	◎			◎	◎		◎	◎	◎	◎	◎	◎	
	15	太	仲	○			●	○		○	●	○	○	○	●	
	16	黃	仲	○			●	○		○	●	○	○	○	●	
	17	仲	黃	○			●	○		○	●	○	○	○	●	
	18	仲	黃	○			●	○		○	●	○	○	○	●	
	19	倝	倝	○			◎	◎		◎	◎	◎	◎	◎	◎	
	20	黃	仲	○			●	○		○	●	●	●	○	●	
3ㄱ	1	太	佉				◎	◎		◎	◎	◎	◎	◎	◎	
	2	太	佉				◎	◎		◎	◎	◎	◎	◎	◎	
	3	太	佉				◎	◎		◎	◎	◎	◎	◎	◎	
	4	黃	儻				◎	◎		◎	◎	◎	◎	◎	◎	
	5	林	倝				◎	◎		◎	◎	仲	仲	◎	◎	
	6	林	倝				◎	◎		◎	◎	◎	◎	◎	◎	
	7	仲	仲				◎	◎		◎	◎	◎	◎	◎	◎	
	8	仲	仲				◎	◎		◎	◎	◎	◎	◎	◎	◎
	9	太	佉				◎	◎		◎	◎	林	林	◎	◎	
	10	黃	儻				◎	◎		◎	◎	◎	◎	◎	◎	◎
	11	倝	倝				◎	◎		◎	◎	◎	◎	◎	◎	◎
	12	仲	倝				●	○		○	●	○	○	○	●	
	13	黃	儻				◎	◎		◎	◎	◎	◎	◎	◎	
	14	仲	倝				●	○		○	●	●	倝	○	●	
	15	黃	儻				●	○		○	●	●	○	○	●	
	16	黃	倝				●	○		○	●	●	○	○	●	
	17	仲	仲				◎	◎		◎	◎	◎	◎	◎	◎	
	18	仲	仲				◎	◎		◎	◎	◎	◎	◎	◎	
	19	倝	儻				●	○		○	●	○	○	○	●	
	20	黃	倝				●	○		○	●	○	○	○	●	
4ㄱ	1	黃	仲				●	○		○	●	○	○	○	●	
	2	黃	仲				●	○		○	●	○	○	○	●	
	3	仲	仲				◎	◎		◎	◎	◎	◎	◎	◎	
	4	仲	仲				◎	◎		◎	◎	◎	◎	◎	◎	
	5	仲	仲				◎	◎		◎	◎	◎	◎	◎	◎	
	6	仲	仲				◎	◎		◎	◎	◎	◎	◎	◎	
	7	仲	儻				●	○		○	●	●	○	○	●	

8	仲	橫				●	○		○	●	○	○	○	○	●
9	黃	徇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11	黃	橫				◎	◎		◎	◎	◎	◎	◎	◎	◎
12	黃	橫				◎	◎		太	◎	◎	◎	◎	◎	◎
13	仲	仲				◎	◎		◎	◎	◎	◎	◎	◎	◎
14	仲	仲				◎	◎		◎	◎	◎	◎	◎	◎	◎
15	徇	徇				◎	◎		◎	◎	◎	◎	◎	◎	◎
16	黃	橫				◎	◎		◎	◎	◎	◎	◎	◎	◎
17	仲	仲				◎	◎		◎	◎	◎	◎	◎	◎	◎
18	仲	仲				◎	◎		◎	◎	◎	◎	◎	◎	◎
19	徇	徇				◎	◎		◎	◎	◎	◎	◎	◎	◎
20	黃	橫				◎	◎		◎	◎	◎	◎	◎	◎	◎

<상령산> 제2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상령산> 제2장의 선율 일치도

<상령산>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7			57	57		56	57	55	55	57	57
●	1			23	0		0	23	5	1	0	23
○	8			0	21		21	0	15	18	21	0
◎	2			0	2		2	0	2	2	2	0
기타	2			0	0		1	0	3	4	0	0
총 개수	40			80	80		80	80	80	80	80	80
피리 일치도	70.0%			100%	71.5%		70.0%	100%	75.0%	70.0%	71.5%	100%
거문고 일치도	92.5%			71.5%	100%		98.7%	71.5%	90.0%	93.7%	100%	71.5%
독자적 선율	0.0%			0.0%	0.0%		1.2%	0.0%	3.7%	5.0%	0.0%	0.0%

지용구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92.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이덕환은 피리와 100.0%, 거문고와 71.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류대복의 경우 71.5%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10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70.0%, 98.7%로 나타났으며 1.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100.0%, 거문고와 71.5% 일치하였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거문고가 각각 75.0%, 9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7%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93.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0%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0%, 거문고와 71.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상령산> 제3장

제3각 제13-20박의 피리 선율 진행은 ‘仲- 林- 仲- 太 黃’이다. 동일한 구간에서 거문고는 ‘林- 橫- 林- 休- 黃-’을 연주하여 서로 상이한 선율 진행을 보인다.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모두 피리의 선율을 따르고 있으며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의 선율을 따르는 것이 확인된다. 거문고가 연주하는 제15박의 橫 음은 해금의 음역 밖의 저음이다. 따라서 류대복은 休, 구례풍류는 仲, 이리풍류는 太로 바꾸어 연주, 지영희는 한 옥타브 높은 黃을 연주하고 있다.

<악보 3> <상령산> 제3장 제2각 제11-20박

<상령산> 제3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상령산> 제3장 선율비교

<상령산>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林 林				○	○		○	○	○	○	○	○
	2	潢 林				●	●		●	●	●	●	●	●
	3	潢 仲				●	●		●	●	●	●	●	●

	4	林	仲				●	●		●	●	●	●	●	●	
	5	潢	潢				○	○		○	○	○	○	○	○	
	6	林	潢				●	●		●	●	●	●	●	●	
	7	仲	仲				○	○		○	○	○	○	○	○	
	8	仲	仲				○	○		○	○	○	○	○	○	
	9	仲	仲				○	○		○	○	○	○	○	○	
	10	潢	潢				○	○		○	○	○	○	○	○	
	11	林	侏				○	○		○	○	○	○	○	○	
	12	仲	侏				●	○		○	●	○	○	○	●	
	13	潢	潢				○	○		○	○	○	○	○	○	
	14	仲	侏				●	○		○	●	○	○	○	●	
	15	潢	潢				○	○		○	○	○	○	○	○	
	16	林	潢				●	○		○	●	○	○	○	●	
	17	仲	仲				○	○		○	○	○	○	○	○	
	18	仲	仲				○	○		○	○	○	○	○	○	
	19	仲	潢				○	○		○	○	○	○	○	○	
	20	潢	侏				○	○		○	○	○	○	○	○	
221	1	林	侏				○	○		○	○	○	○	○	○	
	2	林	侏				○	○		○	○	○	○	○	○	
	3	林	侏				○	○		○	○	○	○	○	○	
	4	林	侏				○	○		○	○	○	○	○	○	
	5	林	潢				○	○		○	○	○	○	○	○	
	6	林	潢				○	○		○	○	○	○	○	○	
	7	林	侏				○	○		○	○	○	○	○	○	
	8	太	侏				●	○		○	●	○	○	○	○	●
	9	仲	仲				○	○		○	○	○	○	○	○	○
	10	潢	潢				○	○		林	○	○	○	○	○	○
	11	林	侏				○	○		○	○	○	○	○	○	○
	12	林	侏				○	○		○	○	○	○	○	○	○
	13	仲	侏				●	○		○	●	○	○	○	○	●
	14	仲	侏				●	○		○	●	○	○	○	○	●
	15	林	潢				●	●		○	●	仲	太	●	●	●
	16	林	潢				●	●		○	●	○	○	○	●	●

	17	仲	仲				●	○		○	●	○	○	○	●
	18	仲	仲				●	○		○	●	潢	●	○	●
	19	太	侖				●	○		○	●	○	黃	○	●
	20	黃	僂				●	○		○	●	仲	仲	○	●
3才	1	黃	仲				●	○		○	●	●	○	○	●
	2	黃	仲				太	○		○	●	○	○	○	●
	3	仲	仲				○	○		○	○	○	○	○	○
	4	仲	僂				●	○		○	●	○	○	○	●
	5	林	侖				○	○		○	○	○	○	○	○
	6	林	侖				○	○		○	○	○	○	○	○
	7	仲	仲				○	○		○	○	○	○	○	○
	8	仲	仲				○	○		○	○	○	○	○	○
	9	太	仲				○	○		○	○	黃	○	○	○
	10	黃	僂				○	○		○	○	○	○	○	○
	11	林	侖				○	○		○	○	○	○	○	○
	12	仲	侖				●	○		○	●	●	●	○	●
	13	潢	僂				○	○		○	○	汰	○	○	○
	14	潢	侖				○	○		○	○	○	○	○	○
	15	無	僂				○	○		○	○	○	○	○	○
	16	林	僂				○	○		○	○	○	○	○	○
	17	仲	仲				○	○		○	○	○	○	○	○
	18	仲	仲				○	○		○	○	○	○	○	○
	19	黃	僂				○	○		○	○	○	○	○	○
	20	林	侖				○	○		○	○	○	○	○	○
4才	1	仲	仲				○	○		○	○	○	○	○	○
	2	黃	仲				●	○		○	●	○	○	○	●
	3	仲	仲				○	○		○	○	○	○	○	○
	4	仲	仲				○	○		○	○	○	○	○	○
	5	仲	仲				○	○		○	○	○	○	○	○
	6	仲	仲				○	○		○	○	○	○	○	○
	7	仲	僂				●	○		○	●	●	○	○	●
	8	仲	僂				●	○		○	●	○	○	○	●
	9	黃	侖				●	○		○	●	○	○	○	●

10	仲	仲				◎	◎		◎	◎	◎	◎	◎	◎
11	黃	橫				◎	◎		◎	◎	◎	◎	◎	◎
12	黃	橫				◎	◎		太	◎	◎	◎	◎	◎
13	仲	仲				◎	◎		◎	◎	◎	◎	◎	◎
14	仲	仲				◎	◎		◎	◎	◎	◎	◎	◎
15	侏	侏				◎	◎		◎	◎	◎	◎	◎	◎
16	黃	橫				◎	◎		◎	◎	◎	◎	◎	◎
17	仲	仲				◎	◎		◎	◎	◎	◎	◎	◎
18	仲	仲				◎	◎		◎	◎	◎	◎	◎	◎
19	侏	侏				◎	◎		◎	◎	◎	◎	◎	◎
20	黃	橫				◎	◎		◎	◎	◎	◎	◎	◎

<상령산>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상령산> 제3장 선율 일치도

<상령산>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56	56		54	56	55	56	56	56
●				23	6		4	24	7	6	6	24
○				0	18		20	0	14	15	18	0
⊙				0	0		0	0	0	0	0	0
기타				1	0		2	0	4	3	0	0
총 개수				80	80		80	80	80	80	80	80
피리 일치도				98.7%	77.5%		72.5%	100.0%	77.5%	73.7%	77.5%	100.0%
거문고 일치도				70.0%	92.5%		92.5%	70.0%	86.2%	88.7%	86.2%	70.0%
독자적 선율				1.2%	0.0%		2.5%	0.0%	5.0%	3.7%	0.0%	0.0%

이덕환은 피리와 98.7%,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2%로 확인된다. 류대복의 경우 77.5%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92.5% 일치하였다.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72.5%, 92.5%로 나타났으며 2.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100.0%,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0%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거문고가 각각 77.5%, 86.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0%이다. 이리 풍류는 피리와 78.7%, 거문고와 88.7% 일치하였으며 3.7%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7.5%, 거문고와 86.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0%,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없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구례풍류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동일하였다.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상령산> 제4장

제5각 제1-8박의 거문고 선율은 ‘黃- 黃 太 林- 仲- 太 黃’을 연주한다. 피리는 ‘仲- 林- 仲 林 太-’를 연주하고 있어 거문고와는 다른 선율로 연주한다. 거문고 선율과 동일한 진행을 하는 경우는 류대복,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이며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와 같은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구례풍류는 독자적 선율 진행을 보인다. 구례풍류는 제1-4박까지는 ‘太- 太 黃’으로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며, 제5-7박에서는 피리의 선율과 동일한 ‘仲 林 太’을 연주하며, 다시 제8박에서는 黃을 주요음으로 하여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악보 4> <상령산> 제4장 제5각 제1-10박

<상령산> 제4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상령산> 제4장 선율비교

<상령산>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	㉸				◎	◎		◎	◎	◎	◎	◎	◎

	2	仲	淋				●	○		○	●	○	○	○	●
	3	黃	橫				○	○		○	○	○	○	○	○
	4	仲	淋				●	○		●	●	●	●	○	●
	5	黃	橫				○	○		○	○	○	○	○	○
	6	黃	橫				○	○		○	○	○	○	○	○
	7	仲	仲				○	○		○	○	○	○	○	○
	8	仲	仲				○	○		○	○	○	○	○	○
	9	仲	橫				●	●		●	●	●	●	●	●
	10	黃	淋				●	●		仲	●	●	●	●	●
	11	林	淋				○	○		○	○	○	○	○	○
	12	仲	淋				●	○		○	●	○	○	○	●
	13	林	淋				○	○		○	○	○	○	○	○
	14	仲	淋				○	○		○	○	○	○	○	○
	15	太	橫				●	○		○	●	○	○	○	●
	16	黃	橫				○	○		○	○	○	○	○	○
	17	太	伏				○	○		○	○	○	○	○	○
	18	太	伏				○	○		○	○	○	○	○	○
	19	太	伏				○	○		○	○	仲	○	○	○
	20	黃	橫				○	○		○	○	○	○	○	○
22	1	仲	仲				○	○		○	○	○	○	○	○
	2	仲	仲				○	○		○	○	○	○	○	○
	3	無	仲				林	無		林	林	○	○	●	林
	4	仲	橫				●	○		○	●	○	○	○	●
	5	林	橫				○	○		○	○	○	○	○	○
	6	仲	橫				●	○		○	●	○	○	○	●
	7	黃	淋				●	○		○	●	仲	仲	○	●
	8	黃	淋				●	○		○	●	仲	仲	○	●
	9	林	淋				○	○		○	○	太	○	○	○
	10	黃	淋				○	○		○	○	○	○	○	○
	11	林	仲				○	○		○	○	○	○	○	○
	12	仲	仲				●	○		○	●	●	○	○	●
	13	林	淋				○	○		○	○	汰	○	○	○
	14	仲	仲				○	○		○	○	潢	○	○	○
	15	太	橫				●	●		●	●	○	●	●	●
	16	黃	橫				○	○		○	○	林	○	○	○

	17	仲	仲				○	○		○	○	○	○	○
	18	仲	仲				○	○		○	○	○	○	○
	19	侏	儻				●	○		○	●	仲	○	○
	20	黃	侏				●	○		○	●	○	○	○
3자	1	仲	仲				○	○		○	○	○	○	○
	2	黃	仲				●	○		○	●	○	○	○
	3	仲	仲				○	○		○	○	○	○	○
	4	仲	仲				○	○		○	○	○	○	○
	5	仲	儻				○	○		○	○	○	○	○
	6	仲	儻				○	○		○	○	○	○	○
	7	仲	儻				●	○		○	●	○	○	○
	8	仲	儻				●	○		○	●	○	○	○
	9	黃	侏				●	○		○	●	○	○	○
	10	仲	徧				●	○		侏	●	○	○	○
	11	黃	侏				○	○		○	○	太	太	○
	12	黃	侏				○	○		○	○	太	太	○
	13	黃	儻				○	○		○	○	太	仲	○
	14	太	儻				○	○		○	○	○	○	○
	15	仲	侏				●	○		○	●	●	●	○
	16	林	侏				○	○		○	○	○	○	○
	17	太	侏				●	○		○	●	●	●	○
	18	太	侏				●	○		○	●	黃	黃	○
	19	太	伋				○	○		○	○	林	林	○
	20	黃	儻				○	○		○	○	○	○	○
4자	1	太	伋				○	○		○	○	侏	侏	仲
	2	太	伋				○	○		○	○	侏	侏	仲
	3	黃	儻				○	○		○	○	○	○	○
	4	黃	儻				○	○		○	○	仲	○	○
	5	侏	侏				○	○		○	○	黃	○	○
	6	黃	儻				○	○		○	○	○	○	○
	7	太	伋				○	○		○	○	○	○	○
	8	太	伋				○	○		○	○	○	○	○
	9	太	伋				○	○		○	○	黃	○	○
	10	黃	儻				○	○		○	○	○	○	○
	11	侏	侏				○	○		○	○	○	○	○

	12	仲	徠				●	○		○	●	○	○	○	●	
	13	黃	橫				○	○		○	○	○	○	○	○	
	14	黃	橫				○	○		○	○	○	○	○	○	
	15	無	橫				●	○		○	●	●	○	○	●	
	16	徠	徠				○	○		○	○	○	○	○	●	
	17	仲	仲				○	○		○	○	○	○	○	●	
	18	仲	仲				○	○		○	○	○	○	○	●	
	19	仲	仲				○	○		○	○	○	○	○	○	
	20	仲	徠				●	○		○	●	●	○	○	●	
5자	1	仲	橫				●	○		○	●	太	○	○	●	
	2	仲	橫				●	○		○	●	太	○	○	●	
	3	林	橫				●	○		○	●	○	○	○	●	
	4	林	伏				●	○		○	●	○	○	○	●	
	5	仲	徠				●	○		○	●	○	○	○	●	
	6	林	徠				○	○		○	○	○	○	○	○	
	7	太	伏				○	○		○	○	○	○	○	○	○
	8	太	橫				●	○		○	●	黃	○	○	○	●
	9	太	仲				○	○		○	○	林	○	○	○	○
	10	黃	橫				○	○		○	○	○	○	○	○	○
	11	徠	徠				○	○		○	○	○	○	○	○	○
	12	仲	徠				●	○		○	●	○	○	○	●	●
	13	黃	橫				○	○		○	○	○	○	○	○	○
	14	仲	徠				●	○		○	●	○	○	○	○	●
	15	黃	橫				○	○		○	○	○	○	○	林	○
	16	黃	橫				○	○		太	○	○	○	○	仲	○
	17	仲	仲				○	○		○	○	○	○	○	○	○
	18	仲	仲				○	○		○	○	○	○	○	○	○
	19	徠	橫				●	○		○	●	○	○	○	○	●
	20	黃	徠				●	○		○	●	○	○	○	○	●
6자	1	黃	仲				●	○		○	●	○	○	○	●	
	2	黃	仲				●	○		○	●	○	○	○	●	
	3	仲	仲				○	○		○	○	○	○	○	○	
	4	仲	仲				○	○		○	○	○	○	○	○	○
	5	仲	橫				○	○		○	○	○	○	○	○	○
	6	仲	橫				○	○		○	○	○	○	○	○	○

7	仲	橫				●	○		○	●	○	○	○	●
8	仲	橫				●	○		○	●	●	○	○	●
9	黃	裨				●	○		○	●	○	○	○	●
10	仲	仲				◎	◎		◎	◎	◎	◎	◎	◎
11	黃	橫				◎	◎		◎	◎	◎	◎	◎	◎
12	黃	橫				◎	◎		◎	◎	◎	◎	◎	◎
13	仲	仲				◎	◎		◎	◎	◎	◎	◎	◎
14	仲	仲				◎	◎		◎	◎	◎	◎	◎	◎
15	裨	裨				◎	◎		◎	◎	◎	◎	◎	◎
16	黃	橫				◎	◎		◎	◎	◎	◎	◎	◎
17	仲	仲				◎	◎		◎	◎	◎	◎	◎	◎
18	仲	仲				◎	◎		◎	◎	◎	◎	◎	◎
19	裨	裨				◎	◎		◎	◎	◎	◎	◎	◎
20	黃	橫				◎	◎		◎	◎	◎	◎	◎	◎

<상령산> 제4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상령산> 제4장 선율 일치도

<상령산>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78	78		78	78	63	68	71	75
●				40	3		3	40	9	6	5	43
○				1	38		35	1	26	37	40	1
⊙				0	0		0	0	0	0	0	0
기타				1	1		4	1	22	9	4	1
총 개수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피리 일치도				98.3%	67.5%		67.5%	98.3%	60.0%	56.6%	63.3%	98.3%
거문고 일치도				65.8%	96.6%		94.1%	65.8%	74.1%	87.5%	92.5%	63.3%
독자적 선율				0.8%	0.8%		3.3%	0.8%	18.3%	7.5%	3.3%	0.8%

이덕환은 피리와 98.3%, 거문고와 65.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8%이다. 류대복의 경우 67.5%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10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8%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5.0%, 95.8%로 나타났으며 3.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9.1%, 거문고와 65.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8%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9.1%, 거문고와 71.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0.8%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0.0%, 거문고와 88.3% 일치하였으며 9.1%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0.8%, 거문고와 95.0% 일치하였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0%, 거문고와 63.3%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구례풍류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동일하였다.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 <상령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상령산> 선율 일치도

<상령산>	지용구	김택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64			230	231		228	230	215	218	224	227
●	3			94	12		8	95	25	14	11	98
○	13			1	92		82	1	59	75	97	1
⊙	2			0	4		2	0	2	2	4	0
기타	8			5	1		10	4	29	21	4	4
총 개수	90			330	340		330	330	330	330	340	330
피리 일치도	71.1%			98.1%	71.4%		71.5%	98.4%	72.7%	70.3%	69.1%	98.4%
거문고 일치도	80.2%			70.0%	95.0%		93.9%	70.0%	83.0%	88.7%	97.2%	69.0%
독자적 선율	8.8%			1.5%	0.2%		3.0%	1.2%	8.7%	6.3%	1.1%	1.2%


<상령산>을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71.1%, 거문고와 80.2%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8.8%로 나타났다. 이덕환은 피리와 98.1%,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5% 연주한다. 류대복은 피리와 71.4%, 거문고와 9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2%로 나타났다. 지영희의 경우 피리와 71.5%, 거문고와 93.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0%로 나타났다. 김천홍의 경우 피리와 98.4%,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1.2%의 독자적 선율을 운용하였다. 구례풍류의 경우 피리와 72.7%, 거문고와 83.0%, 독자적 선율은 8.7%로 나타났다. 이리풍류는 70.3%의 비율로 피리와 일치하였고 거문고와는 88.7% 일치하였다. 독자적 선율은 6.3%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9.1%, 거문고와 97.2%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1%로 나타났다. 국악원은 피리와 98.4%의 높은 비율로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69.0%로 저조한 일치도를 보였다. 독자적 선율은 1.2%로 나타났다.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 선율과 98% 이상의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더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 구례풍류는 8.7%, 이리풍류는 6.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중령산>

<중령산>은 20박 한 장단으로 총 18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줄풍류 중 두 번째 곡에 해당한다.

1) <중령산> 초장

제1각 제1-10박의 국악원 거문고 선율은 ‘無- 無 林 無 林 潢- 仲 林’으로 연주한다.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이와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국악원 피리 선율은 ‘林- 仲--- 仲 仲 林 無’를 연주하며, 이덕환과 김천홍, 국악원 해금 선율은 피리와 동일하게 선율 진행한다. 구례풍류는 제5-6박과 제9-10박에서, 이리풍류는 제9-10박에서 독자적 선율을 운용하고 있다. 지영희는 제6박에서 林을 한 박으로 연주하지 않고 의 분할된 리듬꼴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높인다.

<악보 5> <중령산> 초장 제1각 제1-10박

<중령산> 초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중령산> 초장 선율비교

<중령산>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林	無	○			●	○		○	●	●	○	○	○	●
	2	林	無	○			●	○		○	●	○	○	○	○	●
	3	仲	無	○			●	○		○	●	○	○	○	○	●
	4	仲	林	○			●	○		○	●	●	○	○	○	●
	5	仲	無	○			●	○		○	●	潢	○	○	○	●
	6	仲	林	○			●	○		○	●	潢	○	○	○	●
	7	仲	黃	○			●	○		○	●	●	○	○	○	●
	8	仲	黃	○			●	○		○	●	林	○	○	○	●
	9	林	仲	○			●	○		○	●	●	●	○	○	●
	10	無	林	○			○	○		○	○	○	○	○	○	○
	11	太	無	潢			●	潢		潢	●	林	潢	潢	潢	●
	12	太	無	潢			●	潢		潢	●	林	潢	潢	潢	●
	13	林	仲	無			●	○		○	●	潢	潢	○	○	●
	14	仲	林	○			●	○		○	●	潢	○	○	○	●
	15	潢	黃	◎			◎	◎		◎	◎	無	◎	◎	◎	◎
	16	潢	黃	◎			◎	◎		◎	◎	仲	◎	◎	◎	◎
	17	無	無	◎			◎	◎		◎	◎	潢	◎	◎	◎	◎
	18	無	無	◎			◎	◎		◎	◎	潢	◎	◎	◎	◎
	19	林	林	◎			◎	◎		◎	◎	◎	◎	◎	◎	◎
	20	仲	仲	◎			◎	◎		◎	◎	潢	◎	◎	◎	◎
2각	1	黃	潢	◎			◎	◎		◎	◎	林	◎	◎	◎	◎
	2	太	潢	○			●	○		●	●	林	○	○	○	●
	3	仲	仲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5	仲	潢	◎			○	◎		◎	◎	◎	◎	◎	◎	◎
	6	仲	潢	◎			○	◎		◎	◎	◎	◎	◎	◎	◎
	7	仲	仲	◎			◎	◎		◎	◎	◎	◎	◎	◎	◎
	8	仲	仲	◎			◎	◎		◎	◎	◎	◎	◎	◎	◎
	9	無	無	◎			◎	◎		◎	◎	潢	◎	◎	◎	◎
	10	林	林	◎			◎	◎		◎	◎	潢	◎	◎	◎	◎
	11	仲	仲	◎			◎	◎		◎	◎	◎	◎	◎	◎	◎
	12	仲	仲	◎			◎	◎		◎	◎	◎	◎	◎	◎	◎

	13	仲	仲	○			○	○		○	○	○	○	○	
	14	林	林	○			○	○		○	○	○	○	○	
	15	無	無	○			○	○		○	○	○	○	○	
	16	仲	林	○			●	○		○	●	●	○	○	
	17	潢	無	○			○	○		○	○	○	○	○	
	18	潢	黃	○			○	○		○	○	○	○	○	
	19	仲	仲	○			○	○		○	○	林	○	○	
	20	林	潢	○			○	○		○	○	仲	○	○	
3	1	無	無	○			○	○		○	○	○	○	○	
	2	無	無	○			○	○		○	○	○	○	○	
	3	無	仲	●			●	●		○	●	潢	林	●	
	4	仲	林	○			●	○		○	●	●	●	○	
	5	潢	黃	○			○	○		○	○	○	○	○	
	6	潢	黃	○			○	○		○	○	○	○	○	
	7	無	無	○			○	○		○	○	潢	○	○	
	8	無	無	○			○	○		○	○	潢	○	○	
	9	林	林	○			○	○		○	○	○	○	○	
	10	黃	仲	○			○	○		○	○	○	○	○	
	11	林	林	○			○	○		○	○	○	○	○	
	12	仲	林	●			●	○		●	●	○	○	○	
	13	潢	黃	○			○	○		○	○	○	○	○	
	14	潢	黃	○			○	○		○	○	○	○	○	
	15	無	無	○			○	○		○	○	○	○	○	
	16	無	林	○			●	○		○	●	仲	仲	○	
	17	無	無	○			○	○		○	○	○	○	○	○
	18	潢	黃	○			○	○		○	○	○	○	○	○
	19	太	仲	○			○	○		○	○	林	○	○	○
	20	黃	潢	○			○	○		○	○	○	○	○	○
4	1	仲	仲	○			○	○		○	○	○	○	○	
	2	仲	仲	○			○	○		○	○	○	○	○	
	3	林	林	○			○	○		○가	○	○	○	○	
	4	仲	仲	○			○	○		○가	○	○	○	○	
	5	太	潢	○양			○	○		○가	○	○	○	○	
	6	黃	潢	○			○	○		○가	○	○	○	林	
	7	仲	仲	○			○	○		○가	○	○	○	○	

8	仲	仲	◎			◎	◎		⊙가	◎	◎	◎	◎	◎
9	黃	黃	◎			◎	◎		⊙가	◎	◎	◎	◎	◎
10	林	無	⊙양			◎	◎		⊙가	◎	◎	◎	◎	◎
11	黃	黃	◎			◎	◎		◎	◎	◎	◎	◎	◎
12	黃	黃	◎			◎	◎		太	◎	◎	◎	◎	◎
13	仲	仲	◎			◎	◎		◎	◎	◎	◎	◎	◎
14	仲	仲	◎			◎	◎		◎	◎	◎	◎	◎	◎
15	林	黃	○			○	○		○	●	●	●	○	●
16	黃	黃	○			○	○		○	●	●	●	○	●
17	仲	仲	◎			◎	◎		◎	◎	◎	◎	◎	◎
18	仲	仲	◎			◎	◎		◎	◎	◎	◎	◎	◎
19	仲	仲	◎			◎	◎		◎	◎	◎	◎	◎	◎
20	仲	仲	◎			◎	◎		◎	◎	◎	◎	◎	◎

<중령산> 초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중령산> 초장 선율 일치도

<중령산>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55			55	55		48	57	45	57	56	57
●	2			19	1		2	21	8	4	1	21
○	18			6	22		19	2	5	14	20	2
⊙	2 양			0	0		8 가	0	0	0	0	0
기타	3			0	2		3	0	22	5	3	0
총 개수	80			80	80		80	80	80	80	80	80
피리 일치도	71.2%			92.5%	70.0%		62.5%	97.5%	66.2%	76.2%	71.2%	97.5%
거문고 일치도	91.2%			76.2%	96.2%		83.7%	73.7%	62.5%	88.7%	95.0%	73.7%
독자적 선율	3.7%			0.0%	2.5%		3.7%	0.0%	27.5%	6.2%	3.7%	0.0%

지용구는 피리와 71.2%, 거문고와 91.2% 일치하였으며 3.7%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덕환은 피리와 92.5%, 거문고와 76.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류대복의 경우 70.0%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96.2% 일치하였다. 독자적 선율은 2.5%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2.5%, 83.7%로 나타났으며 3.7%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7.5%, 거문고와 73.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66.2%, 거문고와 62.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7.5%이다. 이리 풍류는 피리와 76.2%, 거문고와 88.7% 일치하였으며 6.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1.2%, 거문고와 95.0% 일치하였으며 3.7%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7.5%, 거문고와 73.7%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구례풍류,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중령산> 제2장

제3각 제3-10박까지의 연주를 살펴보면, 피리의 경우 ‘太 黃 林- 仲- 太 黃’으로 연주한다. 거문고의 경우, ‘仲 林 無 林 潢- 林 仲’으로 연주한다.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거문고와 동일한 선율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피리와 동일한 선율 진행을 보이는 경우는 없다.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林- 潢- 無- 潢-’으로 피리와 거문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선율 진행을 보인다.

<악보 6> <중령산> 제3각 제1-10박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중령산> 제2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중령산> 제2장 선을비교

<중령산>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2	1	林	林	◎			◎	◎		◎	◎	◎	◎	◎	◎
	2	潢	黃	◎			◎	◎		◎	◎	◎	◎	◎	◎
	3	潢	黃	◎			◎	◎		◎	◎	◎	◎	◎	◎
	4	林	林	◎			◎	◎		◎	◎	◎	◎	◎	◎
	5	潢	黃	◎			◎	◎		◎	◎	◎	◎	◎	◎
	6	林	林	◎			◎	◎		◎	◎	◎	◎	◎	◎
	7	仲	仲	◎			◎	◎		◎	◎	◎	◎	◎	◎
	8	仲	仲	◎			◎	◎		◎	◎	◎	◎	◎	◎
	9	仲	仲	◎			◎	◎		◎	◎	◎	◎	◎	◎
	10	潢	無	○			●	●		○	●	○	○	○	○
	11	林	林	◎			◎	◎		◎	◎	◎	◎	◎	◎
	12	仲	林	○			●	○		○	●	○	○	○	○
	13	林	林	◎			◎	◎		◎	◎	◎	◎	◎	◎
	14	仲	仲	◎			◎	◎		◎	◎	◎	◎	◎	◎
	15	太	潢	◎			◎	◎		◎	◎	林	◎	◎	◎
	16	黃	潢	◎			◎	◎		◎	◎	仲	◎	◎	◎
	17	仲	仲	◎			◎	◎		◎	◎	太	◎	◎	◎
	18	仲	仲	◎			◎	◎		◎	◎	太	◎	◎	◎
	19	無	無	◎			◎	◎		◎	◎	黃	◎	◎	◎
	20	仲	仲	◎			◎	◎		◎	◎	◎	◎	◎	◎
22	1	林	林	◎			◎	◎		◎	◎	◎	◎	◎	◎
	2	仲	林	●			●	○		●	●	○	●	○	●
	3	潢	黃	◎			◎	◎		◎	◎	◎	◎	◎	◎
	4	潢	黃	◎			◎	◎		◎	◎	◎	◎	◎	◎
	5	無	仲	○			●	○		○	●	潢	○	○	○
	6	仲	林	○			●	○		○	●	潢	○	○	○
	7	汰	太	◎			◎	◎		◎	◎	◎	◎	◎	◎
	8	汰	太	◎			◎	◎		◎	◎	◎	◎	◎	◎
	9	潢	黃	◎			◎	◎		◎	◎	◎	◎	◎	◎
	10	潢	黃	◎			◎	◎		◎	◎	◎	◎	◎	◎
	11	無	林	汰			●	○		○	●	汰	○	○	○
	12	無	林	汰			●	○		仲	●	汰	○	○	○

	13	無	黃	○			●	○		○	●	○	○	○	●
	14	仲	黃	○			●	○		○	●	○	○	○	●
	15	潢	潢	◎			◎	◎		◎	◎	無	無	◎	◎
	16	潢	潢	◎			◎	◎		◎	◎	林	林	◎	◎
	17	無	黃	○			●	○		○	●	○	○	○	●
	18	無	黃	○			●	○		○	●	○	○	○	●
	19	林	無	○			●	○		○	●	●	○	○	●
	20	無	休	○			●	○		○	●	●	○	○	●
32	1	仲	仲	◎			◎	◎		◎	◎	◎	◎	◎	◎
	2	仲	仲	◎			◎	◎		◎	◎	◎	◎	◎	◎
	3	太	仲	○			林	○		○	林	○	○	○	林
	4	黃	休	◎			○	◎		◎	○	◎	◎	◎	○
	5	林	無	○			潢	○		○	潢	○	○	○	潢
	6	林	休	○			潢	○		○	潢	○	○	○	潢
	7	仲	黃	○			無	○		○	無	○	○	○	無
	8	仲	黃	○			無	○		○	無	○	○	○	無
	9	太	休	○			潢	○		○	潢	○	○	○	潢
	10	黃	仲	○			潢	○		○	潢	○	○	○	潢
	11	林	休	◎			◎	◎		◎	◎	◎	◎	◎	◎
	12	仲	休	●			●	○		●	○	○	●	●	●
	13	潢	黃	◎			◎	◎		◎	◎	◎	◎	◎	◎
	14	潢	黃	◎			◎	◎		◎	◎	◎	◎	◎	◎
	15	無	無	◎			◎	◎		◎	◎	◎	◎	◎	◎
	16	無	休	●			●	○		○	●	仲	○	○	●
	17	無	無	◎			◎	◎		◎	◎	◎	◎	◎	◎
	18	潢	黃	◎			◎	◎		◎	◎	◎	◎	◎	◎
	19	太	仲	◎			◎	◎		◎	◎	林	◎	◎	◎
	20	黃	潢	◎			◎	◎		◎	◎	無	◎	◎	◎
42	1	仲	仲	◎			◎	◎		◎	◎	◎	◎	◎	◎
	2	仲	仲	◎			◎	◎		◎	◎	◎	◎	◎	◎
	3	林	休	◎			◎	◎		◎가	◎	◎	◎	◎	◎
	4	仲	仲	◎			◎	◎		◎가	◎	◎	◎	◎	◎
	5	太	潢	◎			◎	◎		◎가	◎	◎	◎	◎	◎
	6	黃	潢	◎			◎	◎		◎가	◎	◎	◎	◎	◎
	7	仲	仲	◎			◎	◎		◎가	◎	◎	◎	◎	◎

8	仲	仲	◎			◎	◎		⊙가	◎	◎	◎	◎	◎
9	黃	橫	◎			◎	◎		⊙가	◎	◎	◎	◎	◎
10	侏	無	◎			◎	◎		⊙가	◎	林	◎	◎	◎
11	黃	橫	◎			◎	◎		太	◎	◎	◎	◎	◎
12	黃	橫	◎			◎	◎		◎	◎	◎	◎	◎	◎
13	仲	仲	◎			◎	◎		◎	◎	◎	◎	◎	◎
14	仲	仲	◎			◎	◎		◎	◎	◎	◎	◎	◎
15	黃	橫	○			○	○		○	林	林	○	○	林
16	黃	橫	○			●	○		○	●	●	●	○	●
17	仲	仲	◎			◎	◎		◎	◎	◎	◎	◎	◎
18	仲	仲	◎			◎	◎		◎	◎	◎	◎	◎	◎
19	仲	仲	◎			◎	◎		◎	◎	◎	◎	◎	◎
20	仲	仲	◎			◎	◎		◎	◎	◎	◎	◎	◎

<중령산> 제2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중령산> 제2장 선율 일치도

<중령산>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예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56			55	56		47	55	46	54	56	55
●	3			16	1		2	15	3	3	1	16
○	19			2	23		21	2	15	21	23	1
⊙	0			0	0		8 가	0	0	0	0	0
기타	2			7	0		2	8	16	2	0	8
총 개수	80			80	80		80	80	80	80	80	80
퍼리 일치도	73.7%			88.7%	71.2%		61.2%	87.5%	61.2%	71.2%	70.0%	88.7%
거문고 일치도	93.7%			71.2%	100%		85.0%	71.2%	76.2%	93.7%	98.7%	70.0%
독자적 선율	2.5%			8.7%	0		2.5%	10.0%	20.0%	2.5%	0.0%	10.0%

지용구는 피리와 73.7%, 거문고와 93.7% 일치하였으며 2.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덕환은 피리와 88.7%, 거문고와 71.2% 일치하였으며 8.7%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의 경우 71.2%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1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1.2%, 85.0%로 나타났으며 2.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87.5%, 거문고와 71.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0.0%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61.2%, 거문고와 76.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0.0%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71.2%, 거문고와 93.7% 일치하였으며 2.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93.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88.7%,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0.0%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중령산> 제3장

제1각 제1-10박의 국악원 거문고 선율은 ‘潢- 林- 橫- 林- 仲 林’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6박의 橫은 저음을 담당하는 거문고의 독자적 주법으로 가야금과 양금은 侏을 연주한다.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위와 동일한 선율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옥타브 진행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류대복은 제5-6박에서 侏을 연주하는데, 이는 류대복이 黃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 구간의 피리 선율은 ‘林- 林 仲 太 黃 仲 林 潢-’으로 연주되며,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 이와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악보 7> <중령산> 제3장 제1각 제1-10박

<중령산> 제3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중령산> 제3장 선율 비교

<중령산>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	1	林	黄	○			●	○		○	○	○	●

	2	林	黃	○			●	○		○	●	○	○	○	●	
	3	林	淋	◎			◎	◎		◎	◎	◎	◎	◎	◎	
	4	仲	淋	○			●	○		○	●	○	○	○	●	
	5	太	橫	○			●	○		○	●	仲	仲	○	●	
	6	黃	橫	○			●	○		○	●	無	仲	○	●	
	7	仲	淋	○			●	○		○	●	○	○	○	●	
	8	仲	淋	○			●	○		○	●	○	○	○	●	
	9	潢	仲	○			●	○		○	●	○	○	○	●	
	10	潢	無	○			●	○		○	●	○	○	○	●	
	11	無	淋	○			●	○		○	●	○	○	○	●	
	12	無	淋	○			●	○		○	●	○	○	○	●	
	13	無	淋	○			●	○		○	●	○	○	○	●	
	14	仲	仲	◎			◎	◎		◎	◎	◎	◎	◎	◎	
	15	潢	橫	○			●	○		太	●	太	太	○	●	
	16	潢	橫	○			●	○		○	●	○	○	○	●	
	17	無	橫	○			●	○		○	●	太	太	○	●	
	18	無	橫	○			●	○		○	●	太	太	○	●	
	19	林	無	○			●	○		○	●	黃	○	○	●	
	20	無	橫	○			●	○		○	●	○	○	○	●	
22	1	仲	仲	◎			◎	◎		◎	◎	林	◎	◎	◎	
	2	仲	仲	◎			◎	◎		◎	◎	林	林	◎	◎	
	3	無	無	◎			◎	◎		◎	◎	潢	潢	◎	◎	
	4	仲	仲	◎			◎	◎		◎	◎	潢	潢	◎	◎	
	5	林	淋	◎			◎	◎		◎	◎	無	無	◎	◎	
	6	仲	淋	○			●	○		○	●	○	○	○	○	●
	7	潢	黃	◎			◎	◎		◎	◎	◎	◎	◎	◎	◎
	8	潢	黃	◎			◎	◎		◎	◎	◎	◎	◎	◎	◎
	9	仲	淋	○			●	○		○	●	○	○	○	○	●
	10	潢	黃	◎			◎	◎		◎	◎	◎	◎	◎	◎	◎
	11	林	淋	◎			◎	◎		◎	◎	◎	◎	◎	◎	◎
	12	仲	淋	○			●	○		○	●	○	○	○	○	●
	13	林	淋	◎			◎	◎		◎	◎	◎	◎	◎	◎	◎
	14	仲	仲	◎			◎	◎		◎	◎	◎	◎	◎	◎	◎
	15	太	橫	◎양			◎	◎		◎	◎	◎	◎	◎	◎	◎
	16	黃	橫	◎			◎	◎		◎	◎	◎	◎	◎	◎	◎

	17	仲	仲	◎			◎	◎		◎	◎	◎	◎	◎	◎
	18	林	林	◎			◎	◎		◎	◎	◎	◎	◎	◎
	19	潢	黃	◎			◎	◎		◎	◎	◎	◎	◎	◎
	20	潢	黃	◎			◎	◎		◎	◎	◎	◎	◎	◎
32	1	林	林	◎			◎	◎		◎	◎	◎	◎	◎	◎
	2	林	林	◎			◎	◎		◎	◎	◎	◎	◎	◎
	3	林	林	◎			◎	◎		◎	◎	◎	◎	◎	◎
	4	仲	仲	◎			◎	◎		◎	◎	◎	◎	◎	◎
	5	無	無	◎			◎	◎		◎	◎	◎	◎	◎	◎
	6	無	無	◎			◎	◎		◎	◎	◎	◎	◎	◎
	7	林	林	◎			◎	◎		◎	◎	◎	◎	◎	◎
	8	林	林	◎			◎	◎		◎	◎	◎	◎	◎	◎
	9	林	林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11	黃	潢	◎			◎	◎		◎	◎	◎	◎	◎	◎
	12	黃	潢	◎			◎	◎		◎	◎	◎	◎	◎	◎
	13	仲	仲	◎			◎	◎		◎	◎	◎	◎	◎	◎
	14	仲	仲	◎			◎	◎		◎	◎	◎	◎	◎	◎
15	林	潢	○			○	○		○	○	●	●	○	●	
16	黃	潢	○			●	○		○	●	●	●	○	●	
17	仲	仲	◎			◎	◎		◎	◎	◎	◎	◎	◎	
18	仲	仲	◎			◎	◎		◎	◎	◎	◎	◎	◎	
19	仲	仲	◎			◎	◎		◎	◎	◎	◎	◎	◎	
20	仲	仲	◎			◎	◎		◎	◎	◎	◎	◎	◎	

<중령산>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중령산> 제3장 선율 일치도

<중령산>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7			37	37		37	37	32	33	37	37
●	0			22	0		0	22	2	2	0	23
○	22			1	23		22	1	15	16	23	0
⊙	1 양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1	0	11	9	0	0
총 개수	60			60	60		60	60	60	60	60	60
피리 일치도	61.6%			98.3%	61.6%		61.6%	98.3%	56.6%	58.3%	61.6%	100%
거문고 일치도	98.3%			63.3%	100%		98.3%	63.3%	78.3%	81.6%	100%	61.6%
독자적 선율	0.0%			0.0%	0.0%		1.6%	1.6%	18.3%	15.0%	0.0%	0.0%

지용구는 피리와 61.6%, 거문고와 98.3% 일치하였으며 이덕환은 피리와 98.3%, 거문고와 63.3% 일치하였다. 류대복의 경우 61.6%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10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1.6%, 98.3%로 나타났으며 1.6%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8.3%, 거문고와 61.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6%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6.6%, 거문고와 78.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8.3%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58.3%, 거문고와 81.6% 일치하였으며 15.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1.6%, 거문고와 100% 일치하였으며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0%, 거문고와 61.6%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중령산> 제4장

제3각 제1-10박의 거문고 선율은 ‘仲- 仲 林 無 林 潢- 林 仲’ 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가 이와 동일한 선율 진행을 보이고 있다. 피리 선율의 경우 ‘黃 黃 仲--- 仲- 潢-’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 이와 동일한 선율 진행을 보인다.

<악보 8> <중령산> 제4장 제3각 제1-10박

<중령산> 제4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중령산> 제4장 선율비교

<중령산>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林 林	○			○	○		○	○	○	○	○
	2	林 林	仲			○	○		仲	○	無	無	○
	3	潢 黃	○			○	○		○	○	無	無	○
	4	潢 黃	○			○	○		○	○	無	仲	○
	5	無 仲	○			●	○		○	●	潢	潢	○
	6	仲 林	○			●	○		○	●	潢	潢	○
	7	汰 太	○			○	○		○	○	潢	○	○
	8	汰 太	○			○	○		○	○	潢	○	○
	9	潢 黃	○			○	○		○	○	汰	○	○
	10	潢 黃	○			○	○		○	○	○	○	○
	11	林 林	○			○	○		○	○	無	○	○
	12	林 林	仲			○	○		仲	○	無	仲	○
	13	潢 黃	○			○	○		○	○	仲	○	○
	14	潢 黃	○			○	○		○	○	林	○	○
	15	無 無	○			○	○		○	○	○	○	○
	16	仲 林	○			●	○		○	●	○	○	○
	17	潢 黃	○			○	○		○	○	○	○	○
	18	潢 黃	○			○	○		○	○	○	○	○
	19	仲 仲	○			○	○		○	○	林	林	○
	20	仲 仲	○			○	○		○	○	○	○	○
2각	1	林 林	○			○	○		○	○	○	○	○
	2	林 林	仲			○	○		○	○	○	○	○
	3	潢 黃	○			○	○		○	○	○	○	○
	4	潢 黃	○			○	○		○	○	○	○	○
	5	仲 仲	○			○	○		○	○	○	○	○
	6	仲 仲	○			○	○		○	○	○	○	○
	7	汰 太	○			○	○		○	○	○	○	○
	8	汰 太	○			○	○		○	○	○	○	○
	9	潢 黃	○			○	○		○	○	○	○	○

	10	潢	仲	●			●	○		●	●	●	●	○	●
	11	汰	太	◎			◎	◎		◎	◎	◎	◎	◎	◎
	12	汰	太	◎			◎	◎		◎	◎	◎	◎	◎	◎
	13	潢	黃	◎			◎	◎		◎	◎	◎	◎	◎	◎
	14	潢	黃	◎			◎	◎		◎	◎	◎	◎	◎	◎
	15	潢	潢	●			●	○		○	●	無	●	●	●
	16	潢	潢	●			●	○		太	●	林	●	●	●
	17	無	黃	○			●	○		○	●	○	●	○	●
	18	無	黃	○			●	○		○	●	○	●	○	●
	19	林	無	○			●	○		○	●	●	○	○	●
	20	仲	侏	○			●	○		○	●	○	○	○	●
324	1	黃	仲	○			●	○		○	●	○	○	○	●
	2	太	仲	○			●	○		○	●	○	○	○	●
	3	仲	仲	◎			◎	◎		◎	◎	◎	◎	◎	◎
	4	仲	侏	○			●	○		○	●	○	○	○	●
	5	仲	無	○			●	○		○	●	○	○	○	●
	6	仲	侏	○			●	○		○	●	○	○	○	●
	7	仲	黃	○			●	○		○	●	○	○	○	●
	8	仲	黃	○			●	○		○	●	○	○	○	●
	9	潢	侏	○			●	○		○	●	○	○	○	●
	10	潢	仲	○			●	○		○	●	○	○	○	●
	11	林	潢	○			●	○		太	●	○	○	○	●
12	林	潢	太			●	○		○	●	○	○	○	●	
13	黃	仲	○			無	○		○	無	○	○	○	無	
14	黃	仲	○			●	○		○	●	○	○	○	●	
15	仲	潢	◎			◎	◎		◎	◎	林	林	◎	◎	
16	仲	潢	◎			◎	◎		◎	◎	○	○	◎	◎	
17	仲	仲	◎			◎	◎		◎	◎	◎	◎	◎	◎	
18	仲	仲	◎			◎	◎		◎	◎	◎	◎	◎	◎	
19	林	仲	○			●	○		○	●	○	○	○	●	
20	林	仲	黃			●	○		○	●	○	○	○	●	

<중령산> 제4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중령산> 제4장 선율 일치도

<중령산>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2			35	35		33	35	22	28	35	35
●	3			24	0		1	24	2	5	2	24
○	20			0	25		22	0	20	19	23	0
⊙	0			0	0		0	0	0	0	0	0
기타	5			1	0		4	1	16	8	0	1
총 개수	60			60	60		60	60	60	60	60	60
피리 일치도	58.3%			98.3%	58.3%		56.6%	98.3%	40.0%	55.0%	61.6%	98.3%
거문고 일치도	86.6%			58.3%	100%		91.6%	58.3%	70.0%	78.3%	96.6%	58.3%
독자적 선율	8.3%			1.6%	0.0%		6.6%	1.6%	26.6%	13.3%	0.0%	1.6%

지용구는 피리와 58.3%, 거문고와 86.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이덕환은 피리와 98.3%, 거문고와 58.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6%로 나타났다. 류대복의 경우 58.3%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10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56.6%, 91.6%로 나타났으며 6.6%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8.3%, 거문고와 58.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6%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0.0%,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6.6%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55.0%, 거문고와 78.3% 일치하였으며 13.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1.6%, 거문고와 96.6% 일치하였으며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8.3%, 거문고와 58.3%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6%로 나타났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5) <중령산> 제5장

제1각 제5-8박을 살펴보면, 거문고 선율은 ‘無 林 潢-’을 연주하고 피리는 ‘潢- 林-’을 연주한다. 거문고와 동일한 선율 진행을 보이는 경우는 지용구이며 이덕환, 김천홍, 구례풍류는 피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류대복,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제5-6박에서는 피리와 같은潢을, 제7-8박에서는 거문고와 같은潢을 연주한다.

<악보 9> <중령산> 제5장 제1각 제1-10박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1 stav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instrument. The instruments are listed on the left side of the score. The notation is in a Western staff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and a common time signature. The score shows the melodic lines for each instrument, with some parts enclosed in solid or dashed boxes to highlight specific patterns or comparisons.

<중령산> 제5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중령산> 제5장 선율비교

<중령산> 제5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관	현												
1각	1	無	無	○			○	○		○	○	林	○	○	○
	2	無	無	○			○	○		○	○	○	○	○	○
	3	無	無	○			○	○		○	○	○	○	○	○
	4	仲	林	○			●	○		○	●	●	○	○	●
	5	潢	無	○			●	●		○	●	●	●	●	●
	6	潢	林	○			●	●		○	●	●	●	●	●
	7	無	黃	○			●	○		○	●	○	○	○	●
	8	無	黃	○			●	○		○	●	○	○	○	●
	9	仲	仲	○			○	○		○	○	林	○	○	○
	10	林	林	○			○	○		○	○	仲	○	○	○
	11	無	無	○			○	○		○	○	○	○	○	○
	12	林	無	○			●	○		○	●	○	○	○	●
	13	仲	仲	無			○	無		○	○	潢	○	無	○
	14	林	林	○			○	○		○	○	潢	○	○	○
	15	潢	黃	○			○	○		○	○	無	○	○	○
	16	潢	黃	○			○	○		○	○	仲	無	○	○
	17	無	無	○			○	○		○	○	潢	○	○	○
	18	無	無	○			○	○		○	○	潢	○	○	○
	19	林	林	○			○	○		○	○	○	○	○	○
	20	仲	仲	○			○	○		○	○	潢	○	○	○
2각	1	黃	潢	○			○	○		○	○	林	○	○	○
	2	黃	潢	○			○	○		○	○	林	○	○	○
	3	仲	仲	○			○	○		○	○	○	○	○	○
	4	仲	仲	○			○	○		○	○	○	○	○	○
	5	仲	潢	○			○	○		○	○	○	○	○	○
	6	仲	潢	○			○	○		○	○	○	○	○	○
	7	仲	仲	○			○	○		○	○	○	○	○	○
	8	仲	仲	○			○	○		○	○	○	○	○	○

	9	無	無	○			○	○		○	○	潢	○	○	○
	10	林	倝	○			○	○		○	○	潢	○	○	○
	11	仲	仲	○			○	○		○	○	○	○	○	○
	12	仲	仲	○			○	○		○	○	○	○	○	○
	13	仲	仲	○			○	○		○	○	○	○	○	○
	14	林	倝	○			○	○		○	○	○	○	○	○
	15	無	無	○			○	○		○	○	○	○	○	○
	16	仲	倝	○			●	○		○	●	●	○	○	●
	17	潢	黃	○			○	○		○	○	○	○	○	○
	18	潢	黃	○			○	○		○	○	○	○	○	○
	19	仲	仲	○			○	○		○	○	林	林	○	○
	20	林	倝	○			○	○		○	○	仲	仲	○	○
3ㄱ	1	無	無	○			○	○		○	○	○	○	○	○
	2	無	無	○			○	○		○	○	○	○	○	○
	3	無	仲	●			●	●		○	●	潢	○	●	●
	4	仲	倝	○			●	○		○	●	●	○	○	●
	5	潢	黃	○			○	○		○	○	○	○	○	○
	6	潢	黃	○			○	○		○	○	○	○	○	○
	7	無	無	○			○	○		○	○	○	○	○	○
	8	無	無	○			○	○		○	○	○	○	○	○
	9	林	倝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11	林	倝	○			○	○		○	○	○	○	○	○
12	仲	倝	○			●	○		○	●	○	○	○	●	
13	潢	黃	○			○	○		○	○	○	○	○	○	
14	潢	黃	○			○	○		○	○	○	○	○	○	
15	潢	黃	○			○	○		○	○	○	○	○	○	
16	潢	黃	○			○	○		○	○	○	○	○	○	
17	林	倝	○			○	○		○	○	○	○	○	○	
18	無	無	○			○	○		○	○	○	○	○	○	
19	仲	仲	○			○	○		○	○	○	○	○	○	
20	仲	仲	○			○	○		○	○	○	○	○	○	
4ㄱ	1	太	潢	○			○	○		○	○	○	○	○	○
	2	黃	潢	○			○	○		○	○	○	○	○	○

3	侁	無	◎			◎	◎		◎	◎	◎	◎	◎	◎
4	黃	橫	◎			◎	◎		◎	◎	◎	◎	◎	◎
5	仲	仲	◎			◎	◎		◎	◎	◎	◎	◎	◎
6	黃	橫	◎			◎	◎		◎	◎	◎	◎	◎	◎
7	仲	仲	◎			◎	◎		◎	◎	◎	◎	◎	◎
8	仲	橫	◎			◎	◎		◎	◎	◎	◎	◎	◎
9	仲	仲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중령산> 제5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중령산> 제5장 선율 일치도

<중령산> 제5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59			60	59		60	60	44	57	59	60
●	1			10	3		0	10	5	2	3	10
○	9			0	7		10	0	4	8	7	0
⊙	0			0	0		0	0	0	0	0	0
기타	1			0	1		0	0	17	3	1	0
총 개수	69			70	69		70	70	53	67	69	70
피리 일치도	85.7%			100%	77.5%		85.7%	100%	70.0%	84.2%	94.2%	100%
거문고 일치도	97.1%			85.7%	94.2%		100%	85.7%	68.5%	92.8%	88.5%	85.7%
독자적 선율	1.4%			0.0%	1.4%		0.0%	0.0%	24.2%	4.2%	1.4%	0.0%

지용구는 피리와 85.7%, 거문고와 97.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4%이다. 이덕환은 피리와 100%, 거문고와 85.7% 일치하였다. 류대복의 경우 77.5%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94.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4%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85.7%, 100%로 나타났으며 김천홍은 피리와 100%, 거문고와 85.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68.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4.2%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4.2%, 거문고와 92.8% 일치하였으며 4.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94.2%, 거문고와 88.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4%이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0%, 거문고와 85.7%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없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령산>의 선율 일치도를 확인해보면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중령산> 선율 일치도

<중령산>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39			242	242		225	244	189	229	243	244
●	9			91	5		5	92	20	16	7	94
○	88			9	100		94	5	59	78	96	3
⊙	3 양			0	0		16 가	0	0	0	0	0
기타	11			8	3		10	9	82	27	4	9
총 개수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피리 일치도	70.8%			95.1%	70.5%		65.7%	96.0%	59.7%	70.0%	71.4%	96.5%
거문고 일치도	93.4%			71.7%	97.7%		91.1%	71.1%	70.8%	87.7%	96.8%	70.5%
독자적 선율	3.1%			2.2%	0.8%		2.8%	2.5%	23.4%	7.7%	1.1%	2.5%

<중령산>을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70.8%, 거문고와는 93.4%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3.1%로 나타났다. 이덕환은 피리와 95.1%, 거문고와는 71.7% 일치하였으며 2.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은 피리와 70.5%, 거문고와 97.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8%로 나타났다. 지영희는 피리와 65.7%, 거문고와 91.1%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2.8%이다. 김천홍의 경우 피리와 96.0%, 거문고와 71.1% 일치하였고 2.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9.7%,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이 23.4%의 높은 비중으로 연주되었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87.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7%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1.4%, 거문고와 96.8% 일치하였으며 1.1%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국악원은 피리와 96.5% 일치하였고, 거문고와 70.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5%로 나타났다.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와 95% 이상 일치하였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의 선율이 피리 선율보다 평균 20% 정도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3. <세령산>

<세령산>은 줄풍류 중 세 번째로 연주되는 악곡으로, 10정간을 한 각으로 한다.

1) <세령산> 초장

제3각의 경우 거문고는 ‘仲- 仲 仲- 仲 黃 林 仲 黃’로 연주한다.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대전풍류는 이와 같은 진행을 보인다. 피리는 ‘林 仲 黃 仲- 仲- 潢 無-’의 선율진행을 보인다. 위와 동일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해금 선율이다. 구례풍류와 이리풍류의 경우 제 제7-8박, 제10박은 피리의 선율을 따르고 제9박은 林을 연주하여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악보 10> <세령산> 초장 제3각

<세령산> 초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40>과 같다.

<표 40> <세령산> 초장 선율비교

<세령산>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교	거										
1각	1	林	林		◎	◎	◎	◎	◎	◎	◎	◎	◎
	2	無	無		◎	◎	◎	◎	◎	◎	◎	◎	◎

	3	無	黃	○	●		林	○	○	○	林	◎	◎	○	林
	4	仲	仲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林	林	◎	◎		◎	◎	◎	◎	◎	◎	◎	◎	◎
	7	仲	仲	◎	◎		◎	◎	◎	◎	◎	◎	◎	◎	◎
	8	黃	黃	◎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2가	1	林	林	◎	◎		◎	◎	◎	◎	◎	◎	◎	◎	◎
	2	黃	黃	◎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
	4	黃	黃	◎	◎		◎	◎	◎	◎	◎	◎	◎	◎	◎
	5	黃	黃	◎	◎		◎	◎	◎	◎	◎	◎	◎	◎	◎
	6	林	林	◎	◎		◎	◎	◎	◎	◎	◎	◎	◎	◎
	7	林	林	◎	◎		◎	◎	◎	◎	◎	◎	◎	◎	◎
	8	仲	黃	●	●		●	○	○	○	●	無	無	○	●
	9	太	黃	◎	●		◎	◎	◎	◎	◎	仲	仲	◎	◎
	10	太	黃	●	◎		◎	◎	◎	●	◎	◎	仲	●	◎
3가	1	林	仲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黃	黃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仲	仲	◎	◎		◎	◎	◎	◎	◎	◎	◎	◎	◎
	7	仲	黃	○	○		●	○	○	○	●	●	●	○	●
	8	黃	林	○	○		●	○	○	○	●	●	●	○	●
	9	無	仲	○	○		●	○	○	○	●	林	林	○	●
	10	無	黃	○	○		●	○	○	○	●	●	●	○	●
4가	1	仲	仲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黃	黃	○	○		●	○	○	○	●	○	○	○	●
	4	林	黃	○	○		●	○	○	○	●	○	○	○	●
	5	仲	無	○	○		●	○	○	黃	●	○	○	○	●
	6	黃	黃	◎	◎		◎	◎	◎	◎	◎	◎	◎	◎	◎
	7	黃	仲	○	○		太	○	○	○	●	林	○	○	●

8	仲 横	◎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세령산> 초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세령산> 초장 선율 일치도

<세령산>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7	27		29	28	28	27	28	27	27	26	28
●	2	4		10	0	0	1	11	4	4	1	11
○	11	9		0	12	12	11	0	5	5	13	0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1	0	0	1	1	4	4	0	1
총 개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피리 일치도	72.5%	77.5%		95.0%	70.0%	70.0%	70.0%	97.5%	77.5%	77.5%	67.5%	97.5%
거문고 일치도	92.5%	90.0%		70.0%	100%	100%	95.0%	70.0%	80.0%	80.0%	97.5%	70.0%
독자적 선율	0.0%	0.0%		2.5%	0.0%	0.0%	2.5%	2.5%	10.0%	10.0%	0.0%	2.5%

지용구는 피리와 72.5%, 거문고와 92.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김덕진은 피리와 77.5%, 거문고와 90.0% 일치하며 마찬가지로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덕환은 피리와 95.0%,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2.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과 김창규의 경우 70.0%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1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70.0%, 95.0%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2.5%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97.5%,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2.5%로 나타났다. 구례풍류

는 피리와 거문고 각각 77.5%, 8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0.0%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77.5%, 거문고와 80.0% 일치하였으며 10.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7.5%, 거문고와 97.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7.5%,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고 2.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동일하다.

2) <세령산> 제2장

제1각 제1-3박에서 거문고는 '潢 林 儻'을 연주하고 가야금, 양금은 '林 仲 太'를 연주하며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가야금, 양금과 같은 진행을 보인다. 피리는 제3박에서 黃을 연주하며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동일한 음을 연주한다. 구례풍류는 제2-3박에서 林을, 제5박에서 仲을 연주하여 독자적 선율 진행을 보인다.

제7-9박에서 거문고는 '林 林 太', 피리는 '仲 無 林'을 연주한다. 거문고와 같은 선율 진행을 보이는 경우는 류대복, 김창규, 대전풍류이다.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와 같은 선율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용구는 제8박, 김덕진과 구례풍류는 제8-9박, 이리풍류는 제9박에서 피리의 선율을 연주한다.

<악보 11> <세령산> 제2장 제1각

<세령산> 제2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세령산> 제2장 선율비교

<세령산>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林 黃	○	○		○	○	○	○	○	仲	○	○	○
	2 林 侏	○	●		○	○	○	○	●	●	○	○	●
	3 黃 橫	○	仲		●	○	○	○	●	無	○	○	●

	4	林	林	○	○		○	○	○	○	○	○	○	○	
	5	林	伏	○	○		○	○	○	○	仲	○	○	○	
	6	林	林	○	○		○	○	○	○	○	○	○	○	
	7	仲	林	●	●		●	○	○	●	●	林	林	○	●
	8	無	林	●	●		●	○	○	○	●	●	○	○	●
	9	林	伏	○	●		仲	○	○	○	仲	仲	●	○	仲
	10	黃	橫	○	○		○	○	○	○	○	○	○	○	○
2각	1	仲	仲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林	林	○	○		○	○	○	○	○	○	○	○	○
	4	汰	太	○	○		潢	○	○	○	潢	潢	潢	○	潢
	5	潢	黃	○	○		○	○	○	○	○	○	○	○	○
	6	無	無	○	○		林	○	○	○	林	○	○	○	林
	7	無	無	○	○		仲	○	○	○	仲	汰	○	○	仲
	8	潢	黃	○	○		○	○	○	○	○	○	○	○	○
	9	無	林	○	○		●	○	○	○	●	○	●	○	●
	10	無	黃	○	●		●	○	●	○	●	●	●	○	●
3각	1	仲	仲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黃	黃	○	●		●	○	○	○	○	太	太	○	○
	4	林	林	○	○		○	○	○	○	○	黃	黃	○	○
	5	仲	仲	○	○		○	○	○	○	○	林	林	○	○
	6	黃	橫	○	○		○	○	○	○	○	○	○	○	○
	7	黃	仲	○	●		太	○	○	○	●	林	○	○	●
	8	仲	橫	○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세령산> 제2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세령산> 제2장 선율 일치도

<세령산>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19	19		18	19	19	20	19	13	15	17	19
●	2	7		6	0	1	1	7	3	3	0	7
○	9	3		1	11	10	9	0	3	7	13	0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1		5	0	0	0	4	11	5	0	4
총 개수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피리 일치도	70.0%	86.6%		80.0%	63.3%	66.6%	70.0%	86.6%	53.3%	60.0%	56.6%	86.6%
거문고 일치도	93.3%	73.3%		63.3%	100%	96.6%	96.6%	63.3%	53.3%	73.3%	100%	63.3%
독자적 선율	0.0%	3.0%		16.6%	0.0%	0.0%	0.0%	13.3%	36.6%	16.6%	0.0%	13.3%

지용구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9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덕진은 피리와 86.6%, 거문고와 73.3%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3.0%이다. 이덕환은 피리와 80.0%, 거문고와 63.3% 일치하였으며 16.6%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의 경우 63.3%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1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70.0%, 96.6%로 나타났다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김천홍은 피리와 86.6%, 거문고와 6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3.3%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거문고 모두 5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6.6%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0.0%, 거문고와 73.3% 일치하였으며 16.6%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56.6%, 거문고와 100% 일치하였으며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86.6%, 거문고와 63.3%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3.3%로 나타났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세령산> 제3장

제3각 제3-7박의 거문고 선율은 ‘太 黃 侏 黃 仲’이다. 해당 구간의 피리 선율은 ‘黃 林 仲 黃-’이다.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같은 선율 진행을 보이며 김덕진,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악보 12> <세령산> 제3장 제3각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3 stav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instrument. The instruments listed on the left are: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and 국악원 피리. The score is written in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and a 4/4 time signature.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Some sections of the score are enclosed in boxes, likely indicating specific rhythmic or melodic patterns. The score shows the melodic lines for each instrument, with some parts enclosed in boxes to indicate specific rhythmic or melodic patterns.

<세령산> 제3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세령산> 제3장 선율비교

<세령산>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양												
1각	1	無	無	○	○		○	○	○	○	○	林	○	○	○
	2	無	無	○	○		○	○	○	○	林	○	○	○	○
	3	林	林	○	○		○	○	○	○	○	○	○	○	○
	4	潢	太	○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
	6	林	林	○	○		○	○	○	○	○	無	○	○	○
	7	潢	黃	○	○		○	○	○	○	○	無	○	○	○
	8	林	林	○	○		○	○	○	○	○	潢	○	○	○
	9	無	黃	○	●		●	○	○	○	●	太	○	○	●
	10	仲	仲	○	○		○	○	○	○	○	林	○	○	○
2각	1	林	林	○	○		○	○	○	○	○	無	○	○	○
	2	林	林	○	○		○	○	○	○	○	太	○	○	○
	3	林	林	○	○		○	○	○	○	○	○	○	○	○
	4	潢	黃	○	○		○	○	○	○	○	○	○	○	○
	5	潢	仲	○	○		●	○	○	○	●	●	●	○	●
	6	林	林	○	○		○	○	○	○	○	○	○	○	○
	7	仲	黃	○	●		●	○	○	○	●	無	○	○	●
	8	潢	黃	○	○		○	○	○	○	○	○	○	○	○
	9	無	林	○	○		●	○	○	○	●	○	○	○	●
	10	無	無	○	○		○	○	○	○	○	○	○	○	○
3각	1	仲	仲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黃	潢	○	●		●	○	○	○	●	○	○	○	●
	4	林	潢	○	●		●	○	○	○	●	○	○	○	●
	5	仲	無	○	●		●	○	○	○	●	○	○	林	●
	6	黃	潢	○	○		○	○	○	○	○	○	○	○	○
	7	黃	仲	○	●		太	○	○	○	●	林	○	○	●
	8	仲	潢	○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세령산>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 <세령산> 제3장 선율 일치도

<세령산>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1	21		21	21	21	21	21	12	20	21	21
●	0	6		7	0	0	0	8	2	1	0	8
○	9	3		1	9	9	9	1	5	9	8	1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1	0	0	0	0	11	0	1	0
총 개수	30	30		29	30	30	30	30	19	30	29	30
피리 일치도	70.0%	90.0%		93.3%	70.0%	70.0%	70.0%	96.6%	46.6%	70.0%	70.0%	96.6%
거문고 일치도	100%	80.0%		73.3%	100%	100%	100%	73.3%	56.6%	96.6%	93.3%	73.3%
독자적 선율	0.0%	0.0%		3.3%	0.0%	0.0%	0.0%	0.0%	36.6%	0.0%	3.3%	3.3%

지용구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1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덕진은 피리와 90.0%, 거문고와 80.0% 일치하며 이덕환은 피리와 93.3%, 거문고와 7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3%이다.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의 경우 70.0%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1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김천홍은 피리와 96.6%, 거문고와 7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6.6%, 거문고와 56.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6.6%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96.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93.3% 일치하였으며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6.6%, 거문고와 73.3%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3.3%로 나타났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향제,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세령산> 제4장

제3각의 거문고 선율은 ‘林- 侏 林- 林- 潢 林 無’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구간의 피리 선율은 ‘黃- 仲 林- 林 仲 潢 無’로 구성되어 있다. 류대북,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같은 진행을 보이며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와 같은 선율로 연주한다. 구례풍류는 제1,2박에서 ‘無 太’를 연주하고 지용구, 김덕진, 김창규는 제3박에서 太를 연주하여 해당 박을 독자적 선율로 분류하였다.

<악보 13> <세령산> 제4장 제3각

<세령산> 제4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세령산> 제4장 선율비교

<세령산>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Z	1	無	無	○	林		○	○	○	○	林	○	○	○
	2	林	林	○	○		○	○	○	○	○	○	○	○
	3	潢	黃	○	無		○	○	○	○	無	○	○	○
	4	仲	仲	○	○		○	○	○	○	○	○	○	○
	5	黃	潢	○	○		○	○	○	○	○	○	○	○
	6	林	仲	○	○		●	○	○	○	●	○	○	○
	7	仲	仲	○	林		○	○	○	○	○	○	○	○
	8	潢	黃	○	○		○	○	○	○	○	○	○	○
	9	無	無	○	○		○	○	○	○	○	○	○	○
	10	無	林	●	○		○	●	●	○	○	○	●	○
2Z	1	仲	仲	○	○		無	○	○	○	潢	無	○	○
	2	仲	仲	○	○		無	○	○	○	潢	○	○	○
	3	黃	潢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5	仲	無	○	○		●	○	○	○	●	○	○	○
	6	仲	仲	○	○		○	○	○	○	林	林	○	○
	7	仲	無	○	●		○	○	○	○	○	○	○	○
	8	太	潢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9	黃	仲	○	林		○	○	○	○	太	○	○	○
	10	太	仲	○	黃		林	○	○	○	林	林	○	○
3Z	1	黃	林	○	○		●	○	○	○	●	無	○	○
	2	黃	林	○	○		●	○	○	○	●	太	○	○
	3	仲	潢	太	●		○	○	太	○	○	○	○	○
	4	林	林	○	○		○	○	○	○	○	○	○	○
	5	林	林	○	○		○	○	○	○	○	○	○	○
	6	林	林	○	○		○	○	○	○	潢	潢	○	○
	7	仲	林	●	●		●	○	●	○	●	無	無	●
	8	潢	黃	○	○		○	○	○	○	○	○	○	○
	9	無	無	○	○		○	○	○	○	○	○	○	○

4장	10	無	儻	○	○		○	○	○	○	○	○	○	○
	1	仲	仲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黃	橫	○	●		●	○	○	○	●	○	○	○
	4	林	橫	○	●		●	○	○	○	○	○	○	○
	5	仲	儻	○	●		●	○	○	○	○	○	○	○
	6	黃	橫	○	○		○	○	○	○	○	○	○	○
	7	黃	仲	○	●		太	○	○	○	○	○	○	○
	8	仲	橫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세령산> 제4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세령산> 제4장 선율 일치도

<세령산>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종류	이리 종류	대전 종류	국악원
◎	23	20		22	23	24	23	22	17	20	23	21
●	2	8		9	1	2	1	10	3	0	2	11
○	13	6		4	15	12	15	5	9	16	14	4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6		5	1	2	1	3	11	4	1	4
총 개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피리 일치도	62.5%	70.0%		77.5%	60.0%	65.0%	60.0%	80.0%	50.0%	50.0%	62.5%	80.0%
거문고 일치도	90.0%	65.0%		65.0%	95.0%	90.0%	95.0%	67.5%	65.0%	90.0%	92.5%	62.5%
독자적 선율	5.0%	15.0%		12.5%	2.5%	5.0%	2.5%	7.5%	27.5%	10.0%	2.5%	10.0%

지용구는 피리와 62.5%, 거문고와 9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0%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70.0%, 거문고와 65.0% 일치하며 15.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덕환은 피리와 77.5%, 거문고와 6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2.5%이다. 류대복의 경우 피리와 60.0% 일치, 거문고와는 87.5%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10.0%이다. 김창규의 경우 62.5%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8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0.%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0.0%, 90.0%로 나타났으며 7.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77.5%, 거문고와 62.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5.0%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0.0%, 거문고와 6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5.0%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50.0%, 거문고와 77.5% 일치하였으며 22.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2.5%, 거문고와 8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3.3%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80.0%, 거문고와 60.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5.0%로 나타났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김덕진,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향제,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세령산> 초장부터 제4장까지의 선율 일치도를 정리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세령산> 선율 일치도

<세령산>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90	87		90	91	92	91	90	69	82	87	89
●	6	25		32	1	3	3	36	12	8	3	37
○	42	21		6	47	43	44	6	22	37	48	5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7		12	1	2	2	8	37	13	2	9

총 개수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피리 일치도	68.5%	80.0%		87.1%	65.7%	67.8%	67.1%	90.0%	57.8%	64.2%	64.2%	90.0%
거문고 일치도	94.2%	77.1%		68.5%	98.5%	96.4%	96.4%	68.5%	65.0%	85.0%	96.4%	67.1%
독자적 선율	1.4%	5.0%		8.5%	0.7%	1.4%	1.4%	5.7%	26.4%	9.2%	1.4%	6.4%

<세령산>을 살펴본 결과, 지용구의 경우 피리와 68.5%, 거문고와 94.2%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4%로 확인된다. 김덕진은 피리와 80.0%, 거문고와 77.1%, 독자적 선율은 5.0%로 나타났다. 이덕환은 피리와 87.1%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68.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5%로 나타났다. 류대복의 경우 피리와 65.7%, 거문고와 98.5% 일치하였으며 0.7%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창규는 피리와 67.8%, 거문고와 96.4% 일치하였고 1.4%의 독자적 선율을 운용하고 있다. 지영희는 피리와 67.1%, 거문고와 96.4%의 일치율을 보이며 독자적 선율은 1.4%이다. 김천홍의 경우 피리 선율과 90.0%, 거문고와는 68.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7%이다. 구례풍류의 경우 피리와 57.8%, 거문고와 65.0% 일치하였으며 26.4%의 높은 비중으로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4.2%, 거문고와 85.0% 일치하며 9.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4.2%, 거문고와 96.4%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1.4%이다. 국악원은 피리와 90.0%, 거문고와 67.1% 일치하며 6.4%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김덕진,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 선율과 더 높은 일치도를 보이며,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 선율과 더 유사하게 나타난다.

4. <가락덜이>

<가락덜이>는 줄풍류 중 네 번째로 연주되는 악곡으로, 10정간을 한 각으로 한다.

1) <가락덜이> 초장

제1각 제1-3박의 거문고 선율을 살펴보면 ‘林 無 潢’을 연주한다.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거문고와 같은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해당 구간의 피리는 ‘無- 無’를 연주하며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 이와 동일한 선율을 연주한다.

<악보 14> <가락덜이> 초장 제1각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first measure of the first section of 'Garakdeolli'. It consists of 13 stav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performer or instrument. The staves are labeled on the left as follows: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and 국악원 피리. The score is written in a Western-style musical notation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time signature is 9/8. The first measure is divided into three beats. The first three staves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have a solid box around the first three notes of the first beat. The next three staves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have a dashed box around the first three notes of the first beat. The next three staves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have a solid box around the first three notes of the first beat. The last four staves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have a solid box around the first three notes of the first beat. The notes in the first measure are: G4 (quarter), F4 (quarter), E4 (quarter), D4 (quarter), C4 (quarter), B3 (quarter), A3 (quarter), G3 (quarter), F3 (quarter).

<가락덜이> 초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 <가락덜이> 초장 선율비교

<가락덜이>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과	1	無	林	○			●	○	○	○	●	○	○	○	○
	2	無	無	○			○	○	○	○	○	○	○	○	○
	3	無	黃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林	林	○			○	○	○	○	○	○	○	○	○
	7	仲	仲	○			○	○	○	○	○	○	○	○	○
	8	黃	橫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2과	1	林	林	○			○	○	○	○	○	○	○	○	○
	2	潢	黃	○			○	○	○	○	○	○	○	○	○
	3	仲	林	●			●	○	●	●	●	●	●	●	●
	4	潢	黃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6	林	林	○			○	○	○	○	○	○	○	○	○
	7	林	林	○			○	○	○	○	○	○	○	○	○
	8	仲	橫	○			●	○	○	○	●	無	無	○	●
	9	黃	橫	○			○	林	○	○	○	仲	仲	○	○
	10	黃	橫	太			○	林	太	太	○	○	○	太	○
3과	1	林	仲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黃	橫	○			仲	○	○	○	●	●	●	○	●
	4	仲	仲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仲	仲	○			○	○	○	○	○	○	○	○	○
	7	仲	仲	○			○	○	○	○	○	○	○	○	○
	8	潢	黃	○			○	○	○	○	○	○	○	○	○
	9	無	無	○			○	○	○	○	○	○	○	○	○

	10	無	無	◎			◎	◎	◎	◎	◎	◎	◎	◎		
4각	1	仲	仲	◎			◎	◎	◎	◎	◎	◎	◎	◎		
	2	仲	仲	◎			◎	◎	◎	◎	◎	◎	◎	◎		
	3	黃	橫	◎			◎	◎	◎	◎	太	太	◎	◎		
	4	林	仲	○			○	○	●	○	○	●	●	○	○	
	5	仲	仲	林			◎	◎	林	◎	◎	林	林	◎	◎	
	6	黃	橫	◎			◎	◎	◎	◎	◎	◎	◎	◎	◎	
	7	黃	橫	◎			太	◎	◎	◎	◎	太	侏	仲	◎	◎
	8	仲	橫	○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가락덜이> 초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50>과 같다.

<표 50> <가락덜이> 초장 선율 일치도

<가락덜이>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0			31	30	30	31	31	28	28	31	32
●	1			5	0	2	2	7	4	4	1	7
○	7			2	8	6	6	1	3	3	7	1
◐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2	2	2	1	1	5	5	1	0
총 개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피리 일치도	77.5%			90.0%	75.0%	80.0%	82.5%	95.0%	80.0%	80.0%	80.0%	97.5%
거문고 일치도	92.5%			82.5%	95.0%	90.0%	92.5%	80.0%	77.5%	77.5%	95.0%	82.5%
독자적 선율	5.0%			5.0%	5.0%	5.0%	2.5%	2.5%	12.5%	12.5%	2.5%	0.0%

지용구는 피리와 77.5%, 거문고와 92.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0%이다. 이덕환은 피리와 90.0%, 거문고와 82.5% 일치하였으며 독자

적 선율은 5.0%이다. 류대복의 경우 피리와 75.0% 일치, 거문고와는 95.0%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5.0%이다. 김창규의 경우 75.0%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95.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5.0%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82.5%, 92.5%로 나타났으며 2.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5.0%, 거문고와 8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5%이다. 구례풍류와 이리풍류는 피리와 80.0%, 거문고와 77.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2.5%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80.0%, 거문고와 9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5%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7.5%, 거문고와 82.5%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제3박에서 거문고는 潢을, 피리는 無를 연주한다. 제3박에서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또한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와 동일한 진행으로 연주되며 구례풍류와 이리풍류는 林을 연주하여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또한 제8-10박에서 거문고는 ‘潢 仲-’을, 피리는 ‘無 太 仲’을 연주하여 서로 상이한 진행을 보이며 지용구, 류대복,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의 경우 제8박에서는 피리의 無, 제9-10박에서는 거문고의 仲-과 동일한 진행을 하고 있다.

<악보 15> <가락덜이> 제2장 제1각

<가락덜이> 제2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가락덜이> 제2장 선율비교

<가락덜이>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	2	林	休	○			○	○	○	○	○	○	○	○	○

	2	林	林	◎			◎	◎	◎	◎	◎	◎	◎	◎		
	3	無	黃	○			●	○	○	○	●	林	林	○	●	
	4	潢	黃	無			◎	無	無	無	◎	◎	◎	無	◎	
	5	潢	黃	無			◎	無	無	無	◎	◎	◎	無	◎	
	6	林	林	◎			◎	◎	◎	◎	◎	無	◎	◎	◎	
	7	林	林	◎			◎	◎	◎	◎	◎	無	◎	◎	◎	
	8	無	黃	○			●	○	●	○	●	○	○	○	●	
	9	太	仲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林	◎	◎	◎
	2각	1	林	林	◎			◎	◎	◎	◎	◎	無	◎	◎	◎
2		林	林	◎			◎	◎	◎	◎	◎	太	◎	◎	◎	
3		林	林	◎			◎	◎	◎	◎	◎	◎	◎	◎	◎	
4		潢	黃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6		林	林	無			◎	◎	◎	◎	◎	◎	無	◎	◎	◎
7		仲	林	●			○	○	○	○	○	○	無	○	○	●
8		潢	黃	◎			◎	◎	◎	◎	◎	◎	◎	◎	◎	◎
9		無	無	◎			◎	◎	◎	◎	◎	◎	潢	◎	◎	◎
10		無	無	◎			◎	◎	◎	◎	◎	◎	潢	◎	◎	◎
3각	1	仲	仲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黃	潢	◎			◎	◎	◎	◎	◎	林	◎	◎	◎	
	4	林	仲	○			●	○	○	○	●	●	○	○	●	
	5	仲	仲	林			◎	◎	林	◎	◎	◎	◎	◎	◎	
	6	黃	潢	◎			◎	◎	◎	◎	◎	◎	○	◎	◎	◎
	7	黃	潢	◎			太	◎	◎	◎	◎	太	○	◎	◎	太
	8	仲	潢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가락덜이> 제2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가락덜이> 제2장 선율 일치도

<가락덜이>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0			23	22	21	22	23	13	24	22	23
●	1			4	0	1	0	4	2	1	0	5
○	5			2	6	5	6	2	4	4	6	1
⊙	0			0	0	0	0	0	0	0	0	0
기타	4			1	2	3	2	1	11	1	2	1
총 개수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피리 일치도	70.0%			90.0%	73.3%	73.3%	73.3%	90.0%	50.0%	73.3%	73.3%	93.3%
거문고 일치도	83.3%			83.3%	93.3%	86.6%	93.3%	83.3%	56.6%	93.3%	93.3%	80.0%
독자적 선율	13.3%			3.3%	6.6%	10.0%	6.6%	3.3%	36.6%	3.3%	6.6%	3.3%

지용구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8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3.3%이다. 이덕환은 피리와 90.0%, 거문고와 8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3%이다. 류대복의 경우 피리와 73.3% 일치, 거문고와는 93.3%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6.6%이다. 김창규의 경우 73.3%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86.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0.0%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73.3%, 93.3%로 나타났으며 6.6%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0.0%, 거문고와 8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3%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0.0%, 거문고와 56.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6.6%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73.3%, 거문고와 93.3% 일치하였으며 3.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3.3%, 거문고와 9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6.6%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3.3%, 거문고와 80.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3.3%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가락덜이> 제3장

제1각 제6-10박의 거문고 선율은 ‘潢- 汰 仲-’이며, 피리 선율은 ‘林- 無 太 仲’으로 다르게 연주되고 있다.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대전풍류는 제6-8박은 거문고와 동일하며 제9-10박은潢을 연주하여 독자적으로 선율을 진행한다. 반대로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제6-8박은 피리와 동일하게 연주하고 제9-10박은 거문고의 선율과 진행이 같다.

<악보 16> <가락덜이> 제3장 제1각

The musical score displays the following instruments and their corresponding parts:

- 지용구 (Jiyonggu)
- 이덕환 (Idokhwan)
- 류대복 (Ryudaebok)
- 김창규 (Kimchanggyu)
- 지영희 (Jiyeonghee)
- 김천홍 (Kimcheonhong)
- 구례풍류 (Gureungryu)
- 이리풍류 (Iripungryu)
- 대전풍류 (Daedonpungryu)
- 국악원 해금 (Gukakwon Haegum)
- 국악원 거문고 (Gukakwon Geomungo)
- 국악원 피리 (Gukakwon Piri)

<가락덜이> 제3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가락덜이> 제3장 선율 비교

<가락덜이>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無	無	○			○	○	○	○	○	林	○	○	○
	2	無	無	○			○	○	○	○	○	○	○	○	○
	3	林	橫	○			○	○	○	○	○	無	○	○	○
	4	潢	黃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6	林	黃	○			●	○	○	○	●	無	○	○	●
	7	林	黃	○			●	○	○	○	●	無	○	○	●
	8	無	太	○			●	○	○	○	●	潢	潢	○	●
	9	太	仲	潢			○	潢	潢	潢	○	○	○	潢	○
	10	黃	仲	潢			○	潢	無	潢	○	林	林	潢	○
2각	1	林	侏	○			○	○	○	○	○	無	○	○	○
	2	林	侏	○			○	○	○	○	○	太	○	○	○
	3	林	侏	○			○	○	○	○	○	○	○	○	○
	4	潢	黃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6	林	侏	○			○	○	○	○	○	○	○	○	○
	7	林	侏	○			○	○	○	○	○	○	○	○	○
	8	潢	黃	○			○	○	○	○	○	○	○	○	○
	9	無	無	○			○	○	○	○	○	○	○	○	○
	10	無	無	○			○	○	○	○	○	○	○	○	○
3각	1	仲	仲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黃	橫	○			○	○	○	○	○	林	○	○	○
	4	林	仲	○			●	○	○	○	●	●	○	○	●
	5	仲	仲	林			○	○	林	林	○	林	○	○	○
	6	黃	橫	○			○	○	○	○	○	潢	○	○	○
	7	黃	橫	○			太	○	○	○	太	○	太	○	太
	8	仲	橫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가락덜이>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다.

<표 54> <가락덜이> 제3장 선율 일치도

<가락덜이>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2			22	23	22	22	22	17	23	23	22
●	0			5	0	0	0	5	1	1	0	5
○	5			2	5	5	5	2	1	3	5	2
⊙	0			0	0	0	0	0	0	0	0	0
기타	3			1	2	3	3	1	11	3	2	1
총 개수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피리 일치도	73.3%			90.0%	76.6%	73.3%	73.3%	90.0%	60.0%	80.0%	76.6%	90.0%
거문고 일치도	90.0%			80.0%	93.3%	90.0%	90.0%	80.0%	60.0%	86.6%	93.3%	80.0%
독자적 선율	10.0%			3.3%	6.6%	10.0%	10.0%	3.3%	36.6%	10.0%	6.6%	3.3%

지용구는 피리와 73.3%, 거문고와 9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0.0%이다. 이덕환은 피리와 90.0%, 거문고와 8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3%이다. 류대복의 경우 피리와 76.6% 일치하며 거문고와는 93.3%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6.6%이다. 김창규의 경우 73.3%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9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0.0%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73.3%, 90.0%로 나타났으며 10.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0.0%, 거문고와 8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3%이다. 구혜풍류는 피리와 거문고 모두 6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6.6%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0.0%, 거문고와 86.6% 일치하였으며 10.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6.6%, 거문고와 9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6.6%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0.0%, 거문고와 80.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3.3%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었으며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락덜이>의 선율 일치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55>와 같다.

<표 55> <가락덜이> 선율 일치도

<가락덜이>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72			76	75	73	75	76	58	75	76	77
●	2			14	0	3	2	16	7	6	1	17
○	17			6	19	16	17	5	8	10	18	4
⊙	0			0	0	0	0	0	0	0	0	0
기타	9			4	6	8	6	3	27	9	5	2
총 개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피리 일치도	74.0%			90.0%	75.0%	76.0%	77.0%	92.0%	65.0%	81.0%	77.0%	94.0%
거문고 일치도	89.0%			82.0%	94.0%	89.0%	92.0%	81.0%	64.0%	85.0%	94.0%	81.0%
독자적 선율	9.0%			4.0%	6.0%	8.0%	6.0%	3.0%	27.0%	9.0%	5.0%	2.0%

<가락덜이>를 살펴본 결과, 지용구의 경우 피리와 74.0%, 거문고와 89.0%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9.0%이다. 이덕환은 피리와 90.0% 일치, 거문고와 82.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4.0%로 나타난다. 류대복은 피리와 75.0% 일치, 거문고와 94.0% 일치하고 있으며 6.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창규는 피리와 76.0%, 거문고와 89.0% 일치하며 8.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지영희는 피리와 77.0% 일치하고 거문고와 92.0% 일치하고 있으며 6.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2.0%, 거문고와 81.0% 일치하고 독자적 선율은 3.0%로 확인된

다. 구례풍류는 65.0%의 비율로 피리와 일치하고 있으며 거문고와는 64.0% 일치하나, 독자적 선율은 27.0%로 높게 나타난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1.0%, 거문고와 85.0% 일치하며 9.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7.0%, 거문고와 94.0%의 일치하며 5.0%의 독자적 선율이 있다. 국악원은 피리와 94.0%, 거문고와 81.0%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2.0%이다.

이덕환, 김천홍, 구례풍류, 국립국악원은 피리와 더 높은 일치율을 보이며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더 높은 일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5. <상현도드리>

<상현도드리>는 줄풍류에서 다섯 번째로 연주되는 악곡으로 돌장 1각을 포함하여 총 4장 34각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상현도드리> 초장

제1각의 거문고 선율은 ‘仲 仲 仲 仲 仲 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리 선율은 ‘林 仲- 太-’로 연주된다. 거문고와 동일한 선율로 연주하는 경우는 지용구, 민완식, 류대복, 지영희, 대전풍류가 있다.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와 동일하게 연주되며 요성을 연주한다. 구례풍류와 이리풍류는 제1박부터 제6박까지 ‘無- 潢- 仲 林’로 모두 독자적 선율로 연주한다.

<악보 17> <상현도드리> 초장 제1각

The musical score shows the first measure of the first section for various instruments. The instruments listed on the left are: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and 국악원 피리. The score is written in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B-flat major/D minor) and a 9/8 time signature. The notation includes treble clefs, stems, and notes for each instrument, with some instruments having specific rhythmic patterns or ornaments indicated by circles and wavy lines.

<상현도드리> 초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56>과 같다.

<표 56> <상현도드리> 초장 선율비교

<상현도드리>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종류	이리 종류	대전 종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돌 장	1	林	侏	○		○	○	○		○	○	○	○	○	○
	2	林	侏	○		○	○	○		○	○	○	○	○	○
	3	仲	仲	○		○	○	○		○	○	無	○	○	○
	4	黃	儻	○		○	○	○		○	○	太	○	○	○
	5	黃	儻	○		○	○	○		○	○	○	○	○	○
	6	仲	仲	○		○	○	○		○	○	○	○	○	○
	7	仲	仲	○		○	○	○		○	○	○	○	○	○
	8	潢	黃	○		○	○	○		○	○	林	○	○	○
	9	潢	無	○		●	●	○		○	●	●	○	○	●
	10	潢	無	○		●	●	○		○	●	●	○	○	●
1각	1	林	仲	○		○	●	○		○	●	無	無	○	●
	2	仲	儻	○		○	○	○		○	○	無	無	○	○
	3	仲	仲	○		○	○	○		○	○	潢	潢	○	○
	4	無	仲	○		○	●	○		○	●	潢	潢	○	●
	5	無	儻	○		○	●	○		○	●	○	○	○	●
	6	潢	仲	○		○	●	○		○	●	林	林	○	●
2각	1	潢	侏	○		●	●	○		○	●	汰	●	○	●
	2	林	儻	太		○	○	太		○	○	汰	汰	○	○
	3	仲	侏	○		●	●	○		○	●	潢	潢	○	●
	4	林	侏	仲		○	○	仲		○	○	仲	仲	○	○
	5	潢	黃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3각	1	林	侏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林	仲	●		○	●	●		○	●	●	●	○	●
	4	黃	儻	○		○	○	○		○	○	○	○	○	○
	5	仲	儻	太		●	●	太		太	●	○	太	○	太
	6	仲	仲	○		○	○	○		○	○	○	○	○	○

4자	1	林	侏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4	潢	潢	○		○	○	○		○	○	○	○	○	○
	5	仲	仲	無		○	○	○		無	○	無	○	○	○
	6	林	侏	○		●	●	○		○	●	潢	●	○	●
5자	1	林	黃	○		○	○	○		○	○	太	○	○	○
	2	潢	黃	○		○	○	○		○	○	林	○	○	○
	3	汰	黃	○		○	●	○		●	●	○	○	○	●
	4	潢	黃	○		○	○	○		○	○	○	○	○	○
	5	無	黃	○		●	●	●		●	●	●	○	○	●
	6	仲	黃	○		●	●	○		●	●	●	○	○	●
6자	1	林	太	○		●	●	○		●	●	○	○	○	●
	2	潢	太	○		●	●	○		●	●	○	○	○	●
	3	潢	黃	○		○	○	○		○	○	○	○	○	○
	4	林	侏	○		潢	潢	○		○	潢	○	○	○	潢
	5	潢	黃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7자	1	林	侏	太		○	○	黃		○	○	○	○	太	○
	2	林	侏	○		○	○	○		○	○	○	○	○	○
	3	仲	仲	太		○	○	○		黃	○	○	○	○	○
	4	仲	侏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8자	1	林	侏	太		○	○	○		○	○	太	○	○	○
	2	潢	侏	○		○	○	○		○	○	○	○	○	○
	3	潢	侏	○		○	○	○		○	○	○	○	○	○
	4	林	侏	○		○	○	○		○	○	○	○	○	○
	5	林	侏	○		○	○	○		○	○	○	○	○	○
	6	林	侏	○		○	○	○		○	○	○	○	○	○

<상현도드리> 초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57>과 같다.

<표 57> <상현도드리> 초장 선율 일치도

<상현>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3		38	37	38		35	37	28	34	37	38
●	1		9	17	2		5	17	5	3	0	16
○	17		10	3	14		15	3	8	12	19	3
⊙	0		0	0	0		0	0	0	0	1	0
기타	7		1	1	4		3	1	17	9	1	1
총 개수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피리 일치도	58.6%		81.0%	93.1%	68.9%		68.9%	93.1%	56.8%	63.7%	63.7%	93.1%
거문고 일치도	86.2%		82.7%	68.9%	89.6%		86.2%	68.9%	62.0%	79.3%	96.5%	70.6%
독자적 선율	12.0%		1.7%	1.7%	6.8%		5.1%	1.7%	29.3%	15.5%	1.7%	1.7%

지용구는 피리와 58.6%, 거문고와 86.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2.0%이다. 민완식은 피리와 81.0%, 거문고와 82.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7%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3.1% 일치하며 거문고와는 68.9%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1.7%이다. 류대복의 경우 68.9%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89.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6.8%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8.9%, 86.2%로 나타났으며 5.1%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3.1%, 거문고와 68.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7%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6.8%, 거문고와 62.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9.3%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3.7%, 거문고와 79.3% 일치하였으며 15.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3.7%, 거문고와 96.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7%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3.1%, 거문고와 70.6%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7%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상현도드리> 제2장

제2장 제1각의 거문고 선율은 ‘橫 仲- 仲- 林’으로 진행되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북, 지영희, 이리풍류는 이와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피리는 ‘無- 橫 無 仲 林’으로 진행되며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구례풍류도 동일한 선율 진행이다.

<악보 18> <상현도드리> 제2장 제1각

<상현도드리> 초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다.

<표 58> <상현도드리> 제2장 선율비교

<상현>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無	儻	○	○	●	●	○		○	●	林	○	○	●
	2	無	儻	○	○	●	●	○		○	●	○	○	○	●
	3	無	儻	○	○	●	●	○		○	●	○	○	○	●
	4	林	儻	仲	◎	仲	◎	◎		◎	◎	◎	◎	◎	◎
	5	潢	儻	○	○	●	●	○		○	●	仲	○	○	●
	6	潢	儻	○	○	●	無	○		○	●	●	○	○	●
2각	1	無	仲	○	○	●	●	○		○	●	●	○	○	●
	2	無	仲	○	○	●	●	○		○	●	●	○	○	●
	3	潢	仲	○	○	●	●	○		○	●	●	○	○	●
	4	無	仲	○	○	●	●	○		○	●	潢	○	○	●
	5	仲	仲	◎	◎	◎	◎	◎		◎	◎	◎	◎	◎	◎
	6	仲	侏	○	無	●	●	○		○	●	○	○	○	●
3각	1	潢	太	○	○	●	●	○		○	●	○	○	○	●
	2	林	太	○	○	○	●	○		○	●	○	○	○	●
	3	林	黃	○	○	仲	仲	○		○	●	○	○	○	●
	4	潢	儻	○	○	○	●	○		○	●	○	○	○	●
	5	潢	儻	○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
4각	1	仲	仲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潢	黃	◎	◎	◎	◎	◎		◎	◎	◎	◎	◎	◎
	4	林	儻	○	○	●	●	○		○	●	○	○	○	●
	5	無	儻	◎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
5각	1	仲	仲	◎	◎	◎	◎	◎		◎	◎	◎	◎	◎	◎
	2	林	侏	◎	◎	◎	◎	◎		◎	◎	◎	◎	◎	◎
	3	潢	黃	◎	◎	◎	◎	◎		◎	◎	◎	◎	◎	◎
	4	林	侏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黃	儻	◎	◎	◎	◎	◎		◎	◎	◎	◎	◎	◎
6자	1	林	倝	◎	仲	◎	◎	仲		◎	◎	◎	◎	◎	◎
	2	潢	儻	◎	林	◎	◎	◎		◎	◎	◎	◎	◎	◎
	3	仲	黃	○	林	●	●	○		○	●	○	○	○	●
	4	林	倝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仲	仲	◎	黃	◎	◎	黃		黃	◎	黃	黃	◎	◎
7자	1	黃	黃	●	仲	●	●	林		林	●	林	林	◎	●
	2	林	倝	◎	◎	◎	◎	仲		仲	◎	仲	仲	◎	◎
	3	林	倝	◎	◎	◎	◎	仲		仲	◎	仲	仲	◎	◎
	4	林	倝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林	仲	黃	○	●	●	黃		黃	●	○	黃	黃	●
8자	1	無	倝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林	仲	○	○	●	●	○		○	●	黃	○	○	●
	4	仲	仲	◎	◎	◎	◎	◎		◎	◎	◎	◎	◎	◎
	5	仲	仲	◎	◎	◎	◎	◎		◎	◎	太	◎	◎	◎
	6	仲	仲	◎	◎	◎	◎	◎		◎	◎	◎	◎	◎	◎
9자	1	無	倝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仲	仲	黃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5	無	仲	○	○	●	●	○		○	●	林	○	○	●
	6	林	仲	○	●	●	●	○		○	●	○	○	○	●
10자	1	林	儻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無	黃	●	●	●	●	●		●	●	●	●	●	●
	4	林	倝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仲	儻	○	○	●	●	○		○	●	○	○	○	●
11자	1	黃	儻	◎	◎	◎	◎	◎		◎	◎	◎	◎	◎	◎

2	黃 橫	◎	◎	◎	◎	◎		◎	◎	㉡	◎	◎	◎
3	㉡ 無	○	○	●	●	○		○	●	●	○	○	●
4	仲 橫	○	○	●	●	○		○	●	●	○	●	●
5	太 仲	◎	○	◎	◎	◎		◎	◎	◎	◎	◎	◎
6	黃 橫	◎	◎	◎	◎	◎		◎	◎	◎	◎	◎	◎

<상현도드리> 제2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9> <상현도드리> 제2장 선율 일치도

<상현>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6	33	36	37	33		34	37	31	34	38	37
●	2	2	24	27	1		1	29	7	1	2	29
○	26	25	4	0	26		26	0	17	26	25	0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6	2	2	6		5	0	11	5	1	0
총 개수	66	66	66	66	66		66	66	66	66	66	66
피리 일치도	57.5%	53.0%	90.9%	96.9%	51.5%		53.0%	100.0%	57.5%	53.0%	60.6%	100.0%
거문고 일치도	93.9%	87.8%	60.6%	56.0%	89.3%		90.9%	56.0%	72.7%	90.9%	95.4%	56.0%
독자적 선율	3.0%	9.0%	3.0%	3.0%	9.0%		7.5%	0.0%	16.6%	7.5%	1.5%	0.0%

지용구는 피리와 57.5%, 거문고와 93.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0%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53.0%, 거문고와 87.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9.0%로 나타났다. 민완식은 피리와 90.9%, 거문고와 60.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0%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6.9% 일

치, 거문고와는 56.0%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3.0%이다. 류대복의 경우 51.5%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89.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9.0%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53.0%, 90.9%로 나타났으며 7.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100.0%, 거문고와 56.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7.5%, 거문고와 72.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6.6%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53.0%, 거문고와 90.9% 일치하였으며 7.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0.6%, 거문고와 95.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5%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 거문고와 56.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없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상현도드리> 제3장

제3장 제2각의 거문고 선율은 ‘無- 潢 林 潢-’으로 진행되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는, 대전풍류는 이와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피리는 ‘林--’으로 진행되며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 이와 같은 선율 진행을 나타낸다. 이리풍류는 ‘林 潢-’으로 진행하여潢에서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악보 19> <상현도드리> 제3장 제2각

<상현도드리> 제3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60>과 같다.

<표 60> <상현도드리> 제3장 선율비교

<상현>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리												
1각	1	林	林	◎	◎	◎	◎	◎		◎	◎	◎	◎	◎	◎
	2	林	林	◎	無	◎	◎	◎		◎	◎	◎	◎	◎	◎

3자	3	仲	仲	○	○	○	○	○		○	○	○	○	○	○
	4	林	侏	○	無	○	○	○		○	○	○	○	○	○
	5	潢	太	○	○	●	●	○		○	●	林	●	○	●
2자	6	潢	黃	○	○	○	○	○		○	○	○	○	○	○
	1	林	無	○	○	●	●	○		○	●	○	●	○	●
	2	林	無	○	○	●	●	○		○	●	○	潢	○	●
	3	林	黃	○	○	●	●	○		○	●	○	○	○	●
	4	潢	侏	○	○	●	●	○		○	●	○	○	○	●
	5	汰	黃	○	○	○	○	○		○	○	○	○	○	○
3자	6	潢	黃	○	○	○	○	○		○	○	○	○	○	○
	1	林	侏	○	○	○	○	○		○	○	○	○	○	○
	2	潢	黃	○	○	○	○	○		○	○	○	○	○	○
	3	潢	黃	○	○	○	○	○		○	○	○	○	○	○
	4	林	侏	○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
4자	6	潢	黃	○	○	○	○	○		○	○	○	○	○	○
	1	林	侏	潢	○	○	○	○		○	○	潢	潢	○	○
	2	林	仲	○	○	●	●	○		○	●	●	●	○	●
	3	無	仲	○	○	●	●	●		○	●	○	○	○	●
	4	無	侏	仲	仲	●	●	○		○	仲	仲	仲	○	仲
	5	林	無	無	無	○	○	仲		○	○	○	○	○	○
5자	6	仲	黃	○	林	○	○	○		○	○	○	○	○	○
	1	黃	儻	○	○	○	○	○		仲	○	○	○	○	○
	2	仲	仲	○	○	○	○	○		○	○	○	○	○	○
	3	仲	仲	○	○	○	林	○		黃	○	○	○	○	○
	4	黃	儻	○	○	○	○	○		○	○	○	○	○	○
	5	黃	儻	○	○	○	○	○		○	○	○	○	○	○
6자	6	仲	仲	○	○	○	○	○		○	○	○	○	○	○
	1	潢	黃	○	無	○	○	○		○	○	○	○	○	○
	2	林	侏	○	○	○	○	○		○	○	○	○	○	○
	3	仲	侏	○	●	●	●	○		○	●	○	○	○	●
	4	林	侏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黃	儻	○	○	○	○	○		○	○	○	○	○	○	

<상현도드리>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61>과 같다.

<표 61> <상현도드리> 제3장 선율 일치도

<상현>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4	21	26	25	25		24	26	25	25	26	26
●	0	1	9	9	1		0	8	1	3	0	8
○	9	8	1	1	9		10	1	7	5	10	1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3	6	0	1	1		2	1	3	3	0	1
총 개수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피리 일치도	66.6%	61.1%	97.2%	94.4%	72.2%		66.6%	94.4%	72.2%	77.7%	72.2%	94.4%
거문고 일치도	91.6%	80.5%	75.0%	72.2%	94.4%		94.4%	75.0%	88.8%	83.3%	100%	75.0%
독자적 선율	8.3%	16.6%	0.0%	2.7%	2.7%		5.5%	2.7%	8.3%	8.3%	0.0%	2.7%

지용구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91.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61.1%, 거문고와 80.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6.6%로 나타났다. 민완식은 피리와 97.2%, 거문고와 7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4.4% 일치, 거문고와는 72.2%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2.7%이다. 류대복의 경우 72.2%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94.4%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2.7%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6.6%, 94.4%로 나타났으며 5.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4.4%, 거문고와 7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7%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72.2%, 거문고와 88.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77.7%, 거문고와 83.3% 일치하였으며 8.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2.2%, 거문고와 1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4.4%, 거문고와 75.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2.7%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며 지용

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상현도드리> 제4장

제3각 제3-7박의 거문고 선율은 ‘太 黄 侏 黄 仲’이다. 해당 구간의 피리 선율은 ‘黄 林 仲 黄-’이다.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동일한 선율 진행을 보이며 김덕진,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와 일치하고 있다.

<악보 20> <상현도드리> 제4장 제2각

<상현도드리> 제4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62>와 같다.

<표 62> <상현도드리> 제4장 선율비교

<상현>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仲 仲	◎	◎	◎	◎	◎		◎	◎	林	◎	◎	◎
	2	仲 仲	◎	無	◎	◎	◎		◎	◎	無	◎	◎	◎
	3	潢 仲	○	○	●	●	○		○	●	無	○	○	●
	4	潢 侏	○	○	●	●	○		○	●	無	○	○	●
	5	林 太	○	○	●	●	○		○	●	○	○	○	●
	6	仲 黃	○	○	●	●	○		○	●	○	○	○	●
2각	1	黃 無	○	○	●	●	○		○	●	○	○	○	●
	2	仲 無	○	○	●	●	○		○	●	○	○	○	●
	3	仲 黃	○	○	●	●	○		○	●	○	○	○	●
	4	仲 黃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林 侏	◎	◎	◎	◎	◎		◎	◎	◎	◎	◎	◎
3각	1	潢 黃	◎	◎	◎	◎	◎		◎	◎	汰	◎	◎	◎
	2	林 侏	◎	◎	◎	◎	無		◎	◎	汰	◎	◎	◎
	3	仲 仲	◎	◎	◎	◎	◎		◎	◎	潢	◎	◎	◎
	4	林 侏	◎	◎	◎	◎	◎		◎	◎	仲	◎	◎	◎
	5	潢 黃	◎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
4각	1	林 侏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林 仲	●	○	●	●	○		○	●	○	●	○	●
	4	黃 橫	◎	◎	◎	◎	◎		◎	◎	◎	◎	◎	◎
	5	仲 橫	●	○	●	●	○		○	●	○	●	○	●
	6	仲 仲	◎	◎	◎	◎	◎		◎	◎	◎	◎	◎	◎
5각	1	林 橫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仲 仲	◎	林	◎	◎	林		◎	◎	◎	◎	◎	◎
	4	潢 黃	◎	◎	◎	◎	◎		◎	◎	◎	◎	◎	◎

	5	仲	仲	◎	無	◎	◎	無		無	◎	無	◎	◎	◎	
	6	林	林	◎	◎	◎	◎	◎		◎	◎	潢	◎	◎	◎	
6각	1	林	潢	◎	◎	◎	◎	◎		◎	◎	仲	◎	◎	◎	
	2	潢	黃	◎	◎	◎	◎	◎		◎	◎	林	◎	◎	◎	
	3	汰	黃	○	○	○	●	○		●	●	○	○	○	○	●
	4	潢	黃	◎	◎	◎	◎	◎		◎	◎	◎	◎	◎	◎	◎
	5	無	黃	○	●	●	●	○		●	●	●	○	○	○	●
	6	仲	黃	○	●	●	●	○		●	●	●	○	○	○	●
7각	1	林	太	○	無	●	●	○		●	●	○	○	○	○	●
	2	潢	太	○	●	●	●	○		●	●	○	○	○	○	●
	3	潢	黃	◎	◎	◎	◎	◎		◎	◎	◎	◎	◎	◎	◎
	4	潢	林	○	○	●	●	○		○	●	○	○	○	○	●
	5	潢	黃	◎	仲	◎	◎	◎		仲	◎	◎	◎	◎	◎	◎
	6	潢	黃	◎	無	◎	◎	◎		◎	◎	◎	◎	◎	◎	◎
8각	1	林	林	太	●	●	●	太		●	●	●	●	太	●	
	2	林	林	◎	◎	◎	◎	◎		◎	◎	◎	◎	◎	◎	
	3	黃	仲	○	○	●	●	○		○	●	○	○	○	○	●
	4	仲	林	○	○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	◎
9각	1	林	林	太	仲	◎	◎	太		◎	◎	仲	◎	太	◎	
	2	潢	林	○	○	●	●	○		●	●	○	○	○	○	●
	3	潢	林	○	○	●	●	○		●	●	○	○	○	○	●
	4	林	林	◎	◎	◎	◎	◎		◎	◎	◎	◎	◎	◎	◎
	5	林	林	◎	◎	◎	◎	◎		◎	◎	◎	◎	◎	◎	◎
	6	仲	林	○	○	○	●	○		○	●	○	○	○	○	●

<상현도드리> 제4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63>과 같다.

<표 63> <상현도드리> 제4장 선율 일치도

<상현>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1	26	32	32	28		30	32	21	32	31	32
●	2	4	20	22	0		8	22	3	3	0	22
○	19	17	2	0	21		14	0	17	19	21	0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7	0	0	5		2	0	13	0	2	0
총 개수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피리 일치도	61.1%	55.5%	96.2%	100.0%	51.8%		70.3%	100.0%	44.4%	64.8%	57.4%	100.0%
거문고 일치도	92.5%	79.6%	62.9%	59.2%	90.7%		81.4%	59.2%	70.3%	94.4%	96.2%	59.2%
독자적 선율	3.7%	12.9%	0.0%	0.0%	9.2%		3.7%	0.0%	24.0%	0.0%	3.7%	0.0%

지용구는 피리와 61.1%, 거문고와 92.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7%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55.5%, 거문고와 79.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2.9%로 나타났다. 민완식은 피리와 96.2%, 거문고와 62.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100.0%, 거문고와는 59.2%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류대복의 경우 51.8%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90.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9.2%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70.3%, 81.4%로 나타났으며 3.7%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100.0%, 거문고와 59.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4.4%, 거문고와 70.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4.0%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4.8%, 거문고와 94.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57.4%, 거문고와 96.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7%이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0%, 거문고와 59.2%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2.7%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립국악원이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상현도드리>의 선율 일치도를 정리해보면 <표 64>와 같다.

<표 64> <상현도드리> 선율 일치도

<상현>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124	80	132	131	124		123	132	105	125	132	133
●	5	7	62	75	4		14	76	16	10	2	75
○	71	50	17	4	70		65	4	49	62	75	4
⊙	0	0	0	0	0		0	0	0	0	1	0
기타	14	19	3	4	16		12	2	44	17	4	2
총 개수	214	156	214	214	214		214	214	214	214	214	214
피리 일치도	60.2%	55.7%	90.6%	96.2%	59.8%		64.0%	97.1%	56.5%	63.0%	62.6%	97.1%
거문고 일치도	91.1%	76.9%	69.6%	63.0%	90.6%		87.8%	63.5%	71.9%	87.3%	96.7%	64.0%
독자적 선율	6.5%	12.1%	1.4%	1.8%	7.4%		5.6%	0.9%	20.5%	7.9%	0.4%	0.9%

<상현도드리>를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60.2%, 거문고와는 91.1% 일치한다. 독자적 선율은 6.5%로 나타난다. 김덕진은 피리와 55.7%, 거문고와 76.9% 일치하고 독자적 선율은 12.1%의 수치를 나타낸다. 민완식은 피리와 90.6%, 거문고와 69.6% 일치하고 1.4%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덕환도 민완식과 마찬가지로 피리가 96.2%, 거문고는 63.0% 일치하여 피리와 더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으며 독자적 선율은 1.8%로 나타난다. 류대복은 피리와 59.8%, 거문고와 90.6% 일치하고 독자적 선율은 7.4%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64.0%, 거문고와 87.8% 일치하며 5.6%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7.1%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63.5% 일치하고 있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6.5%, 거문고와 71.9% 일치하며 20.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

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3.0%, 거문고와 87.3%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7.9%이다. 대전풍류는 62.6%가 피리와 일치하고 있으며 거문고와는 96.7% 일치한다. 독자적 선율은 0.4%이다. 국악원은 피리와 97.1%, 거문고와는 64.0%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0.9%이다.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와 더 높은 일치율을 보이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거문고와 더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 구례풍류는 22.4%의 높은 수치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6. <하현도드리>

<하현도드리>는 1각에 6박으로 이루어진 곡이며, 줄풍류 중 여섯 번째 곡에 해당한다.

1) <하현도드리> 초장

제3각 제3-7박의 국악원 거문고 선율은 ‘太 黃 侏 黃 仲’이다. 해당 구간의 국악원의 피리 선율은 ‘黃 林 仲 黃-’이다.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같은 선율 진행을 보이며 김덕진,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피리와 일치하고 있다.

<악보 21> <하현도드리> 초장 제7각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하현도드리> 초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65>와 같다.

<표 65> <하현도드리> 초장 선율비교

<하현>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배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林	林	○		○	○	○		○	○	○	○	○	○
	2	林	林	○		○	○	○		○	○	○	○	○	○
	3	林	林	○		○	○	○		○	○	○	○	○	○
	4	黃	橫	○		○	○	○		○	○	○	○	○	○
	5	黃	橫	○		○	○	○		○	○	林	○	○	○
	6	黃	橫	○		○	○	○		仲	○	○	○	○	○
2각	1	黃	橫	○		○	○	○		○	○	○	○	○	○
	2	黃	橫	○		○	○	○		○	○	仲	○	○	○
	3	林	林	○		○	○	○		○	○	仲	○	○	○
	4	仲	仲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黃	仲	○		●	●	○		○	●	●	●	○	●
3각	1	仲	仲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黃	橫	○		○	○	○		○	○	○	○	○	○
	4	太	伋	○		○	○	○		○	○	○	○	○	○
	5	太	伋	○		○	○	○		○	○	○	○	○	○
	6	黃	橫	○		○	○	○		○	○	○	○	○	○
4각	1	仲	仲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黃	橫	○		○	○	○		○	○	○	○	○	○
	4	太	伋	○		○	○	○		○	○	○	○	○	○
	5	太	伋	○		○	○	○		仲	○	林	○	仲	○
	6	黃	橫	○		○	○	○		○	○	○	○	○	○
5각	1	林	林	○		○	○	○		○	○	黃	○	○	○
	2	橫	林	○		○	○	○		○	○	仲	○	○	○
	3	林	林	○		○	○	○		○	○	仲	○	○	○
	4	仲	仲	○		○	○	○		○	○	林	○	○	○
	5	仲	仲	○		○	○	○		○	○	林	○	○	○

	6	黃	黃	◎		◎	◎	太		◎	◎	仲	◎	◎	◎
6각	1	黃	黃	◎		◎	◎	◎		◎	◎	林	◎	◎	◎
	2	黃	黃	◎		◎	◎	◎		◎	◎	林	◎	◎	◎
	3	仲	仲	◎		◎	◎	林		◎	◎	◎	◎	◎	◎
	4	仲	仲	◎		◎	◎	◎		◎	◎	林	◎	◎	◎
	5	仲	仲	◎		◎	◎	◎		◎	◎	黃	◎	◎	◎
	6	黃	黃	◎		◎	◎	◎		◎	◎	仲	◎	◎	◎
7각	1	林	林	◎		◎	◎	◎		◎	◎	◎	◎	◎	◎
	2	黃	林	○		●	●	○		○	●	仲	●	○	●
	3	仲	仲	◎		◎	◎	◎		◎	◎	◎	◎	◎	◎
	4	林	林	◎		◎	◎	◎		◎	◎	◎	◎	◎	◎
	5	黃	黃	◎		◎	◎	林		林	◎	林	◎	◎	◎
	6	仲	仲	◎		◎	◎	◎		◎	◎	◎	◎	◎	◎

<하현도드리> 초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66>과 같다.

<표 66> <하현도드리> 초장 선율 일치도

<하현>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9		39	39	36		36	39	24	39	38	39
●	0		2	2	0		0	2	1	2	0	2
○	3		1	1	3		3	1	0	1	3	1
◎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3		3	0	17	0	1	0
총 개수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피리 일치도	92.8%		97.6%	97.6%	85.7%		85.7%	97.6%	59.5%	97.6%	90.4%	97.6%
거문고 일치도	100%		95.2%	95.2%	92.8%		92.8%	95.2%	57.1%	95.2%	97.6%	95.2%
독자적 선율	0.0%		0.0%	0.0%	7.1%		7.1%	0.0%	31.4%	0.0%	2.3%	0.0%

지용구는 피리와 92.8%, 거문고와 1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민완식과 이덕환은 피리와 97.6%, 거문고와 95.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류대복의 경우 85.7%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92.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1%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85.7%, 92.8%로 나타났으며 7.1%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7.6%, 거문고와 95.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9.5%, 거문고와 57.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1.4%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97.6%, 거문고와 95.2% 일치하였으며 대전풍류는 피리와 90.4%, 거문고와 97.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3%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7.6%, 거문고와 95.2%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없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하현도드리> 제2장

(1) 제6각

제3각 제3-7박의 거문고 선율은 ‘太 黃 侏 黃 仲’이다. 해당 구간의 피리 선율은 ‘黃 林 仲 黃-’이다.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같은 선율 진행을 보이며 김덕진,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와 일치하고 있다. 구례풍류와 이리풍류는 독자적인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악보 22> <하현도드리> 제2장 제6각

<하현도드리> 제2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67>과 같다.

<표 67> <하현도드리> 제2장 선율비교

<하현>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양												
1각	1	林	侏	○		○	○	○		○	○	○	○	○	○
	2	太	仲	○		●	●	○		○	●	○	○	○	●

	3	太	仲	黃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5	仲	仲	○		○	○	○		○	○	太	○	○	○
	6	仲	仲	○		○	○	○		○	○	○	○	○	○
2Z	1	太	儻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5	仲	仲	○		○	○	○		○	○	林	○	○	○
	6	仲	仲	○		○	○	○		○	○	林	○	○	○
3Z	1	太	伏	○		○	○	○		○	○	黃	○	○	○
	2	林	倝	○		○	○	○		○	○	黃	○	○	○
	3	林	倝	○		○	○	○		○	○	黃	○	○	○
	4	林	倝	○		○	○	○		○	○	仲	○	○	○
	5	太	伏	仲		○	○	○		○	○	林	○	○	○
	6	黃	儻	○		○	○	○		○	○	林	○	○	○
4Z	1	倝	倝	○		○	○	○		○	○	黃	○	○	○
	2	倝	倝	○		○	○	○		○	○	太	○	○	○
	3	黃	儻	○		○	○	○		○	○	太	○	○	○
	4	仲	仲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黃	儻	仲		○	○	○		○	○	太	○	○	○
5Z	1	倝	倝	○		○	○	黃		黃	○	○	○	○	○
	2	倝	倝	○		○	○	○		○	○	○	○	○	○
	3	黃	儻	○		○	○	倝		倝	○	林	○	○	○
	4	倝	倝	黃		○	○	黃		黃	○	汰	○	黃	○
	5	太	伏	○		○	○	倝		倝	○	潢	○	○	○
	6	太	儻	○		●	●	○		○	●	●	●	○	●
6Z	1	無	儻	○		●	●	○		○	●	仲	●	○	●
	2	無	倝	○		●	●	○		○	●	○	●	○	●
	3	黃	儻	○		○	○	○		○	○	林	○	○	○
	4	倝	倝	○		○	○	○		仲	○	○	○	○	○
	5	黃	儻	○		○	○	太		仲	○	○	○	○	○
	6	太	儻	○		○	●	太		○	○	●	●	○	●
7Z	1	倝	儻	○		○	○	○		○	○	○	○	○	○
	2	黃	倝	●		●	●	○		○	●	仲	●	●	●
	3	黃	倝	●		●	●	○		○	●	仲	太	●	●
	4	倝	倝	○		○	○	○		仲	○	黃	○	○	○
	5	倝	倝	○		○	○	仲		仲	○	黃	○	○	○
	6	仲	仲	○		○	黃	○		○	○	○	○	○	○

<하현도드리> 제2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68>과 같다.

<표 68> <하현도드리> 제2장 선율 일치도

<하현>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0		33	32	26		24	33	14	33	32	33
●	3		8	9	0		0	8	3	5	2	9
○	5		1	0	9		10	1	3	3	7	0
⊙	0		0	0	0		0	0	0	0	0	0
기타	4		0	1	7		8	0	22	1	1	0
총 개수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피리 일치도	78.5%		97.6%	97.6%	61.9%		57.1%	97.6%	40.4%	90.4%	80.9%	100%
거문고 일치도	83.3%		80.9%	76.1%	83.3%		80.9%	80.9%	40.4%	85.7%	92.8%	78.5%
독자적 선율	9.5%		0.0%	2.3%	16.6%		19.0%	0.0%	52.3%	2.3%	2.3%	0.0%

지용구는 피리와 78.5%, 거문고와 8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9.5%이다. 민완식은 피리와 97.6%, 거문고와 80.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7.6%, 거문고와는 76.1%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2.3%이다. 류대복의 경우 61.9%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8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6.6%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57.1% 80.9%로 나타났으며 19.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7.6%, 거문고와 80.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거문고 모두 40.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2.3%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90.4%, 거문고와 85.7% 일치하였으며 대전풍류는 피리와 80.9%, 거문고와 92.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3%이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 거문고와 78.5%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없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립국악원이며 지용

구, 류대북,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하현도드리> 제3장

제1각 3박에서 민완식, 김천흥, 이리풍류, 국악원은 仲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는 거문고 혹은 피리 선율에서 찾을 수 없는 독자적인 선율이다.

<악보 23> <하현도드리> 제3장 제1각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하현도드리> 제2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69>와 같다.

<표 69> <하현도드리> 제3장 선율비교

<하현>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악원
각	박	피	양												
1각	1	潢	黃	◎		◎	◎	仲		◎	◎	◎	◎	林	◎
	2	林	侏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4	仲	仲	◎		◎	◎	太		◎	◎	◎	◎	◎	◎
	5	林	侏	◎		◎	◎	黃		◎	◎	◎	◎	◎	◎
	6	仲	仲	◎		◎	◎	개방		◎	◎	◎	◎	◎	◎
2각	1	黃	儻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林	仲	◎		◎	◎	◎		◎	◎	◎	◎	◎	◎
	4	黃	儻	◎		◎	◎	◎		◎	◎	◎	◎	◎	◎
	5	黃	儻	◎		◎	◎	◎		◎	◎	◎	◎	◎	◎
	6	仲	仲	◎		◎	◎	◎		◎	◎	◎	◎	◎	◎
3각	1	潢	黃	◎		◎	◎	◎		◎	◎	◎	◎	◎	◎
	2	林	侏	◎		◎	◎	◎		◎	◎	◎	◎	◎	◎
	3	仲	侏	○		●	○	○		○	●	○	●	○	●
	4	林	侏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黃	儻	◎		◎	◎	◎		◎	◎	◎	◎	◎	◎

<하현도드리>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70>과 같다.

<표 70> <하현도드리> 제3장 선율 일치도

<하현>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17		17	17	13		17	17	17	17	16	17
●	0		1	0	0		0	1	0	1	0	1

○	1		0	1	1		1	0	1	0	1	0
◎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4		0	0	0	0	1	0
총 개수	18		18	18	14		18	18	18	18	17	18
피리 일치도	94.4%		100%	94.4%	72.2%		94.4%	100%	94.4%	100%	88.8%	100%
거문고 일치도	100%		94.4%	100%	77.7%		100%	94.4%	100%	94.4%	94.4%	94.4%
독자적 선율	5.5%		0.0%	0.0%	22.2%		0.0%	0.0%	0.0%	0.0%	5.5%	0.0%

<하현도드리>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용구는 피리와 94.4%, 거문고와 1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5%이다. 민완식은 피리와 100%, 거문고와 94.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4.4% 일치, 거문고와는 100%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류대복의 경우 72.2%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77.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2.2%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94.4%, 100%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김천홍은 피리와 100%, 거문고와 94.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94.4%, 거문고와 1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100%, 거문고와 94.4% 일치하였으며 대전풍류는 피리와 88.8%, 거문고와 94.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5%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 거문고와 94.4%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없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하현도드리> 제4장

제4장 제2각에서 거문고와 피리는 ‘無- 潢 潢 仲 林’의 선율을 연주한다. 민완식, 이덕환, 김천흥, 국악원의 경우 ‘黃 仲- 仲 林’을 연주하고 있어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악보 24> 하현도드리 제4장 제2각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2 stav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instrument. From top to bottom, the instruments are: 지용구 (Jiyonggu), 민완식 (Minwansik), 이덕환 (Ideokhwan), 류대복 (Ryudaebok), 지영희 (Jiyeonghee), 김천흥 (Kimcheonheung), 구례풍류 (Gurye-pungryu), 이리풍류 (Iri-pungryu), 대전풍류 (Daejeon-pungryu), 국악원 해금 (Kugakwon Haegeum), 국악원 거문고 (Kugakwon Geomungo), and 국악원 피리 (Kugakwon Piri). The score is written in a single system with 12 staves, each with a unique instrument name on the left. The music is in a key with four flats and a common time signature.

<하현도드리> 제4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71>과 같다.

<표 71> <하현도드리> 제4장 선율비교

<하현>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仲	仲	○		○	○	○		○	○	汰	○	○	○
	2	仲	仲	○		○	○	○		○	○	汰	○	○	○
	3	潢	仲	○		●	●	○		○	●	●	○	○	●
	4	潢	侏	○		●	●	○		○	●	○	○	○	●
	5	林	太	○		●	●	○		○	●	潢	○	○	●
	6	仲	黃	○		●	●	○		○	●	○	○	○	●
2각	1	黃	無	○		●	●	○		○	●	○	○	○	●
	2	仲	無	○		●	●	○		○	●	○	○	○	●
	3	仲	無	○		●	●	○		○	●	○	○	○	●
	4	仲	黃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林	侏	○		○	○	○		○	○	○	○	○	○
3각	1	潢	黃	○		○	○	○		○	○	汰	○	○	○
	2	林	侏	○		○	○	無		○	○	汰	○	○	○
	3	仲	仲	○		○	○	○		○	○	潢	○	○	○
	4	林	侏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4각	1	林	侏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林	仲	○		○	●	○		○	●	●	●	○	●
	4	黃	潢	○		○	○	○		○	○	○	○	○	○
	5	仲	潢	○		●	●	太		太	●	○	太	○	●
	6	仲	仲	○		○	○	○		○	○	○	○	○	○
5각	1	林	侏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3	仲	仲	○		○	○	林		林	○	林	○	○	○
	4	潢	黃	○		○	○	○		○	○	○	○	○	○

	5	仲	仲	無		◎	◎	無		無	◎	無	◎	◎	◎
	6	林	林	○		●	●	○		○	●	潢	●	●	●
6자	1	林	黃	◎		◎	◎	◎		◎	◎	太	◎	◎	◎
	2	潢	黃	◎		◎	◎	◎		◎	◎	林	◎	◎	◎
	3	汰	黃	○		○	●	○		●	●	○	○	○	○
	4	潢	黃	◎		◎	◎	◎		◎	◎	◎	◎	◎	◎
	5	無	黃	○		●	●	○		●	●	林	○	○	●
	6	仲	黃	○		●	●	○		●	●	●	○	○	●
7자	1	林	太	○		●	●	○		●	●	○	○	○	●
	2	潢	太	○		●	●	○		●	●	○	○	○	●
	3	潢	黃	◎		◎	◎	◎		◎	◎	◎	◎	◎	◎
	4	潢	林	○		●	●	○		○	●	○	○	○	●
	5	潢	黃	◎		◎	◎	◎		林	◎	◎	◎	◎	◎
	6	潢	黃	◎		◎	◎	◎		◎	◎	◎	◎	◎	◎
8자	1	林	林	太		◎	◎	太		◎	◎	◎	◎	太	◎
	2	林	林	◎		◎	◎	◎		◎	◎	◎	◎	◎	◎
	3	仲	仲	黃		◎	◎	林		黃	◎	◎	◎	◎	◎
	4	仲	林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9자	1	林	林	太		◎	◎	太		◎	◎	無	◎	太	◎
	2	潢	林	○		●	●	○		●	●	○	○	○	●
	3	潢	林	○		●	●	○		●	●	○	○	○	●
	4	林	林	◎		◎	◎	◎		◎	◎	◎	◎	◎	◎
	5	林	林	◎		◎	◎	◎		◎	◎	◎	◎	◎	◎
	6	仲	林	○		●	潢	○		○	潢	○	○	黃	潢

<하현도드리> 제4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72>와 같다.

<표 72> <하현도드리> 제4장 선율 일치도

<하현>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9		33	33	27		29	34	23	33	31	33
●	0		19	20	0		7	19	3	3	1	20
○	21		2	0	20		13	0	15	17	19	0
⊙	0		0	0	0		0	0	0	0	0	0
기타	4		0	1	7		5	1	13	1	3	1
총 개수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피리 일치도	53.7%		96.2%	98.1%	50.0%		66.6%	98.1%	48.1%	66.6%	59.2%	98.1%
거문고 일치도	92.5%		64.8%	61.1%	87.0%		77.7%	62.9%	70.3%	92.5%	92.5%	62.9%
독자적 선율	7.4%		0.0%	1.8%	12.9%		9.2%	1.8%	24.0%	1.8%	5.5%	1.8%

<하현도드리> 제4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용구는 피리와 53.7%, 거문고와는 92.5%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7.4%로 확인되었다. 민완식은 피리와 96.2%, 거문고와 64.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8.1%, 거문고와 61.1%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8%로 나타났다. 류대복은 50.0%의 수치로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87.0% 일치하였으며 12.9%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지영희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77.7% 일치하였으며 9.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김천홍의 경우 피리와 98.1%, 거문고와 62.9%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8%로 확인되었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8.1%, 거문고와 70.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4.0%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92.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8%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59.2% 일치하였고 거문고와 92.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5% 연주한다. 국립국악원은 피리와 98.1%, 거문고와 62.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8%로 나타났다.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립국악원은 모두 피리와 97%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피리보다 거문고와 더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

<하현도드리>의 일치도를 이를 정리하면 <표 73>과 같다.

<표 73> <하현도드리> 선율 일치도

<하현>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115		122	121	102		106	123	78	122	117	122
●	3		30	31	0		7	30	7	11	3	32
○	30		4	2	33		27	2	19	21	30	1
⊙	0		0	0	0		0	0	0	0	0	0
기타	8		0	2	21		16	1	52	2	6	1
총 개수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56
피리 일치도	75.6%		97.4%	97.4%	65.3%		72.4%	98.0%	54.4%	85.2%	76.9%	98.7%
거문고 일치도	92.9%		80.7%	78.8%	86.5%		85.2%	80.1%	62.1%	91.6%	94.2%	78.8%
독자적 선율	5.1%		0.0%	1.2%	13.4%		10.2%	0.6%	33.3%	1.2%	3.8%	0.6%

<하현도드리>를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75.6%, 거문고와는 92.9%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5.1%로 확인되었다. 민완식은 피리와 97.4%, 거문고와 80.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7.4%, 거문고와 78.8%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2%로 나타났다. 류대복은 65.3%의 수치로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86.5% 일치하였으며 13.4%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지영희는 피리와 72.4%, 거문고와 85.2% 일치하였으며 10.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김천홍의 경우 피리와 98.0%, 거문고와 80.1%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0.6%로 확인된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4.4%, 거문고와 62.1% 일치하였

으며 독자적 선율은 33.3%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5.2%, 거문고와 91.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2%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6.9% 일치하였고 거문고와 94.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8% 연주한다. 국악원은 피리와 98.7%, 거문고와 78.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6%로 나타났다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모두 피리와 97%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피리보다 거문고와 더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

7. <염불도드리>

<염불도드리>는 1각에 6박으로 이루어진 곡이며, 줄풍류 중 일곱 번째 곡에 해당한다.

1) <염불도드리> 초장

초장 제4각 제3-5박 살펴보면, 거문고는 ‘潢--’을 연주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진행을 보이는 경우는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이다. 민완식은 제4박에서 林을 경과음으로 사용하여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피리는 ‘無 仲 潢’을 연주하며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이와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악보 25> <염불도드리> 초장 제4각

<염불도드리> 초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74>와 같다.

<표 74> <염불도드리> 초장 선율비교

<염불>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潢	黃	○		○	仲	○	○	○	仲	○	○	○	○
	2	林	林	○		○	○	○	○	○	○	○	○	○	○
	3	林	林	○		○	○	○	○	○	○	○	○	○	○
	4	林	林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黃	潢	○		○	○	○	○	○	○	○	○	○	○
2각	1	林	仲	無		●	●	●	○	●	●	無	○	○	●
	2	仲	仲	○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林	林	○		○	○	○	○	○	○	○	○	○	○
3각	1	仲	仲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太	潢	●		●	林	●	●	●	林	●	●	●	林
	4	黃	潢	○		○	仲	○	○	○	仲	○	○	○	仲
	5	黃	潢	○		○	林	○	○	○	林	○	○	○	林
	6	黃	潢	○		○	○	○	○	○	○	○	○	○	○
4각	1	仲	仲	○		○	○	○	○	○	○	○	○	○	○
	2	林	仲	○		○	●	○	○	○	●	○	○	○	●
	3	無	黃	○		○	●	○	○	○	●	○	○	○	●
	4	仲	黃	○		林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
	6	潢	林	○		○	●	○	○	○	●	○	○	○	●
5각	1	林	黃	○		●	●	○	○	○	●	○	○	○	●
	2	林	黃	●		●	●	●	●	●	●	●	●	●	●
	3	無	林	○		●	●	○	○	○	●	○	○	○	●
	4	林	黃	○		●	●	○	○	○	●	○	○	○	●
	5	汰	黃	○		林	林	○	無	○	林	○	○	○	林

	6	潢	黃	◎		◎	◎	◎	◎	◎	◎	◎	◎	◎	
6각	1	林	倝	◎		◎	◎	◎	◎	◎	◎	◎	◎	◎	
	2	林	倝	◎		◎	◎	◎	◎	◎	◎	◎	◎	◎	
	3	無	黃	●		●	●	●	●	●	●	●	○	●	
	4	無	倝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林	潢	○		○	●	○	○	○	仲	○	仲	○	●
7각	1	黃	潢	◎		◎	◎	◎	◎	◎	◎	◎	◎	◎	
	2	倝	潢	○		●	●	개방	○	○	●	○	○	○	●
	3	黃	潢	◎		◎	◎	◎	◎	◎	◎	◎	◎	◎	
	4	林	倝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黃	潢	◎		◎	◎	◎	◎	◎	◎	◎	◎	◎	
8각	1	林	仲	無		●	●	○	無	●	●	無	○	●	●
	2	仲	仲	◎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
	4	林	倝	◎		◎	◎	仲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黃	潢	◎		◎	◎	◎	◎	◎	◎	◎	◎	◎	◎
9각	1	林	仲	無		●	●	○	○	●	●	無	○	○	●
	2	仲	仲	◎		◎	◎	◎	◎	◎	◎	◎	◎	◎	◎
	3	仲	仲	◎		◎	◎	林	◎	◎	◎	◎	◎	◎	◎
	4	太	仲	○		●	●	○	●	●	●	○	○	○	●
	5	太	仲	○		●	●	○	黃	黃	●	○	○	○	●
	6	黃	倝	◎		◎	◎	◎	◎	◎	◎	◎	◎	◎	◎
10각	1	太	仲	○		●	●	○	○	○	●	○	○	○	●
	2	太	仲	○		●	●	○	○	○	●	○	○	○	●
	3	林	無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5	仲	仲	◎		◎	◎	◎	黃	黃	◎	◎	◎	◎	◎
	6	林	倝	○		●	●	○	●	●	●	無	無	○	●
11각	1	仲	仲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林	侏	○		太	●	○	○	○	●	●	●	○	●			
12 각	1	黃	黃	◎		仲	◎	◎	◎	◎	◎	◎	◎	◎	◎			
	2	仲	黃	○		●	●	○	○	○	●	○	○	○	○	●		
	3	林	橫	◎		●	●	○	●	○	○	○	○	○	○	●		
	4	黃	仲	○		○	●	○	○	●	●	○	○	○	○	●		
	5	侏	仲	○		○	●	○	太	○	○	○	○	○	○	●		
	6	黃	橫	◎		◎	◎	◎	◎	◎	◎	◎	◎	◎	◎	◎		
13 각	1	仲	仲	◎		◎	◎	◎	◎	◎	◎	◎	◎	◎	◎			
	2	林	仲	●		●	●	○	○	○	○	○	○	○	○	●		
	3	無	黃	○		●	●	○	○	○	○	○	○	○	○	○	●	
	4	仲	黃	○		●	●	○	○	○	○	○	○	○	○	○	●	
	5	橫	黃	◎		◎	◎	◎	◎	◎	◎	◎	◎	◎	◎	◎		
	6	橫	侏	○		●	●	○	○	○	○	○	○	○	○	○	●	
14 각	1	林	黃	○		●	●	○	○	○	○	○	○	○	○	○	●	
	2	橫	黃	◎		◎	◎	◎	◎	◎	◎	◎	◎	◎	◎	◎		
	3	橫	侏	○		●	●	○	○	○	○	○	○	○	○	○	●	
	4	林	黃	○		●	●	○	○	○	○	○	○	○	○	○	○	●
	5	林	黃	○		●	●	○	無	○	○	○	○	○	○	○	○	●
	6	橫	黃	◎		◎	◎	◎	◎	◎	◎	◎	◎	◎	◎	◎	◎	
15 각	1	林	侏	◎		◎	◎	◎	◎	◎	◎	◎	◎	◎	◎	◎		
	2	林	侏	仲		◎	◎	◎	◎	◎	◎	◎	◎	◎	◎	◎		
	3	無	黃	●		●	●	●	●	●	●	●	●	●	●	●	●	
	4	林	侏	無		無	無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	◎	
	6	太	橫	林		仲	◎	林	林	林	◎	林	林	林	◎	◎		
16 각	1	黃	橫	◎		◎	◎	◎	◎	◎	◎	◎	◎	◎	◎	◎		
	2	侏	橫	○		○	●	○	○	○	○	○	○	○	○	○	●	
	3	黃	橫	◎		◎	◎	◎	◎	◎	◎	◎	◎	◎	◎	◎		
	4	林	侏	◎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		
	6	黃	橫	◎		仲	◎	◎	◎	◎	◎	◎	◎	◎	◎	◎		
17 각	1	林	仲	○		●	●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	◎	◎	◎

	4	林	徇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黃	橫	◎		◎	◎	◎	◎	◎	◎	◎	◎	◎		
18	1	林	仲	○		●	●	○	○	○	●	無	○	○	●	
	2	仲	仲	◎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	
	4	太	仲	○		●	●	○	○	●	●	○	○	○	●	
	5	太	仲	●		●	●	○	○	黃	●	○	○	○	○	●
	6	黃	橫	◎		◎	◎	◎	◎	林	林	◎	◎	◎	◎	◎
19	1	太	仲	○		●	●	○	○	○	●	○	○	○	○	●
	2	太	仲	○		●	●	○	○	○	●	○	○	○	○	●
	3	林	橫	◎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
	6	林	徇	○		●	●	○	○	●	○	○	仲	○	○	●
20	1	仲	仲	◎		◎	◎	◎	◎	◎	◎	◎	◎	◎	◎	◎
	2	仲	無	◎		◎	◎	◎	◎	◎	◎	◎	◎	◎	◎	◎
	3	黃	無	○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
	6	黃	徇	◎		◎	◎	◎	◎	◎	◎	◎	○	○	◎	◎
21	1	林	仲	○		○	○	○	○	○	○	●	●	○	○	○
	2	仲	仲	◎		○가	○가	◎	林	◎	○가	林	林	◎	◎	○가
	3	林	徇	◎		◎	◎	◎	◎	◎	◎	無	無	◎	◎	◎
	4	林	徇	◎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
	6	太	橫	●		●	○	○	○	○	○	○	○	○	○	●
22	1	黃	仲	○		○	●	●	●	○	●	●	●	○	○	●
	2	林	徇	仲		◎	◎	개방	仲	◎	◎	黃	黃	◎	◎	◎
	3	黃	橫	◎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
	6	黃	仲	●		林	●	○	○	○	○	●	林	○	○	●

<염불도드리> 초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75>와 같다.

<표 75> <염불도드리> 초장 선율 일치도

<염불>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78		78	77	78	77	80	77	77	76	81	77
●	9		37	46	6	8	12	43	7	7	6	46
○	37		8	2	43	37	35	3	37	41	43	2
⊙	1		1 가	1 가	0	0	0	1 1 가	0	0	1	1 가
기타	7		8	6	5	10	5	7	11	8	1	6
총 개수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피리 일치도	65.9%		87.1%	93.1%	63.6%	64.3%	69.6%	90.9%	63.6%	62.8%	65.9%	93.1%
거문고 일치도	87.1%		65.1%	59.8%	91.6%	86.3%	87.2%	60.6%	86.3%	88.6%	93.9%	59.8%
독자적 선율	5.3%		6.0%	4.5%	3.7%	7.5%	3.7%	6.0%	8.3%	6.0%	0.7%	4.5%

지용구는 피리와 65.9%, 거문고와 87.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3%이다. 민완식은 피리와 87.1%, 거문고와 65.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6.0%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3.1% 일치, 거문고와는 59.8%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4.5%이다. 류대복의 경우 63.6%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91.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7%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8.9% 87.1%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4.5%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90.9%, 거문고와 60.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6.0%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63.6%, 거문고와 86.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2.8%, 거문고와 88.6% 일치하였으며 6.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5.9%, 거문고와 93.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7%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3.1%, 거문고와 59.8%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4.5%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며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을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염불도드리> 제2장

제12각 제1-3박에서 거문고는 ‘黃 仲 無’를, 피리는 ‘林- 無’를 연주한다.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와 동일한 선율을,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동일한 선율을 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악보 26> <염불도드리> 제2장 제12각

The musical score displays the notation for 13 different instruments. The instruments listed on the left are: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and 국악원 피리. The score is written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A dashed box encloses the first three measures of the piece, indicating the specific melodic lines for each instrument during this section.

<염불도드리> 제2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76>과 같다.

<표 76> <염불도드리> 제2장 선율비교

<염불>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林	林	○		潢	潢	○	無	○	潢	○	○	○	潢
	2	仲	林	○		潢	潢	○	○	○	潢	○	○	○	潢
	3	林	黃	無		●	●	○	○	無	●	無	無	○	●
	4	林	林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太	橫	●		林	●	●	●	●	●	●	●	●	●
2각	1	黃	橫	○		仲	○	○	○	○	○	○	○	○	○
	2	林	橫	○		●	●	○	●	●	●	○	●	○	●
	3	黃	橫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林	仲	○		●	●	○	○	○	●	●	○	○	●
3각	1	潢	黃	○		○	○	汰	○	○	○	○	○	○	○
	2	潢	黃	○		○	○	○	○	○	○	○	○	○	○
	3	林	黃	○		○	●	○	○	●	●	○	○	○	●
	4	林	林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太	橫	●		○	●	●	●	○	●	●	○	○	●
4각	1	仲	仲	黃		○	黃	黃	黃	黃	黃	黃	黃	○	黃
	2	林	林	仲		○	○	개방	○	○	○	黃	黃	○	○
	3	黃	橫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5	太	仲	○		○	○	○	○	○	○	○	○	○	○
	6	林	仲	○		●	●	○	○	○	●	●	○	○	潢
5각	1	潢	黃	○		○	○	○	○	○	○	○	○	○	○
	2	潢	黃	○		○	○	○	○	○	○	○	○	○	○
	3	林	林	○		○	○	○	○	○	○	○	○	○	○
	4	無	無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林	倮	◎		◎	◎	◎	◎	◎	◎	◎	◎	◎
6자	1	潢	黃	◎		◎	◎	◎	◎	◎	◎	◎	◎	◎
	2	潢	黃	◎		◎	◎	◎	◎	◎	◎	◎	◎	◎
	3	林	倮	◎		◎	◎	◎	◎	◎	潢	◎	◎	◎
	4	無	無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林	倮	◎		◎	◎	◎	◎	◎	◎	◎	◎	◎
7자	1	潢	黃	◎		◎	◎	◎	◎	◎	◎	◎	◎	◎
	2	潢	黃	◎		◎	◎	◎	◎	◎	◎	◎	◎	◎
	3	潢	黃	◎		◎	◎	◎	◎	◎	◎	◎	◎	◎
	4	林	倮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太	潢	◎		仲	◎	◎	◎	林	◎	◎	◎	◎
8자	1	黃	潢	◎		◎	◎	◎	◎	◎	◎	◎	◎	◎
	2	林	潢	○		●	●	○	○	●	●	○	●	○
	3	黃	潢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5	太	仲	○		●	●	○	○	○	●	●	●	○
	6	黃	倮	仲		○	○	仲	仲	仲	○	○	仲	仲
9자	1	倮	黃	○		○	○	○	○	○	○	○	○	○
	2	黃	黃	◎		◎	◎	◎	◎	◎	◎	◎	◎	◎
	3	仲	仲	◎		◎	◎	◎	◎	林	◎	◎	◎	◎
	4	林	倮	◎		◎	◎	◎	◎	◎	◎	◎	◎	◎
	5	林	倮	◎		◎	◎	◎	◎	◎	◎	◎	◎	◎
	6	林	倮	◎		◎	◎	仲	仲	◎	◎	◎	◎	◎
10자	1	林	倮	◎		◎	◎	◎	◎	◎	◎	◎	◎	◎
	2	林	倮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4	林	倮	◎		◎	◎	◎	◎	◎	◎	◎	◎	◎
	5	林	倮	◎		◎	◎	◎	◎	◎	◎	◎	◎	◎
	6	無	仲	○		○	●	○	○	○	●	○	○	○
11자	1	林	倮	◎		◎	◎	◎	◎	◎	◎	◎	◎	◎
	2	林	黃	○		●	●	無	○	○	●	無	無	○
	3	仲	黃	○		○	●	○	無	無	●	無	無	○
	4	林	倮	◎		◎	◎	◎	◎	◎	◎	仲	◎	◎

	5	林	黃	○		●	●	○	○	無	●	●	無	○	●
	6	無	黃	○		○	●	○	○	●	●	林	●	○	●
12 각	1	林	仲	○		●	●	○	○	○	●	○	○	○	●
	2	仲	仲	◎		◎	◎	◎	◎	◎	◎	無	◎	◎	◎
	3	無	侏	○		●	●	○	○	○	●	●	○	○	●
	4	無	仲	○		○	●	○	○	○	●	○	○	○	●
	5	無	仲	○		林	●	○	○	○	●	林	○	○	●
	6	無	侏	仲		仲	●	○	○	○	●	○	○	○	●
13 각	1	無	侏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林	仲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仲	仲	◎		◎	◎	◎	◎	◎	◎	◎	◎	◎	◎
14 각	1	無	侏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黃	仲	●		○	○	○	○	○	○	○	○	○	○
	4	仲	仲	◎		◎	◎	◎	◎	◎	◎	◎	◎	◎	◎
	5	無	仲	○		○	●	○	○	林	●	林	○	○	●
	6	仲	仲	◎		◎	林	◎	◎	無	林	林	◎	◎	林
15 각	1	林	橫	○		●	●	○	○	○	●	○	○	○	●
	2	仲	仲	◎		◎	◎	◎	◎	◎	◎	黃	◎	◎	◎
	3	無	黃	●		●	●	●	●	●	●	●	●	●	●
	4	林	侏	◎		◎	◎	◎	◎	無	◎	◎	◎	◎	◎
	5	仲	仲	◎		◎	◎	◎	◎	林	◎	◎	◎	◎	◎
	6	太	橫	◎		仲	仲	◎	◎	◎	仲	○	○	○	仲
16 각	1	黃	橫	◎		◎	◎	◎	◎	◎	◎	◎	◎	◎	◎
	2	黃	橫	◎		◎	◎	◎	◎	◎	◎	侏	◎	◎	◎
	3	侏	無	○		○	●	○	○	○	●	●	○	○	●
	4	黃	橫	◎		◎	◎	◎	仲	仲	◎	◎	仲	◎	◎
	5	太	仲	●		●	●	●	●	●	●	●	●	●	●
	6	黃	橫	◎		◎	◎	◎	◎	◎	◎	◎	◎	◎	◎

<염불도드리> 제2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77>과 같다.

<표 77> <염불도드리> 제2장 선을 일치도

<염불>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62		61	60	61	60	57	60	55	60	63	60
●	6		15	27	4	5	8	27	10	7	3	26
○	23		12	4	25	25	19	4	17	21	29	4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5		8	5	6	6	12	5	14	8	1	6
총 개수	96		96	96	96	96	96	96	96	96	96	96
피리 일치도	70.8%		79.1%	90.6%	67.7%	67.7%	67.7%	90.6%	67.7%	69.7%	68.7%	89.5%
거문고 일치도	88.5%		76.0%	66.6%	89.5%	88.5%	79.1%	66.6%	75.0%	84.3%	95.8%	66.6%
독자적 선율	5.2%		8.3%	5.2%	6.2%	6.2%	12.5%	5.2%	14.5%	8.3%	1.0%	6.2%

지용구는 피리와 70.8%, 거문고와 88.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2%이다. 민완식은 피리와 79.1%, 거문고와 76.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0.6% 일치, 거문고와는 66.6%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5.2%이다. 류대복의 경우 67.7%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89.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6.2%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7.7%, 79.1%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12.5%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90.6%, 거문고와 66.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2%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67.7%, 거문고와 7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4.5%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9.7%, 거문고와 84.3% 일치하였으며 8.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8.7%, 거문고와 95.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0%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89.5%, 거문고와 66.6%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6.2%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며 지용

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을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염불도드리> 제3장

제2각 제1-3박까지 거문고는 ‘無 無 潢’를, 피리는 ‘林--’을 연주한다. 민완식, 이덕환, 김천흥, 국악원은 피리와 동일하게 연주하다가 제4박에서 독자적인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거문고와 같은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악보 27> <염불도드리> 제3장 제2각

<염불도드리>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78>과 같다.

<표 78> <염불도드리> 제3장 선율비교

<염불>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林	侏	○		○	○	○	○	○	○	○	○	○	○
	2	林	侏	○		○	○	○	○	○	○	○	○	○	○
	3	仲	仲	○		○	○	○	○	○	○	○	○	○	○
	4	林	侏	○		○	○	○	○	○	○	○	○	○	○
	5	潢	太	○		●	●	○	○	○	●	林	○	○	●
	6	潢	黃	○		○	○	○	○	○	○	○	○	○	○
2각	1	林	無	○		●	●	○	○	○	●	○	○	○	●
	2	林	無	○		●	●	○	○	○	●	○	○	○	●
	3	林	黃	○		●	●	○	○	○	●	○	○	○	●
	4	潢	侏	○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
3각	1	林	侏	○		○	○	○	○	○	○	○	○	○	○
	2	潢	黃	○		○	○	○	○	○	○	○	○	○	○
	3	潢	黃	○		○	○	○	○	○	○	○	○	○	○
	4	林	侏	○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
	6	潢	黃	○		○	○	○	○	○	○	林	○	○	○
4각	1	林	侏	汰		○	○	○	潢	潢	○	潢	○	○	○
	2	林	仲	○		●	●	○	●	●	●	●	○	○	●
	3	無	仲	●		●	●	○	○	○	●	○	●	○	●
	4	仲	侏	●		無	●	○	○	○	無	●	●	○	●
	5	林	無	仲		○	○	仲	○	仲	○	○	○	○	○
	6	仲	黃	○		○	○	太	○	○	○	○	○	○	○
5각	1	黃	儻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仲	仲	○		○	○	太	林	林	○	○	○	○	○
	4	黃	儻	○		○	○	○	○	○	○	○	○	○	○
	5	黃	儻	太		○	○	○	○	○	○	○	○	○	○
	6	仲	仲	○		○	○	○	○	○	○	○	○	○	○
6각	1	潢	黃	○		○	○	○	○	○	○	○	○	○	○
	2	林	侏	○		○	○	○	○	○	○	○	○	○	○
	3	仲	侏	○		●	●	○	○	○	●	○	●	○	●
	4	林	侏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6	黃	橫	◎		◎	◎	◎	◎	◎	◎	◎	◎	◎

<염불도드리>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79>와 같다.

<표 79> <염불도드리> 제3장 선율 일치도

<염불>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4		27	27	24	25	24	27	25	27	27	27
●	2		8	9	0	1	1	8	2	3	0	9
○	7		0	0	9	8	8	0	6	6	9	0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3		1	0	3	2	3	1	3	0	0	0
총 개수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피리 일치도	72.2%		97.2%	100.0%	66.6%	72.2%	69.4%	97.2%	75.0%	83.3%	75.0%	100.0%
거문고 일치도	86.1%		75.0%	75.0%	91.6%	91.6%	88.8%	75.0%	86.1%	91.6%	100.0%	75.0%
독자적 선율	8.3%		2.7%	0.0%	8.3%	5.5%	8.3%	2.7%	8.3%	0.0%	0.0%	0.0%

지용구는 피리와 72.2%, 거문고와 86.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민완식은 피리와 97.2%, 거문고와 7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7%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100.0% 일치, 거문고와는 75.0%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류대복의 경우 66.6%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고 거문고와는 91.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72.2% 88.8%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97.2%, 거문고와 7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7%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75.0%, 거문고와 86.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3.3%, 거문고와 91.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5.0%, 거문고와 10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0%, 거문고와 75.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없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며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염불도드리> 제4장

제1각의 제3-6박에서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潢潢林仲’을 연주하여 거문고와 피리 선율에서 연주되지 않는 독자적인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지용구, 민완식,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모두 국악원의 거문고, 피리와 동일한 선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악보 28> <염불도드리> 제4장 제1각

The musical score displays the notation for 13 different performers.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rests, and articulation marks like 'v' and circles around notes. The performers listed are: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and 국악원 피리.

<염불도드리> 제4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80>과 같다.

<표 80> <염불도드리> 제4장 선율비교

<염불>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양												
1각	1	黃 仲	○		○	○	○	○	○	○	林	○	○	○
	2	仲 仲	○		○	○	○	○	○	○	無	○	○	○
	3	仲 仲	○		○	●	○	○	○	●	無	○	○	●
	4	林 侏	○		○	潢	○	○	○	潢	無	○	○	潢
	5	汰 太	○		○	林	○	○	○	林	無	○	○	林
	6	潢 黃	○		○	仲	○	○	○	仲	○	○	○	仲
2각	1	黃 無	○		●	●	○	○	○	●	○	○	○	●
	2	仲 無	○		●	●	○	○	○	●	○	○	○	●
	3	仲 無	○		●	●	○	○	○	●	○	○	○	●
	4	仲 黃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林 侏	仲		○	○	○	○	○	○	○	○	○	○
3각	1	潢 黃	○		○	○	○	○	○	○	汰	○	○	○
	2	林 侏	無		○	○	無	無	無	○	汰	○	○	○
	3	仲 仲	○		○	○	○	○	○	○	潢	○	○	○
	4	林 侏	無		○	○	無	○	○	○	○	○	○	○
	5	潢 黃	○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
4각	1	林 侏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林 仲	○		●	●	●	●	●	●	●	●	○	●
	4	黃 潢	○		○	○	○	○	○	○	○	○	○	○
	5	仲 潢	太		●	●	太	太	太	●	○	●	○	●
	6	仲 仲	○		○	○	林	○	○	○	○	○	○	○
5각	1	林 侏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3	仲 仲	○		○	○	林	林	○	○	○	○	○	○
	4	潢 黃	○		○	○	○	○	○	○	○	○	○	○
	5	仲 仲	○		○	林	潢	無	潢	無	無	無	潢	○

6자	6	林	侏	○		●	●	○	○	○	●	潢	●	○	●
	1	林	黃	◎		◎	◎	◎	◎	◎	◎	太	◎	◎	◎
	2	潢	黃	◎		◎	◎	◎	◎	◎	◎	林	◎	◎	◎
	3	汰	黃	○		○	●	○	●	○	○	○	●	○	●
	4	潢	黃	◎		◎	◎	◎	◎	◎	◎	◎	◎	◎	◎
	5	無	黃	○		○	●	○	●	○	●	●	●	○	●
	6	仲	黃	○		○	●	○	●	○	●	●	●	○	●
7자	1	林	太	○		○	●	○	●	○	●	○	●	○	●
	2	潢	太	○		○	●	○	●	○	●	○	●	○	●
	3	潢	黃	◎		◎	◎	◎	◎	◎	◎	◎	◎	◎	◎
	4	潢	侏	○		○	●	○	○	○	●	○	●	○	●
	5	潢	黃	◎		◎	◎	◎	◎	仲	◎	◎	◎	◎	◎
	6	潢	黃	◎		◎	◎	◎	◎	◎	◎	◎	◎	◎	◎

<염불도드리> 제4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81>과 같다.

<표 81> <염불도드리> 제4장 선율 일치도

<염불>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2		25	23	20	22	22	23	17	24	24	24
●	0		7	14	1	6	1	13	3	9	0	14
○	16		10	1	15	10	15	2	10	8	17	1
◎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4		0	4	6	4	4	4	12	1	1	3
총 개수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피리 일치도	52.3%		76.1%	88.0%	50.0%	66.6%	54.7%	85.7%	47.6%	78.5%	57.1%	90.4%
거문고 일치도	90.4%		83.3%	57.1%	83.3%	76.1%	88.0%	59.5%	64.2%	76.1%	97.6%	59.5%
독자적 선율	9.5%		0.0%	9.5%	14.2%	9.5%	9.5%	9.5%	28.5%	2.3%	2.3%	7.1%

지용구는 피리와 52.3%, 거문고와 90.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9.5%이다. 민완식은 피리와 76.1%, 거문고와 8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88.0% 일치, 거문고와는 57.1%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9.5%이다. 류대복의 경우 50.0%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8.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4.2%이다. 김창규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76.1% 일치하였으며 9.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54.7%, 88.0%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9.5%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85.7%, 거문고와 59.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9.5%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7.6%, 거문고와 64.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8.5%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78.5%, 거문고와 76.1% 일치하였으며 2.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57.1%, 거문고와 97.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3%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0.4%, 거문고와 59.5%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7.1%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이며 지용구, 민완식,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염불도드리>의 선율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82>와 같다.

<표 82> <염불도드리> 선율 일치도

<염불>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186		191	187	183	184	183	187	174	187	195	188
●	17		67	96	11	20	22	91	22	26	9	95
○	83		30	7	92	80	77	9	70	76	98	7
⊙	1		1 가	1 가	0	0	0	1 가 1	0	0	1	1 가
기타	19		17	15	20	22	24	17	40	17	3	15
총 개수	306		306	306	306	306	306	305	306	306	306	306

피리 일치도	66.3%		84.3%	92.4%	63.3%	66.6%	66.9%	90.8%	64.0%	69.6%	66.6%	92.4%
거문고 일치도	87.9%		72.2%	63.3%	89.8%	86.2%	84.9%	64.0%	79.7%	85.9%	95.7%	63.7%
독자적 선율	6.2%		5.5%	4.9%	6.5%	7.1%	7.8%	5.5%	13.0%	5.5%	0.9%	4.9%

<염불도드리>를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66.3% 일치, 거문고와는 87.9% 일치하였으며 6.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민완식은 피리와 84.3%, 거문고와 72.2%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5.5%로 확인된다. 이덕환은 피리와 92.4% 일치, 거문고와는 63.3% 일치하였으며 4.9%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은 피리와 63.3%, 거문고와 89.8% 일치하였고 6.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창규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86.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1%로 확인된다. 지영희는 피리와 66.9%, 거문고와 84.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8%로 나타났다. 김천홍은 피리와 90.8%, 거문고와 64.0% 일치하였으며 5.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64.0%, 거문고와는 79.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3.0%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9.6%, 거문고와는 85.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5%로 확인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95.7%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0.9%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2.4%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63.7% 일치하였으며, 4.9%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의 선율과 가깝게 연주하며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 선율에 더 가깝게 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타령>

<타령>은 1각에 12박으로 이루어진 곡이며, 줄풍류 중 여덟 번째 곡에 해당한다.

1) 초장

초장 제5각에서 거문고, 피리는 모두 ‘仲- 林 無 林 潢’를 연주하고 있으며 이덕환,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가 이와 동일한 선율 진행을 보인다. 지용구1, 지용구2, 대전풍류는 ‘黃 太 黃 仲 林 潢’, 김덕진과 류대복은 ‘汰- 潢’, 김창규는 ‘太 仲-’으로 이루어진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악보 29> <타령> 초장 제5각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4 staves, each with a name on the left. The notation is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Some staves have dashed boxes around specific measures, and a 'C' marking is present above the second staff.

- 지용구 1
- 지용구 2
- 김덕진
- 이덕환
- 류대복
- 김창규
- 지영희
- 김천흥
- 구례풍류
- 이리풍류
- 대전풍류
- 국악원 해금
- 국악원 거문고
- 국악원 피리

<타령> 초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83>과 같다.

<표 83> <타령> 초장 선율비교

<타령> 초장			지용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친홍	구례	이리	대전	국립		
각	박	피	거	1	2							풍류	풍류	풍류	국악원		
1가	1	林	橫	○	○	○		○	○	○	○	○	○	○	○	○	
	2	無	橫	○	○	○		○	林	○	○	林	○	○	○	○	
	3	仲	倅	●	●	●		●	●	●	○	●	●	●	●	●	
	4	林	倅	○	○	○		○	○	○	○	○	○	○	○	○	
	5	林	倅	無	○	無		○	○	○	○	○	○	○	○	○	
	6	汰	太	○	○	○		○	○	○	○	○	○	○	○	○	○
	7	潢	黃	○	○	○		○	○	○	○	○	○	○	○	○	○
	8	無	黃	●	●	●		汰	●	○	汰	汰	●	汰	●	汰	
	9	林	橫	○	○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	○
	11	太	佉	○	林	○		○	林	林	○	○	○	○	○	○	○
	12	黃	橫	○	○	○		○	○	○	○	○	○	○	○	○	○
2가	1	仲	仲	○	○	○		○	○	○	○	○	○	○	○	○	
	2	仲	仲	○	○	○		○	○	○	○	○	○	○	○	○	
	3	林	倅	○	○	○		○	○	○	○	○	○	○	○	○	
	4	潢	黃	○	○	○		○	○	○	○	○	○	○	○	○	
	5	潢	黃	○	○	○		汰	○	○	汰	汰	○	汰	○	汰	
	6	林	倅	○	○	○		○	○	○	○	○	○	○	○	○	
	7	仲	仲	○	○	○		○	○	○	○	○	○	○	○	○	
	8	仲	仲	○	○	○		○	○	○	○	○	○	○	○	○	
	9	林	倅	○	○	○		○	○	○	○	○	○	○	○	○	
	10	潢	黃	○	○	○		○	○	○	○	○	○	○	○	○	
	11	潢	黃	○	○	○		汰	○	○	汰	汰	○	汰	○	汰	
	12	林	倅	無	○	○		○	○	無	○	○	○	○	○	○	
3가	1	太	仲	●	●	○		●	●	●	●	○	○	○	●	○	
	2	黃	仲	太	太	○		太	太	太	太	○	○	○	太	○	
	3	林	倅	○	○	○		○	○	○	○	○	○	○	○	○	
	4	無	無	○	○	○		○	○	○	○	○	○	○	○	○	
	5	林	林	○	○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		
	7	潢	黃	無	○	○		○	○	○	○	○	○	○	○		
	8	潢	黃	太	○	○		汰	○	潢	汰	汰	○	汰	○	汰	
	9	林	橫	○	○	○		○	○	○	○	○	○	○	○	○	
	10	潢	黃	○	○	○		○	○	○	○	○	○	○	○	○	
	11	潢	黃	○	○	○		○	○	○	○	○	○	○	○	○	
	12	潢	黃	○	○	○		○	○	○	○	○	○	○	○	○	
	4자	1	汰	太	○	○	○		○	○	○	○	○	○	○	○	○
		2	汰	太	○	○	○		○	○	○	○	○	○	○	○	○
		3	潢	黃	○	○	○		○	○	○	○	○	○	○	○	○
		4	無	無	○	○	○		○	○	○	○	○	○	○	○	○
		5	林	林	○	○	○		○	○	○	○	○	○	○	○	○
6		潢	黃	○	○	○		○	○	○	○	○	○	○	○	○	
7		潢	黃	無	○	○		○	○	○	○	○	○	○	○	○	
8		無	黃	太	●	●		汰	●	○	汰	汰	●	汰	●	汰	
9		林	橫	○	○	○		○	○	○	○	○	○	○	○	○	
10		潢	黃	○	○	○		○	○	○	○	○	○	○	○	○	
11		潢	黃	○	○	○		○	○	○	○	○	○	○	○	○	
12		潢	黃	○	○	○		○	○	○	○	○	○	○	○	○	
5자	1	仲	仲	○양	○양	汰		○	汰	○	○	○	○	○	○양	○	
	2	仲	仲	黃	黃	○양		○	○양	○	○	○	○	○	黃	○	
	3	林	林	○양	○양	○양		○	○양	仲	○	○	○	○	○	○	
	4	無	無	○양	○양	○		○	○양	○양	○	○	○	○	○양	○	
	5	林	林	○	○	○		○	○	仲	○	○	○	○	○	○	
	6	潢	黃	無	○	○		○	○	林	黃	○	○	○	○	○	
	7	潢	黃	○	○	○		○	○	○	○	○	○	○	○	○	
	8	無	黃	●	●	●		汰	●	○	汰	汰	●	汰	●	汰	
	9	林	橫	○	○	○		○	○	○	○	○	○	○	○	○	
	10	潢	黃	○	○	○		○	○	○	○	○	○	○	○	○	
	11	潢	黃	○	○	○		○	○	○	○	○	○	○	○	○	
	12	潢	黃	○	○	○		○	○	○	○	○	○	○	○	○	
6자	1	潢	黃	○	○	○		林	○	○	○	○	○	○	○	○	
	2	潢	黃	○	○	○		林	汰	○	汰	○	無	○	○	○	
	3	林	橫	○	○	○		●	개방	○	●	●	●	●	○	●	
	4	仲	仲	○	○	○		○	○	○	○	○	○	○	○	○	

7자	5	仲	仲	○	○	○		○	○	○	○	○	○	○	○		
	6	林	林	○	○	○		○	○	○	○	○	○	○	○		
	7	潢	潢	○	○	○		○	○	○	○	○	○	○	○		
	8	無	黃	●	●	●		汰	●	○	汰	汰	●	汰	●	汰	
	9	林	林	○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	
	11	太	仲	●	○	●		●	○	●	○	●	○	●	○	●	
	12	黃	潢	○	○	○		○	○	○	○	○	○	○	○	○	
	1	林	潢	○	○	仲		○	○	○	○	○	仲	○	○	○	
	2	林	潢	○	○	仲		○	○	無	無	○	無	○	○	○	
	3	仲	林	○	○	黃		○	○	林	無	林	無	○	○	○	
	4	無	林	○	○	林		○	○	○	○	仲	林	○	○	○	
5	林	林	○	○	○		○	無	○	○	○	○	○	○	○		
6	仲	仲	○	○	○		○	林	○	林	○	○	○	○	○		
7	黃	潢	○	○	○		○	○	○	○	○	○	○	○	○		
8	太	潢	●	●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	○		
10	林	林	無	○	○		○	○	○	○	○	○	○	○	○		
11	林	林	無	無	○		○	○	○	無	無	○	無	無	○		
12	仲	仲	○	○	○		○	○	○	○	○	○	○	○	○		
8자	1	太	潢	○	○	○		○	○	○	○	○	○	○	○		
	2	太	潢	○	○	○		○	○	○	○	○	○	○	○		
	3	太	潢	○	○	○		○	仲	○	○	○	仲	○	○		
	4	太	仲	○	○	○		○	仲	○	○	○	○	○	○		
	5	太	仲	仲	○	黃		○	○	○	○	○	○	○	○	○	
	6	黃	潢	○	○	備		太	○	○	○	○	太	○	○	○	太
	7	林	潢	○	○	○		○	개방	無	無	○	○	○	○	○	
	8	林	潢	○	○	○		○	○	○	無	○	○	○	○	○	
	9	黃	潢	○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	
	11	仲	仲	○	○	○		○	○	○	○	○	○	○	○	○	
	12	仲	仲	○	○	○		○	○	○	○	○	○	○	○	○	

<타령> 초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84>와 같다.

<표 84> <타령> 초장 선율 일치도

<타령> 초장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73	77	76		80	74	76	75	79	79	82	81	82
●	7	7	7		5	6	4	3	4	6	4	6	4
○	1	5	3		1	2	5	1	2	4	2	4	2
⊙	3 양	3 양	2 양		0	3 양	1 양	0	0	0	0	2 양	0
기타	12	4	8		10	11	10	17	11	7	8	3	8
총 개수	96	96	96		96	96	96	96	96	96	96	96	96
피리 일치도	83.3%	90.6%	86.4%		88.5%	83.3%	83.3%	81.2%	86.4%	88.5%	89.5%	90.6%	89.5%
거문고 일치도	77.0%	85.4%	82.2%		84.3%	80.2%	84.3%	79.1%	84.3%	86.4%	87.5%	88.5%	87.5%
독자적 선율	12.5%	3.1%	8.3%		9.6%	11.4%	9.6%	17.7%	11.4%	7.2%	8.3%	3.1%	8.3%

지용구1은 피리와 83.3%, 거문고와 77.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2.5%이다. 지용구2의 피리 일치도는 90.6%, 거문고 일치도는 85.4%이며 독자적 선율은 3.1%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86.4%, 거문고와 82.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88.5% 일치, 거문고와는 84.3%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9.6%이다. 류대복의 경우 83.3%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80.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1.4%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81.2%와 79.1%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17.7%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86.4%, 거문고와 84.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1.4%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88.5%, 거문고와 86.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2%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9.5%, 거문고와 87.5% 일치하였으며 8.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90.6%, 거문고와 88.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1%이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피

리와 89.5%, 거문고와 87.5%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지영희, 김천홍,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이며 지용구1, 지용구2,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구례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타령> 제2장

제11각 제1-3박을 살펴보면, 거문고는 ‘潢- 黃’를 연주하며 피리는 ‘林- 無’를 연주한다. 지용구2, 류대복, 김창규, 구례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동일한 진행을 보이며, 지용구1, 이덕환, 김천홍, 이리풍류, 국악원은 ‘林--’을 연주하고 있어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김덕진은 ‘無--’를, 지영희는 ‘仲--’으로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악보 30> <타령> 제2장 제11각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타령> 초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85>와 같다.

<표 85> <타령> 제2장 선율비교

<타령> 제2장			지용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이리	대전	국립	
각	박	피	거	1	2							풍류	풍류	풍류	국악원	
1각	1	仲	橫	○	○	○		○	○	○	○	○	○	○	○	○
	2	仲	橫	○	○	○		○	○	○	○	○	○	○	○	○
	3	太	橫	○	○	仲		○	○	○	○	○	○	○	○	○
	4	黃	橫	○	太	○		○	○	○	○	○	○	○	○	○
	5	黃	橫	太	太	○		○	○	○	○	○	○	○	○	○
	6	林	無	○	黃	○		○	개방	○	○	○	○	○	○	○
	7	黃	橫	○	○	林		○	○	○	○	○	○	○	○	○
	8	太	橫	●	●	○가		●	●	●	●	●	○가	●	●	●
	9	黃	橫	○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
	11	仲	仲	○	○	○		○	○	○	○	○	○	○	○	○
	12	仲	仲	○	○	○		○	○	○	○	○	○	○	○	○
2각	1	仲	仲	○	○	○		○	○	○	○	○	○	○	○	○
	2	太	仲	無	○	○		●	●	●	林	●	無	●	○	●
	3	黃	橫	林	○	○		○	○	○	○	○	○	○	○	○
	4	仲	仲	○	太	○		○	太	太	太	○	○	○	太	○
	5	太	仲	●	●	●		●	개방	●	●	●	仲	●	●	●
	6	黃	橫	○	○	○		○	○	林	○	○	○	○	○	○
	7	林	仲	○	○	○		○	○	○	○	○	○	○	○	○
	8	林	仲	○	○	林		○	○	○	○	○	○	○	○	○
	9	仲	橫	林	○양	●		林	○양	○양	○	林	林	林	○양	林
	10	黃	橫	太	○	林		○	○	○	○	○	仲	○	○	○
	11	林	橫	仲	○	○		○	개방	○	無	○	仲	○	太	○
	12	黃	橫	○	○	○		○	○	○	○	○	○	○	○	○
3각	1	仲	仲	○	○	○		○	○	○	○	○	○	○	○	○
	2	黃	仲	○	○	○		○	○	○	○	○	無	○	○	○
	3	仲	仲	○	○	○		○	○	○	○	○	林	○	○	○
	4	林	林	○	○	○		○	○	○	○	○	仲	○	○	○
	5	無	林	○	○	○		○	仲	○	○	○	黃	○	○	○
	6	林	林	○	○	○		○	○	○	○	○	○	○	○	○
	7	仲	黃	○	○	○		○	○	○	○	○	林	○	○	○
	8	仲	黃	無	○	○		○	○	○	○	○	○	○	○	○
	9	太	林	○	○	黃		○	○	○	○	○	○	○	○	○
	10	黃	仲	○	○	○		○	○	○	○	○	○	○	○	○
	11	林	仲	無	○	○		○	개방	○	無	○	○	○	○	○
	12	黃	仲	○	○	○		○	○	○	○	○	○	○	○	○
4각	1	仲	林	○	○	○		○	○	○	○	○	○	○	○	○
	2	黃	林	○	○	○		○	○	太	○	○	無	○	○	○
	3	仲	林	○	○	○		○	○	○	○	○	○	○	○	○

	4	林	黃	○	○	○		○	○	○	○	○	仲	○	○	○
	5	無	黃	仲	仲	○		○	仲	○	○	○	林	○	○	○
	6	林	黃	○	○	○		○	○	○	○	仲	○	○	○	○
	7	潢	無	○	○	○		○	○	○	○	○	○	○	○	○
	8	汰	無	林	●	○		●	○	●	●	●	○	●	○	●
	9	林	倮	無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
	11	仲	仲	○	○	○		○	○	太	○	○	太	○	○	○
	12	仲	仲	○	○	○		○	○	黃	○	○	黃	○	○	○
5지	1	林	倮	○	○	○		○	○	○	○	○	○	○	○	○
	2	林	倮	○	○	○		○	○	○	○	○	○	○	○	○
	3	林	倮	○	○	○		○	○	○	○	○	○	○	○	○
	4	無	無	○	○	○		○	○	○	○	○	○	○	○	○
	5	無	無	○	○	○		○	○	○	林	○	○	○	○	○
	6	林	仲	○	○	○		○	○	○	潢	○	○	○	○	○
	7	潢	太	○	○	○		○	○	○	○	○	○	○	○	○
	8	潢	太	○	○	○		○	○	○	○	○	○	○	○	○
	9	汰	太	○	○	○		○	○	○	○	○	○	○	○	○
	10	無	黃	○	○	○		○	○	○	○	○	○	○	○	○
	11	無	黃	○	○	林		○	○	○	○	○	○	○	○	○
	12	無	黃	○	○	仲		○	○	○	○	○	○	○	○	○
6지	1	無	無	○	○	林		○	○	○	○	○	○	○	○	○
	2	林	無	●	●	○		○	●	○	●	●	○	○	○	○
	3	仲	仲	○	○	○		○	○	○	○	○	林	○	○	○
	4	林	倮	仲	○	○		○	○	○	○	○	仲	○	○	○
	5	林	倮	○	○	無		○	○	○	○	○	○	○	○	○
	6	汰	太	○	○	○		○	○	○	○	○	潢	○	○	○
	7	潢	黃	無	○	○		○	○	○	○	○	○	○	○	○
	8	汰	黃	仲	林	林		○	林	林	○	○	林	○	林	無
	9	林	潢	○	○	○		○	○	○	○	○	○	○	○	○
	10	潢	黃	○	○	○		○	○	○	○	○	○	○	○	○
	11	潢	黃	○	○	○		○	○	○	○	○	○	○	○	○
	12	潢	黃	○	○	○		○	○	○	○	○	○	○	○	○
7지	1	太	太	黃	○	○		○	○	○	黃	○	○	○	○	○
	2	太	太	黃	○	○		○	○	○	○	○	○	○	○	○
	3	太	太	○	○	○		○	○	○	○	○	○	○	○	○
	4	太	太	○	○	○		○	○	○	○	○	○	○	○	○
	5	太	太	○	○	○		○	○	○	○	○	○	○	○	○
	6	太	太	○	○	○		○	○	○	○	○	仲	○	○	○
	7	太	太	○	○	○		○	○	○	○	○	○	○	○	○
	8	太	太	○	○	○		○	○	○	○	○	○	○	○	○
	9	太	太	○	○	○		○	○	○	○	○	○	仲	○	○
	10	太	太	○	○	○		○	○	○	○	○	○	○	○	○

	11	太	太	◎	◎	黃		◎	◎	◎	◎	◎	◎	◎		
	12	太	太	◎	◎	◎		◎	◎	◎	◎	◎	◎	◎		
8자	1	黃	黃	◎	◎	◎		◎	◎	◎	◎	◎	◎	◎		
	2	仲	黃	◎	○	○		○	◎	○	◎	○	○	◎		
	3	太	太	◎	◎	◎		◎	◎	◎	◎	◎	◎	◎		
	4	黃	黃	◎	◎	◎		◎	◎	◎	◎	◎	◎	◎		
	5	仲	黃	◎	○	○		○	◎	○	◎	◎	◎	◎		
	6	太	太	◎	◎	◎		◎	◎	◎	◎	◎	◎	◎		
	7	黃	黃	◎	◎	◎		◎	◎	◎	◎	◎	◎	◎		
	8	黃	黃	太	○	太		●	●	○	○	太	○	●	●	●
	9	倮	橫	◎	◎	◎		◎	◎	◎	◎	◎	◎	◎	◎	
	10	黃	黃	◎	◎	◎		◎	◎	◎	◎	◎	◎	◎	◎	
	11	仲	黃	○	○	●		○	○	○	●	●	●	●	○	●
	12	黃	黃	◎	◎	◎		太	汰	◎	◎	◎	◎	◎	◎	
9자	1	仲	太	○	◎	◎		林	◎	○	林	林	○	林	◎	林
	2	仲	太	○	◎	◎		林	◎	◎	林	林	◎	◎	◎	林
	3	仲	黃	林	◎	◎		林	◎	◎	林	林	◎	◎	◎	林
	4	太	無	林	潢	黃		●	●	●	林	●	●	●	黃	●
	5	太	倮	無	潢	黃		◎	◎	◎	◎	◎	◎	◎	◎	◎
	6	太	黃	◎	◎	◎		◎	◎	◎	◎	◎	◎	◎	◎	◎
	7	黃	黃	◎	◎	◎		◎	◎	◎	◎	◎	◎	◎	◎	◎
	8	無	黃	太	●	●		○	○	●	●	○	●	○	○	○
	9	倮	橫	◎	◎	◎		◎	◎	◎	◎	◎	◎	◎	◎	◎
	10	黃	黃	◎	◎	◎		◎	◎	◎	◎	◎	◎	◎	◎	◎
	11	黃	黃	◎	◎	◎		◎	◎	◎	◎	◎	◎	◎	◎	◎
	12	黃	黃	◎	◎	◎		◎	◎	◎	◎	◎	◎	◎	◎	◎
10자	1	太	伏	◎	◎	◎		◎	洵	仲	林	◎	仲	林	◎	◎
	2	林	仲	●	汰	太		●	○	○	無	●	○	●	太	●
	3	林	倮	●	●	●		●	汰	仲	無	●	○	●	仲	●
	4	仲	無	林	●	●		●	淋	●	林	●	○	●	●	●
	5	仲	倮	無	●	●		●	●	●	●	●	○	●	●	●
	6	太	黃	林	●	●		●	●	●	●	●	○	●	●	●
	7	黃	黃	◎	◎	◎		◎	◎	◎	◎	◎	◎	◎	◎	◎
	8	黃	黃	太	○	○		●	○	○	○	●	○	●	●	●
	9	倮	橫	◎	◎	◎		◎	◎	◎	◎	◎	◎	◎	◎	◎
	10	黃	黃	◎	◎	◎		◎	◎	◎	◎	◎	◎	◎	◎	◎
	11	黃	黃	◎	◎	◎		◎	◎	◎	◎	◎	◎	◎	◎	◎
	12	黃	黃	◎	◎	◎		◎	◎	◎	◎	◎	◎	◎	◎	◎
11자	1	林	黃	●	○	無		●	○	○	仲	●	○	●	○	●
	2	林	黃	●	○	無		●	○	○	仲	●	○	●	○	●
	3	林	橫	仲	○	無		●	○	○	仲	●	○	●	○	●
	4	仲	仲	◎	◎	◎		◎	◎	◎	◎	◎	◎	◎	◎	◎

	5	仲	仲	○	○	○		○	○	○	○	○	○	○	○
	6	林	林	○	○	○		○	○	○	○	○	○	○	○
	7	潢	潢	○	○	○		○	○	○	○	○	○	○	○
	8	汰	潢	林	無	無		○	無	無	○	○	無	○	無
	9	林	林	無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11	太	仲	林	○	○		●	○	○	○	●	○	●	○
	12	潢	潢	○	○	○		○	○	○	○	○	○	○	○
12	1	林	潢	無	無	仲		○	○	仲	○	○	仲	○	○
	2	林	潢	無	無	仲		○	○	無	無	○	無	○	○
	3	仲	林	○	無	潢		●	●	無	無	●	無	●	●
	4	無	林	○	○	○		○	○	○	○	○	○	仲	○
	5	林	林	無	○	○		○	○	○	○	○	○	○	○
	6	仲	仲	林	○	○		○	○	○	○	○	○	○	○
	7	潢	潢	○	○	林		○	○	○	○	○	○	○	○
	8	太	潢	●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
	10	林	林	無	○	○		○	○	○	○	○	○	○	○
	11	林	林	無	無	○		○	○	○	無	無	仲	無	無
	12	仲	仲	林	林	○		○	無	無	○	○	無	○	○
13	1	太	潢	○	○	○		○	○	○	○	○	○	○	○
	2	太	潢	○	○	○		○	○	○	○	○	○	○	○
	3	太	潢	仲	○	○		○	○	○	○	○	仲	○	○
	4	太	仲	○	○	○		○	○	○	○	○	○	○	○
	5	太	仲	○	○	○		○	○	○	○	○	○	○	○
	6	太	仲	○	○	備		●	○	○	○	●	○	○	○
	7	太	潢	○	○	○		●	개방	無	○	●	○	○	○
	8	太	潢	●	○	○		●	●	●	○	●	○	○	○
	9	潢	潢	○	○	○		○	○	○	太	○	○	○	○
	10	仲	仲	○	○	○		○	○	○	○	○	○	○	○
	11	仲	仲	○	○	○		○	○	○	○	○	○	○	○
	12	仲	仲	無	○	林		○	○	林	林	○	○	○	○

<타령> 제2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86>과 같다.

<표 86> <타령> 제2장 선율 일치도

<타령> 제2장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민완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94	114	111		123	118	114	113	126	90	126	125	125
●	9	10	8		20	9	10	9	22	4	18	7	22
○	14	12	10		6	13	14	7	1	26	5	13	4
⊙	1	1 양 2	1 가 2		0	1 양	1 양	2	0	1 가 2	2	1 양 2	0
기타	38	17	24		7	15	17	25	7	33	5	8	5
총 개수	156	154	154		156	156	156	156	156	154	156	154	156
피리 일치도	66.0%	79.4%	76.2%		91.6%	81.4%	79.4%	78.2%	94.8%	60.2%	92.3%	84.6%	94.2%
거문고 일치도	69.2%	80.7%	77.5%		82.6%	83.9%	82.0%	76.9%	81.4%	74.3%	85.2%	88.4%	82.6%
독자적 선율	24.3%	10.8%	17.9%		4.4%	9.6%	10.8%	16.0%	4.4%	21.1%	3.2%	5.1%	3.2%

지용구1은 피리와 66.0%, 거문고와 69.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4.3%이다. 지용구2의 피리 일치도는 79.4%, 거문고 일치도는 80.7%이며 독자적 선율은 10.8%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76.2%, 거문고와 77.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7.9%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1.6%, 거문고와는 82.6%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4.4%이다. 류대복의 경우 81.4%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고 거문고와는 83.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9.6%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78.2%, 76.9%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16.0%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94.8%, 거문고와 81.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4.4%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60.2%, 거문고와 74.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1.1%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92.3%, 거문고와 85.2% 일치하였으며 3.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84.6%, 거문고와 88.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1%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4.2%, 거문고와 82.6%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3.2%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지영희, 김천홍, 이리풍류, 국악원이며 지용구1, 지용구2, 김덕

진, 류대복, 김창규, 구례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타령> 제3장

제3각 제1박에서 거문고는 ‘太’를 연주하고 있으며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가 이와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지용구1은 제7박에서 ‘無’를, 김덕진은 제4-12박에서 ‘林無林 無-林 無-林’를, 구례풍류는 ‘潢-- 無-- 汰--’로 이루어진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악보 31> <타령> 제3장 제3각

국악원 거문고, 피리 선율과 <타령> 제3장의 해금 선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87>과 같다.

<표 87> <타령> 제3장 선율비교

<타령> 제3장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악원
각	박	피	거	1	2											
1각	1	潢	黄	◎	◎	◎		◎	◎	◎	◎	◎	◎	◎	◎	◎

	2	潢	黃	○	○	○		○	汰	○	○	○	○	○	○
	3	林	倮	○	○	潢		○	○	○	○	潢	○	○	○
	4	林	倮	○	○	○		○	○	○	○	○	○	○	○
	5	無	倮	○	○	林		○	○	○	仲	○	○	○	○
	6	林	倮	○	○	○		○	○	○	○	○	○	○	○
	7	仲	仲	○	○	○		○	○	○	○	○	○	○	○
	8	仲	仲	林	○	○		○	林	○	○	○	○	○	○
	9	黃	潢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11	仲	仲	○	○	○		○	無	○	○	○	○	○	○
	12	林	仲	○	○	●		●	●	●	●	●	●	○	●
	2자	1	潢	黃	○	○	○		○	○	○	○	○	○	○
2		潢	黃	○	○	○		○	無	無	○	○	無	○	○
3		林	倮	○	○	○		○	○	○	潢	○	○	○	○
4		無	黃	●	○	○		○	○	○	○	○	○	○	○
5		無	無	○	○	○		○	○	○	○	○	○	○	○
6		林	倮	○	○	○		○	○	○	○	○	○	○	○
7		仲	仲	○	○	○		○	○	○	○	○	○	○	○
8		仲	仲	林	○	○		○	林	○	○	○	○	○	○
9		黃	潢	○	○	개방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11		仲	仲	○	○	無		○	無	○	○	○	○	○	○
12		仲	仲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자	1	仲	仲	○	○	○		○	太	○	○	○	太	○	○
	2	仲	仲	○	○	○		○	太	○	○	○	太	○	○
	3	林	倮	○	○	○		○	○	○	○	○	○	○	○
	4	無	無	○	○	林		○	○	○	○	○	潢	○	○
	5	林	倮	○	○	無		○	○	○	○	○	潢	○	○
	6	潢	黃	○	無	林		○	○	○	○	○	○	○	○
	7	潢	黃	無	○	無		○	○	○	○	○	○	○	○
	8	汰	黃	●	○	○		●	○	○	●	●	○	●	○
	9	林	潢	○	○	○		○	○	○	○	○	○	○	○
	10	潢	黃	○	○	○		○	○	○	○	○	○	○	○
	11	潢	黃	○	○	○		○	○	○	○	○	○	○	○
	12	潢	黃	○	○	○		○	○	○	○	○	○	○	○
4자	1	潢	黃	無	○	無		○	○	○	林	○	林	林	○
	2	潢	黃	無	○	林		○	○	無	○	○	林	林	○
	3	林	潢	無	黃	仲		○	○	○	仲	○	○	○	黃
	4	仲	仲	林	○	○		○	○	林	林	○	林	○	○
	5	仲	仲	○	○	○		○	無	○	無	○	無	○	○
	6	林	倮	○	○	○		○	○	○	○	○	○	○	○
	7	潢	潢	○	○	○		○	○	○	○	○	無	○	○

	8	汰	黃	○	○	○		●	○	○	○	●	○	●	○	●	
	9	林	倝	◎	◎	潢		◎	◎	◎	潢	◎	無	◎	◎	◎	
	10	仲	仲	◎	◎	無		◎	◎	◎	無	◎	太	◎	◎	◎	
	11	太	仲	○	○	林		●	○	○	無	●	●	●	○	●	
	12	黃	黃	◎	◎	太		◎	◎	◎	◎	◎	◎	◎	◎	◎	
5가	1	林	仲	○	○	●		●	○	○	○	●	○	○	○	●	
	2	無	仲	○	○	●		●	○	○	○	●	○	○	○	●	
	3	仲	仲	◎	◎	無		◎	◎	◎	無	◎	無	◎	◎	◎	
	4	仲	仲	◎	◎	◎		◎	◎	◎	◎	◎	◎	◎	◎	◎	
	5	無	仲	○	○	○		○	○	○	○	●	○	●	○	●	
	6	仲	仲	◎	◎	◎		◎	◎	◎	◎	◎	◎	◎	◎	◎	◎
	7	林	倝	◎	◎	◎		◎	◎	◎	◎	◎	◎	◎	◎	◎	◎
	8	林	倝	◎	◎	◎		◎	◎	◎	◎	◎	◎	◎	◎	◎	◎
	9	潢	潢	◎	◎	◎		◎	◎	◎	◎	◎	◎	◎	◎	◎	◎
	10	無	無	◎	◎	◎		◎	◎	◎	◎	◎	◎	◎	◎	◎	◎
	11	林	無	○	○	○		○	○	○	○	●	○	●	○	●	○
	12	仲	倝	○	○	○		○	○	○	○	黃	●	○	●	○	●
6가	1	林	仲	○	○	○		●	○	○	○	●	○	○	○	●	
	2	無	仲	◎	◎	◎		◎	◎	◎	◎	◎	仲	◎	◎	◎	
	3	仲	仲	◎	◎	無		◎	◎	◎	無	◎	◎	◎	◎	◎	
	4	仲	仲	◎	◎	◎		◎	◎	◎	◎	◎	◎	◎	◎	◎	
	5	無	仲	○	○	○		●	○	○	○	●	○	●	○	●	
	6	仲	仲	無	◎	◎		◎	◎	◎	◎	◎	無	◎	◎	◎	
	7	林	仲	○	○	○		●	○	○	○	●	○	○	○	●	
	8	無	仲	○	○	○		●	○	○	○	●	○	●	○	●	
	9	仲	仲	○	○	○		●	○	○	○	●	○	●	○	●	
	10	仲	仲	◎	◎	◎		◎	◎	◎	◎	◎	◎	◎	◎	◎	◎
	11	仲	仲	◎	◎	◎		◎	◎	◎	◎	◎	◎	◎	◎	◎	◎
	12	無	無	●	●	●		●	●	●	●	●	○	●	●	●	●

<타령>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88>과 같다.

<표 88> <타령> 제3장 선율 일치도

<타령> 제3장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악원
◎	48	54	40		57	46	52	45	54	42	53	55	55

●	3	1	4		12	2	2	3	15	2	11	1	15
○	13	15	10		1	13	13	10	0	11	4	15	0
◎	0	0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0	1 가
기타	8	2	17		1	10	4	13	2	16	3	1	1
총 개수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피리 일치도	70.8%	76.3%	61.1%		95.8%	66.6%	75.0%	66.6%	95.8%	61.1%	88.8%	77.7%	97.2%
거문고 일치도	84.7%	95.8%	69.4%		80.5%	81.9%	90.2%	76.3%	75.0%	73.6%	79.1%	97.2%	76.3%
독자적 선율	11.1%	2.7%	23.6%		1.3%	13.8%	5.5%	18.0%	2.7%	22.2%	4.1%	1.3%	1.3%

지용구1은 피리와 70.8%, 거문고와 84.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1.1%이다. 지용구2의 피리 일치도는 76.3%, 거문고 일치도는 95.8%이며 독자적 선율은 2.7%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61.1%, 거문고와 69.4%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3.6%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5.8%, 거문고와는 80.5%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1.3%이다. 류대복의 경우 66.6%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고, 거문고와는 81.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3.8%이다. 김창규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75.0%, 90.2%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5.5%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76.3% 일치하였으며 18.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5.8%, 거문고와 7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7%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61.1%, 거문고와 73.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2.2%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8.8%, 거문고와 79.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4.1%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7.7%, 거문고와 97.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3%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7.2%, 거문고와 76.3%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3%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지영희, 김천홍, 이리풍류, 국악원이며 지용구1, 지용구2,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구례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타령> 제4장

제5각의 거문고 선율은 ‘仲-仲 仲-仲 仲-仲 仲-仲’이며 피리 선율은 ‘林-仲 仲-- 林-仲 仲--’로 이루어져 있다. 지용구1, 지용구2, 김덕진, 류대북,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 동일한 선율 진행을 보이며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는 피리와 동일하게 연주된다.

<악보 32> <타령> 제4장 제5각

국악원 거문고, 피리 선율과 <타령> 제4장의 해금 선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89>와 같다.

<표 89> <타령> 제4장 선율비교

<타령> 제4장				지용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배 종류	이리 종류	대전 종류	국악원	
각	박	피	거	1	2												
1각	1	仲	仲	○	○	○		○	○	○	○	○	○	○	○	○	
	2	無	仲	○	○	○		○	○	○	○	○	仲	○	○	○	
	3	無	無	○	○	○		○	○	○	○	○	仲	○	○	○	
	4	潢	黃	○	○	○		○	○	○	○	○	無	○	○	○	
	5	潢	黃	○	○	○		○	○	○	○	○	無	○	○	○	
	6	無	無	○	○	○		○	○	○	○	○	○	○	○	○	○
	7	林	林	○	○	○		○	○	○	○	○	○	○	○	○	○
	8	林	林	○	○	○		○	○	○	○	○	○	○	○	○	○
	9	仲	仲	○	○	太		○	○	○	林	○	○	○	○	○	○
	10	黃	橫	○	○	●		●	○	○	○	●	無	●	○	●	
	11	林	橫	仲	○	●		●	○	○	○	●	無	●	○	●	
	12	黃	橫	○	○	○		○	○	○	○	○	無	○	○	○	
2각	1	仲	仲	○	○	○		○	○	○	○	○	太	○	○	○	
	2	仲	仲	○	○	○		○	○	○	○	○	太	○	○	○	
	3	林	林	○	○	○		○	○	○	○	○	○	○	○	○	
	4	無	無	○	○	潢		○	○	○	○	○	潢	○	○	○	
	5	林	林	○	○	無		○	○	○	○	○	潢	○	○	○	
	6	潢	黃	○	○	林		○	○	○	○	○	○	○	○	○	
	7	潢	黃	無	○	無		○	○	○	○	○	無	○	○	○	
	8	汰	黃	●	○	○		●	○	○	●	●	○	●	○	●	
	9	林	橫	○	○	○		○	○	○	○	○	○	○	○	○	
	10	潢	黃	○	○	○		○	○	○	○	○	○	○	○	○	
	11	潢	黃	○	○	○		○	○	○	○	○	○	○	○	○	
	12	潢	黃	○	○	○		○	○	○	○	○	○	○	○	○	
3각	1	潢	林	黃	●	無		○	●	●	○	○	○	○	●	○	
	2	潢	林	黃	●	○		○	●	●	○	○	○	○	●	○	
	3	林	橫	仲	○	仲		●	●	●	仲	●	●	●	○	●	
	4	仲	林	○	●	●		●	●	●	○	●	○	●	●	●	

	5	仲	仲	○	○	○		○	○	無	無	○	無	○	○	○
	6	林	林	○	○	○		○	○	○	○	○	○	○	○	○
	7	潢	黃	○	○	○		○	○	○	○	○	無	○	○	○
	8	潢	黃	○	○	○		汰	○	○	○	汰	○	汰	○	汰
	9	林	林	○	○	潢		○	○	○	無	○	無	○	○	○
	10	仲	仲	○	○	無		○	○	○	無	○	太	○	○	○
	11	太	仲	●	○	林		●	○	○	無	●	●	●	○	●
	12	黃	潢	○	○	太		○	○	○	○	○	○	○	○	○
4가	1	林	仲	○	○	●		●	○	○	○	○	○	○	○	○
	2	無	仲	○	○	○		○	○	○	○	○	○	仲	○	○
	3	仲	仲	○	○	無		林	○	○	無	○	無	○	○	○
	4	仲	仲	○	○	○		○	○	○	○	○	○	○	○	○
	5	無	仲	○	○	○		●	○	○	○	○	○	○	○	○
	6	仲	仲	○	○	○		○	○	○	○	○	○	○	○	○
	7	林	林	○	○	○		○	○	○	○	○	○	○	○	○
	8	林	林	○	○	○		○	○	○	○	○	○	○	○	○
	9	潢	黃	○	○	○		○	○	○	○	○	○	○	○	○
	10	無	無	○	○	○		○	○	○	○	○	○	○	○	○
	11	林	無	○	○	○		○	○	○	○	○	○	○	○	○
	12	仲	林	○	○	○		○	○	○	黃	○	○	○	○	○
5가	1	林	仲	○	○	○		○	○	○	○	○	○	○	○	○
	2	無	仲	○	○	仲		○	○	○	○	○	○	○	○	○
	3	仲	仲	○	○	○		林	○	○	無	○	○	○	○	○
	4	仲	仲	○	○	○		○	○	○	○	○	○	○	○	○
	5	無	仲	○	○	○		○	○	○	○	○	○	○	○	○
	6	仲	仲	○	○	○		○	○	○	○	○	○	○	○	○
	7	林	仲	○	○	○		○	○	○	○	○	○	○	○	○
	8	無	仲	○	仲	○		○	仲	仲	仲	○	仲	○	○	○
	9	仲	仲	○	無	無		林	無	無	無	○	無	○	○	○
	10	仲	仲	○	○	○		○	○	○	○	○	○	○	○	○
	11	仲	仲	○	○	○		○	○	○	○	○	○	○	○	○
	12	仲	仲	○	○	○		○	○	○	○	○	○	○	○	○

<타령> 제4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90>과 같다.

<표 90> <타령> 제4장 선율 일치도

<타령> 제4장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6	44	35		42	44	44	48	45	26	44	46	45
●	3	3	4		11	4	4	1	12	2	9	4	12
○	12	11	7		3	10	10	10	2	10	6	10	2
⊙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9	2	14		4	2	2	1	1	22	1	0	1
총 개수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피리 일치도	65.0%	78.3%	65.0%		88.3%	80.0%	80.0%	81.6%	95.0%	46.6%	88.3%	83.3%	95.0%
거문고 일치도	80.0%	91.6%	70.0%		75.0%	90.0%	90.0%	96.6%	78.3%	60.0%	83.3%	93.3%	78.3%
독자적 선율	15.0%	3.3%	23.3%		6.6%	3.3%	3.3%	1.6%	1.6%	36.6%	1.6%	0.0%	1.6%

지용구1은 피리와 65.0%, 거문고와 80.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5.0%이다. 지용구2는 피리와 78.3%, 거문고와 91.6% 일치하였으며 3.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덕진은 피리와 65.0%,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23.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덕환은 피리와 88.3%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75.0% 일치하였고 6.6%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은 피리와 80.0%, 거문고와는 90.0%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3.3%이다. 김창규는 피리와 80.0%, 거문고와 90.0% 일치하고 있으며 독자적 선율은 류대복과 동일한 3.3%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81.6%, 거문고와 96.6%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1.6%이다. 김천홍은 95.0%의 비율로 피리와 일치하고 있으며 거문고와는 78.3% 일치한다. 독자적 선율은 1.6%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6.6%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60.0% 일치하며 36.6%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8.3% 일치하며 거문고와는 83.3% 일치하고 있다. 독자적 선율은 1.6%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83.3%, 거문고와 93.3% 일치하고 있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국립국악원은 피리와 95.0%, 거문고와 78.3%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

은 1.6%이다.

지용구1, 지용구2,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일치도가 높았으며 이덕환, 김천홍, 이리풍류, 국립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일치도가 높았다. 구례풍류는 독자적 선율의 비중이 24.7%로 다른 풍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타령>의 선율 일치도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91>과 같다.

<표 91> <타령> 선율 일치도

<타령>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251	289	262		302	282	286	281	304	237	305	307	307
●	22	21	23		48	21	20	16	53	14	42	18	53
○	40	43	30		11	38	42	28	5	51	17	42	8
⊙	4 (3양/1)	6 (4양/2)	6 (2양/1가/2)		1 (가)	5 (4양/1가)	3(2양/1가)	3	1(가)	4(2가/2)	3(1가/2)	5(3양/2)	1(가)
기타	67	25	63		22	38	33	56	21	78	17	12	15
총 개수	384	384	384		384	384	384	384	384	384	384	384	384
피리 일치도	71.0%	80.7%	74.2%		91.1%	78.9%	79.6%	78.1%	92.9%	65.3%	90.3%	84.6%	93.7%
거문고 일치도	75.7%	86.4%	76.0%		81.5%	83.3%	85.4%	80.4%	80.4%	75.0%	83.8%	90.8%	82.0%
독자적 선율	17.4%	6.5%	16.4%		5.7%	9.8%	8.5%	14.5%	5.4%	20.3%	4.4%	3.1%	3.9%

<타령>을 살펴본 결과, 지용구1은 피리와 71.0%, 거문고와 75.7%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7.4%이다. 지용구2는 피리와 80.7%, 거문고와 86.4% 일치하였으며 6.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덕진은 피리와 74.2%, 거문고와 76.0% 일치하며 16.4%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덕환은 피리와 91.1%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81.5% 일치하였고 5.7%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은 피리와 78.9% 일치하고 거문고와

는 83.3%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9.8%이다. 김창규는 피리와 79.6%, 거문고와 85.4% 일치하고 있으며 독자적 선율은 8.5%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78.1%, 거문고와 80.4%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14.5%이다. 김천홍은 92.9%의 비율로 피리와 일치하고 있으며 거문고와는 80.4% 일치한다. 독자적 선율은 5.4%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65.3%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75.0% 일치하며 20.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90.3%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83.8% 일치하고 있으며 독자적 선율은 4.4%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84.6%, 거문고와 90.8% 일치하고 있으며 3.1%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국악원은 피리와 93.7%, 거문고와 82.0%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3.9%이다.

지용구1, 지용구2,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일치도가 높았으며 이덕환, 김천홍, 이리풍류, 국립국악원의 경우 피리와의 일치도가 높았다. 구례풍류는 독자적 선율의 비중이 24.7%로 다른 풍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9. <군악>

군악은 1각에 12박으로 이루어진 곡이며, 줄풍류 중 아홉 번째 곡에 해당한다.

1) <군악> 초장

제4각 제1-6박의 거문고 선율은 ‘南-- 林 姑’이며 이와 동일하게 연주되는 경우는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대전풍류이다.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 선율의 ‘太 姑 林--’와 동일하게 연주되고 있다. 지영희의 경우 제1-3박은 독자적인 선율, 제4-9박은 거문고와 동일한 선율, 제10-12박은 피리와 동일한 선율로 연주된다. 구례풍류와 이리풍류 역시 제1-2박은 독자적인 선율로 연주하였고 구례풍류는 제10-12박에서 독자적인 선율이 나타난다.

<악보 33> <군악> 초장 제4각

국악원 거문고, 피리 선율과 <군악> 초장의 해금 선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92>와 같다.

<표 92> <군악> 초장 선율비교

<군악>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립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太 横	林	林		◎	林		林	◎	◎	◎	◎
	2	太 横	林	林		◎	林		林	◎	◎	◎	◎
	3	黄 太	○	○		●	개방		○	●	○	○	●
	4	仲 太	○	○		●	○		○	●	○	○	●
	5	仲 太	○	○		●	○		○	●	○	○	●

	6	太	太	◎	◎		◎	◎		◎	◎	◎	◎	◎	
	7	黃	僕	◎	◎		◎	◎		◎	◎	◎	◎	◎	
	8	黃	僕	◎	◎		◎	◎		◎	◎	◎	◎	◎	
	9	黃	僕	◎	◎		◎	◎		◎	◎	◎	◎	◎	
	10	黃	僕	◎	◎		◎	◎		◎	◎	◎	太	◎	
	11	黃	僕	◎	◎		◎	◎		◎	◎	◎	太	◎	
	12	黃	僕	◎	◎		◎	◎		◎	◎	◎	◎	◎	
2지	1	太	太	◎	◎		◎	◎		◎	◎	◎	◎	◎	
	2	黃	太	○	○		●	○		●	●	●	備	●	●
	3	備	備	◎	◎		◎	개방		◎	◎	◎	◎	◎	◎
	4	林	備	○	○		●	○		○	●	○	●	○	●
	5	備	備	◎	◎		◎	◎		◎	◎	◎	林	◎	◎
	6	林	備	○	○		○	○		○	●	○	○	○	●
	7	黃	林	○	○		●	○		○	●	○	●	○	●
	8	黃	林	○	○		●	○		○	●	○	●	○	●
	9	仲	林	○	○		●	○		○	●	○	●	○	●
	10	黃	林	○	○		●	○		○	●	○	●	○	●
	11	黃	林	○	○		●	○		○	●	○	●	○	●
	12	黃	林	○	○		●	○		○	●	○	●	○	●
3지	1	備	備	◎	◎		◎	◎		◎	◎	太	◎	◎	◎
	2	黃	備	○	○		●	○		○	●	太	●	○	●
	3	太	伏	◎	◎		◎	◎		◎	◎	林	◎	◎	◎
	4	太	媯	●	●		●	○		●	●	林	●	●	●
	5	太	媯	○	●		●	○		○	●	林	○	○	●
	6	媯	伏	○	●		●	○		●	●	林	○	○	●
	7	太	林	○	○		●	○		○	●	○	○	○	●
	8	太	林	○	○		●	○		○	●	○	○	○	●
	9	媯	媯	◎	◎		◎	◎		林	◎	◎	◎	◎	◎
	10	黃	伏	○	○		●	○		○	●	○	○	○	●
	11	太	伏	○	○		○	○		●	○	○	○	○	●
	12	備	備	◎	太		◎	媯		◎	◎	太	◎	◎	◎
4지	1	太	備	○	○		●	○		媯	●	林	林	○	●
	2	太	備	○	○		●	○		媯	●	林	林	○	●
	3	媯	備	○	○		●	○		媯	●	媯	媯	○	●
	4	林	林	◎	媯		◎	◎		◎	◎	◎	◎	◎	◎
	5	林	林	◎	媯		◎	◎		◎	◎	◎	◎	◎	◎
	6	媯	媯	◎	◎		◎	林		林	◎	林	◎	◎	◎
	7	太	伏	◎	◎		◎	◎		林	◎	◎	◎	◎	◎
	8	太	伏	◎	◎		◎	◎		林	◎	◎	◎	◎	◎
	9	媯	伏	◎	◎		◎	◎		林	◎	太	◎	◎	◎
	10	林	備	○	○		●	○		●	●	黃	○	○	●
	11	林	備	○	○		●	○		●	●	黃	○	○	●

	12	姑	備	○	○		●	○		●	●	黃	太	○	●
5자	1	太	伏	◎	◎		◎	◎		◎	◎	仲	◎	◎	◎
	2	太	伏	◎	◎		◎	◎		◎	◎	仲	◎	◎	◎
	3	姑	伏	○	○		○	○		○	●	仲	○	○	●
	4	林	徠	◎	◎		◎	◎		◎	◎	◎	◎	◎	◎
	5	林	徠	◎	◎		◎	◎		◎	◎	◎	◎	◎	◎
	6	林	徠	◎	◎		◎	◎		黃	◎	◎	◎	◎	◎
	7	姑	媿	◎	◎		◎	◎		◎	◎	仲	◎	◎	◎
	8	姑	媿	◎	◎		◎	◎		◎	◎	仲	◎	◎	◎
	9	林	徠	◎	◎		◎	南		南	◎	仲	○	○	◎
	10	林	徠	◎	◎		◎	◎		◎	◎	◎	◎	◎	◎
	11	林	徠	◎	◎		◎	◎		◎	◎	◎	◎	◎	◎
	12	姑	媿	◎	◎		◎	林		林	◎	林	◎	◎	◎
6자	1	林	徠	◎	◎		◎	◎		◎	◎	◎	◎	◎	◎
	2	林	徠	◎	◎		◎	◎		◎	◎	◎	◎	◎	◎
	3	姑	媿	◎	◎		◎	◎		◎	◎	◎	◎	◎	◎
	4	南	備	◎	◎		◎	◎		◎	◎	◎	◎	◎	◎
	5	南	備	◎	◎		◎	◎		◎	◎	◎	◎	◎	◎
	6	林	備	○	○		●	○		○	●	○	●	●	●
	7	姑	媿	◎	◎		◎	◎		◎	◎	◎	◎	◎	◎
	8	姑	媿	◎	◎		◎	◎		◎	◎	◎	◎	◎	◎
	9	南	備	◎	◎		◎	◎		◎	◎	◎	◎	◎	◎
	10	林	徠	○가	◎		◎	가		◎	◎	◎	◎	◎	◎
	11	林	徠	○가	◎		◎	◎		◎	◎	◎	◎	◎	◎
	12	姑	媿	南	南		○	南		林	◎	◎	◎	◎	◎
7자	1	黃	黃	◎	◎		◎	◎		◎	◎	◎	◎	◎	◎
	2	黃	黃	◎	◎		◎	◎		◎	◎	◎	◎	◎	◎
	3	南	備	◎	◎		◎	◎		◎	◎	◎	◎	◎	◎
	4	南	徠	◎	◎		◎	◎		◎	◎	◎	◎	◎	◎
	5	南	徠	◎	◎		◎	◎		◎	◎	◎	◎	◎	◎
	6	南	備	◎	姑		◎	◎		◎	◎	姑	◎	◎	◎
	7	姑	備	●	○양		●	○양		●	●	○	●	●	●
	8	姑	備	●	○양		●	○양		○	●	○	●	●	●
	9	南	黃	●	○양		●	○		●	●	●	●	●	●
	10	南	備	◎	◎		◎	◎		◎	◎	林	◎	◎	◎
	11	林	備	○	○		●	○		○	●	仲	○	○	●
	12	南	備	◎	◎		◎	◎		◎	◎	◎	姑	◎	◎
8자	1	林	備	太	太		●	太		●	●	○	○	太	●
	2	林	備	太	太		●	太		●	●	○	○	太	●
	3	姑	備	●	太		●	●		●	●	太	太	●	●
	4	南	備	林	林		◎	◎		◎	◎	太	太	◎	◎
	5	南	備	林	林		◎	◎		◎	◎	仲	太	◎	◎

	6	姑	備	◎	◎		◎	◎		◎	◎	太	◎	◎	◎
	7	姑	伏	○	○		●	○		○	●	黃	○	○	●
	8	太	伏	◎	◎		◎	◎		◎	◎	黃	◎	◎	◎
	9	黃	伏	◎양	○		●	○		◎양	●	○	◎양	●	●
	10	黃	備	○	○		○	○		●	○	○	●	○	●
	11	太	備	徇	○		○	○		●	○	○	●	○	●
	12	備	備	徇	徇		◎	◎		◎	◎	◎	◎	◎	◎
9자	1	備	伏	○	姑		●	○		黃	●	●	○	○	●
	2	黃	伏	○	○		●	○		黃	●	備	○	○	●
	3	太	徧	姑	◎		◎	備		◎	◎	◎	◎	◎	◎
	4	太	伏	◎	◎		◎	◎		◎	◎	◎	◎	◎	◎
	5	太	伏	◎	◎		◎	◎		◎	◎	◎	◎	◎	◎
	6	姑	徧	◎	◎		◎	備		◎	◎	太	◎	◎양	◎
	7	太	伏	◎	◎		◎	◎		林	◎	◎	◎	◎	◎
	8	太	伏	◎	◎		◎	◎		林	◎	◎	◎	◎	◎
	9	姑	徧	●	◎가		●	●		◎양	●	◎가	◎가	◎양	●
	10	黃	伏	○	○		●	○		●	●	●	太	太	●
	11	太	伏	林	林		黃	林		黃	◎	黃	◎	◎	◎
	12	備	徧	林	林		●	林		黃	●	○	○	○	●
10자	1	太	徧	●	○		●	◎		◎	●	備	◎	◎	●
	2	太	徧	◎	○		●	◎		◎	●	備	◎	◎	●
	3	姑	徧	●	●		太	南		●	●	太	●	太	●
	4	林	徇	◎	◎		◎	◎		◎	◎	黃	太	◎	◎
	5	林	徇	◎	◎		◎	◎		◎	◎	黃	太	◎	◎
	6	林	徇	◎	姑		◎	◎		◎	◎	黃	姑	姑	◎
	7	太	徇	○	○		●	○		●	○	●	○	●	●
	8	太	徇	○	○		●	○		●	○	●	○	●	●
	9	姑	徇	○	○		太	○		●	○	●	●	●	●
	10	林	徇	◎	◎가		◎	◎		◎	◎	◎	◎	◎	◎
	11	林	徇	◎	◎가		◎	◎		◎	◎	◎	◎	◎	◎
	12	林	徇	◎	南		◎	◎		◎	◎	◎	◎	◎	◎

<군악> 초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93>과 같다.

<표 93> <군악> 초장 선율 일치도

<군악> 초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	61	55		71	58		55	70	51	62	63	70
●	8	4		43	2		19	44	7	18	11	50
○	35	37		3	38		20	6	24	24	33	0
⊙	1 2 가 1 양	3 양 3 가		0	2 1 가 2 양		2 2 양	0	0	2 1 가	2 2 양	0
기타	12	18		3	17		22	0	38	13	9	0
총 개수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피리 일치도	57.5%	49.1%		95.0%	50.0%		61.6%	95.0%	48.3%	66.6%	61.6%	100.0%
거문고 일치도	80.0%	76.6%		61.6%	80.0%		62.5%	63.3%	62.5%	71.6%	80.0%	58.3%
독자적 선율	10.0%	15.0%		2.5%	14.1%		18.3%	0.0%	31.6%	10.8%	7.5%	0.0%

지용구의 피리 일치도는 57.5%, 거문고 일치도는 80.0%이며 독자적 선율은 10.0%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49.1%, 거문고와 76.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5.0%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5.0% 일치, 거문고와는 61.6%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2.5%이다. 류대복의 경우 50.0%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8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4.1%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1.6%, 62.5%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18.3%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95.0%, 거문고와 6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8.3%, 거문고와 62.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1.6%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71.6% 일치하였으며 10.8%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1.6%, 거문고와 8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5%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100.0%, 거문고와 58.3%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없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이리풍류, 국악원이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구례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군악> 제2장

제7각 제1-6박의 거문고 선율은 ‘太-伏 太-姑’이며 피리는 ‘備-黃太 太-姑’로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 선율을 차용하여 연주하고 있으며 이덕환, 지영희, 김천홍, 국악원은 피리의 선율을 차용하여 연주하는 것이 확인된다.

<악보 34> <군악> 제2장 제8각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국악원 거문고, 피리 선율과 <군악> 제2장의 해금 선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94>와 같다.

<표 94> <군악> 제2장 선율비교

<군악>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南	備	◎	姑		太	姑		◎	◎	◎	◎	◎	◎
	2	南	備	◎	姑		太	姑		◎	◎	◎	◎	◎	◎
	3	南	備	◎	姑		姑	◎		◎	◎	◎	◎	◎	◎
	4	汰	太	◎	姑		林	南		林	◎	太	◎	◎	◎
	5	汰	太	◎	姑		林	南		林	◎	太	◎	◎	◎
	6	汰	太	◎	太		南	南		南	◎	太	◎	◎	◎
	7	潢	黃	◎	◎		◎	林		◎	◎	林	◎	◎	◎
	8	潢	黃	◎	◎		◎	林		◎	◎	林	◎	◎	◎
	9	潢	備	●	●		●	○		●	●	●	●	○	●
	10	潢	侏	●	○		●	○		●	●	○	●	○	●
	11	潢	侏	●	○		●	○		●	●	○	●	○	●
	12	潢	侏	●	○		●	○		●	●	○	●	○	●
2각	1	潢	備	●	○		●	姑		●	●	仲	林	○	●
	2	潢	備	●	○		●	姑		●	●	仲	●	○	●
	3	潢	黃	◎	林		◎	南		◎	◎	南	◎	◎	◎
	4	潢	黃	◎	太		◎	南		◎	◎	南	◎	◎	◎
	5	潢	黃	◎	太		◎	南		◎	◎	南	◎	◎	◎
	6	潢	黃	◎	太		◎	南		◎	◎	南	◎	◎	◎
	7	潢	黃	◎	黃		◎	姑		◎	◎	仲	◎	◎	◎
	8	潢	黃	◎	◎		◎	姑		◎	◎	仲	◎	◎	◎
	9	潢	黃	◎	◎		◎	南		◎	◎	南	◎	◎	◎
	10	潢	黃	◎	姑		◎	南		◎	◎	南	◎	◎	◎
	11	潢	黃	◎	林		◎	南		◎	◎	南	◎	◎	◎
	12	潢	黃	◎	姑		◎	南		◎	◎	南	◎	◎	◎
3각	1	潢	侏	南	備		●	姑		.	●	仲	○	○	●
	2	林	侏	◎	備		◎	姑		.	◎	仲	◎	◎	◎
	3	南	備	◎	◎		◎	○		侏	◎	林	◎	◎	◎
	4	潢	黃	◎	備		◎	林		◎	◎	◎	◎	◎	◎
	5	潢	黃	◎	備		◎	林		◎	◎	◎	◎	◎	◎
	6	潢	備	●	○		●	林		◎	●	●	○	○	●
	7	潢	侏	○	○		●	姑		.	●	●	●	●	●
	8	林	侏	◎	◎		◎	姑		.	◎	潢	◎	○	◎
	9	南	備	◎	侏		◎	◎		侏	◎	潢	◎	○	◎
	10	潢	黃	◎	侏		◎	◎		◎	◎	◎	◎	○	◎
	11	潢	黃	◎	侏		◎	◎		◎	◎	◎	◎	○	◎

4자	12	潢	侑	●	林		●	林		●	●	●	○	○	●
	1	潢	侑	○	太		●	姑		○	●	仲	○	○	●
	2	林	侑	○	太		○	姑		○	○	仲	○	○	○
	3	南	侑	○	太		○	○		○	○	○	○	○	○
	4	潢	黃	○	林		○	南		○	○	林	○	○	○
	5	潢	黃	○	林		○	南		○	○	林	○	○	○
	6	潢	侑	○	林		●	○		侑	●	林	○	○	●
	7	南	侑	○	姑		●	○		姑	●	仲	○	○	●
	8	南	侑	○	姑		●	○		姑	●	仲	○	○	●
	9	潢	侑	○	○		●	林		○	●	○	○	○	●
	10	林	侑	○	○		○	○		○	○	○	○	○	○
	11	林	侑	○	○		○	○		○	○	○	○	○	○
12	林	侑	○	○		●	●		●	●	○	●	○	●	
5자	1	林	侑	○	○		○	○		○	○	南	○	○	○
	2	林	侑	○	○		○	○		○	○	南	○	○	○
	3	姑	侑	○	○		○	○		○	○	南	○	○	○
	4	南	伏	○	○		○	○		○	○	○	○	○	○
	5	南	伏	○	○		○	○		○	○	○	○	○	○
	6	林	伏	○	南		姑	○		南	○	仲	○	○	○
	7	姑	侑	○	○		○	○		○	○	南	○	○	○
	8	姑	侑	○	○		○	○		○	○	南	○	○	○
	9	南	侑	○	○		○	○		○	○	○	○	林	○
	10	林	侑	○	○		○	南		姑	姑	○	○	○	○
	11	林	侑	○	○		○	南		○	南	○	○	○	○
	12	姑	侑	○	南		○	南		○	○	南	○	○	○
6자	1	潢	黃	○	姑		○	○		○	○	南	○	○	○
	2	潢	黃	○	姑		○	○		○	○	南	○	○	○
	3	南	侑	○	○		○	○		○	○	太	○	○	○
	4	南	侑	○	○		○	○		○	○	太	○	○	○
	5	南	侑	○	○		○	○		○	○	太	○	○	○
	6	南	侑	○	姑		○	○		○	○	太	○	○	○
	7	姑	侑	●	○양		●	○양		●	●	黃	●	●	●
	8	姑	侑	●	○양		●	○양		○	●	黃	●	●	●
	9	南	潢	○	○양		○	姑		○	○	太	○	姑	○
	10	南	侑	○	○		○	○		○	○	○	○	○	○
	11	南	侑	○	○		○	○		○	○	○	○	○	○
	12	南	侑	○	○		○	○		○	○	○	○	○	○
7자	1	林	循	○	○		●	○		●	●	○	○	○	●
	2	林	循	○	○		●	○		●	●	○	○	○	●
	3	姑	循	○	○		○	○		○	○	太	○	○	○
	4	南	循	林	林		○	○		○	○	太	○	○	○
	5	南	循	林	林		○	○		○	○	太	○	○	○
	6	姑	循	○	○		○	○		○	○	太	○	○	○

	7	姑	伏	○	○		●	○		○	●	○	○	○	●	
	8	太	伏	◎	◎		◎	◎		◎	◎	◎	◎	◎	◎	
	9	黃	伏	○	○		●	○		○	●	仲	●	●	●	
	10	黃	備	○	●		○	○		●	○	●	○	○	○	
	11	黃	備	○	●		○	○		○	○	●	○	○	○	
	12	太	備	○	○		○	○		○	○	●	○	○	○	
8각	1	備	伏	○	姑		●	○		黃	●	●	○	○	●	
	2	黃	伏	○	○		●	○		○	●	○	○	○	●	
	3	太	橫	○	●		●	備		●	●	●	●	●	●	
	4	太	伏	◎	◎		◎	◎		◎	◎	黃	◎	◎	◎	
	5	太	伏	◎	◎		◎	◎		◎	◎	黃	◎	◎	◎	
	6	姑	備	○	太		●	備		太	林	●	○	○	○	●
	7	太	伏	◎	◎		◎	◎		太	林	◎	◎	◎	◎	◎
	8	太	伏	●	○		●	●		○	○	○	○	○	○	●
	9	姑	橫	○	太		太	太		○	○	○	○	○	○	●
	10	黃	伏	○	林		林	林		黃	○	○	林	○	○	林
	11	太	伏	○	林		林	林		黃	○	○	林	○	○	林
	12	備	備	○	林		○	林		黃	○	○	○	○	○	○
9각	1	太	橫	●	○		●	○		○	●	南	○	○	●	
	2	太	橫	○	○		●	姑		○	●	南	○	○	●	
	3	姑	橫	●	●		●	南		●	●	○	●	太	●	
	4	林	林	◎	◎		◎	◎		◎	◎	太	黃	◎	◎	
	5	林	林	◎	◎		◎	◎		◎	◎	太	黃	◎	◎	
	6	林	林	◎	姑		◎	◎		◎	◎	太	黃	姑	◎	
	7	林	林	◎	◎		◎	◎		◎	◎	◎	◎	太	◎	
	8	林	林	◎	◎		◎	◎		◎	◎	◎	◎	太	◎	
	9	姑	備	林	◎		◎	林		◎	◎	橫	◎	◎	◎	
	10	南	備	林	◎		◎	林		林	◎	林	林	太	◎	
	11	南	備	林	◎		◎	林		◎	◎	林	林	太	◎	
	12	南	備	林	◎		◎	林		◎	◎	林	◎	太	◎	

<군악> 제2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95>와 같다.

<표 95> <군악> 제2장 선율 일치도

<군악> 제2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62	39		66	38		61	68	25	66	55	70
●	13	5		30	2		13	35	9	12	5	32
○	20	16		3	15		10	3	11	20	35	4
⊙	3	2 3 양		0	3 2 양		2	0	0	4	4	0
기타	10	43		9	48		22	2	63	6	9	2
총 개수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피리 일치도	69.4%	40.7%		88.8%	37.0%		68.5%	95.3%	31.4%	72.2%	55.5%	94.4%
거문고 일치도	75.9%	50.9%		63.8%	49.0%		65.7%	65.7%	33.3%	79.6%	83.3%	68.5%
독자적 선율	9.2%	39.8%		8.3%	44.4%		20.3%	1.8%	58.3%	5.5%	8.3%	1.8%

지용구의 피리 일치도는 69.4%, 거문고 일치도는 75.9%이며 독자적 선율은 9.2%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40.7%, 거문고와 50.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9.8%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88.8% 일치, 거문고와는 63.8%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류대복의 경우 37.0%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49.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44.4%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8.5%, 65.7%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20.3%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95.3%, 거문고와 65.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8%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31.4%, 거문고와 3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8.3%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72.2%, 거문고와 79.6% 일치하였으며 5.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55.5%, 거문고와 83.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3%이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4.4%, 거문고와 68.5%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8%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이리풍류, 국립국악원이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구례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군악> 제3장

제9각의 선율 진행은 모두 대동소이하나 지용구, 이덕환, 김천흥,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은 仲을 1지로 하여 연주하고 있으며 김덕진, 류대복이 潢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을, 지영희와 구례풍류는 黃을 1지로 하여 한 옥타브 낮은 太를 연주하고 있다.

<악보 35> <군악> 제3장 제9각

<군악> 제3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 거문고, 피리 선율과 비교한 결

과는 다음 <표 96>과 같다.

<표 96> <군악> 제3장 선율비교

<군악>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姑	𪛗	◎	◎		◎	◎		◎	◎	◎	◎	◎	◎
	2	姑	𪛗	◎	◎		◎	◎		◎	◎	◎	◎	◎	◎
	3	太	備	姑	姑		姑	○		姑	姑	仲	○	○	姑
	4	黃	𪛗	●	○		●	○		●	●	林	○	○	●
	5	黃	𪛗	●	○		●	○		●	●	林	○	○	●
	6	黃	備	●	○		●	○		●	●	○	○	○	●
	7	姑	𪛗	◎	◎		◎	◎		◎	◎	◎	◎	◎	◎
	8	林	備	○	○		●	○		○	○	○	○	○	○
	9	姑	備	○	○		●	○		○	○	○	○	○	○
	10	太	備	○	○		●	○		○	●	○	○	○	●
	11	太	備	○	○		●	○		○	●	○	○	○	●
	12	姑	𪛗	◎	林		◎	◎		◎	◎	南	◎	◎	◎
2각	1	林	備	○	●		●	○		●	●	仲	○	●	●
	2	南	備	◎	◎		◎	◎		◎	◎	◎	◎	◎	◎
	3	南	備	林	林		◎	◎		◎	◎	◎	◎	◎	◎
	4	姑	𪛗	◎	太		◎	南		南	◎	仲	◎	◎	◎
	5	太	𪛗	○	○		●	南		南	●	仲	○	○	●
	6	姑	伏	○	○		●	●		●	●	南	○	○	●
	7	黃	備	○	●		●	太		●	●	仲	○	○	●
	8	黃	備	○	●		●	太		●	●	仲	○	○	●
	9	黃	伏	○	●		●	林		●	●	仲	○	○	●
	10	姑	伏	○	●		●	○		●	●	○	○	○	●
	11	太	伏	○	●		●	姑		姑	●	○	○	○	●
	12	姑	伏	○	●		●	○		●	●	○	○	○	●
3각	1	備	備	◎	◎		◎	◎		◎	◎	仲	◎	◎	◎
	2	黃	備	○	○		●	○		○	●	仲	●	○	●
	3	備	備	◎	◎		◎	◎		◎	◎	仲	◎	◎	◎
	4	林	備	○	○		●	○		●	●	太	○	○	●
	5	黃	備	○	○		●	○		○	●	太	●	○	●
	6	備	備	◎	◎		◎	◎		◎	◎	太	◎	◎	◎
	7	黃	林	○	○		●	○		太	●	仲	○	○	●
	8	黃	林	○	○		●	○		太	●	仲	○	○	●
	9	備	林	○	○		●	○		太	●	仲	○	○	●
	10	黃	林	○	○		●	○		○	●	南	○	○	●
	11	黃	林	○	○		●	○		○	●	南	○	○	●
	12	黃	林	○	○		●	○		○	●	南	○	○	●

4자	1	備	備	◎	◎		◎	◎		太	◎	◎	◎	◎	◎
	2	備	備	◎	◎		◎	◎		太	◎	◎	◎	◎	◎
	3	備	備	◎	太		黃	◎		太	黃	◎	◎	◎	黃
	4	備	伏	○	○		○	○		備	○	黃	○	○	○
	5	黃	伏	○	○		○	○		●	○	●	○	○	○
	6	備	伏	○	○		○	○		●	○	●	○	○	○
	7	太	橫	◎	◎		◎	◎		◎	◎	◎	◎	◎	◎
	8	太	橫	◎	◎		◎	林		◎	◎	◎	◎	◎	◎
	9	太	橫	◎	◎		◎	林		◎	◎	◎	◎	◎	◎
	10	太	伏	◎	◎		◎	◎		◎	◎	林	黃	◎	◎
	11	太	伏	◎	◎		◎	◎		◎	◎	林	黃	◎	◎
	12	太	伏	●	●		●	●		●	●	林	備	姑	●
5자	1	太	伏	◎	姑		◎	◎		◎	◎	備	備	◎	◎
	2	太	伏	◎	姑		◎	◎		◎	◎	備	黃	◎	◎
	3	太	伏	◎	姑		◎	◎		◎	◎	備	備	◎	◎
	4	太	伏	◎	◎		◎	◎		◎	◎	備	◎	◎	◎
	5	太	伏	◎	◎		◎	◎		◎	◎	◎	◎	◎	◎
	6	太	伏	◎	備		◎	◎		◎	◎	◎	姑	◎	◎
	7	姑	伏	○	○		●	○		○	●	○	○	○	●
	8	姑	伏	○	○		●	○		○	●	○	○	○	●
	9	太	伏	◎	◎		◎	姑		◎	◎	◎	姑	◎	◎
	10	備	伏	○	개방		●	○		○	●	○	○	○	●
	11	黃	伏	○	개방		●	○		備	●	○	○	○	●
	12	備	伏	姑	●		●	○		●	●	●	○	姑	●
6자	1	太	橫	◎	◎		◎	◎		○	◎	備	姑	◎	◎
	2	太	橫	◎	◎		◎	◎		○	◎	備	南	◎	◎
	3	太	橫	◎	◎		◎	◎		◎	◎	◎	南	◎	◎
	4	太	伏	◎	◎		◎	◎		◎	◎	黃	姑	◎	◎
	5	太	伏	◎	◎		◎	◎		◎	◎	黃	姑	◎	◎
	6	太	伏	◎	◎		◎	◎		◎	◎	◎	◎	◎	◎
	7	太	伏	姑	林대		林대	◎		林대	林대	◎	姑	◎	◎
	8	太	伏	姑	林대		林대	◎		林대	林대	◎	姑	◎	◎
	9	太	伏	姑	林대		姑	姑		林대	姑	◎	◎	◎	◎
	10	太	伏	◎	◎		◎	◎		◎	◎	◎	◎	◎	◎
	11	太	伏	◎	◎		◎	◎		◎	◎	◎	◎	◎	◎
	12	備	伏	◎	●		◎	.		黃	◎	◎	●	◎	◎
7자	1	姑	備	◎	◎		◎	◎		◎	◎	仲	◎	◎	◎
	2	南	備	◎	◎		◎	◎		○	◎	無	◎	○	◎
	3	南	備	◎	◎		◎	◎		◎	◎	無	◎	◎	◎
	4	太	備	○	○		○	○		○	○	仲	○	○	○
	5	太	備	○	○		○	○		○	○	仲	○	○	○
	6	姑	伏	○	○		○	●		黃	○	○	○	○	○
	7	姑	備	◎	◎		南	◎		◎	南	仲	◎	◎	南

	8	姑	尙	尙		南	南		尙	南	仲	尙	尙	南	
	9	太	尙	尙		南	南		南	南	仲	尙	尙	南	
	10	黃	尙	尙		尙	尙		尙	尙	無	尙	尙	尙	
	11	黃	尙	尙		尙	尙		尙	尙	無	尙	尙	尙	
	12	備	尙	林		尙	尙		尙	尙	無	尙	尙	尙	
8자	1	南	尙	林		●	●		林	●	尙	●	尙	●	
	2	南	尙	●		●	●		林	●	尙	●	尙	●	
	3	南	尙	●		●	●		林	●	尙	●	尙	●	
	4	太	尙	尙		尙	南		南	尙	尙	尙	尙	尙	
	5	太	尙	尙		尙	南		南	尙	尙	尙	尙	尙	
	6	太	尙	尙		尙	姑		姑	尙	尙	尙	尙	尙	
	7	太	尙	黃		尙	尙		黃	尙	黃	尙	尙	尙	
	8	太	尙	黃		尙	尙		黃	尙	黃	尙	尙	尙	
	9	姑	尙	黃		林	林		黃	林	尙	南	南	林	
	10	黃	尙	姑	姑		姑	姑		姑	姑	姑	姑	姑	
	11	備	尙	姑	姑		姑	姑		姑	姑	姑	姑	姑	
	12	備	尙	尙	姑		尙	尙		姑	尙	姑	尙	尙	
9자	1	姑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2	姑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3	姑	尙	尙		尙	尙		尙	尙	太	尙	尙	尙	
	4	備	尙	尙		尙	尙		尙	尙	黃	太	尙	尙	
	5	黃	尙	●		●	尙		尙	●	●	太	尙	●	
	6	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7	林	尙	尙		尙	尙		太	尙	太	太	尙	尙	
	8	黃	尙	尙		●	尙		太	●	太	太	尙	●	
	9	備	尙	尙		尙	尙		太	尙	尙	太	尙	尙	
	10	黃	尙	尙		●	尙		尙	●	尙	●	尙	●	
	11	黃	尙	尙		●	尙		尙	●	尙	●	尙	●	
	12	備	尙	●	●		●	尙		尙	●	尙	●	尙	
10자	1	太	尙	備		備	備		黃	備	尙	備	備	備	
	2	姑	尙	備		備	備		黃	備	尙	備	備	備	
	3	太	尙	尙		尙	尙		尙	尙	備	尙	備	尙	
	4	太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備	尙	
	5	太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尙	備	尙	
	6	姑	尙	●		●	尙		●	●	尙	●	備	●	
	7	太	尙	林	林		尙	林		林	尙	尙	尙	尙	
	8	黃	尙	林	林		尙	林		林	尙	尙	尙	尙	
	9	姑	尙	林	●		●	●		林	●	尙	尙	●	
	10	黃	尙	太	太		●	太		●	●	尙	太	●	
	11	太	尙	●	尙		黃	●		黃	●	黃	●	●	●
	12	備	尙	太	尙		尙	姑		黃	尙	太	尙	尙	尙
11자	1	太	尙	尙		尙	尙		姑	尙	備	尙	尙	尙	
	2	太	尙	尙		尙	黃		姑	尙	備	尙	尙	尙	

	3	姑	伏	●	○		○	●		●	●	○	○	○	●
	4	林	倮	◎	◎		◎	◎		◎	◎	黃	◎	◎	◎
	5	林	倮	◎	◎		◎	◎		◎	◎	黃	◎	◎	◎
	6	林	倮	◎	姑		姑	◎		◎	姑	仲	◎	◎	姑
	7	林	伏	○	○		○	姑		○	○	○	○	○	○
	8	林	伏	姑	○		○	○		○	○	○	○	○	○
	9	林	伏	姑	○		○	○		姑	姑	仲	姑	○	姑
	10	林	倮	◎	◎		◎	◎		◎	◎	太	◎	◎	◎
	11	林	倮	◎	◎		◎	◎		◎	◎	太	◎	◎	◎
	12	姑	倮	○	●		●	○		○	●	太	○	○	●
12	1	太	伏	◎	◎		◎	姑		南	◎	◎	◎	◎	◎
	2	太	伏	◎	◎		◎	○		南	◎	◎	◎	◎	◎
	3	姑	伏	●	●		●	●		南	●	○	○	○	●
	4	林	倮	◎	◎		◎	◎		◎	◎	◎	◎	◎	◎
	5	林	倮	◎	◎		◎	◎		◎	◎	◎	◎	◎	◎
	6	南	倮	○	●		●	○		●	●	○	●	○	●
	7	潢	潢	◎	◎		◎	◎		◎	◎	太	◎	◎	◎
	8	潢	潢	◎	◎		◎	◎		◎	◎	太	◎	◎	◎
	9	潢	潢	◎	◎		◎	◎		◎	◎	太	◎	◎	◎
	10	潢	黃	◎	◎		◎	◎		◎	◎	林	◎	◎	◎
	11	潢	黃	◎	◎		◎	◎		◎	◎	林	◎	◎	◎
	12	潢	黃	◎	◎		◎	◎		◎	◎	林	◎	◎	◎
13	1	潢	黃	◎	◎		◎	◎		◎	◎	倮	◎	◎	◎
	2	潢	黃	◎	◎		◎	◎		◎	◎	倮	◎	◎	◎
	3	潢	黃	◎	◎		◎	◎		◎	◎	倮	◎	◎	◎
	4	潢	黃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6	潢	黃	◎	◎		◎	◎		◎	◎	太	汰	◎	◎
	7	潢	黃	◎	◎		◎	◎		◎	◎	◎	◎	◎	◎
	8	潢	黃	◎	◎		◎	◎		◎	◎	◎	◎	◎	◎
	9	潢	黃	◎	◎		◎	汰		◎	◎	◎	◎	汰	◎
	10	潢	黃	◎	◎		◎	◎		◎	◎	◎	◎	◎	◎
	11	潢	黃	◎	◎		◎	◎		◎	◎	◎	◎	◎	◎
	12	汰	黃	◎	◎		◎	○		姑	◎	○	○	○	◎
14	1	潢	潢	◎	◎		◎	◎		◎	◎	◎	◎	◎	◎
	2	潢	潢	◎	◎		◎	◎		◎	◎	◎	◎	◎	◎
	3	潢	潢	◎	◎		◎	◎		◎	◎	◎	◎	◎	◎
	4	潢	黃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
	6	潢	黃	◎	◎		◎	◎		◎	◎	太	汰	◎	◎
	7	潢	黃	◎	◎		◎	◎		◎	◎	◎	◎	◎	◎
	8	潢	黃	◎	◎		◎	◎		◎	◎	◎	◎	◎	◎
	9	潢	黃	◎	◎		◎	太		◎	◎	◎	◎	汰	◎

	10	潢黃	◎	◎		◎	◎		◎	◎	◎	◎	◎	◎	
	11	潢黃	◎	◎		◎	◎		◎	◎	◎	◎	◎	◎	
	12	潢黃	汰	◎		汰	◎		姑	汰	◎	◎	◎	汰	
15자	1	潢黃	◎	◎		◎	◎		◎	◎	◎	◎	◎	◎	
	2	潢黃	◎	◎		◎	◎		◎	◎	◎	◎	◎	◎	
	3	潢黃	◎	◎		◎	◎		◎	◎	◎	◎	◎	◎	
	4	潢黃	◎	◎		◎	◎		◎	◎	◎	◎	◎	◎	
	5	潢黃	◎	◎		◎	◎		◎	◎	◎	◎	◎	◎	
	6	潢黃	◎	◎		◎	◎		◎	◎	太	汰	◎	◎	
	7	潢黃	◎	◎		◎	◎		◎	◎	◎	◎	◎	◎	
	8	潢黃	◎	◎		◎	◎		◎	◎	◎	◎	◎	◎	
	9	潢黃	◎양	汰		◎	南		◎	◎	◎	◎	◎	◎	
	10	潢黃	◎양	林		◎	林		◎	◎	◎	◎	◎양	◎	
	11	潢黃	◎양	林		◎	林		◎	◎	◎	◎	◎양	◎	
	12	潢黃	◎양	南		◎	南		休	汰	◎	◎	◎양	◎	
16자	1	潢潢	◎	◎		◎	◎		◎	◎	◎	◎	◎	◎	
	2	潢潢	◎	◎		◎	◎		◎	◎	◎	◎	◎	◎	
	3	潢潢	◎	◎		◎	◎		◎	◎	◎	◎	◎	◎	
	4	潢黃	◎	◎		◎	◎		◎	◎	◎	◎	◎	◎	
	5	潢黃	◎	◎		◎	◎		◎	◎	◎	◎	◎	◎	
	6	潢黃	◎	◎		◎	◎		◎	◎	太	汰	◎	◎	
	7	潢黃	◎	◎		◎	◎		◎	◎	◎	◎	◎	◎	
	8	潢黃	◎	◎		◎	◎		◎	◎	◎	◎	◎	◎	
	9	潢黃	◎	◎		◎	汰		◎	◎	◎	◎	◎	汰	◎
	10	潢黃	◎	林		◎	◎		◎	◎	◎	◎	◎	◎	◎
	11	潢黃	◎	林		◎	◎		◎	◎	◎	◎	◎	◎	◎
	12	潢黃	◎양	林		◎양	◎		姑	◎양	◎	◎	◎	◎양	◎
17자 145)	1	潢潢	◎	◎		◎	◎		◎	◎	◎	◎	◎	◎	
	2	潢潢	◎	◎		◎	◎		◎	◎	◎	◎	◎	◎	
	3	潢潢	◎	◎		◎	◎		◎	◎	◎	◎	◎	◎	
	4	潢黃	◎	◎		◎	◎		◎	◎	◎	◎	◎	◎	
	5	潢黃	◎	◎		◎	◎		◎	◎	◎	◎	◎	◎	
	6	潢黃	◎	◎		◎	◎		◎	◎	太	汰	◎	◎	
	7	潢黃	◎	◎		◎	◎		◎	◎	◎	◎	◎	◎	
	8	潢黃	◎	◎		◎	◎		◎	◎	◎	◎	◎	◎	
	9	潢黃	◎	◎		◎	汰		◎	◎	◎	汰	汰	◎	
	10	潢黃	◎	林		◎	◎		◎	◎	◎	◎	◎	◎	
	11	潢黃	◎	林		◎	◎		◎	◎	◎	◎	◎	◎	
	12	潢汰	黃	●	林		●	○		姑	◎	○	●	○	●
18자	1	潢黃	◎	◎		◎	◎		◎	◎	◎	◎	◎	◎	
	2	潢黃	◎	◎		◎	◎		◎	◎	◎	◎	◎	◎	
	3	潢黃	○	○		●	○		○	●	●	●	○	●	
	4	潢黃	◎	◎		◎	◎		◎	◎	◎	◎	◎	◎	

	5	潢	黃	◎	◎		◎	◎		◎	◎	◎	◎	◎
	6	汰	黃	○	○		●	○		○	●	○	●	○
	7	潢	黃	◎	◎		◎	◎		◎	◎	備	◎	◎
	8	潢	黃	◎	◎		◎	◎		◎	◎	備	◎	◎
	9	汰	太	◎	潢		◎	林		◎	◎	備	◎	◎
	10	南	備	◎	林		◎	◎		◎	◎	備	◎	◎
	11	南	備	◎	林		◎	◎		◎	◎	備	◎	◎
	12	林	備	◎	◎		◎	◎		◎	◎	◎	◎	◎
19자	1	南	太	○	●		●	○		○	●	●	●	○
	2	南	太	○	●		●	○		○	●	●	●	○
	3	南	太	○	●		●	○		○	●	●	●	○
	4	汰	太	◎	◎		◎	◎		◎	◎	◎	◎	◎
	5	汰	太	◎	◎		◎	◎		◎	◎	◎	◎	◎
	6	汰	太	◎	◎		◎	潢		◎	◎	◎	◎	潢
	7	汰	太	◎	◎		◎	◎		◎	◎	◎	◎	◎
	8	汰	太	◎	◎		◎	◎		◎	◎	◎	◎	◎
	9	汰	太	◎	◎		◎	◎		◎	◎	◎	◎	◎
	10	汰	太	◎	◎		◎	◎		◎	◎	◎	◎	◎
	11	汰	太	◎	◎		◎	◎		◎	◎	◎	◎	◎
	12	汰	太	◎양	澍		◎	◎양		◎	◎	◎	◎	◎양
20자	1	汰	潢	◎	◎		◎	◎		◎	◎	◎	○	◎
	2	汰	潢	◎	◎		◎	◎		◎	◎	◎	◎	◎
	3	汰	潢	○	◎		◎	○		◎	◎	◎	○	◎
	4	汰	太	◎	◎		◎	◎		◎	◎	◎	◎	◎
	5	汰	太	潢	◎		◎	◎		◎	◎	◎	◎	◎
	6	汰	太	◎	●		●	◎		●	◎	◎	◎	◎
	7	汰	太	◎	◎		◎	◎		◎	◎	◎	◎	◎
	8	汰	太	◎	◎		◎	◎		◎	◎	◎	◎	◎
	9	汰	太	○	○		●	○		●	●	●	○	●
	10	潢	太	◎	◎		●	◎		●	●	◎	●	◎
	11	澍	太	◎	◎		●	◎		黃	●	◎	潢	◎
	12	汰	太	◎	◎		◎	◎		姑	◎	◎	潢	◎
21자	1	潢	黃	◎	◎		◎	◎		◎	◎	◎	◎	◎
	2	潢	黃	◎	◎		◎	◎		◎	◎	◎	◎	◎
	3	潢	黃	◎	◎		◎	◎		◎	◎	◎	◎	◎
	4	潢	黃	◎	◎		◎	◎		◎	◎	◎	◎	◎
	5	潢	黃	◎	◎		◎	◎		◎	◎	◎	◎	◎
	6	潢	黃	◎	◎		◎	◎		◎	◎	◎	◎	◎
	7	潢	黃	◎	◎		◎	◎		◎	◎	◎	◎	◎
	8	潢	黃	◎	◎		◎	◎		◎	◎	◎	◎	◎
	9	潢	黃	◎	◎		◎	◎		◎	◎	◎	汰	◎
	10	潢	黃	◎	◎		◎	汰		◎	◎	太	◎	◎
	11	潢	黃	◎	◎		◎	汰		◎	◎	太	◎	◎

	12	潢黃	汰	汰		◎	◎		姑	◎	仲	汰	◎	◎	
22자	1	林黃	◎	○		◎	◎		◎	◎	◎	○	○	◎	
	2	林黃	◎	○		◎	◎		◎	◎	◎	○	○	◎	
	3	南黃	●	○		●	●		○	●	○	○	○	●	
	4	潢黃	◎	◎		◎	◎		◎	◎	◎	◎	◎	◎	
	5	潢黃	◎	◎		◎	◎		◎	◎	◎	◎	◎	◎	
	6	潢黃	◎	◎		◎	◎		◎	◎	◎	◎	◎	◎	
	7	林黃	○	○		●	○		○	●	○	○	○	●	
	8	南黃	○	○		●	○		○	●	○	○	○	●	
	9	潢黃	南	●		●	南		○	●	○	○	○	●	
	10	南	林	汰	◎	◎	汰		◎	◎	太	◎	◎	◎	
	11	南	林	汰	◎	◎	汰		◎	◎	太	◎	◎	◎	
	12	林	林	汰	◎	◎	汰		備	◎	太	◎	◎	◎	
23자	1	太潢	姑	◎		◎	姑		姑	◎	仲	◎	◎	◎	
	2	太潢	姑	◎		◎	姑		姑	◎	仲	◎	◎	◎	
	3	姑潢	●	○		●	●		●	●	南	●	○	●	
	4	林	林	◎	◎		南		◎	◎	◎	◎	◎	◎	
	5	林	林	◎	◎		◎		◎	◎	◎	◎	◎	◎	
	6	姑	林	○	○		●	○		○	●	○	○	●	
	7	太	伏	姑	◎		◎	林		林	◎	林	林	◎	◎
	8	太	伏	姑	◎		◎	林		林	◎	林	林	◎	◎
	9	姑	伏	○	○		●	林		林	●	林	林	○	●
	10	林	林	◎	◎		◎	◎		◎	◎	◎	◎	◎	◎
	11	林	林	◎	◎		◎	南		◎	◎	◎	◎	◎	◎
	12	姑	林	○	○		●	○		●	●	○	○	○	●

<군악> 제3장의 선율을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97>과 같다.

<표 97> <군악> 제3장 선율 유사도

<군악> 제3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152	156		182	152		152	189	117	158	171	187
●	11	24		63	12		24	61	17	19	3	61
○	72	47		14	52		32	15	34	54	69	14
◎	3	3 대		2 대	4 양		3 대	2 대	3 양	4 양	9 양	1 양

145) 피리 대신 대금 선율로 대체함.

	9 양	3 양 2		1 양	3		3 양	1 양	3	1	3	
기타	29	41		14	53		62	8	102	40	21	13
총 개수	276	276		276	276		276	276	276	276	276	276
피리 일치도	59.0%	65.2%		88.7%	59.4%		63.7%	90.5%	48.5%	64.1%	63.0%	89.8%
거문고 일치도	81.1%	73.5%		71.0%	73.9%		66.6%	73.9%	54.7%	76.8%	86.9%	72.8%
독자적 선율	10.5%	14.8%		5.0%	19.2%		22.4%	2.8%	36.9%	14.4%	7.6%	4.7%

지용구의 피리 일치도는 59.0%, 거문고 일치도는 81.1%이며 독자적 선율은 10.5%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65.2%, 거문고와 73.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4.8%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88.7% 일치하며 거문고와는 71.0%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5.0%이다. 류대복의 경우 59.4%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73.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9.2%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3.7%, 66.6%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22.4%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90.5%, 거문고와 73.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8%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8.5%, 거문고와 54.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6.9%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4.1%, 거문고와 76.8% 일치하였으며 14.4%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3.0%, 거문고와 86.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6%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89.8%, 거문고와 72.8%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4.7%이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이리풍류, 국악원이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구례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군악> 제4장

제5각에서는 ‘太-伋 太-姑 太-伋 太-姑’로 이루어진 거문고 선율을 따

르는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이리풍류, 대전풍류와 ‘黃-太 太-姑 太-姑 黃-備’로 이루어진 피리 선율을 차용하여 연주하는 이덕환, 김천홍, 구례풍류, 국악원의 선율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악보 36> <군악> 제4장 제5각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2 stav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performer or instrument. The notation is in Western staff notation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a common time signature. The performers listed on the left are:

- 지용구 (Ji Yong-gu)
- 김덕진 (Kim Deok-jin)
- 이덕환 (Lee Deok-hwan)
- 류대복 (Ryu Dae-bok)
- 지영희 (Ji Yeong-hee)
- 김천홍 (Kim Cheon-hong)
- 구례풍류 (Gurye Pongryu)
- 이리풍류 (Iri Pongryu)
- 대전풍류 (Daejeon Pongryu)
- 국악원 해금 (Kugakwon Haegeum)
- 국악원 거문고 (Kugakwon Geomungo)
- 국악원 피리 (Kugakwon Piri)

The score shows the melodic lines for each instrument, with some instruments like the Haegeum and Geomungo having a more active, rhythmic role compared to the wind instruments like the Piri.

<군악> 제4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 거문고, 피리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98>과 같다.

<표 98> <군악> 제4장 선율비교

<군악>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각	박	피	거												
1각	1	南	伋	姑	○		○	姑		黃	○	仲	○	○	○
	2	南	伋	○	○		○	○		○	○	仲	○	○	○
	3	姑	伋	○	●		○	○		○	●	南	○	○	●
	4	林	倝	◎	◎		◎	◎		◎	◎	◎	◎	◎	◎
	5	林	倝	◎	◎		◎	◎		◎	◎	◎	◎	◎	◎
	6	林	倝	◎	◎		◎	◎		黃	◎	◎	◎	◎	◎
	7	姑	倝	◎	◎		◎	◎		◎	◎	仲	◎	◎	◎
	8	姑	倝	◎	◎		◎	◎		◎	◎	仲	◎	◎	◎
	9	林	倝	◎	◎		◎	南		南	◎	南	南	◎	◎
	10	林	倝	◎	◎		◎	◎		◎	◎	◎	◎	◎	◎
	11	林	倝	◎	◎		◎	◎		◎	◎	◎	◎	◎	◎
	12	姑	倝	◎	林		◎	林		林	◎	林	◎	◎	◎
2각	1	林	倝	◎	◎		◎	◎		◎	◎	◎	◎	◎	◎
	2	林	倝	◎	◎		◎	◎		◎	◎	◎	◎	◎	◎
	3	姑	倝	◎	◎		◎	◎		◎	◎	◎	◎	◎	◎
	4	南	伋	◎	◎		◎	◎		林	◎	◎	◎	◎	◎
	5	南	伋	◎	◎		◎	◎		●	◎	◎	◎	◎	◎
	6	林	伋	○가	○가		●	○가		○가	●	○가	●	●	●
	7	姑	倝	◎	◎		◎	◎		◎	◎	◎	◎	◎	◎
	8	姑	倝	◎	◎		◎	◎		◎	◎	◎	◎	◎	◎
	9	南	倝	◎	◎		◎	◎		◎	◎	◎	◎	林	◎
	10	林	倝	◎	◎		◎	南		◎	◎	◎	◎	◎	◎
	11	林	倝	◎	◎		◎	◎		◎	南	◎	◎	◎	◎
	12	姑	倝	◎	◎		◎	南		◎	◎	◎	◎	◎	◎
3각	1	潢	黃	◎	姑		◎	◎		◎	◎	南	◎	◎	◎
	2	潢	黃	◎	姑		◎	◎		◎	◎	南	◎	◎	◎
	3	南	倝	◎	◎		◎	◎		◎	◎	◎	◎	◎	◎
	4	南	倝	◎	◎		◎	◎		◎	◎	◎	◎	◎	◎
	5	南	倝	◎	◎		◎	◎		◎	◎	◎	◎	◎	◎
	6	南	倝	◎	姑		◎	◎		◎	◎	仲	◎	◎	◎
	7	姑	倝	◎	○양		◎	○양		◎	◎	○가	◎	◎	◎
	8	姑	倝	◎	○양		◎	○양		○가	◎	○가	◎	◎	◎
	9	南	潢	◎	○양		◎	姑		◎	◎	◎	◎	姑	◎
	10	南	倝	◎	◎		◎	◎		◎	◎	林	◎	◎	◎
	11	南	倝	◎	◎		◎	◎		◎	◎	林	◎	◎	◎
	12	南	倝	◎	◎		◎	◎		◎	◎	◎	◎	◎	◎
4각	1	林	倝	○	○		●	○		●	●	○	○	○	●
	2	林	倝	○	○		●	○		●	●	○	○	○	●
	3	姑	倝	◎	◎		◎	◎		◎	◎	太	◎	◎	◎

	4	南	徧	林	林		◎	◎		◎	◎	太	◎	◎	◎
	5	南	徧	●	●		○	○		○	○	太	○	○	○
	6	姑	徧	◎	◎		◎	◎		◎	◎	太	◎	◎	◎
	7	姑	伏	○	○		●	○		黃	●	黃	○	○	●
	8	太	伏	◎	◎		◎	◎		◎	◎	黃	◎	◎	◎
	9	黃	伏	◎양	◎양		●	◎양		○	●	○	○	◎양	●
	10	黃	徧	○	○		○	○		●	○	○	●	○	○
	11	黃	徧	○	○		○	○		●	○	○	●	○	○
	12	太	徧	○	○		○	○		○	○	○	○	○	○
5각	1	徧	伏	○	姑		●	○		黃	●	●	○	○	●
	2	黃	伏	○	○		●	○		○	●	徧	○	○	●
	3	太	徧	○	●		●	徧		●	●	●	●	●	●
	4	太	伏	◎	◎		◎	◎		◎	◎	◎	◎	◎	◎
	5	太	伏	◎	◎		◎	◎		◎	◎	◎	◎	◎	◎
	6	姑	徧	◎	◎		◎	徧		◎	◎	太	太	◎	◎
	7	太	伏	◎	◎		◎	◎		林	◎	◎	◎	◎	◎
	8	太	伏	○	●		●	●		○	●	仲	○	○	●
	9	姑	徧	○	●		●	太		○	●	太	○	○	●
	10	黃	伏	●	林		●	林		●	●	●	○	○	●
	11	黃	伏	●	林		●	林		●	●	●	○	○	○
	12	徧	徧	◎	林		●	林		●	●	◎	○	○	●
6각	1	太	徧	○	○		●	◎		◎	●	徧	●	◎	●
	2	太	徧	●	○		●	◎		◎	●	徧	●	◎	●
	3	姑	徧	太	◎		◎	南		◎	◎	太	太	◎	◎
	4	林	徧	仲	◎		◎	◎		◎	◎	黃	◎	◎	◎
	5	林	徧	仲	◎		◎	◎		◎	◎	黃	◎	◎	◎
	6	林	徧	仲	南		姑	◎		◎	◎	仲	◎	◎	◎
	7	林	徧	仲	◎		太	仲		仲	太	太	太	◎	◎
	8	林	徧	仲	◎		太	仲		仲	太	太	太	◎	◎
	9	林	徧	仲	◎		姑	仲		仲	◎	仲	太	◎	◎
	10	林	徧	仲	◎		○	仲		仲	◎	太	◎	黃	◎
	11	林	徧	仲	◎		○	仲		仲	◎	太	◎	黃	◎
	12	林	徧	仲	◎		○	仲		仲	◎	太	◎	黃	◎

<군악> 제4장의 해금 선율을 국악원 거문고, 피리 선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99>와 같다.

<표 99> <군악> 제4장 선율 일치도

<군악> 제4장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9	37		43	34		37	47	25	44	46	50
●	4	5		15	1		9	16	4	6	2	15
○	12	9		10	8		8	6	6	14	15	7
⊙	1 가 1 양 3	1 가 4 양 2		0	1 가 3 양 4		2 가 2	0	3 가	2	1 양 4	0
기타	12	14		4	21		14	3	34	6	4	0
총 개수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피리 일치도	59.7%	58.3%		80.5%	48.6%		63.8%	87.5%	40.2%	69.4%	66.6%	90.2%
거문고 일치도	70.8%	63.8%		73.6%	58.3%		62.5%	73.6%	43.0%	80.5%	84.7%	79.1%
독자적 선율	16.6%	19.4%		5.5%	27.6%		19.4%	4.1%	47.2%	8.5%	5.5%	0.0%

지용구의 피리 일치도는 59.7%, 거문고 일치도는 70.8%이며 독자적 선율은 16.6%이다. 김덕진은 피리와 58.3%, 거문고와 63.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9.4%이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80.5% 일치하며 거문고와는 73.6%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독자적 선율은 5.5%이다. 류대복의 경우 48.6%의 선율이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58.3%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7.6%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거문고의 일치도가 각각 63.8%, 62.5%로 나타났으며 독자적 선율은 19.4%이다. 김천홍은 피리와 87.5%, 거문고와 73.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4.1%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0.2%, 거문고와 43.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47.2%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9.4%, 거문고와 80.5% 일치하였으며 8.5%이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84.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5%이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0.2%, 거문고와 79.1%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없다. 피리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는 이덕환, 김천홍, 이리풍류, 국립국악원이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구례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와의 선율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군악>의 선율 일치도를 정리해보면 <표 100>과 같다.

<표 100> <군악> 선율 일치도

<군악>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	314	287		362	282		305	374	218	330	335	376
●	36	38		151	17		65	156	37	55	21	158
○	139	109		30	113		70	30	75	112	152	25
⊙	3 가 11 양 10	4 가 13 양 6 3 대		2 대 1 양	2 가 11 양 12		2 가 5 양 3 대 6	2 대 1 양	3 가 3 양 3	9 1 가 4 양	12 양 13	1 양
기타	63	116		30	139		120	13	237	65	43	15
총 개수	576	576		576	576		576	576	576	576	576	576
피리 일치도	60.7%	56.4%		89.0%	51.9%		64.2%	92.0%	44.2%	66.8%	61.8%	92.7%
거문고 일치도	78.6%	68.7%		63.3%	68.5%		65.1%	70.1%	76.7%	76.7%	84.5%	69.6%
독자적 선율	10.9%	20.1%		5.2%	24.1%		20.8%	2.2%	41.4%	11.2%	7.4%	2.6%

<군악>을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60.7% 일치하였고 거문고와는 78.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0.9%로 확인되었다. 김덕진은 피리와 56.4%, 거문고와 68.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0.1%로 높았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89.0%, 거문고와 63.3% 일치하였으며 5.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류대복은 피리와 51.9%, 거문고와 68.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4.1%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64.2%, 거문고와 65.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0.8%로 확인되었다. 김천홍은 92.0%의 비율로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70.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2%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4.2%, 거문고와 76.7%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41.4%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6.8%, 거문고와 76.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1.2%이다. 대전풍류는 61.8%의 확률로 피리와 일치하였고 거문고와는 84.5% 일치하였으

며 독자적 선율은 7.4%로 나타났다. 국악원은 피리와 92.7%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 69.6%, 독자적 선율은 2.6%로 확인되었다.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거문고의 선율과 더 가깝게 연주되었으며 이덕환, 김천홍, 국립국악원은 피리의 선율과 더 유사하게 연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소결

이상 <상령산>부터 <군악>까지의 악곡을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하여 일치도 및 독자적 선율을 살펴본 결과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99>와 같다.

<표 101> 줄풍류 선율 일치도

악곡	구분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상령산	피리 일치도	71.1%			98.1%	71.4%		71.5%	98.4%	72.7%	70.3%	69.1%	98.4%
	거문고 일치도	80.2%			70.0%	95.0%		93.9%	70.0%	83.0%	88.7%	97.2%	69.0%
	독자적 선율	8.8%			1.5%	0.2%		3.0%	1.2%	8.7%	6.3%	1.1%	1.2%
중령산	피리 일치도	70.8%			95.1%	70.5%		65.7%	96.0%	59.7%	70.0%	71.4%	96.5%
	거문고 일치도	93.4%			71.7%	97.7%		91.1%	71.1%	70.8%	87.7%	96.8%	70.5%
	독자적 선율	3.1%			2.2%	0.8%		2.8%	2.5%	23.4%	7.7%	1.1%	2.5%
세령산	피리 일치도	68.5%	80.0%		87.1%	65.7%	67.8%	67.1%	90.0%	57.8%	64.2%	64.2%	90.0%
	거문고 일치도	94.2%	77.1%		68.5%	98.5%	96.4%	96.4%	68.5%	65.0%	85.0%	96.4%	67.1%
	독자적 선율	1.4%	5.0%		8.5%	0.7%	1.4%	1.4%	5.7%	26.4%	9.2%	1.4%	6.4%
가락 덜이	피리 일치도	74.0%			90.0%	75.0%	76.0%	77.0%	92.0%	65.0%	81.0%	77.0%	94.0%
	거문고 일치도	89.0%			82.0%	94.0%	89.0%	92.0%	81.0%	64.0%	85.0%	94.0%	81.0%
	독자적 선율	9.0%			4.0%	6.0%	8.0%	6.0%	3.0%	27.0%	9.0%	5.0%	2.0%
상현 도드리	피리 일치도	60.2%	55.7%	90.6%	96.2%	59.8%		64.0%	97.1%	56.5%	63.0%	62.6%	97.1%
	거문고 일치도	91.1%	76.9%	69.6%	63.0%	90.6%		87.8%	63.5%	71.9%	87.3%	96.7%	64.0%
	독자적 선율	6.5%	12.1%	1.4%	1.8%	7.4%		5.6%	0.9%	20.5%	7.9%	0.4%	0.9%
하현	피리 일치도	75.6%		97.4%	97.4%	65.3%		72.4%	98.0%	54.4%	85.2%	76.9%	98.7%

도드리	거문고 일치도	92.9%		80.7%	78.8%	86.5%		85.2%	80.1%	62.1%	91.6%	94.2%	78.8%
	독자적 선율	5.1%		0.0%	1.2%	13.4%		10.2%	0.6%	33.3%	1.2%	3.8%	0.6%
염불 도드리	피리 일치도	52.3%		76.1%	88.0%	50.0%	66.6%	54.7%	85.7%	47.6%	78.5%	57.1%	90.4%
	거문고 일치도	90.4%		83.3%	57.1%	83.3%	76.1%	88.0%	59.5%	64.2%	76.1%	97.6%	59.5%
	독자적 선율	9.5%		0.0%	9.5%	14.2%	9.5%	9.5%	9.5%	28.5%	2.3%	2.3%	7.1%
타령	피리 일치도	71.0%	80.7%	74.2%		91.1%	78.9%	79.6%	78.1%	92.9%	65.3%	90.3%	84.6%
	거문고 일치도	75.7%	86.4%	76.0%		81.5%	83.3%	85.4%	80.4%	80.4%	75.0%	83.8%	90.8%
	독자적 선율	17.4%	6.5%	16.4%		5.7%	9.8%	8.5%	14.5%	5.4%	20.3%	4.4%	3.1%
군악	피리 일치도	60.7%	56.4%		89.0%	51.9%		64.2%	92.0%	44.2%	66.8%	61.8%	92.7%
	거문고 일치도	78.6%	68.7%		63.3%	68.5%		65.1%	70.1%	76.7%	76.7%	84.5%	69.6%
	독자적 선율	10.9%	20.1%		5.2%	24.1%		20.8%	2.2%	41.4%	11.2%	7.4%	2.6%

<상령산>을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71.1%, 거문고와 80.2%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8.8%로 나타났다. 이덕환은 피리와 98.1%,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5% 연주한다. 류대복은 피리와 71.4%, 거문고와 95.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2%로 나타났다. 지영희의 경우 피리와 71.5%, 거문고와 93.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0%로 나타났다. 김천홍의 경우 피리와 98.4%,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1.2%의 독자적 선율을 운용하였다. 구례풍류의 경우 피리와 72.7%, 거문고와 83.0%, 독자적 선율은 8.7%로 나타났다. 이리풍류는 70.3%의 비율로 피리와 일치하였고 거문고와는 88.7% 일치하였다. 독자적 선율은 6.3%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9.1%, 거문고와 97.2%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1%로 나타났다. 국악원은 피리와 98.4%의 높은 비율로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69.0%로 저조한 일치도를 보였다. 독자적 선율은 1.2%로 나타났다.

<중령산>을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70.8%, 거문고와는 93.4%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3.1%로 나타났다. 이덕환은 피리와 95.1%, 거문고와는 71.7% 일치하였으며 2.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은 피리와 70.5%, 거문고와 97.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8%로 나타났다. 지영희는 피리와 65.7%, 거문고와 91.1%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2.8%이다. 김천홍의 경우 피리와 96.0%, 거문고와 71.1% 일치하였고 2.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9.7%, 거문고와 70.0%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이 23.4%의 높은 비중으로 연주되었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70.0%, 거문고와 87.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7%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1.4%, 거문고와 96.8% 일치하였으며 1.1%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국악원은 피리와 96.5% 일치하였고, 거문고와 70.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5%로 나타났다.

<세령산>을 살펴본 결과, 지용구의 경우 피리와 68.5%, 거문고와 94.2%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4%로 확인된다. 김덕진은 피리와 80.0%, 거문고와 77.1%, 독자적 선율은 5.0%로 나타났다. 이덕환은 피리와 87.1%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68.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8.5%로 나타났다. 류대복의 경우 피리와 65.7%, 거문고와 98.5% 일치하였으며 0.7%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창규는 피리와 67.8%, 거문고와 96.4% 일치하였고 1.4%의 독자적 선율을 운용하고 있다. 지영희는 피리와 67.1%, 거문고와 96.4%의 일치율을 보이며 독자적 선율은 1.4%이다. 김천홍의 경우 피리 선율과 90.0%, 거문고와는 68.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7%이다. 구례풍류의 경우 피리와 57.8%, 거문고와 65.0% 일치하였으며 26.4%의 높은 비중으로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4.2%, 거문고와 85.0% 일치하며 9.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4.2%, 거문고와 96.4%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1.4%이다. 국악원은 피리와 90.0%, 거문고와 67.1% 일치하며 6.4%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가락달이>를 살펴본 결과, 지용구의 경우 피리와 74.0%, 거문고와 89.0%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9.0%이다. 이덕환은 피리와 90.0% 일치, 거문고와 82.0%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4.0%로 나타난다. 류대복은 피리와 75.0% 일치, 거문고와 94.0% 일치하고 있으며 6.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창규는 피리와 76.0%, 거문고와 89.0% 일치하며 8.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지영희는 피리와 77.0% 일치하고 거문고와 92.0% 일치하고 있으며 6.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2.0%, 거문고와 81.0% 일치하고 독자적 선율은 3.0%로 확인된다. 구례풍류는 65.0%의 비율로 피리와 일치하고 있으며 거문고와는 64.0% 일치하나, 독자적 선율은 27.0%로 높게 나타난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1.0%, 거문고와 85.0% 일치하며 9.0%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7.0%, 거문고와 94.0%의 일치하며 5.0%의 독자적 선율이 있다. 국악원은 피리와 94.0%, 거문고와 81.0%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2.0%이다.

<상현도드리>를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60.2%, 거문고와는 91.1% 일치한다. 독자적 선율은 6.5%로 나타난다. 김덕진은 피리와 55.7%, 거문고와 76.9% 일치하고 독자적 선율은 12.1%의 수치를 나타낸다. 민완식은 피리와 90.6%, 거문고와 69.6% 일치하고 1.4%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덕환도 민완식과 마찬가지로 피리가 96.2%, 거문고는 63.0% 일치하여 피리와 더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으며 독자적 선율은 1.8%로 나타난다. 류대복은 피리와 59.8%, 거문고와 90.6% 일치하고 독자적 선율은 7.4%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64.0%, 거문고와 87.8% 일치하며 5.6%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천홍은 피리와 97.1%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63.5% 일치하고 있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6.5%, 거문고와 71.9% 일치하며 20.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3.0%, 거문고와 87.3%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7.9%이다. 대전풍류는 62.6%가 피리와 일치하고 있으며 거문고와는 96.7% 일치한다. 독자적 선율은 0.4%이다. 국악원은 피리와 97.1%, 거문고와는 64.0%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0.9%이다.

<하현도드리>를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75.6%, 거문고와는 92.9%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5.1%로 확인되었다. 민완식은 피리와 97.4%, 거문고와 80.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없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97.4%, 거문고와 78.8%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2%로 나타났다. 류대복은 65.3%의 수치로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86.5% 일치하였으며 13.4%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지영희는 피리와 72.4%, 거문고와 85.2% 일치하였으며 10.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김천홍의 경우 피리와 98.0%, 거문고와 80.1%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0.6%로 확인된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54.4%, 거문고와 62.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3.3%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85.2%, 거문고와 91.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2%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76.9% 일치하였고 거문고와 94.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3.8% 연주한다. 국악원은 피리와 98.7%, 거문고와 78.8%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0.6%로 나타났다

<염불도드리>를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66.3% 일치, 거문고와는 87.9% 일치하였으며 6.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민완식은 피리와 84.3%, 거문고와 72.2%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5.5%로 확인된다. 이덕환은 피리와 92.4% 일치, 거문고와는 63.3% 일치하였으며 4.9%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은 피리와 63.3%, 거문고와 89.8% 일치하였고 6.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창규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86.2%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1%로 확인된다. 지영희는 피리와 66.9%, 거문고와 84.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8%로 나타났다. 김천홍은 피리와 90.8%, 거문고와 64.0% 일치하였으며 5.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64.0%, 거문고와는 79.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3.0%이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9.6%, 거문고와는 85.9%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5.5%로 확인된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66.6%, 거문고와 95.7%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0.9%이다. 국악원의 경우 피리와 92.4%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63.7% 일치하였으며, 4.9%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타령>을 살펴본 결과, 지용구1은 피리와 71.0%, 거문고와 75.7%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17.4%이다. 지용구2는 피리와 80.7%, 거문고와 86.4% 일치하였으며 6.5%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김덕진은 피리와 74.2%, 거문고와 76.0% 일치하며 16.4%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덕환은 피리와 91.1% 일치하였으며 거문고와는 81.5% 일치하였고 5.7%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은 피리와 78.9%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83.3%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9.8%이다. 김창규는 피리와 79.6%, 거문고와 85.4% 일치하고 있으며 독자적 선율은 8.5%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78.1%, 거문고와 80.4%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14.5%이다. 김천홍은 92.9%의 비율로 피리와 일치하고 있으며 거문고와는 80.4% 일치한다. 독자적 선율은 5.4%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65.3%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75.0% 일치하며 20.3%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90.3% 일치하고 거문고와는 83.8% 일치하고 있으며 독자적 선율은 4.4%이다. 대전풍류는 피리와 84.6%, 거문고와 90.8% 일치하고 있으며 3.1%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한다. 국악원은 피리와 93.7%, 거문고와 82.0% 일치하며 독자적 선율은 3.9%이다.

<군악>을 살펴본 결과, 지용구는 피리와 60.7% 일치하였고 거문고와는 78.6%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0.9%로 확인되었다. 김덕진은 피리와 56.4%, 거문고와 68.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0.1%로 높았다. 이덕환의 경우 피리와 89.0%, 거문고와 63.3% 일치하였으며 5.2%의 독자적 선율을 연주하였다. 류대복은 피리와 51.9%, 거문고와 68.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4.1%이다. 지영희는 피리와 64.2%, 거문고와 65.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0.8%로 확인되었다. 김천홍은 92.0%의 비율로 피리와 일치, 거문고와는 70.1%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2.2%이다. 구례풍류는 피리와 44.2%, 거문고와 76.7% 일치하였고 독자적 선율은 41.4%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리풍류는 피리와 66.8%, 거문고와 76.7%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11.2%이다. 대전풍류는 61.8%의 확률로 피리와 일치하였고 거문고와는 84.5% 일치하였으며 독자적 선율은 7.4%로 나타났다. 국악원은 피리와 92.7% 일치하였으

며 거문고와 69.6%, 독자적 선율은 2.6%로 확인되었다.

거문고 · 피리 · 독자적 선율을 제외한 선율은 가야금 · 양금 · 대금의 선율을 차용하여 이를 ⊙로 분류하였다. 이 중 ⊙는 다시 가야금 · 양금과 모두 일치하는 선율, 가야금과 일치하는 선율, 양금과 일치하는 선율, 대금과 일치하는 선율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2>와 같다.

<표 102> ⊙ (가야금 · 양금 · 대금) 선율 일치도

⊙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국립 국악원
가야금 양금	15	8	2	0	16	0	8	5	5	13	21	2
가야금	3	4	3	2	3	1	19	2	4	3	1	2
양금	17	17	2	1	11	4	7	1	3	4	12	4
대금	0	3	0	2	0	0	3	2	0	0	0	0

가야금 · 양금 모두 일치하는 선율을 차용하여 연주한 횟수를 살펴보면 지용구 15회, 김덕진 8회, 민완식 2회, 류대복 16회, 지영희 8회, 김천홍 5회, 구례풍류 5회, 이리풍류 13회, 대전풍류 21회, 국립국악원 2회이다.

가야금 선율을 차용하여 연주한 횟수를 살펴보면 지용구 3회, 김덕진 4회, 민완식 3회, 이덕환 2회, 류대복 3회, 김창규 1회, 지영희 19회, 김천홍 2회, 구례풍류 4회, 이리풍류 3회, 대전풍류 1회, 국립국악원 2회로 나타났다.

양금 선율을 차용하여 연주한 횟수를 살펴보면 지용구 17회, 김덕진 17회, 민완식 2회, 이덕환 1회, 류대복 11회, 김창규 4회, 지영희 7회, 김천홍 1회, 구례풍류 3회, 이리풍류 4회, 대전풍류 12회, 국립국악원 4회이다.

대금 선율을 차용하여 연주를 횟수를 살펴보면 김덕진 3회, 이덕환 2회, 지영희 3회, 김천홍 2회를 나타냈다.

민간풍류 계통에 해당하는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에서 상대적으로 가야금과 양금 선율을 더 많이 차용하

여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영희는 양금보다는 가야금의 선율에 더 가깝게 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보면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는 현악기의 선율과 더 가깝게 연주되었으며 이덕환, 김천홍, 국립국악원은 관악기의 선율과 더 유사하게 연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 줄풍류의 해금 선율을 거문고·피리 선율과 비교해 본 결과, 관악기 선율을 차용하는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현악기 선율을 차용하는 민간풍류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민간풍류 계통보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관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악기와의 조화를 중시한 풍류를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계통별로 피리, 거문고와의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완식이 속한 조선정악전습소 및 이덕환과 김천홍이 속한 이왕직아악부에서는 악보 편찬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가락은 즉흥적으로 연주되지 않고 악보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선율의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국립국악원 줄풍류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해금 선율 진행 양상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103>과 같다.

<표 103>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줄풍류 해금 선율 일치도

이왕직아악부 계통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립국악원
피리 일치도	90.7%	92.9%	94.1%	94.8%
거문고 일치도	74.1%	72.0%	72.0%	71.7%
독자적 선율	2.3%	3.3%	3.0%	2.7%

위 결과를 통해 자료 시기상 후대로 올수록 피리와의 일치도는 높아지고 거문고와의 일치도는 낮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자적 선율 형태 역시 이덕환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는 후대로 갈수록 해금만의 독자적인 선율을 연주하기보다 관악기, 혹은 현악기가 연주한 선율에 맞춰 연주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간풍류 계통의 해금 선율 진행 양상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104>와 같다.

<표 104> 민간풍류 계통의 피리, 거문고 일치도 및 독자적 선율

민간풍류 계통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피리 일치도	68.6%	68.2%	66.8%	72.5%	69.6%	59.9%	73.3%	70.4%
거문고 일치도	87.0%	77.2%	89.3%	89.2%	86.3%	72.0%	85.7%	94.0%
독자적 선율	7.6%	10.9%	7.6%	6.2%	8.0%	23.7%	6.9%	2.6%

민간풍류 계통의 경우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비교하였을 때 거문고 선율과 더 가깝게 연주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독자적인 선율도 더 많이 연주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지용구, 김덕진, 지영희, 류대복, 김창규 모두 해금시나위 및 해금산조를 연주하고 창시하는 등 민속악에도 일가를 이룬 연주자들로 풍류를 연주할 때 보다 더 자유롭게 선율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덕진은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선율을 더 많이 연주하였는데 즉흥적으로 가락을 변주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연주자로 확인된다. 류대복, 김창규는 거문고의 선율과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주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류대복은 현악기의 선율이 한 옥타브 이상 이동할 경우 선율을 해금에 맞게 변형하였다. 예를 들면, 최대한 운지를 바꾸지 않고 개방현을 연

주하거나 운지를 이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율을 바꾸어 보다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변형하였다.

전남의 구례풍류와 전북의 이리풍류는 호남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전용선의 선율을 계승하였다. 따라서 국립국악원의 피리, 거문고와 비교하였을 때 독자적 선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례와 이리의 풍류 사이에서도 독자적 선율의 출현 빈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리의 예능보유자였던 강낙승은 국립국악원을 오가며 풍류를 배운 바 있고 현재도 가락이 잘 맞지 않는 경우는 국립국악원의 선율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례풍류는 전용선의 가락을 전수받은 이순조의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고 있으며, 이리풍류는 국악원과의 교류를 통해 기존의 전용선 가락을 토대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시켜 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풍류는 양금의 음역에 따라 운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운지 이동이 많이 나타나며, 높은 옥타브를 연주해야 하는 경우 소지로 줄을 짚어서 연주하는 등 현악기의 선율 진행과 거의 동일하게 연주한다.

위와 같은 결과로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민간풍류 계통은 서로 관악기, 현악기 선율을 차용하여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줄풍류 해금 선율의 음악적 특징 및 전개양상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제 II장의 연구 자료의 검토, 제 III장의 줄풍류 해금 선율 비교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민간풍류 계통으로 나뉘어 전승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20세기 줄풍류 해금 선율의 음악적 특징과 전개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왕직아악부 계통인 이덕환, 민완식, 김천홍, 국립국악원의 4종과 민간풍류 계통인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의 8종으로 계통을 구분한 후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왕직아악부 계통

1) 리듬꼴

본 장에서는 이왕직아악부 계통으로 파악된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등 총 4종의 리듬꼴을 악곡 별로 파악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령산>

① 이덕환

이덕환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05>와 같다.

<표 105> 이덕환 <상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9		21		107
	76		1		23
	1		13		11

이덕환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10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어 가 76회, 가 23회, 가 21회, 가 13회, 가 11회, 와 가 각각 1회이다.

② 김천홍

김천홍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06>과 같다.

<표 106> 김천홍 <상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9		20		92
	39		11		21
	2		21		9
	3		2		

김천홍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1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펴보면, ♩가 총 92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어 ♪가 39회, ♪♪와 ♪♪가 각각 21회, ♩가 20회, ♪♪가 11회, ○와 ♪♪가 각각 11회, ♪♪가 3회, ♪♪와 ♪♪가 각각 2회이다.

③ 국악원

국악원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07>과 같다.

<표 107> 국악원 <상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	9	♩	24	♩	92
♪	80	♪	1	♪	16
♪	1	♪	16	♪	13








국악원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92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어 ♪가 80회, ♩가 24회, ♪♪가 16회, ♪♪가 16회, ♪♪가 13회, ○가 9회, ♪♪가 1회이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상령산>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08>과 같다.


<표 108>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상령산> 리듬꼴





구분	이왕직아악부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1	○	9	9	9

2		21	20	24
3		107	92	92
4		76	39	80
5		1	.	1
6		23	11	.
7		.	21	16
8		1	2	1
9		13	21	16
10		11	9	13
11		.	3	.
12		.	2	.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상령산>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파악한 결과, 총 12종의 리듬꼴이 나타났으며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리듬은 , , , , , ,  로 총 7종이다.

 로 이루어진 리듬에서 이덕환, 국악원과 김천홍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덕환, 국악원은  리듬을 각각 76, 80회 사용하였으나 김천홍은 39회 연주하였다. 김천홍은  로 이루어진 리듬꼴 대신  나

 와 같은 부점을 활용한 리듬꼴을 사용하거나 리듬을 세분화하여 선율을 더욱 화려하게 연주하였다. 이는 김천홍이 합주가 아닌 해금 독주로 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가락을 변형, 연주할 수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의 리듬꼴은 이덕환이 23회, 김천홍이 11회로 나타났으며 로 이루어진 리듬꼴은 김천홍이 31회, 국악원에서는 22회 사용되었으며 이덕환은 연주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 리듬꼴은 와 같이 부점을 사용하는 리듬으로 점차 변형되어 계승된 것이 확인된다.








(2) <중령산>

① 이덕환

이덕환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09>와 같다.

<표 109> 이덕환 <중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4		68		93
	72		15		1
	3		3		

이덕환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93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어 가 72회, 가 68회, 가 15회, 가 4회, 가 3회, 가 3회, 가 1회이다.

이덕환의 <상령산>과 비교했을 때 ♪ 리듬꼴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의 출현빈도가 21회에서 68회로 증가하여 비교적 단순하게 변화였다.

② 김천홍

김천홍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10>과 같다.

<표 110> 김천홍 <중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9		60		70
	36		1		31
	1		42		2
	4		9		1
	2		1		1

김천홍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5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70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어 ♩가 60회, ♩가 42회, ♩가 36회, ♩가 9회, ♩가 4회, ♩가 2회, 그리고 ♩, ♩, ♩, ♩, ♩가 각각 1회이다.










김천홍의 <상령산>과 비교했을 때 사용된 리듬꼴의 개수는 9종에서 15종으로 증가하였으며, 리듬을 보다 세분화하여 연주하는 등 다채로운 리듬꼴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③ 국악원

국악원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11>과 같다.

<표 111> 국악원 <중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4		59		78
	72		22		1
	10		2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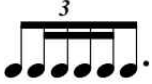
국악원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0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78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어 가 59회, 가 72회, 가 22회, 가 10회, 가 9회, 가 4회, 가 3회, 가 2회 출현한다.








국악원의 <상령산>과 비교하였을 때 사용된 리듬꼴의 개수는 9종에서 10종으로 증가하였으며, 나 와 같은 부점을 추가한 리듬 유형의 출현 빈도가 높아졌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중령산>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12>와 같다.









<표 112>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중령산> 리듬꼴

구분	이왕직아악부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1		4	4	4
2		68	60	59
3		93	70	78
4		72	36	72
5		15	1	.
6		.	31	22
7		1	1	1
8		3	42	10
9		3	2	2
10		.	4	9
11		.	9	.
12		.	1	3
13		.	2	.
14		.	1	.

15		.	1	.
----	---	---	---	---

<중령산>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파악한 결과, 총 15종의 리듬꼴 중 이 왕직아악부 계통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리듬꼴은 , , , , , ,  로 총 7종으로 이는 <상령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리듬꼴과 동일하다.

<상령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 이루어진 리듬에서 이덕환, 국악원과 김천홍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덕환, 국악원은  리듬을 각각 72회 사용하였으나 김천홍은 36회 연주하였다. 대신 짧은 경과음을 사용한  로 이루어진 리듬꼴을 사용하거나, 이덕환이나 국악원에서는 연주되지 않는 , , ,  와 같은 리듬꼴을 활용하여 선율을 다채롭게 운용하였다.

또한  의 리듬꼴은 이덕환이 3회, 김천홍이 2회로 나타났으며 이덕환은  로 이루어진 리듬꼴은 연주하지 않았으나 김천홍이 12회, 국악원에서는 11회 사용하여 부점이 있는 리듬꼴로 점차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 리듬꼴 역시 이덕환은 12회, 김천홍은 1회 연주하였으나  의 경우 김천홍이 6회, 국악원은 8회 사용하였으며 김천홍은  로 이루어진 리듬꼴을 4회 사용하였다. 따라서  와  로 연주되던 리듬꼴은 김천홍에서 부점을 활용한 두 가지의 형태로 변형되었고, 이 중  의 리듬꼴을 계승하여 현행의 국악원으로 전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세령산>

① 이덕환

이덕환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13>과 같다

<표 113> 이덕환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0		75		17
	4		3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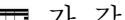
이덕환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7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어 가 17회, 가 12회, 가 10회, 가 6회, 가 4회, 가 3회 출현한다.

② 김천홍

김천홍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14>와 같다.

<표 114> 김천흥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0		65		11
	4		2		12
	5		1		6
	4		4		2

김천흥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2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6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어 가 12회, 가 11회, ♩가 10회, 가 6회, 가 5회, , , 가 각각 4회, 와 가 각각 2회 출현하였다. 셋잇단음표와 부점으로 분할된 유형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국악원

국악원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15>와 같다.

<표 115> 국악원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0		77		17
	4		11		2



국악원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7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어 ♪가 10회, ♪♪가 17회, ♪♪♪가 11회, ♪♪♪♪가 8회, ♪♪♪가 4회, ♪♪♪가 2회로 나타났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세령산>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13>과 같다.

<표 116>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세령산> 리듬꼴

구분	이왕직아악부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1		10	10	10
2		75	65	77
3		17	11	17
4		4	·	·
5		·	4	4
6		3	2	·
7		·	12	11
8		6	5	2
9		12	1	·

10		.	6	8
11		.	4	.
12		.	4	.
13		.	2	.

<세령산>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확인한 결과 총 13종의 리듬꼴이 출현하였으며 이 중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리듬꼴은 총 4종으로 ♩, ♪, ♪♪, ♪♪♪ 가 확인된다.

<상령산>과 <중령산>과 마찬가지로 리듬이 점차 부점으로 변형되어 전승되는 점, 그리고 ♪♪ 의 리듬꼴이 ♪♪♪ 로 변형되어 전승된 점이 주목된다.

♪♪ 의 리듬꼴은 이덕환이 3회, 김천홍은 2회 연주하였으며 ♪♪♪ 의 리듬꼴은 김천홍이 12회, 국악원은 11회 연주하였다. 또한 ♪♪♪♪ 의 리듬꼴은 이덕환이 12회, 김천홍이 1회 연주하였다. 이를 변형하여 김천홍은 ♪♪♪♪ 를 6회, ♪♪♪♪ 를 4회 사용하였으며 국악원에서는 ♪♪♪♪ 를 8회 연주하였으며 후자의 ♪♪♪♪ 리듬형은 계승하지 않았다. 이는 <상령산>과 <중령산>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리듬이 점차 부점으로 변형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덕환의 경우 ♪♪ 로 이루어진 리듬꼴을 4회 사용하고 있으나, 김천홍과 국악원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 로 이루어진 리듬꼴을 4회 사용하여 리듬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또한 김천홍은 ♪♪ 의 리듬꼴 대신 ♪♪♪ 이나 ♪♪♪♪ 로 셋잇단음표가 포함된 형태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선율을 화려하게 연주하였으나 국악원에

서는 이를 계승하지 않았다.

라. <가락덜이>

① 이덕환

이덕환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17>과 같다.

<표 117> 이덕환 <가락덜이>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0		4		35
	10		3		2
	9				

이덕환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20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가 총 35회, 이어 ♪가 10회, ♪♪가 9회, ♩♪가 4회, ♪♪가 3회, ♪♪가 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덕환의 <세령산>과 비교하였을 때 출현한 리듬꼴의 총 개수는 7종으로 동일하나, ♩가 10회에서 20회로 증가하였으며, <가락덜이>에서는 ♪♪ 리듬이 출현하지 않고 ♩♪ 리듬이 4회 출현하여 <세령산>과 비교했을 때 리듬이 더욱 간결하고 단순해졌음이 확인된다.

② 김천홍

김천홍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18>과 같다.

<표 118> 김천홍 <가락덜이>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2		2		2
	6		36		11
	3		3		2
	1		6		1

김천홍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2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36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 12회, ♪가 11회, ♩♪와 ♪♪가 6회, ♩♪♪가 4회, ♩♪과 ♩♪가 각각 3회, ♩♪♪와 ♩♪가 2회, ♩♪♪가 1회 출현하였다.

김천홍의 <세령산>가 비교하였을 때 ♩나 ♩♪와 같이 셋잇단음표로 박자를 분할한 리듬꼴은 출현하지 않는다.

③ 국악원

국악원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19>와 같다.

<표 119> 국악원 <가락덜이>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2		8		2
	41		13		3
	6		2		7






국악원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41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어 ♪♪가 13회, ♪가 12회, ♪·♪♪가 8회, ♪♪♪가 7회, ♪♪♪가 6회, ♪♪♪가 3회, ♪♪와 ♪·♪♪가 각각 2회 출현한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가락덜이>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20>과 같다.






<표 120>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가락덜이> 리듬꼴

구분	이왕직아악부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1		20	12	12
2		4	6	8
3		·	2	·
		·	2	2
4		35	36	41

5		10	11	13
6		3	.	.
7		.	3	3
8		.	3	6
9		2	2	2
10		9	1	.
11		.	6	7
12		.	1	.

<가락덜이>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확인한 결과, 총 12종의 리듬꼴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리듬꼴은 , , , , 으로 총 5종이다.

이덕환의 경우  로 연주하던 리듬꼴을 김천홍, 국악원은 , ,  의 형태로 분할하여 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덕환은  을 20회, 김천홍과 국악원에서는 각각 12회 연주하는 대신 김천홍은 ,  의 리듬꼴을 각각 2회, 국악원은  리듬꼴을 2회 연주하는 등 경과음을 사용하여 리듬을 분할하는 형태로 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덕환이 연주한  의 리듬꼴은 김천홍, 국악원에서  로 변모되었으며  로 이루어진 리듬꼴은  와  의 부점 형태로 변화

하여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락덜이>에서는 김천홍이 셋잇단음표를 사용한 리듬꼴을 연주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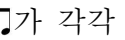







(5) <상현도드리>

① 민완식

민완식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21>과 같다.

<표 121> 민완식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22		73
	13		1		7
	2		11		15
	5		1		4
	1				

민완식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3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73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 22회, 가 15회, 가 13회, 가 11회, 가 7회, 가 5회, 가 4회, 가 2회, , , , 가 각각 1회씩으로 나타났다.

② 이덕환

이덕환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22>와 같다

<표 122> 이덕환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18		90
	12		7		5
	7		10		3

이덕환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90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 18회, ♩♩가 12회, ♩♩♩가 10회, ♩♩♩와 ♩♩가 각각 7회, ♩♩♩♩가 5회, ♩♩♩가 3회, ♩♩회로 나타났다.

③ 김천홍

김천홍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23>과 같다.

<표 123> 김천흥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22		90
	14		6		5
	8		2		13
	4		1		1
	1				





김천흥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3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90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 22회, ♩♪가 14회, ♩♪♪가 13회, ♩♪가 8회, ♩♪♪♪가 6회, ♩♪♪♪♪가 5회, ♩♪가 4회, ♩♪♪가 2회, 그리고 ♩♩, ♩♪, ♩♪♪, ♩♪♪가 각각 1회로 나타났다.

④ 국악원

국악원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24>와 같다.

<표 124> 국악원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18		100
	22		1		5

	13		4		4
	4				

국악원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3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00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 22회, ♩가 18회, ♩♩가 13회, ♩·♩♩가 5회, ♩♩♩, ♩♩, ♩♩가 각각 4회, 그리고 ♩·♩와 ♩·♩♩가 각각 1회씩 나타났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상현도드리>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25>와 같다.

<표 125>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상현도드리> 리듬꼴

구분	이왕직아악부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1		1	1	1	1
2		22	18	22	18
3		73	90	90	100
4		13	12	14	22
5		1	.	.	.
6		7	7	.	.
7		.	.	6	1

8		2	5	.	.
9		.	.	5	5
10		11	7	8	13
11		15	10	2	.
12		5	.	13	4
13		1	.	4	4
14		4	.	1	4
15		.	3	1	.
16		.	.	1	.
17		1	.	.	.

<상현도드리>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확인한 결과 총 17종의 리듬꼴이 출현하였으며, 이 중 이왕직악부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리듬꼴은 , , , , 로 총 5종이다.

의 리듬꼴은 이덕환과 김천홍이 90회, 국악원이 100회 사용하였으나 민완식은 73회 사용하였다. 대신 , , 등의 형태로 리듬을 분할하여 연주하는 것이 확인된다. 의 경우 이덕환은 12회, 민완식은 13회, 김천홍은 14회 연주하였으나 국악원은 22회로 가장 많은 횟수를 보였다. 이덕환과 민완식은 의 리듬꼴을 각각 7회 연주하였으며, 의 경우 김천홍이 6회, 국악원이 1회 연주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분할되었던 리듬이 현행의 국악원으로 전승되면서 다소 단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 리듬형의 경우 해당 음을 눌러 끌어내는 더듬에 대한 리듬형인데, 민완식은 더듬을 하지 않고 잉어질을 하거나 리듬을 ♩.♩.와 같은 2분박으로 분할하여 연주하였다.

(6) <하현도드리>











① 민완식

민완식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26>과 같다.

<표 126> 민완식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	9	♩.	37	♩.♩.♩.	4
♩.♩.♩.♩.	5	♩.♩.♩.♩.♩.	8	♩.♩.♩.♩.♩.	4
♩.♩.♩.♩.♩.	1	♩.♩.	4	♩.♩.	8
♩.♩.♩.	4	♩.♩.♩.	15	♩.♩.♩.	1
♩.♩.♩.	1	♩.♩.♩.	1	♩.♩.♩.♩.♩.♩.♩.	1

민완식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5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37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 15회, ♩.가 9회,

와 가 8회, 가 5회, , , 가 각각 4회 출현하였으며 , , , 은 각각 1회로 나타났다.







민완식의 <하현도드리>는 32분음표로 분할된 유형, 당김음이 나오는 유형, 셋잇단음표로 리듬을 세분화한 유형 등이 출현하여 리듬꼴이 다채롭게 운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② 이덕환

이덕환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27>과 같다.

<표 127> 이덕환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2		61		14
	7		9		7
	7				

이덕환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61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다음으로 가 14회, 가 12회, , 와 가 각각 7회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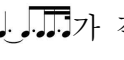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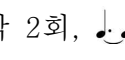
이덕환의 <염불도드리>에서 출현한 리듬꼴은 총 9종으로 <하현도드리>에서는 더 단조로운 리듬꼴을 활용하여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김천홍

김천홍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28>과 같다.

<표 128> 김천홍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8		47		11
	10		1		2
	9		5		9
	2				

김천홍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0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47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이어 가 11회, 가 10회, 와 가 9회, 가 8회, 가 5회 나타났으며 , 가 각각 2회, 는 1회 출현하였다.

④ 국악원

국악원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29>와 같다.

<표 129> 국악원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1		57		13
	6		3		2
	5				

국악원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57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이어 ♩가 13회, ♩가 11회, ♩가 6회, ♩가 5회, ♩가 3회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김천홍의 <하현도드리>에서는 총 10종의 리듬꼴이 나타나, 국악원에서는 리듬꼴의 종류도 7종이 확인되며, 16분음표와 부점 리듬을 혼용하는 김천홍과는 달리 국악원은 부점 리듬만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현도드리>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30>과 같다.







<표 130>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하현도드리 리듬꼴







구분	이왕직아악부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1		9	12	8	11
2		37	61	47	57
3		4	14	11	13
4		5	7	.	.

5		.	.	10	6
6		8	.	.	.
7		.	.	1	.
8		4	.	2	3
9		1	.	.	.
10		4	9	9	10
11		8	7	5	.
12		4	.	9	5
13		15	.	.	.
14		.	7	2	.
15		1	.	.	.
16		1	.	.	.
17		1	.	.	.
18		1	.	.	.

<하현도드리>에서 사용된 총 18종의 리듬꼴 중 이왕직악부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리듬꼴은 ♩, ♩♩, ♩♩, ♩♩로 총 4종이 확인된다.

이덕환은 ♩♩의 리듬꼴을 14회 연주하였으며 민완식은 4회, 김천흥

11회, 국악원은 13회 연주하는 것이 확인된다. 민완식은 특히 해당 리듬
꼴 대신  나 ,  등으로 리듬을 매우 세세하게 분할하여 긴
장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 ,  등 당김음과 부점, 셋잇단음표
가 나타나는 리듬을 활용하여 선율을 더욱 화려하게 연주한다.

부점을 사용하는 전승양상은 하현도드리에서도 확인된다. 의 리듬
형의 경우 이덕환은 7회, 민완식은 5회 사용하였으나 김천홍과 국악원에
서는 위의 리듬꼴 대신 를 각각 10회, 6회 사용하였다. 또한 의
경우 이덕환이 7회, 민완식이 8회, 김천홍이 5회 사용하였으며 국악원에
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부점을 활용한 의 경우 이덕환은 연주하지
않았으며 민완식은 4회, 김천홍은 9회, 국악원은 5회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덕환이 연주한 의 리듬꼴은 민완식, 김천홍이 의 부점을 활용
한 리듬꼴과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현행의 국악원에 들어서면서 부점 형태
의 리듬꼴만 남아 전승된 것을 알 수 있다.

(7) <염불도드리>

① 민완식

민완식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31>과 같다.

<표 131> 민완식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26		121
	29		5		6
	1		6		1

민완식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21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 29회, ♩가 26회, ♩♩♩와 ♩♩가 6회, ♩♩는 5회, 그리고 ♩♩, ♩♩♩♩, ♩♩가 각각 1회 출현하였다. 악곡 전반에 걸쳐 ♩♩, ♩♩와 같은 2분박 계열의 리듬꼴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② 이덕환

이덕환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32>와 같다.

<표 132> 이덕환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32		143		10
	19		1		11
	7		1		3
	1				

이덕환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0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43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 32회, ♩가 19회, ♩가 11회, ♩가 10회, ♩가 7회, 그리고 ♩, ♩, ♩가 각각 1회로 나타났다. 이덕환의 경우 점점 속하게 연주되는 구간에서만 2분박이 출현하였으며, 부점 리듬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김천홍

김천홍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33>과 같다.

<표 133> 김천홍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3		29		142
	22		6		3
	2		24		11
	2		1		2

김천홍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2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42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 29회, ♪가 24회, ♪♪가 22회, ♪♪♪가 11회, ♩가 3회 나타났고 ♩♪♪♪, ♩♪♪, ♩♪가 각각 2회, ♩♪가 1회 출현하였다. 16분음표로 이루어진 리듬과 점16분음표와 32분음표로 이루어진 부점 리듬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양상은 <염불도드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④ 국악원

국악원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34>와 같다.

<표 134> 국악원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30		144
	22		8		12
	9		1		2
	2				

국악원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0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42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 30회, ♪♪가 22회, ♪♪가 12회, ♪♪♪가 9회, ♪♪와 ♪♪가 각각 2회, ♩♪는 1회로 나타났다. 악곡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와 같은 2분박이 출현하였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염불도드리>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35>와 같다.

<표 135>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염불도드리> 리듬꼴

구분	이왕직아악부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1		1	·	3	1
2		26	32	29	30
3		121	143	142	144
4		29	10	22	22
5		5	·	·	·
6		6	19	6	·
7		·	·	3	8
8		1	1	2	·
9		·	11	24	12
10		·	7	11	·
11		·	·	2	9
12		·	1	1	1
13		6	3	·	2
14		1	1	·	2

15		.	.	2	.
----	---	---	---	---	---

염불도드리에서 사용된 리듬꼴은 총 15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이왕 직아악부 계통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출현한 리듬꼴은 ♩, ♩.♩, ♩로 총 3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곡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리듬꼴 사용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김천흥, 국악원에서 나타나는 부점 역시 많이 연주되지 않는다. 민완식의 경우 악곡 전반에서 ♩.♩. 이나 ♩.과 같은 2분박 리듬이 사용되었으며 이덕환, 국악원은 악곡이 속해졌을 때 ♩. 리듬꼴이 출현한다. 악곡 전반에서 2분박이 나타나는 경우는 민간 풍류의 도드리 장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민완식이 민간풍류 연주자들과 잦은 교류를 하며 줄풍류를 연주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습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타령>

① 이덕환

이덕환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36>과 같다.

<표 136> 이덕환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		12		53
	1		3		1
	5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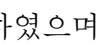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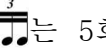








이덕환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53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다음으로 가 52회로 나타났다. 또한 는 12회, 가 3회, 가 2회, 와 , 가 각각 1회 나타난다. 대부분의 리듬이 와 로 구성되어 단조로운 리듬꼴로 연주된다.

② 김천홍

김천홍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37>과 같다.

<표 137> 김천흥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		13		40
	2		2		2
	40		1		2
	8		5		1
	1		1		








김천흥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4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보면, 와 가 40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는 13회, 가 8회, 는 5회, 와 , , 가 각각 2회, , , , 가 각각 1회 나타난다. <타령>에서는 부점 리듬을 혼용하는 양상과 함께 셋잇단음표와 당김음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유발하는 리듬꼴이 다수 사용되었다.

③ 국악원

국악원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38>과 같다.

<표 138> 국악원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		9		49
	1		1		61
	1				

국악원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가장 많이 출현한 리듬꼴은 로 총 61회로 확인되며, 이어 가 49회 나타났다. 는 9회, 는 2회 출현하였고 , , 는 각각 1회 연주된다. 국악원의 <타령>에서는 리듬꼴이 이덕환의 <타령>보다 단조롭게 연주되고 있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타령>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39>와 같다.

<표 139>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타령> 리듬꼴

구분	이왕직아악부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1		2	2	2
2		12	13	9
3		53	40	49
4		1	2	1
5		3	2	1

6		1	2	.
7		52	40	61
8		.	1	.
9		1	2	.
10		.	8	1
11		.	5	.
12		.	1	.
13		.	1	.
14		.	1	.

타령을 확인해 본 결과, 총 14종의 리듬꼴이 확인되었다. 이중 공통적으로 사용된 리듬꼴은 ♩, ♪, ♪♪, ♪♪, ♪♪♪, ♪♪♪의 6종이며, 김천홍은 <타령>에 나타난 14종의 리듬꼴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의 리듬꼴의 경우 이덕환은 53회, 국악원은 49회 사용하였으며 김천홍은 40회 나타나고 있다. 대신 ♪♪♪, ♪♪♪, ♪♪♪, ♪♪♪, ♪♪♪, ♪♪♪와 같이 여러 리듬꼴을 활용하여 선율을 화려하게 연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채로운 진행은 현행 국악원에서는 전승이 되지 않고 간결하게 진행하고 있다.









(9) <군악>

① 이덕환

이덕환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40>과 같다.

<표 140> 이덕환 <군악>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3		36		80
	4		2		39
	1				












이덕환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보면, 가 80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다음으로 가 39회, 는 36회, 가 13회, , 가 각각 1회 나타난다. 대부분의 리듬이 와 로 구성되어 단조로운 리듬꼴로 연주된다.

② 김천홍

김천홍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41>과 같다.

<표 141> 김천홍 <군악>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4		37		53
	4		5		13
	3		32		9
	1		1		

김천홍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1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보면, 가 53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다음으로 가 37회, 가 32회, 가 14회, 는 13회로 나타났으며 는 9회, 는 5회, 가 4회, 가 3회, 와 , 가 각각 1회 나타난다.

③ 국악원

국악원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42>와 같다.

<표 142> 국악원 <군악>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5		39		74
	4		15		1
	25		1		

국악원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보면, ♪가 74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다음으로 ♪가 39회, ♪♪가 25회, ♪와 ♪♪가 15회 순이었으며 ♪♪♪가 4회, ♪♪와 ♪♪♪가 각각 1회 나타난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군악>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43>과 같다.

<표 143>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군악> 리듬꼴

구분	이왕직아악부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1	♪	13	14	15
2	♪	36	37	39
3	♪♪	80	53	74
4	♪♪♪	4	4	4
5	♪♪♪	2	5	.
6	♪♪♪	.	13	15
7	♪♪♪	.	3	1
8	♪♪♪	39	32	25
9	♪♪♪	.	9	1
10	♪♪♪	1	.	.
11	♪♪♪	.	1	.

12		.	1	.
----	---	---	---	---










군악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확인해 본 결과,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리듬꼴은 5종으로 ♩, ♪, ♪♪, ♪♪♪, ♪♪♪♪로 확인된다.

타령과 마찬가지로 김천홍의 다채로운 리듬꼴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으로 이루어진 리듬꼴의 경우 이덕환은 80회, 국악원은 74회 등장한다. 그러나 김천홍은 해당 리듬꼴을 53회 연주하는 대신 경과음을 활용하여 ♪♪♪♪, ♪♪♪, ♪♪♪♪ 등의 리듬꼴을 활용하여 선율을 화려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 악곡에서 나타나는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리듬꼴 출현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44>와 같다.

<표 144>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리듬꼴 출현 양상

악곡명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리듬꼴 총 출현 횟수	공통 사용 리듬꼴
상령산		9	11	9	12	7
중령산		8	15	10	15	7
세령산		7	12	7	13	4
가락덜이		7	12	9	12	5
상현도드리	13	9	13	13	17	5
하현도드리	15	7	10	7	18	4
염불도드리	9	10	12	10	15	3
타령		8	14	7	14	6
군악		7	11	8	12	5
평균	12.3	8	11.2	8.8	14.5	5.1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줄풍류에서 평균 14.5종의 리듬꼴이 사용되었다. 연주자 별로 살펴보면 민완식은 12.3종, 이덕환은 8종, 김천홍은 11.2종, 국악원은 8.8종이 사용되었다. 공통 사용된 리듬꼴은 5.1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민완식, 이덕환은 , 의 리듬꼴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김천홍은 16분음표의 박자를 , 의 부점 형태로 연주하였으며 의 부점과 당김음을 혼합한 리듬꼴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나 국악원에서는 이를 전승하지 않고 부점 형태의 ,  만 연주하고 있다. 또한 민완식은 도드리 장단에서 , 와 같은 2분박 계열의 리듬꼴을 연주하는데 악곡 전반에서 2분박이 나타나는 경우는 민간풍류의 특징 중 하나로, 민완식은 민간풍류 연주자들과 잦은 교류를 하며 줄풍류를 연주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습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민완식과 김천홍은 32분음표로 분할하는 유형, 당김음이 나오는 유형, 셋잇단음표로 리듬을 세분화한 유형 등 리듬꼴을 더욱 다채롭게 운용하였으나 현재 국악원에서는 이를 계승하지 않는다.

2) 꾸밈음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연주된 시김새 중 꾸밈음을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으로 구분하여 그 횟수를 곡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45>와 같다.

<표 145>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앞꾸밈음과 뒤꾸밈음

민간풍류		이덕환	민완식	김천홍	국악원	
상령산	^	앞	9		9	.
		뒤	.		.	6
	^	앞	3		4	.
		뒤	.		.	5
중령산	^	앞	4		2	.
		뒤	.		.	5
	^	앞	10		8	.
		뒤	.		.	9
세령산	^	앞	.		.	.
		뒤	.		.	.
	^	앞	8		6	.
		뒤	.		.	5
가락 털이	^	앞	.		.	.
		뒤	.		.	.
	^	앞	6		5	.
		뒤	.		.	4
상현 도드리	^	앞	.	.	1	.
		뒤	.	1	2	.
	^	앞	3	1	.	.
		뒤	.	.	4	5
하현 도드리	^	앞	.	2	1	.
		뒤	.	.	1	2
	^	앞	1	.	.	.
		뒤
염불 도드리	^	앞
		뒤
	^	앞	1	.	.	.
		뒤	.	.	4	4
타령	^	앞	.		.	.
		뒤	1		.	2
	^	앞	2		.	.
		뒤	.		3	3

군악	^	앞	.		.	.
		뒤	.		.	1
	s	앞	2		3	.
		뒤	.		.	2

본음의 한 음 위의 음정을 짧게 붙여 연주하는 시김새 ^와 두 음 위의 음정을 짧게 붙여 연주하는 시김새 s는 운궁법에 따라 다르게 운용된다. 활의 방향을 전환하며 시김새를 붙이면 앞꾸밈음(^)으로, 본음에 이어 활의 방향을 전환하기 전 시김새를 붙이면 뒤꾸밈음(s)으로 인식됨에 따라 앞꾸밈음의 경우 꾸밈음을 강조하게 되는 효과를 주며, 뒤꾸밈음의 경우 본음의 전개를 유연하게 도와 본음을 더욱 강조하게 하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이덕환의 경우 상령산에서 ^를 앞꾸밈음으로 9회, s를 앞꾸밈음으로 3회 연주하였다. 중령산에서는 ^를 앞꾸밈음으로 4회, s를 앞꾸밈음으로 10회 연주하였으며 세령산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8회, 가락달이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6회, 상현도드리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3회, 하현도드리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연주하였다. 염불도드리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타령에서는 ^를 뒤꾸밈음으로 1회, s를 앞꾸밈음으로 2회 연주하였고 군악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2회 연주하였다. 이덕환은 타령의 s를 뒤꾸밈음으로 연주한 1회를 제외한 모든 시김새를 앞꾸밈음으로 연주하여 꾸밈음에 강세를 주는 연주법을 사용하였다.

민완식은 시김새를 많이 연주하지 않았으나 상현도드리에서 ^를 뒤꾸밈음으로 1회 연주하였으며, 상현도드리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하현도드리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2회 연주하여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천홍의 경우 상령산부터 가락달이까지 연주한 모든 ^와 s시김새를 앞꾸밈음으로 연주하였다. 그러나 상현도드리에서는 ^를 앞꾸밈음으로 1회, 뒤꾸밈음으로 2회 연주하였으며 s를 뒤꾸밈음으로 4회 연주하였다. 하현도드리에서는 ^를 앞꾸밈음으로 1회, 뒤꾸밈음으로 1회 연주하였고 염불도드리에서는 s를 뒤꾸밈음으로 4회, 타령에서는 s를 뒤꾸밈음으로 3회, 군악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3회 연주하는 등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악원에서는 상령산부터 군악까지의 전 곡에서 나타나는 ㄸ와 ㅅ를 활을 전환하기 전 뒤꾸밈음으로 연주하였다. 상령산에서는 ㄸ를 뒤꾸밈음으로 6회, ㅅ를 뒤꾸밈음으로 5회 연주하였고 중령산에서는 ㄸ를 뒤꾸밈음으로 5회, ㅅ를 뒤꾸밈음으로 9회 연주하였다.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에서 ㅅ를 뒤꾸밈음으로 각각 5회, 4회, 5회 연주하였다. 하현도드리에서는 ㄸ를 뒤꾸밈음으로 2회, 염불도드리에서는 ㅅ를 뒤꾸밈음으로 4회 연주하였다. 타령에서는 ㄸ와 ㅅ를 뒤꾸밈음으로 각각 2회, 3회 연주하였고 군악에서는 뒤꾸밈음으로 각각 1회, 2회 연주하였다.

따라서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꾸밈음의 경우 1회를 제외하고 모두 앞꾸밈음을 연주한 민완식, 이덕환의 운궁법에서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해서 사용한 김천홍을 거쳐 뒤꾸밈음을 주로 연주하는 현재의 국악원의 운궁법으로 정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뒤꾸밈음으로 변화함으로써 꾸밈음이 아닌 본음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앞꾸밈음에 비해 다소 부드럽게 연주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3) 운궁법

이왕직아악부 계통으로 파악된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등 총 4종의 운궁법을 악곡 별로 파악하고자 해금의 특징적인 운궁법, 잉어질¹⁴⁶⁾ 사용의 횟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연주된 잉어질의 횟수를 곡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46>과 같다.

<표 146>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연주된 악곡별 잉어질 주법

이왕직아악부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
상령산		.	.	.
중령산		1	1	1
세령산		3	3	3
가락덜이		5	5	5
상현도드리	11(1)	12	12	12
하현도드리	5	4	4	4
염불도드리	3(1)	8	8	8
타령		15	15	15
군악		.	.	.

146) 잉어질은 해금의 대표적인 연주법이다. 입소리로는 ‘잉-핫지’로 발음한다. 기능상 피리의 서침 연주법과 비교된다. 해금 연주법에서 같은 음길이를 연주하더라도 음의 강약에 따라 활을 빠른 속도로 힘 있게 긁거나 천천히 가볍게 마찰시켜야 하는 등 악곡에 따라 활 쓰는 법이 변화 있게 사용된다. 활을 쓰는 방법은 ‘활을 당기고 미는(찌는 듯) 것’ 외에 활의 방향을 빠른 속도로 바꾸어 마치 소리를 채는 듯 한 효과를 내는 ‘잉어질’ 기법이 있다. 잉어질 연주법은 주로 완전4도의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단3도 관계에서 활의 방향을 빠른 속도로 바꾸어 독특한 음색을 낸다. 송혜진, 『한국악기』, (서울: 열화당, 2001.).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의 잉어질의 기보방법 외 실제 연주 시 박자 운용이 각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잉어질 횡수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민완식은 다른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연주자들과는 차이를 보였는데, 潢에서 한 음 위의 汰를 속히 친 후 林으로 하행 진행하게 되는데, 한 음 아래의 無를 연주한 후 太로 순차적으로 하행 진행하는 경우가 상현도드리에서 1회, 염불도드리에서 1회 나타났다.

<악보 37> <상현도드리> 1장 8각

<악보 37>을 살펴보면 이덕환과 김천홍, 국악원에서 잉어질 박자 운용을 모두 다르게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덕환의 경우 潢을 최대한 길게 연주한 후 汰를 짧게 꾸밈음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김천홍은 ♩의 길이만큼 潢을 연주하고 점 8분쉼표(♣)에 해당하는 휴지부를 가진 후 汰를 연주한다. 반면 국악원에서는 16분 쉼표(♣) 길이의 짧은 휴지부를 가진다. 김천홍의 경우 국악원보다 긴 휴지부를 활용함으로써 곡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점 4분음표 후에 강세를 주어 단호한 느낌을 주고 긴 휴지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잉어질 사용 횡수는 큰 변동 없이 전승되었으나 음정이나 박자의 운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며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운지법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사용된 운지법을 곡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147>과 같다.

<표 147>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운지법

이왕직아악부	이덕환	민완식	김천홍	국악원
상령산	黃→仲→黃		黃→仲→黃	黃→仲→黃
중령산	仲		仲	仲
세령산	仲		仲	仲
가락덜이	仲		仲	仲
상현도드리	仲	仲	仲	仲
하현도드리	黃→仲	黃→仲	黃→仲	黃→仲
염불도드리	仲	仲	仲	仲
타령	仲→黃→仲		仲→黃→仲	仲→黃→仲
군악	黃→太→ 仲→太→ 仲→太		黃→太→ 仲→太→ 仲→太	黃→太→ 仲→太→ 仲→太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운지법을 살핀 결과 전곡에서 모두 동일한 운지법이 사용되었으며, 운지 이동을 하는 구간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령산>의 경우 黃을 1指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하다가 3장 첫 번째 각 첫 번째 대강에서 仲을 1指로 하여 운지를 이동한다. 이후 3장 넷째 각의 두 번째 대강에서 黃을 1指로 운지를 이동하여 연주한다.



<중령산>부터 <상현도드리>까지는 모두 仲을 1指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한다. 이후 <하현도드리>가 시작할 때 黃을 1指로 발음하다가 3장에

서 1指를 이동하여 伸 운지법을 사용한다. 이후 <염불도드리>와 <타령> 2장의 여섯 번째 각까지 伸을 1指로 연주하다가 일곱 번째 각에서 1指를 黃으로 이동하여 네 각을 연주한다. 이후 열한 번째 각에서 1指를 다시 伸으로 발음하여 타령의 마지막 각까지 연주한다. 군악에서는 黃을 1指로 하는 운지법으로 시작하여 두 각을 연주한 후 太를 1指로 이동하여 1장을 마무리한다. 2장에서는 伸을 1指로 하는 운지법으로 연주한 후 네 각 이후 다시 1指를 太로 이동하여 발음한다. 이후 권마성 가락을 연주할 때 伸을 1指로 이동한 다음 3장 마지막 각에서 다시 太를 1指로 이동한 후 <군악>의 마지막 장단까지 연주하는 동일한 운지법을 사용한다. 위와 같이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는 운지법과 운지를 이동하는 장단 모두 일치하며, 이는 이왕직아악부 시기에 확립된 운지법이 현행까지 동일하게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결론

본 장에서는 이왕직아악부 계통에 해당하는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을 대상으로 줄풍류의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1기(1929~1939)에 해당하는 민완식(1938)과 이덕환(1939), 제2기(1959~1972)에 해당하는 김천홍(1972), 제3기(1985~2015)에 해당하는 국악원(2015)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기에 따른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리듬꼴을 살펴보면, 제1기는 평균 10.1종, 제2기는 평균 11.2종, 제3기는 평균 8.8종의 리듬꼴을 사용하였다. 제1기의 민완식, 이덕환은 , 의 리듬꼴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제2기의 김천홍은 16분음표의 박자를 , 의 부점 형태로 연주하였고 의 부점과 당김음을 혼합한 리듬꼴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나 제3기의 국악원에서는 이를 전승하지 않고 부점 형태의 , 만 연주하고 있다. 또한

민완식은 도드리 장단에서 , 와 같은 2분박 계열의 리듬꼴을 연주하는데 제2기·제3기에서는 계승하지 않으며, 민완식과 김천홍은 32분음표로 분할하는 유형·당김음이 나오는 유형·셋잇단음표로 리듬을 세분화한 유형 등 리듬꼴을 더욱 다채롭게 운용하였으나 제3기 국악원에서는 이를 계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기에서 제3기로 진행되면서 사용되는 리듬꼴의 개수도 줄어들고 그 종류 역시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꾸밈음의 경우 1회를 제외하고 모두 앞꾸밈음을 연주한 제1기의 민완식, 이덕환의 운궁법에서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해서 사용한 제2기의 김천홍을 거쳐 뒤꾸밈음을 주로 연주하는 제3기의 국악원의 운궁법으로 정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뒤꾸밈음으로 변화함으로써 꾸밈음이 아닌 본음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앞꾸밈음에 비해 다소 부드럽게 연주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운궁법을 살펴보면 제1기에서 제3기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없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잉어질의 운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제2기의 김천홍은 의 길이만큼 潢을 연주하고 점 8분 쉼표(♫)에 해당하는 휴지부를 가진 후 汰를 연주한다. 반면 제3기의 국악원에서는 16분 쉼표(♮) 길이의 짧은 휴지부를 가진다. 김천홍의 경우 국악원보다 긴 휴지부를 활용함으로써 곡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점 4분음표 후에 강세를 주어 단호한 느낌을 주고 긴 휴지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운지법을 살펴보면 운지법과 운지를 이동하는 장단 모두 시기에 상관없이 일치된 모습으로 전승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왕직아악부 시기에 정착된 운지법이 악보를 통해 전승됨에 따라 현행까지 거의 동일하게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은 악보를 통해 전승됨에 따라 큰 변동 없이 전승되었으며, 시기의 흐름에 따라 다소 단순화된 형태로 전승되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민간풍류 계통

1) 리듬꼴

본 장에서는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을 악곡 별로 파악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령산>

① 지용구

지용구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48>과 같다.

<표 148> 지용구 <상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10		2
	1		13		7
	2		1		2
	3		10		

지용구의 <상령산>¹⁴⁷⁾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1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13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와 ♩가 각각 10회, ♩

147) 지용구의 <상령산>은 유성기 음반의 용량 상 상령산 2장 2각까지 녹음되어 있어 해당 분량에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가 9회, ♪♪가 3회, ♪♪♪, ♪♪, ♪♪♪가 2회, ♪, ♪♪♪, ♪♪♪가 각 1회 출현한다. 지용구는 ♪♪와 ♪♪♪ 리듬을 혼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류대복

류대복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49>와 같다.

<표 149> 류대복 <상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97		2		94
	22		2		17
	13				

류대복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9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94회, ♪♪가 22회, ♪♪♪가 17회, ♪♪가 13회, ♪♪♪와 ♪♪가 각각 2회 출현하였다. 상령산 악곡의 대부분이 ♪와 ♪의 리듬꼴로 이루어져 매우 간결하게 연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영희

지영희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50>과 같다.

<표 150> 지영희 <상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1		27		5
	1		9		10
	48		28		30
	3		6		15
	3		11		2
	2		8		6
	4		1		4
	1		1		1
	2		1		

지영희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2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48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가 30회, ♩가 28회, ♩가 27회, ♩가 15회, ♩가 11회, ♩가 9회, ♩가 8회, ♩가 6회, ♩가 5회, ♩가 4회, ♩, ♩가 3회, ♩, ♩, ♩가 2회 나타났으며 ♩, ♩, ♩, ♩, ♩, ♩, ♩는 각각 1회로 나타났다. 지영희의 경우 16분음표 두 번을 연주하지 않고 부점 혹은 당김음을 활용한 리듬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32분음표를 과감하게 사용하여 화려하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④ 구례풍류

구례풍류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51>과 같다.

<표 151> 구례풍류 <상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47		18
	2		106		53
	2		12		4





구례풍류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06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71회, ♩가 47회, ♩가 18회, ♩가 12회, ♩가 4회, ♩와 ♩가 각 2회로 확인된다.

⑤ 이리풍류

이리풍류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52>와 같다.

<표 152> 이리풍류 <상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0		5		40
	8		9		98

	42		13		4
	3				

이리풍류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1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98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50회, ♩가 40회, ♪♪가 13회, ○가 10회, ♩♪가 9회, ♩♪가 8회, ♩♪가 5회, ♪♪가 4회, ♪♪가 3회 출현한다.

⑥ 대전풍류

대전풍류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53>과 같다.

















<표 153> 대전풍류 <상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		82		17
	112		8		







대전풍류의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5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12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82회, ♩♪가 17회, ♩가 8회, ○가 2회 출현한다. 대전풍류는 가장 단조로운 리듬꼴을 보이고 있다.

민간풍류의 <상령산>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54>와 같다.

<표 154> 민간풍류 계통의 <상령산> 리듬꼴

구분	민간풍류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1		1	·	1	1	10	2
2		·	·	·	·	5	·
3		10	97	27	47	40	82
4		2	2	5	18	8	17
5		·	·	1	2	·	·
6		1	·	9	·	9	·
7		·	·	10	·	·	·
8		13	94	48	106	98	112
9		7	22	28	53	42	8
10		2	·	·	2	·	·
11		3	·	30	·	13	·
12		·	·	3	·	·	·
13		2	2	·	·	·	·
14		10	13	6	12	4	·
15		·	·	·	4	3	·
16		·	·	15	·	·	·

17		.	.	3	.	.	.
18		.	.	11	.	.	.
19		.	.	2	.	.	.
20		.	.	2	.	.	.
21		.	.	8	.	.	.
22		.	.	6	.	.	.
23		.	.	4	.	.	.
24		.	.	1	.	.	.
25		.	.	4	.	.	.
26		.	.	1	.	.	.
27		.	.	1	.	.	.
28		.	.	1	.	.	.
29		.	.	2	.	.	.
30		.	.	1	.	.	.

민간풍류의 <상령산>에서 사용된 리듬꼴은 총 30종으로, 민간풍류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된 리듬꼴은 , , , , 의 5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리듬꼴을 사용하는 지영희는 총 26종의 리듬꼴을 활용하였으며, 가장 적은 리듬꼴이 출현하는 대전풍류로 총 5종의 리듬꼴이 출현한다. 지용구는 16분음표를 2회 연주하는 리듬꼴과 점16분음표와 32분음표의 부점 리듬을 사용하는 두 가지의 형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류대복과 구례풍류는 16분음표만 2회 연주한다. 부점 리듬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영희와 이리풍류인데, 지영희는 부점리듬을 당김음으로 활용하는 리듬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더한다. 대전풍류는 16분음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구례풍류와 대전풍류에만 나타나는 리듬꼴은 로 당김음과 부점을 활용한 리듬꼴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부여한다.

(2) <중령산>

① 지용구

지용구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55>와 같다.

<표 155> 지용구 <중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79		8
	7		103		16
	22		22		1

지용구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103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79회, ♩와 ♩가 각각 22회, ♩가 16회, ♩가 8회, ♩가 7회, ♩와 ♩가 각각 1회 출현한다.

지용구의 <상령산>과 비교하였을 때 출현하는 리듬꼴의 개수가 11종에서 9종으로 감소하여 비교적 단조로워졌으며, 점 16분음표와 32분음표의 부점 리듬만을 사용하는 점, ♩ 리듬이 추가로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② 류대복

류대복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56>과 같다.

<표 156> 류대복 <중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01		5		116
	21		4		4

류대복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101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16회, ♪가 21회, ♪♩는 5회, ♪♪와 ♪♩가 각각 4회 출현하였다. 류대복의 <상령산>과 비교하였을 때 리듬꼴의 총 출현 개수가 1회 감소하였으며, 리듬꼴 역시 매우 간결하게 연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2분박 리듬이 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③ 지영희

지영희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57>과 같다.

<표 157> 지영희 <중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48		7		1
	97		48		5
	26		9		6

	5		2		2
	1		1		1
	2		3		1
	1		1		1
	1		7		1
	9		2		2





지영희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27종이다. 횃수 별로 살펴보면 ♩가 9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와 ♪가 각각 48회, ♪♪가 26회, ♪♪♪가 9회, ♩♪와 ♪♪♪가 각각 7회, ♩♪♪가 6회, ♩♪와 ♪♪♪가 5회, ♪♪♪가 3회, ♩♪♪, ♩♪♪, ♪♪♪, ♪♪♪, ♪♪♪가 각각 2회, ♩♪♪, ♪♪♪, ♪♪♪, ♪♪♪, ♪♪♪, ♪♪♪가 각각 1회 출현한다. <상령산>과 마찬가지로 지영희의 경우 16분음표를 2회 연주하는 횃수보다 부점 혹은 당김음을 활용한 리듬형 사용 빈도가 훨씬 높으며, 32분음표나 셋잇단음표를 과감하게 사용하여 화려하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④ 구례풍류

구례풍류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58>과 같다.

<표 158> 구례풍류 <중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9		23		7
	139		43		6

구례풍류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39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43회, ♩가 29회, 가 23회, 가 7회, 가 6회로 확인된다. <상령산>과 비교해보았을 때 리듬꼴의 출현 개수도 9종에서 6종으로 감소하였으며, 부점 리듬꼴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한 리듬꼴로 운용하고 있다.

⑤ 이리풍류

이리풍류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59>와 같다.

<표 159> 이리풍류 <중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1		64
	17		2		3
	145		17		2
	6		1		

이리풍류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1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4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64회, ♩♪와 ♪♪가 17회, ♩♪♪가 6회, ♩♪♪♪가 3회, ♩♪♪가 2회, ♩., ♩♪., ♩♪♪가 각각 1회 출현하였다. <상령산>과 비교하였을 때 리듬꼴 종류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사용 양상 역시 흡사하였다.

⑥ 대전풍류

대전풍류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60>과 같다.


















<표 160> 대전풍류 <중령산>의 리듬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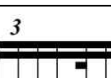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83		16		134
	12				

대전풍류의 <중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4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3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83회, ♩.♪가 16회, ♪♪가 12회 출현한다. <상령산>은 총 5종의 리듬꼴이 사용되었으나 <중령산>에서는 4회로 감소하여 가장 단조로운 리듬꼴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전풍류가 거문고를 중심으로 한 풍류이기 때문에 거문고의 선율 진행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풍류의 <중령산>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61>과 같다.

<표 161> 민간풍류 계통의 <중령산>의 리듬꼴

구분	민간풍류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1		1	·	·	·	1	·
2		·	·	·	·	1	·
3		79	101	48	29	64	83
4		103	116	97	189	145	134
5		8	5	7	23	17	16
6		·	·	·	7	2	
7		·	·	1		3	
8		7	·	·	·	·	
9		16	21	48	43	17	12
10		·	·	5	6	2	·
11		22	·	26	·	6	·
12		·	4	·	·	·	·
13		22	·	9	·	1	·
14		·	4	·	·	·	·
15		·	·	6	·	·	·
16		1	·	5	·	·	·
17		·	·	2	·	·	·

18		.	.	2	.	.	.
19		.	.	1	.	.	.
20		.	.	1	.	.	.
21		.	.	1	.	.	.
22		.	.	2	.	.	.
23		.	.	3	.	.	.
24		.	.	1	.	.	.
25		.	.	1	.	.	.
26		.	.	1	.	.	.
27		.	.	1	.	.	.
28		.	.	1	.	.	.
29		.	.	7	.	.	.
30		.	.	1	.	.	.
31		.	.	9	.	.	.
32		.	.	2	.	.	.
33		.	.	2	.	.	.

민간풍류의 <중령산>에서 나타난 리듬꼴은 모두 33종으로 확인된다. 이 중 지용구는 9종, 류대복은 6종, 지영희는 27종, 구례풍류는 6종, 이리풍류는 11종, 대전풍류는 4종의 리듬꼴을 활용하여 연주한다. 지용구는 <상령산>에서 16분음표 2회를 연주하는 리듬꼴과 부점으로 연주하는 리듬꼴을 혼용하였으나 <중령산>에서는 부점의 리듬꼴만 연주한다. 류대복은 2분박을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영희는 부점과 당김음을 활용한 리듬꼴, 그리고 셋잇단음표와 32분음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화려하게 연주한다. 구례풍류는 부점 리듬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리풍류는 16분음표 2회를 연주하는 리듬꼴과 부점으로 연주하는 리듬꼴을 혼용한다. 대전풍류에서는 16분음표로 리듬을 분할하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아 매우 간결한 리듬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3) <세령산>

① 지용구

지용구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62>와 같다.

<표 162> 지용구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		11		9
	67		20		3

지용구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6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20회, ♩가 11회, ♩♪는 9회, ♩♪♪가 3회, ♩♪는 2회 출현하였다.

8분음표를 16분음표로 분박할 때 부점을 활용하는 리듬꼴을 사용하였으며, 1대강과 2대강에 걸쳐 ♩♪박을 연주하여 당김음의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② 김덕진

김덕진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63>과 같다.

<표 163> 김덕진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2		5		57
	32		6		1
	3		1		1
	3				

김덕진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0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5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32회, ♩가 12회, ♪♪는 6회, ♩♪는 5회, ♪♪♪와 ♪♪♪가 3회, ♪♪, ♪♪♪, ♪♪♪가 각각 1회 출현하였다.






김덕진은 ♪♪와 같은 2분박이 출현하며, ♩, ♪♪나 ♪♪♪와 같은 당김음을 활용하여 긴장감을 부여하는 리듬꼴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③ 류대복

류대복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64>와 같다.

<표 164> 류대복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		13		4
	59		22		5

	3		1		3
	1		1		

류대복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2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59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22회, ♩가 13회, ♪♪는 5회, ♪♪♪는 4회, ♪♪♪, ♪♪♪가 3회, ♪♪가 2회, ♪♪♪, ♪♪♪♪, ♪♪♪♪가 각각 1회 출현하였다.

김덕진과 마찬가지로 류대복 역시 ♪♪와 같은 2분박이 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④ 김창규

김창규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65>와 같다.

<표 165> 김창규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6		2		1
	63		40		14
	2				

김창규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63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40회, ♪♪♪가 14회, ♩가 6회, ♪♪♪와 ♪♪♪♪는 각각 2회, ♪♪♪♪는 1회 출현하였다.

⑤ 지영희

지영희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66>과 같다.

<표 166> 지영희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2		9		1
	60		17		13
	5		2		1
	1		1		4

지영희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60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7회, ♪♪가 13회, ♩가 9회, ♪♪♪가 5회, ♪♪♪♪가 4회, ♩♪와 ♪♪가 각 2회, ♩♪와 ♪♪♪, ♪♪♪가 각각 1회씩 출현하였다.

지영희는 부점 형태의 리듬, 부점과 당김음을 혼합한 리듬, 셋잇단음표를 사용한 리듬 등 다양한 형태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선율을 다채롭게 연주하고 있다.

⑤ 구례풍류

구례풍류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67>과

같다.

<표 167> 구례풍류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4		7
	99		18		

구례풍류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5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99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8회, ♪♪♪가 7회, ♩가 4회, ♪♪가 1회 연주된다. 단순한 리듬꼴로 연주되고 있으며 부점 형태의 리듬꼴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⑥ 이리풍류

이리풍류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68>과 같다.

<표 168> 이리풍류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7		5		1
	4		86		19
	1		4		1

이리풍류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86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9회, ♩가 7회, ♩♪가 5회, ♩♪♪♪, ♩♪♪가 4회, ♩♪♪, ♩♪, ♩♪♪가 각각 1회 연주된다. 16분음표로 분박되는 경우와 점16분음표와 32분음표의 부점 형태로 연주하는 리듬형이 혼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⑦ 대전풍류

대전풍류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69>와 같다.

















<표 169> 대전풍류 <세령산>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6		10		84
	17				





대전풍류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4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8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7회, ♩♪♪가 10회, ♩가 6회 연주된다. 단순한 리듬꼴로 연주되고 있으며 부점 형태의 리듬꼴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된 <세령산>의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70>과 같다.

<표 170> 민간풍류 계통의 <세령산> 리듬꼴

구분	민간풍류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1		2	·	2	·	2	1	·	·
2		11	12	13	6	9	3	7	6
3		9	5	4	2	1	7	5	10
4		·	·	·	1	·	·	1	·
5		·	·	·	·	·	·	4	·
6		67	57	59	63	60	99	86	84
7		20	32	22	40	17	18	19	17
8		·	6	5	·	·	·	·	·
9		·	1	3	·	·	·	·	·
10		·	·	·	·	·	·	1	·
11		3	3	·	14	13	·	·	·
12		·	1	·	·	·	·	·	·
13		·	1	·	·	·	·	·	·
14		·	·	1	·	·	·	·	·
15		·	3	3	·	·	·	1	·
16		·	·	1	2	5	·	2	·

17		2	.	.	.
18		1	.	.	.
19		.	.	1
20		1	.	.	.
21		1	.	.	.
22		4	.	.	.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된 <세령산>의 리듬꼴은 총 22종으로, 이 중 지용구는 6종, 김덕진은 10종, 류대복은 12종, 김창규는 7종, 지영희는 16종, 구례풍류는 5종, 이리풍류는 9종, 대전풍류는 4종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지용구는 8분음표를 16분음표로 분박할 때 부점을 활용하는 리듬꼴을 사용하였으며, 김덕진, 류대복은 와 같은 2분박이 출현하며, , 나 와 같은 당김음을 활용하여 긴장감을 부여하는 리듬꼴을 연주한다. 지영희는 부점 형태의 리듬, 부점과 당김음을 혼합한 리듬, 셋잇단음표를 사용한 리듬 등 다양한 형태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선율을 화려하게 연주하며, 구례풍류와 대전풍류는 부점 리듬을 연주하지 않으나, 이리풍류는 부점 리듬을 사용하여 다채롭게 연주하는 점이 특징이다.

(4) 가락덜이

① 지용구

지용구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71>과 같다.

<표 171> 지용구 <가락덜이>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14		12
	27		7		1

지용구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2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4회, ♩♪는 12회, ♩♪가 7회, ♩♪와 ♩♪는 1회 출현하였다.

지용구의 <세령산>과 비교하였을 때 출현한 총 리듬꼴의 종류는 6종으로 같으나 ♩♪ 대신 ♩♪의 리듬형이 출현하였다.

② 류대복

류대복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72>와 같다.

<표 172> 류대복 <가락덜이>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3		26		7
	4		4		1

류대복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26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와 ♩가 23회, ♩.♩는 7회, ♩♩과 ♩♩는 각 4회, 와 ♩.♩가 1회 출현한다.

류대복의 <세령산>에서는 출현한 리듬꼴의 종류가 12종에서 6종으로 감소하였으며 리듬꼴 역시 단순한 리듬형을 사용하고 있다.

③ 김창규

김창규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73>과 같다.

<표 173> 김창규 <가락덜이>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8		7		32
	11		4		

김창규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5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32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8회, ♩♩가 11회, ♩.♩는 7회, ♩.♩는 4회 출현하였다.

<세령산>과 비교하였을 때 출현한 리듬꼴의 종류는 7종에서 5종으로 감소하였으며 리듬꼴 역시 부점형의 리듬이 사용되지 않고 간결하게 연주되었다.

④ 지영희

지영희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74>와 같다.

<표 174> 지영희 <가락덜이>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14		4		1
	1		1		32
	18		7		3
	4		1		1
	1				

지영희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3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32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8회, ♩가 14회, ♪가 7회, ♩과 ♪가 4회, ♩, ♩, ♩, ♩, ♩, ♩, ♩가 각각 1회 연주된다.

지영희는 32분음표를 연주하는 부점 형태의 리듬과 셋잇단음표를 사용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선율을 다채롭게 연주하고 있다.

⑤ 구례풍류

구례풍류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75>와 같다.

<표 175> 구례풍류 <가락덜이>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9		9		53
	7				

구례풍류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4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53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와 ♩가 각 9회, ♩♩가 7회로 확인된다. 단순한 리듬꼴로 연주되고 있으며 부점 형태의 리듬꼴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⑥ 이리풍류

이리풍류의 <세령산>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76>과 같다.

<표 176> 이리풍류 <가락덜이>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0		8		1
	1		3		45
	16		4		

이리풍류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4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6회, ♩가 10회, ♩♪♪가 8회, ♩♪♪가 4회, ♩♪♪♪가 3회, ♩♪♪, ♩♪♪♪가 각각 1회 연주된다. 부점 형태로 연주하는 리듬형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⑦ 대전풍류

대전풍류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77>과 같다.

<표 177> 대전풍류 <가락덜이>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4		10		2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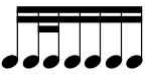
대전풍류의 <가락덜이>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4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2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24회, ♩♪♪가 10회, ♪♪가 4회 연주된다. 구례풍류와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한 리듬꼴로 연주하는 양

상을 보인다.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된 <가락덜이>의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78>과 같다.

<표 178> 민간풍류 계통의 <가락덜이> 리듬꼴

구분	민간풍류	지용구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1		1
2		14	23	18	14	9	10	24
3		27	31	32	32	53	45	27
4		12	1	7	4	9	8	10
5		.	.	.	1	.	1	
6		.	.	.	1	.	1	
7		.	.	.	1	.	3	
8		7	9	11	18	7	8	4
9		1	4
10		.	1	4
11		.	.	.	7	.	4	.
12		1	.	.	3	.	.	.

13		.	.	.	4	.	.	.
14		.	.	.	1	.	.	.
15		.	.	.	1	.	.	.
16		.	.	.	1	.	.	.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된 <가락덜이>에서 사용된 리듬꼴은 총 16종으로, 이 중 지용구는 6종, 류대북은 6종, 김창규는 5종, 지영희는 13종, 구례풍류는 4종, 이리풍류는 8종, 대전풍류는 4종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대체적으로 <세령산>보다 사용된 리듬꼴의 종류도 적고 리듬형태 또한 간결하게 변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5) <상현도드리>

① 지용구

지용구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79>와 같다.

<표 179> 지용구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4		89		24
	1		5		2
	1		26		

지용구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89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26회, ♩♪는 24회, ♩가 14회, ♩♪♪는 5회 출현하며 ♩♪♪와 ♩♪♪는 각 1회 출현하였다.

♩♪♪와 같은 2분박이 나타나며, ♩♪♪과 같은 당김음을 활용한 부점 리듬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② 김덕진

김덕진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80>과 같다.

<표 180> 김덕진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4		65		15
	2		1		1
	2		2		1
	9		5		5




김덕진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2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6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는 15회, ♩.가 9회, ♩.와 ♩.는 각 5회, ♩가 4회, ♩.♩, ♩.♩., ♩.는 각 2회, ♩.♩., ♩.♩., ♩.는 각 1회 연주된다.

김덕진은 ♩.와 같은 2분박이 출현하며, ♩, ♩.♩나 ♩.와 같은 당김음을 활용하여 긴장감을 부여하는 리듬꼴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③ 류대복

류대복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81>과 같다.

<표 181> 류대복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		9		94

	9		5		1
	27		8		

류대복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9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27회, ♩와 ♩♪가 각 9회, ♪♪가 8회, ♩♩는 2회 출현한다. ♪♪와 같은 2분박이 나타나고 있다.

④ 지영희

지영희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82>와 같다.

<표 182> 지영희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17		78		9
	1		2		2
	1		4		4
	3		1		16
	2		17		4

지영희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5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78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와 ♩♩가 17회, ♩♩가 16회, ♩♩♩가 9회, ♩♩♩♩, ♩♩♩♩, ♩♩♩가 4회, ♩♩♩♩가 3회, ♩♩♩♩♩, ♩♩♩♩♩, ♩♩♩♩♩가 2회, ♩♩♩♩♩, ♩♩♩♩♩♩, ♩♩♩♩♩♩가 각각 1회 연주된다.

지영희도 ♩♩♩, ♩♩♩, ♩♩♩♩와 같은 2분박 형태의 리듬꼴을 연주하고 있으며 악곡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다른 곡에 비해 32분음표나 부점형태의 리듬꼴은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다.

⑤ 구례풍류

구례풍류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83>과 같다.

<표 183> 구례풍류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12		110
	5		16		1
	9		18		

구례풍류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10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은 18회, ♩♩♩은 16회, ♩♩♩는 9회, ♩♩♩♩는 5회, ♩♩♩♩와 ♩♩♩♩는 각각 1회 출현한다. 구례풍류는 ♩♩와 ♩♩♩와 같은 2분박 형태 리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⑥ 이리풍류

이리풍류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84>와 같다.

<표 184> 이리풍류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4		15		82
	11		16		7
	11		7		

이리풍류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82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6회, ♩가 15회, ♪♪와 ♪♪가 11회 출현하며 ♪♪와 ♪♪는 각 7회, ♩는 4회 출현한다. 이리풍류는 2분박 계열이 출현하며 8분음표를 분박할 때 부점을 사용하는 형태의 리듬꼴을 연주한다.

⑦ 대전풍류

대전풍류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85>와 같다.

<표 185> 대전풍류 <상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0		4		104
	36		5		1

대전풍류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0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36회, ♩가 10회, ♪가 5회, ♪가 4회, ♩가 4회 연주된다. 구례풍류와 마찬가지로 아주 2분박 계열의 리듬꼴 사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민간풍류 계통의 <상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86>과 같다.

<표 186> 민간풍류 계통의 <상현도드리> 리듬꼴

구분	민간풍류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1		.	.	2	.	1	4	.
2		14	4	9	17	12	15	10
3		89	65	94	78	110	82	104
4		24	15	20	9	5	11	4
5		.	2	.	1	.	.	.
6		.	1	5	2	.	.	.

7		.	1	.	2	.	.	.
8		.	.	.	1	.	.	.
9		1	2	.	4	16	16	36
10		5	2	.	4	1	.	.
11		2	.	1	3	.	.	.
12		1	1
13		.	.	.	1	.	.	.
14		26	9	27	16	9	7	.
15		.	5	8	2	18	11	5
16		.	.	.	17	.	7	.
17		.	5	.	4	.	.	1

민간풍류 계통의 <상현도드리>에서 사용된 리듬꼴은 총 17종이다. 이 중 지용구, 류대북, 구례풍류, 이리풍류는 8종, 김덕진은 12종, 지영희는 15종, 대전풍류는 6종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상현도드리>에서는 모든 민간풍류에서 와 로 이루어진 2분박의 리듬꼴이 연주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6) <하현도드리>

① 지용구

지용구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87>과 같다.

<표 187> 지용구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14		75
	13		1		2
	5		7		

지용구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7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14회, ♩는 13회, ♩는 7회, ♩가 5회, ♩가 2회, ♩가 1회 출현한다.





<염불도드리>와는 달리 2분박이 나타나지 않으며 부점 리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② 류대복

류대복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88>과 같다.

<표 188> 류대복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8		68		20
	13		12		

류대복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5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68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20회, 가 13회, 는 12회, ♩는 8회 출현한다. 의 2분박 리듬꼴이 나타나고 있으며 리듬꼴의 종류는 다양하게 연주되지 않는다.

③ 지영희

지영희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89>와 같다.

<표 189> 지영희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4		4		57
	14		9		5
	11		6		2

지영희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5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는 14회, ♩♩는 11회, ♩·♩♩는 9회 출현하며 ♩♩♩는 6회, ♩·♩♩♩는 5회, ♩·♩와 ♩는 4회, ♩♩♩는 2회 연주된다.

2분박은 연주되지 않으며 8분음표를 분박할 때에 16분음표를 2번 반복하는 형태와 점16분음표와 32분음표의 부점을 연주하는 형태를 혼용하여 연주하고 있다.

④ 구례풍류

구례풍류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90>과 같다.

<표 190> 구례풍류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	21	♩	75	♩·♩♩	7
♩·♩♩	5	♩♩	9	♩♩	1











구례풍류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7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는 21회, ♩♩는 9회, ♩·♩♩는 7회, ♩·♩♩는 5회, ♩♩는 1회 나타난다. ♩·♩♩의 2분박 형태의 리듬과 ♩♩의 당김음이 연주된다.

⑤ 이리풍류

이리풍류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91>과 같다.

<표 191> 이리풍류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9		57
	13		7		1
	19		5		1

이리풍류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5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는 19회, 는 13회, 는 7회, 는 4회, , 는 각 1회 나타난다. 2분박 계열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 , 그리고 당김음이 나타나는  형태의 부점이 있는 리듬꼴을 연주한다.

⑦ 대전풍류

대전풍류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92>와 같다.

<표 192> 대전풍류 <하현도드리>의 리듬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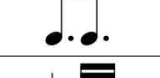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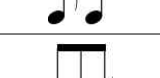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2		26		78
	1				

대전풍류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4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78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26회, ♩가 12회, ♩.가 1회 연주된다. ♩, ♩.가, ♩.로 이루어진 매우 단순한 형태의 리듬형이 연주되고 있으며 ♩.로 분박되는 리듬꼴도 단 1회 연주된다.

민간풍류 계통의 <하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93>과 같다.

<표 193> 민간풍류 계통의 <하현도드리> 리듬꼴

구분	민간풍류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1		1	.	4	.	1	.
2		14	8	4	21	9	12
3		75	68	57	75	57	78
4		13	20	14	7	13	26
5		1	.	9	.	.	.
6		.	.	5	.	7	.
7		2

8		1	.
9		.	.	.	5	.	.
10		5	13	11	9	19	1
11		.	12
12		.	.	6	.	5	.
13		7	.	.	1	.	.
14		.	.	2	.	.	.
15		1	.

민간풍류 계통의 <하현도드리>에서 사용된 리듬꼴은 총 15종이다. 지용구는 8종, 류대북은 5종, 지영희는 9종, 구례풍류는 6종, 이리풍류는 8종, 대전풍류는 4종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다른 악곡에 비해 대체적으로 리듬꼴이 간결하게 연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분박이 나타나는 풍류는 류대북, 구례풍류로 확인되며 지영희, 이리풍류에서는 부점 리듬이 확인된다.

(7) <염불도드리>

① 지용구

지용구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94>와 같다.

<표 194> 지용구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15		137
	46		2		9
	2		9		1

지용구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13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는 46회, ♩가 15회, ♩♩와 ♩♩는 각 9회, ♩♩♩와 ♩♩♩는 2회, ♩♩♩와 ♩♩♩는 각 1회 출현한다. ♩♩♩와 같은 2분박 리듬이 연주되며, 부점 리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② 류대복

류대복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95>와 같다.

<표 195> 류대복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3		26		117
	55		6		13
	9		4		

류대복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11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55회, ♩는 26회, ♪♪가 13회, ♪♪는 9회, ♪♪♪는 6회, ♪♪♪는 4회, ♩는 3회 연주된다. ♪♪의 2분박 리듬이 나타나며 부점 형태의 리듬은 연주되지 않는다.

③ 지영희

지영희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96>과 같다.

<표 196> 지영희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2		16		145
	32		2		1
	2		23		1

	8		1		1
--	---	--	---	--	---

지영희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2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143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는 32회, ♪♪는 23회, ♩는 16회, ♪♪♪는 8회, ♩♪와 ♩♪♪는 각 2회, ♩♪♪, ♪♪♪, ♪♪♪, ♪♪♪는 각 1회 연주된다.

<염불도드리>에서 2분박은 연주되지 않으며, 16분음표를 2번 반복하는 형태와 점16분음표와 32분음표의 부점을 연주하는 형태를 혼용하여 연주하고 있다.

④ 김창규

김창규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97>과 같다.

<표 197> 김창규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4		5		156
	7		2		36
	50		3		2

김창규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9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총 156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는 50회, ♪♪가 36회, ♩♪♪가 7회, ♩는 5회, ♩♪는 4회, ♩♪는 3회, ♪♪, ♩♪♪는 각 2회씩 출

현한다. ♩로 이루어진 2분박 현대의 리듬꼴이 다수 출현하고 있으며 부점 리듬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구례풍류

구례풍류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98>과 같다.

<표 198> 구례풍류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28		139
	6		43		5
	6				

구례풍류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39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는 43회, ♩는 28회, ♩와 ♩는 6회, ♩는 5회, ♩는 1회 나타난다. ♩와 ♩의 2분박 형태의 리듬이 연주되며 부점은 연주하지 않는다.

⑥ 이리풍류

이리풍류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199>와 같다.

<표 199> 이리풍류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22		142
	25		1		13
	12		8		3
	7				

이리풍류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0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42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는 25회, ♩는 22회, ♩♩♩는 13회, ♩♩는 12회, ♩♩는 8회, ♩♩♩는 7회, ♩♩♩는 3회, ♩♩는 1회 연주한다. 악곡이 속해지는 구간에서 ♩♩♩와 ♩♩의 2분박 리듬이 나타나며 8분음표를 분박하는 경우 부점과 부점이 없는 리듬을 혼용하고 있다.

⑦ 대전풍류

대전풍류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00>과 같다.










<표 200> 대전풍류 <염불도드리>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1		52		151
	6				

대전풍류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4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51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 52회, ♩가 11회, ♩♩가 6회 연주된다. ♩, ♩♩, ♩로 이루어진 매우 단순한 형태의 리듬형이 연주되고 있는데 이는 <하현도드리>와 대동소이하다.

민간풍류 계통의 <염불도드리>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201>과 같다.

<표 201> 민간풍류 계통의 <염불도드리> 리듬꼴

구분	민간풍류	지용구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1		1	3	2	4	1	1	
2		15	26	16	5	28	22	11
3		137	117	145	156	139	142	151
4		46	55	32	7	6	25	52
5		.	6
6		.	.	2	.	.	1	.
7		.	.	1
8		.	.	2
9		2	.	.	2	43	13	.
10		9	13	23	36	5	12	6
11		.	9	.	50	6	8	.

12		2	4	1	.	.	3	.
13		.	.	8	.	.	7	.
14		9	.	.	3	.	.	.
15		1	.	.	2	.	.	.
16		.	.	1
17		.	.	1

민간풍류 계통의 <염불도드리>에서 사용된 리듬꼴은 총 17종이며, 이 중 지용구는 9종, 류대북은 8종, 지영희는 12종, 김창규는 9종, 구례풍류는 7종, 이리풍류는 10종, 대전풍류는 4종을 사용한다. 지용구, 류대북, 김창규, 구례풍류에서는 2분박 계열의 리듬이 연주되고 있으며 부점 리듬을 연주하지 않는다. 지영희에서는 2분박은 연주되지 않으나 부점 리듬이 연주되며, 이리풍류는 2분박과 부점 리듬 모두 연주된다. 대전풍류는 2분박과 부점리듬이 모두 연주되지 않는다.




















(8) <타령>

① 지용구1

지용구1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02>와 같다.

<표 202> 지용구1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0		38		2
	1		4		4
	2		9		1
	3		2		2
	9		2		1












지용구1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38회, 가 10회 출현하며 와 는 각 9회, , 는 4회, 는 3회, , , , 는 각 2회, , , , 는 각 1회 연주된다. , , , 와 같은 당김음을 활용한 부점리듬이 다수 확인된다.

② 지용구2

지용구2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03>과 같다.

<표 203> 지용구2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16		62
	1		1		1
	1		1		1
	2		1		

지용구2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1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62회, 가 16회 출현하며 는 2회, , , , , , , , 는 각 1회 나타난다.

지용구1의 리듬꼴 사용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되는데, 당김음을 활용한 부점형태가 없으며 셋잇단음표를 사용한 리듬꼴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용구는 다른 연주자들과 합주할 때마다 리듬을 즉흥적으로 다르게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김덕진

김덕진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04>와 같다.

<표 204> 지용구1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1		50		6
	1		1		3

	4		5		
---	---	---	---	--	--

김덕진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보면 ♩가 50회, ♪가 21회 출현하며 ♩♩는 6회, ♩♩♩는 5회, ♩♩♩♩는 4회, ♩♩♩♩♩는 3회, ♩♩♩♩와 ♩♩♩♩는 각 1회 연주한다. 김덕진의 경우 ♩♩와 ♩♩♩♩ 등의 당김음을 사용한 리듬꼴을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④ 류대복

류대복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05>와 같다.

<표 205> 류대복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6		58		2
	1		5		3
	2		4		5
	1		6		2
	3		2		2

류대복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5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보면 ♩♩가 58회로 가장 많이 연주되었으며, ♩와 ♩♩♩♩♩이 6회, ♩♩♩♩와 ♩♩♩♩♩가 5회, ♩♩♩♩♩가 4회, ♩♩♩, ♩♩♩♩♩이 각 3회, ♩♩, ♩♩♩, ♩♩♩♩♩, ♩♩♩♩♩♩, ♩♩♩♩♩♩♩가 각 2회, ♩♩♩♩와 ♩♩♩♩♩가 각 1회 연주되었다. 류대복이 연주한 다른















곡에 비해 사용된 리듬꼴의 종류도 다양하며 32음표 사용, 부정리듬의 혼용 등이 나타나며 당김음을 사용한 리듬은 연주하지 않는다.

⑤ 김창규

김창규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06>과 같다.

<표 206> 김창규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		5		19
	4		3		1
	8		9		3
	2		2		1
	1				


















김창규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5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9회로 가장 많이 연주되었으며, 가 8회, 는 5회, 는 4회, 와 는 3회, , , 는 각 2회, , 는 각 1회 출현한다. 당김음을 활용한 와 같은 리듬과 32분음표를 활용한  유형, 그리고 셋잇단음표를 사용한 와 같은 리듬을 사용하여 선율을 화려하게 연주하고 있다.

⑥ 지영희

지영희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07>과 같다.

<표 207> 지영희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리듬꼴	출현 횟수
	23		34		2
	2		1		1
	5		4		1
	15		2		1
	3		1		1
	1				

지영희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1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보면 가 총 3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는 23회, 는 15회, 는 4회, 는 3회, , , 는 각 2회, , , , , , 는 각 1회 연주한다. 지영희는 다양한 16분 음표를 2회 반복하는 경우와 점16분음표와 32분음표의 부점 리듬을 혼용하고 있으며 , , 와 같은 당김음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⑦ 구례풍류

구례풍류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08>과 같

다.

<표 208> 구례풍류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0		38		3
	2		3		1

구례풍류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38회 출현하며 가 20회, 와 는 각 3회, 는 2회, 는 1회 나타난다. 와 같은 당김음과 의 부점을 사용한 리듬이 출현한다.

⑧ 이리풍류

이리풍류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09>와 같다.

<표 209> 이리풍류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2		13		61
	1		1		1
	1				

이리풍류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펴보면 ♪가 61회, ♩가 13회, ♪는 2회, ♪♪, ♪♪♪, ♪♪♪♪, ♪♪♪♪는 각 1회 연주된다.

⑨ 대전풍류

대전풍류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대전풍류 <타령>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	11	♪♪	45	♪♪	1







대전풍류의 <타령>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3종으로,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45회, ♩가 11회, ♪♪가 1회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매우 단순한 리듬꼴로 연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풍류 계열의 <타령>에서 나타난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민간풍류 계열의 <타령> 리듬꼴

구분	민간풍류	지용구1	지용구2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1	♪	·	1	·	·	2	·	·	2	·
2	♪	10	16	21	6	5	23	20	13	11
3	♪♪	38	62	50	58	19	34	38	61	45
4	♪♪	2	1	6	2	4	2	3	1	1

5		.	1	1	1	.	2	2	1	.
6		.	.	1	.	.	1	.	.	.
7		.	.	.	5	3
8		1	.	.	.	1
9		4	1	3	3	8
10		4	1	4	2	9
11		2	.	5	.	.	1	.	.	.
12		9	.	.	4	3	5	.	.	.
13		2
14		1	.	.	5	.	4	3	.	.
15		3
16		.	1	.	1	2
17		1
18		2	.	.	6	.	1	.	.	.
19		9	1	.	2	.	15	1	1	.
20		2	2	.	3	1	2	.	1	.
21		.	1
22		1	.	.	.
23		3	.	.	.

24		1	.	.	.
25		.	.	.	2
26		1	.	.	.
27		1	1	.	.	.
28		.	.	.	2
29		1

민간풍류 계통의 <타령>에서 사용된 리듬꼴은 총 29종이다. 이 중 지용구1은 16종, 지용구2는 11종, 김덕진은 8종, 류대복과 김창규는 15종, 지영희는 16종, 구례풍류는 6종, 이리풍류는 7종, 대전풍류는 3종을 사용하였다. 지용구는 같이 호흡을 맞추는 연주자들에 맞추어 리듬꼴을 다르게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곡에서는 다양한 리듬꼴을 사용하지 않는 류대복은 <타령>을 연주할 때 부점과 32분음표를 활용한 다양한 리듬꼴을 연주하고 있다.







(9) <군악>

① 지용구

지용구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12>와 같다.

<표 212> 지용구 <군악>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4		48		94
	12		1		4

지용구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보면 가 94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며 가 48회, 는 14회, 는 12회, 는 4회, 는 1회 연주한다. 16분음표에서 부점을 사용하지 않고 간결한 리듬형으로 연주한다.

② 김덕진

김덕진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김덕진 <군악>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1		59		74
	7		6		1

김덕진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보면 ♪가 74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며 ♩가 59회, ♪는 11회, ♪♪는 3회, ♪♪♪는 6회, ♪♪♪♪는 1회 연주한다. 지용구와 마찬가지로 김덕진 역시 16분음표에서 부점을 사용하지 않고 간결한 리듬형으로 연주한다.

③ 류대복

류대복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류대복 <군악>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	7	♩.	50	♪♪	94
♪♪	3	♪♪♪	3	♪♪♪	2
♪.♪♪	8	♪.♪♪♪	2		









류대복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8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 보면 ♪♪가 94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며 ♩가 50회, ♪♪♪가 8회, ♪는 7회, ♪♪와 ♪♪♪는 3회, ♪♪♪와 ♪♪♪♪는 1회 연주한다. 점16분음표와 32분음표의 부점 사용은 나타나지 않으나 ♪♪의 당김음이 확인된다.

④ 지영희

지영희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15>와 같다.

<표 215> 지영희 <군악>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6		57		62
	2		12		1
	17				







지영희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7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62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며 가 57회, 가 17회, 가 16회, 가 12회, 는 2회, 는 1회 연주한다. 지영희가 연주하는 다른 곡과 마찬가지로 와 같은 부점 형태가 나타난다.

⑤ 구례풍류

구례풍류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16>과 같다.

<표 216> 구례풍류 <군악>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86		83
	2		12		

구례풍류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5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86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며 가 83회, 가 12회, 는 2회, 는 1회 연주한다. 권마성 가락에서 의 리듬이 출현하는데 구례풍류의 경우 활을 교체하여 리듬을 분할한다.

⑥ 이리풍류

이리풍류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17>과 같다.

<표 217> 이리풍류 <군악>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		68		94
	1		1		20

이리풍류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6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94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며 ♩가 68회, ♪.가 20회, ♩.와 ♪.가 각 1회 출현한다. 이리풍류도 구례풍류와 마찬가지로 권마성 가락에서 ♩의 리듬을 분할하여 연주한다.

⑦ 대전풍류

대전풍류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을 정리하면 <표 218>과 같다.

<표 218> 대전풍류 <군악>의 리듬꼴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리듬꼴	출현횟수
	12		40		110
	14				

대전풍류의 <군악>에서 나타나는 리듬꼴은 총 4종이다. 횟수 별로 살펴보면 ♪가 110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며 ♩가 40회, ♪♪가 14회, ♩와 가 12회 출현한다. 대전풍류의 다른 악곡과 마찬가지로 간결한 리듬형으로 연주되고 있다.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한 <군악>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9>와 같다.

<표 219> 민간풍류 계통의 <군악> 리듬꼴

구분	민간풍류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1	♪	14	11	7	16	1	1	12
2	♩	48	59	50	57	86	68	40
3	♪♪	94	74	94	62	83	94	110
4	♪♪	12	7	3
5	♪♪	1	.
6	♪♪	.	6	3
7	♪♪	1	.
8	♪♪	1	.	2	2	2		.
9	♪♪	.	.	8	12	12	20	14
10	♪♪	.	.	.	1	.	.	.
11	♪♪	4	1	2

12		.	.	.	17	.	.	.
----	---	---	---	---	----	---	---	---

민간풍류 계통의 <군악>에서 사용된 리듬꼴은 총 12종이다. 이 중 지용구, 김덕진, 이리풍류는 6종, 류대복은 8종, 지영희는 7종, 구례풍류는 5종, 대전풍류는 4종을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지용구와 김덕진은 <군악>에서 부점 리듬을 연주하지 않았으며 구례풍류와 이리풍류는 권마성 가락에서 리듬음을 분할하여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 전 악곡에서 나타나는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 출현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20>과 같다.

<표 220>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 출현 양상

악곡명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리듬꼴 총 출현 횟수
상령산	11		7		26	9	11	5	30
중령산	9		6		27	6	11	4	33
세령산	6	10	12	7	16	5	9	4	22
가락덜이	6		6	5	13	4	8	4	16
상현도드리	8	12	8		15	8	8	6	17
하현도드리	8		5		9	6	8	4	15
염불도드리	9		8	9	12	7	10	4	17
타령	16	8	15	15	16	6	7	3	29
	11								
군악	6	6	8		7	5	6	4	12
평균	9	9	8.3	9	15.6	6.2	8.6	4.2	21.2

민간풍류 계통의 줄풍류에서는 평균 21.2종의 리듬꼴이 사용되었다. 이는 이왕직악부의 14.5종보다 약 6종 더 많은 리듬꼴이 연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주자 별로 살펴보면 지영희가 15.6종을 사용하여 가장 다양한 리듬꼴을 연주하였으며 지용구, 김덕진, 김창규가 9종, 이리풍류가 8.6종, 류대복이 8.3종, 구례풍류가 6.2종을 연주하였으며 대전풍류가 4.2종으로 가장 적은 개수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줄풍류를 연주하였다.

민간풍류 계통의 경우 2분박 유형, 8분음표를 분할할 때 16분음표를 2회 반복하는 경우와 점 16분음표와 32분음표로 분할하는 부점리듬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를 당김음 박자로 사용하는 유형 등에 따라 리듬꼴 사용에 있어 큰 편차가 나타났다.

지용구의 경우 와 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김덕진은 와 같은 2분박을 사용하거나 나 와 같은 당김음을 활용한 리듬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류대복은 의 2분박을 사용하나 <타령>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부점 없이 단순한 리듬형으로 운용하였다. 김창규 역시 2분박을 적극적으로 연주하였으며 부점 리듬은 일부 사용하였다. 지영희는 악곡 당 평균 15.6종의 리듬꼴을 사용할 정도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리듬꼴을 운용하였다. 이는 <상령산>, <중령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느린 악곡일수록 더욱 리듬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구례풍류는 8분음표를 분할할 때 부점 리듬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리풍류는 이와 반대로 부점 리듬을 다수 사용하였다. 대전풍류는 8분음표를 분할하지 않고 연주하여 매우 단순한 리듬형을 보인다. 이는 대전풍류가 거문고와 거의 흡사한 선율형을 가지고 있어 생긴 현상이다.

2) 꾸밈음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된 줄풍류에서 출현한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221>과 같다.

<표 221>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된 악곡별 앞꾸밈음과 뒤꾸밈음

민간풍류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상령산	^	앞	8		25		26	2	6	·
		뒤	·		·		·	·	1	·
	∧	앞	·		·		4	·	1	·
	뒤	·		·		2	·	·	·	
중령산	^	앞	·		12		5	·	1	·
		뒤	·		·		7	·	1	·
	∧	앞	·		1		·	8	·	·
		뒤	·		·		9	·	1	·
세령산	^	앞	·	4	5	1	4	·	·	·
		뒤	·	·	·	·	3	·	·	·
	∧	앞	·	1	·	·	·	6	·	·
		뒤	·	·	·	8	6	·	2	·
가락 덜이	^	앞	·	·	3	·	19	·	1	·
		뒤	·	·	·	·	·	·	·	·
	∧	앞	·	·	·	·	·	1	·	·
		뒤	·	·	·	1	8	·	3	·
상현 도드리	^	앞	4	2	2		12	·	·	·
		뒤	·	·	·		·	·	·	·
	∧	앞	·	·	·		2	·	·	·
		뒤	·	·	·		1	·	4	·
하현 도드리	^	앞	7		1		8	·	·	·
		뒤	·		·		·	·	1	·
	∧	앞	·		·		·	·	·	·
		뒤	·		·		·	·	3	·
염불 도드리	^	앞	6		1	·	14	2	·	·
		뒤	·		·	1	·	·	3	·
	∧	앞	·		·	·	·	·	·	·
		뒤	·		·	2	5	·	6	·
타령	^	앞	1	1	·	1	3	·	·	·
		뒤	·	·	·	·	·	·	·	·
	∧	앞	·	·	·	·	·	·	·	·

		뒤
군악	^	앞	1	11	.	16	1	.	.
		뒤
	s	앞
		뒤

지용구는 <상령산>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8회, <상현도드리>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4회, <하현도드리>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7회, <염불도드리>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6회, <타령>과 <군악>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연주하였다. s나 뒤꾸밈음은 연주하지 않았다.

김덕진은 <세령산>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4회,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연주하였으며 <상현도드리>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2회, <타령>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군악>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11회 연주하였으며 뒤꾸밈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류대복은 <상령산>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25회, <중령산>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12회,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연주하였다. <세령산>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5회, <가락덜이>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3회, <상현도드리>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2회, <하현도드리>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염불도드리>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연주하였으며 뒤꾸밈음은 출현하지 않는다.

김창규는 <세령산>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s를 뒤꾸밈음으로 8회 연주하였으며 <가락덜이>에서 s를 뒤꾸밈음으로 1회, <염불도드리>에서 s를 뒤꾸밈음으로 1회, s를 뒤꾸밈음으로 2회, <타령>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1회 연주하였다.

지영희는 <상령산>에서 s를 앞꾸밈음으로 26회, s를 앞꾸밈음으로 4회, 뒤꾸밈음으로 2회 연주하였으며 <중령산>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5회, 뒤꾸밈음으로 7회, s를 뒤꾸밈음으로 9회 연주한다. <세령산>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4회, 뒤꾸밈음으로 3회 연주하며 s를 뒤꾸밈음으로 6회 연주하였다. <가락덜이>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19회, s를 뒤꾸밈음으로 8회 사용한다. <상현도드리>에서는 s를 앞꾸밈음으로 12회, s를 앞꾸밈음으로 2회, 뒤꾸밈음으로 1회 연주한다. <하현도드리>에서는 s

를 앞꾸밈음으로 8회, <염불도드리>에서는 ㅅ를 앞꾸밈음으로 14회, ㅅ를 뒤꾸밈음으로 5회 연주한다. <타령>에서는 ㅅ를 앞꾸밈음으로 3회를, <군악>에서는 ㅅ를 앞꾸밈음으로 16회 연주한다. 대체적으로 ㅅ는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고루 사용하였으며 ㅅ는 <상령산>에서 앞꾸밈음으로 4회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뒤꾸밈음으로 연주하였다.

구례풍류에서는 <상령산>에서 ㅅ를 앞꾸밈음으로 2회, <중령산>에서 ㅅ를 앞꾸밈음으로 8회, <세령산>에서 ㅅ를 앞꾸밈음으로 6회 연주하며 <가락덜이>에서는 ㅅ를 앞꾸밈음으로 1회를, <염불도드리>에서는 ㅅ를 앞꾸밈음으로 2회 연주하여 모두 앞꾸밈음으로 연주하였다.

이리풍류에서는 <상령산>에서 ㅅ를 앞꾸밈음으로 6회, 뒤꾸밈음으로 1회, ㅅ를 앞꾸밈음으로 1회 연주하며 <중령산>에서는 ㅅ를 앞, 뒤꾸밈음으로 각각 1회씩, ㅅ를 뒤꾸밈음으로 1회 연주한다. <세령산>에서는 ㅅ를 뒤꾸밈음으로 2회 연주하며 <가락덜이>에서는 ㅅ를 앞꾸밈음으로 1회, ㅅ를 뒤꾸밈음으로 3회 연주한다. <상현도드리>에서는 ㅅ를 뒤꾸밈음으로 4회 연주하며 <하현도드리>에서는 ㅅ를 뒤꾸밈음으로 1회, ㅅ를 뒤꾸밈음으로 3회, <염불도드리>에서는 ㅅ를 뒤꾸밈음으로 3회, ㅅ를 뒤꾸밈음으로 6회 연주하였다. 이리풍류는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고르게 연주하고 있다.

대전풍류에서는 꾸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민간풍류 계통의 꾸밈음을 정리해보면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구례풍류는 모두 앞꾸밈음을 연주하였고 김창규, 지영희, 이리풍류는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전풍류에서는 꾸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잉어질의 사용 유무와 비슷한 양상으로, 민간풍류에서는 김창규, 지영희, 이리풍류가 다양한 운궁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운궁법

민간풍류 계통의 운궁법을 살펴보기 위해 곡별로 잉어질의 횟수를 정리하고 그 전승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된 잉어질을 곡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222>와 같다.

<표 222> 민간풍류 계통에서 연주된 악곡별 잉어질 주법

민간풍류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	.	.	2	1	.	2	.
가락덜이	.		.	.	1	.	5	.
상현도드리	.	.	.		8	.	8	.
하현도드리	.		.		4	.	2	.
염불도드리	.		.	1	8	.	4	.
타령	10	.	15	.
군악

민간풍류 계통에서는 김창규, 지영희, 이리풍류에서만 잉어질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 악곡에서 잉어질이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이왕직아악부 계통과는 다른 양상이다. 민간풍류 계통의 지용구, 김덕진의 자료는 1930년대로 자료로, 동시대의 이왕직아악부 계통인 민완직, 이덕환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잉어질 주법은 이왕직아악부에서 먼저 연

주되었던 주법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지용구·김덕진과 지영희, 그리고 류대복과 김창규는 서로 사승 관계에 있다.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의 자료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지 않고 김창규와 지영희의 자료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스승에게 해당 주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왕직악부에서 연주되던 잉어질 주법의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풍류에서는 이왕직악부 계통의 영향을 받아 적어도 1960년대 후반에는 잉어질 주법을 일부 연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용선의 가락을 수용한 구례풍류, 이리풍류 역시 잉어질 주법의 연주 유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이리풍류가 이왕직악부 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지영희, 김창규, 이리풍류가 사용한 잉어질 주법을 살펴보면 다음 <악보 38>과 같다.

<악보 38> <염불도드리> 제3장 제3각

<악보 38>을 살펴보면 거문고의 특수주법인 ‘뜰동’이 출현하는 지점인 제2-3박과 제5-6박에서 지영희, 이리풍류는 모두 잉어질을 연주하였다. 김창규는 제3각 제5-6박에서 잉어질을 1회 연주하고 있다.

지영희, 이리풍류가 사용한 잉어질 주법을 살펴보면 다음 <악보 39>와 같다.

<악보 39> <세령산> 초장 제2각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performer.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major) and the time signature is 19/8. The 5th measure of the piece is highlighted with a rectangular box in the staves for Ji Yeong-hee and Lee Ri-pungryu, indicating the specific 'Ingeol' (잉어질) technique being discussed.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accidentals, and articulation marks such as slurs and wavy lines.

거문고의 ‘뜯동’이 출현하는 제5박에서 지영희와 이리풍류는 潢과汰의 장2도 관계에서 나타나는 잉어질 주법을 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이왕직악부에서 나타나는 모든 잉어질 주법과도 동일한 형태이다. 지용구, 김덕진, 김창규, 대전풍류는 잉어질을 하지 않으며 潢에서 無로 하행진행한 후 퇴성한다.

<악보 40> <세령산> 초장 제1각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레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거문고

김창규가 <세령산>에서 연주한 잉어질 주법은 林과 無의 단3도 관계에서 연주하는 잉어질과 仲과 無의 완전4도 관계에서 연주하는 두 가지의 주법이 나타난다. 이는 거문고의 뜰동 주법과는 무관하게 연주한 것으로 활의 방향을 빠른 속도로 바꾸어서 소리를 채는 잉어질 주법을 사용하여 곡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4) 운지법

민간풍류 계통에서 사용된 운지법을 나타내면 다음 <표 223>과 같다.

<표 223> 민간풍류 계통의 운지법

민간풍류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혜 풍류	이리 풍류	대전 풍류
상령산	黃→ 仲→黃		黃		黃→ 仲→黃	黃→ 仲→黃	黃→ 仲→黃	黃→ 仲→黃→ 仲→黃→ 仲→黃→ 仲→黃→ 仲→黃
중령산	仲		黃		仲	仲	仲	仲
세령산	仲	仲	仲	仲	仲	仲	仲	仲
가락덜이	仲	仲	仲	仲	仲	仲	仲	仲
상현도드리	仲	仲	仲		仲	仲	仲	仲
하현도드리	黃→仲		黃→仲		黃→仲	黃→仲	黃→仲	黃→仲
염불도드리	仲		仲	仲	仲	仲	仲	仲
타령	仲→ 黃→仲	仲→ 黃→仲	仲→ 潢→仲	仲	仲→ 黃→仲	仲→ 黃→仲	仲→ 黃→仲	仲→ 黃→仲
	仲→ 潢→仲							
군악	黃→ 太→ 仲→太	黃→ 太→ 仲→太	黃→ 太→ 仲→太		黃→ 太→ 仲→太	黃→仲	黃→ 太→ 仲→太	黃→ 太→ 仲→太

민간풍류 계통의 운지법은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운지법과 대동소이하나 지용구, 류대복, 대전풍류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먼저 지용구의 <타령> 음원은 2종이 있으며 그 중 조선정악단의 소속으로 남긴 음반에서는 제2장 제7각에서 潢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하여 한 옥타브 위의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은 <상령산>과 <중령산>에서 黃을 1지로 연주하다가 운지를 벗어나는 고음이 출현할 때 仲을 1지로 하여 운지를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黃을 1지로 한 상태에서 음정을 한 옥타브 낮추어 연주한다. <타령>에서는 지용구와 마찬가지로 潢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하여 한 옥타브 위의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상령산>에서 10회의 운지 이동이 나타나는데, 이는 거문고의 선율을 그대로 연주하는 대전풍류의 특성상 해금의 음역에 맞추어 음정을 수정하지 않고 운지를 이동하면서 연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 개방현

류대복의 개방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표 224>와 같다.

<표 224> 류대복의 줄풍류 개방현 사용 양상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합계
유현/중현		유현	중현	유현	중현	유현	중현	유현	중현	
음역 확장	하행								2	2
	상행						3			3
음량 확대	합장단						3			3
	합 이외									
운지 확대	저음대체		1		4		4			9
	운지이동								1	1
총 출현횟수(17)		1		4		10		2		

류대복은 줄풍류에서 개방현 주법을 총 17회 연주하였으며 모두 중현 개방현을 사용한다. 개방현은 음역 확장, 음량 확대, 운지 유형을 확대하는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¹⁴⁸⁾ 개방현의 사용으로 음역이 확장되며 도약진행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행진행을 강조하는 경우는 <군악>에서 2회 연주되며, 상행진행을 강조하는 경우는 <타령>에서 3회 나타난다. 또한 개방현은 줄을 짚는 왼손에 의해 진동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음량을 발음하게 되는데 <타령>의 합장단에 출현하여 셈여림을 더욱 대비시킨다. 또한 개방현의 사용은 운지 유형의 확대를 가져온다. 운지를 벗어난 저음이 출현하는 경우 개방현으로 대체하여 운지 이동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하현도드리>에서 1회, <염불도드리>에서 4회, <타령>에서 4회 사용된다. 또한 개방현으로 사용하여 왼손에 휴지부가 생기기 때문에 음정 간격이 넓은 운지로의 이동 시 음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듯 개방현을 사용하여 운지 이동을 하는 경우는 <군악>에서 1회 사용되고 있다.

<악보 41> 류대복의 개방현 사용 예시



<타령> 제2장 제1각에서는 仲-太 黃-侏을 연주하는데, 仲을 1지로 하는 운지법에서 侏을 연주하기 위해서 식지를 위로 이동하여 일시적으로 侏을 연주한 후 원위치시킨다. 그러나 류대복은 식지를 이동하지 않고 개방현을 사용하여 운지 유형을 확대하였다. 제2각 제5박에서는 하행진행을 강조하고 음역을 확장하였으며, 제2각 제11박에서는 제1각과 마찬가지로 개방현을 사용함으로써 운지 유형이 확대되었다.

148) 정겨운, 「북한 전통해금 개방현 주법 연구」, 『국악원논문집』 제45집, 2022.

(2) 潢 운지법 사용

민간풍류 계통에서 潢 운지법이 사용되는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 <악보 42>와 같다.

<악보 42> 민간풍류 계통의 <타령> 제2장 제7각

<타령> 제2장 제7각부터는 피리와 해금을 제외한 모든 악기가 汰를 연주한다. 해금의 운지법은 향악 계열의 음악에서 黃, 太, 仲, 林을 1지로 하는 4가지의 운지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용구와 류대복의 경우 潢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하여 다른 악기들과 같이 한 옥타브 상행하여 연주하고 있다.

소결론

본 장에서는 민간풍류 계통에 해당하는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를 대상으로 줄풍류의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간풍류 계통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1기(1929~1939)에 해당하는 지용구(1929)와 김덕진(1936), 제2기(1959~1972)에 해당하는 류대복(1959), 김창규(1965), 지영희(1969), 제3기(1985~2015)에 해당하는 구례풍류(미상), 이리풍류(1990), 대전풍류(2011)로 분류할 수 있다. 시기에 따른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을 살펴보면, 제1기는 평균 9종, 제2기는 평균 10.9종, 제3기는 평균 6.3종의 리듬꼴을 사용하였다. 제1기의 지용구의 경우 ♪와 ♪♩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김덕진은 ♪와 같은 2분박을 사용하거나 ♪나 ♪♩와 같은 당김음을 활용한 리듬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제2기의 류대복은 ♪의 2분박을 사용하나 <타령>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부점 없이 단순한 리듬형으로 운용하였다. 김창규 역시 2분박을 적극적으로 연주하였으며 부점 리듬은 일부 사용하였다. 지영희는 악곡당 평균 15.6종의 리듬꼴을 사용할 정도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리듬꼴을 운용하였다. 이는 <상령산>, <중령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느린 악곡일수록 더욱 리듬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제3기의 구례풍류는 8분음표를 분할할 때 부점 리듬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리풍류는 이와 반대로 부점 리듬을 다수 사용하였다. 대전풍류는 8분음표를 분할하지 않고 연주하여 매우 단순한 리듬형을 보인다. 이는 대전풍류가 양금과 거의 흡사한 선율형을 가지고 있어 생긴 현상이다.

민간풍류 계통의 꾸밈음의 경우 제1기의 지용구, 김덕진, 제2기의 류대복, 제3기의 구례풍류는 모두 앞꾸밈음을 연주하였고 제2기의 김창규, 지영희, 제3기의 이리풍류는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제3기의 국악원은 뒤꾸밈음만 사용하며 대전풍류에서는 꾸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민간풍류 계통에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꾸밈음의 전승 양

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풍류 계통의 운궁법을 살펴보면 제2기의 김창규, 지영희, 그리고 제3기의 이리풍류에서만 잉어질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 악곡에서 잉어질이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이왕직아악부 계통과는 다른 양상이다. 또한 동시대의 이왕직아악부 계통인 제1기의 민완직, 이덕환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풍류 계통의 제1기에 해당하는 지용구, 김덕진은 잉어질을 연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잉어질 주법은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먼저 연주되었던 주법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지용구·김덕진과 지영희, 그리고 류대복과 김창규는 서로 사승 관계에 있다.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의 자료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지 않고 김창규와 지영희의 자료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스승에게 해당 주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연주되던 잉어질 주법의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풍류 계통에서는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영향을 받아 적어도 1960년대 후반에는 잉어질 주법을 일부 연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용선의 가락을 수용한 제3기의 구례풍류, 이리풍류 역시 잉어질 주법의 연주 유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이리풍류가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민간풍류 계통의 운지법은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운지법과 대동소이하나 지용구, 류대복, 대전풍류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먼저 지용구의 <타령> 음원은 2종이 있으며 그 중 조선정악단의 소속으로 남긴 음반에서는 제2장 제7각에서 潢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하여 한 옥타브 위의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은 <상령산>과 <중령산>에서 黃을 1지로 연주하다가 운지를 벗어나는 고음이 출현할 때 仲을 1지로 하여 운지를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黃을 1지로 한 상태에서 음정을 한 옥타브 낮추어 연주한다. <타령>에서는 지용구와 마찬가지로 潢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하여 한 옥타브 위의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상령산>에서 10회의 운지 이동이 나타나는데, 이는 거문고의 선율을 그대로 연주하는 대전풍류의 특성상 해금의 음역에 맞추어 음정을 수정하지 않고 운지를 이동하면서 연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소결론

본 장에서는 민간풍류 계통에 해당하는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를 대상으로 줄풍류의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간풍류 계통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1기(1929~1939)에 해당하는 지용구(1929)와 김덕진(1936), 제2기(1959~1972)에 해당하는 류대복(1959), 김창규(1965), 지영희(1969), 제3기(1985~2015)에 해당하는 구례풍류(미상), 이리풍류(1990), 대전풍류(2011)로 분류할 수 있다. 시기에 따른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을 살펴보면, 제1기는 평균 9종, 제2기는 평균 10.9종, 제3기는 평균 6.3종의 리듬꼴을 사용하였다. 제1기의 지용구의 경우 ♪와 ♪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김덕진은 ♪와 같은 2분박을 사용하거나 ♪나 ♪와 같은 당김음을 활용한 리듬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제2기의 류대복은 ♪의 2분박을 사용하나 <타령>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부점 없이 단순한 리듬형으로 운용하였다. 김창규 역시 2분박을 적극적으로 연주하였으며 부점 리듬은 일부 사용하였다. 지영희는 악곡당 평균 15.6종의 리듬꼴을 사용할 정도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리듬꼴을 운용하였다. 이는 <상령산>, <중령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느린 악곡일수록 더욱 리듬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제3기의 구례풍류는 8분음표를 분할할 때 부점 리듬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리풍류는 이와 반대로 부점 리듬을 다수 사용하였다. 대전풍류는 8분음표를 분할하지 않고 연주하여 매우 단순한 리듬형을 보인다. 이는 대전풍류가 양금과 거의 흡사한 선율형을 가지고 있어 생긴 현상이다.

민간풍류 계통의 꾸밈음의 경우 제1기의 지용구, 김덕진, 제2기의 류대복, 제3기의 구례풍류는 모두 앞꾸밈음을 연주하였고 제2기의 김창규, 지영희, 제3기의 이리풍류는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제3기의 국악원은 뒤꾸밈음만 사용하며 대전풍류에서는 꾸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민간풍류 계통에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꾸밈음의 전승 양









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풍류 계통의 운궁법을 살펴보면 제2기의 김창규, 지영희, 그리고 제3기의 이리풍류에서만 잉어질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 악곡에서 잉어질이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이왕직아악부 계통과는 다른 양상이다. 또한 동시대의 이왕직아악부 계통인 제1기의 민완직, 이덕환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풍류 계통의 제1기에 해당하는 지용구, 김덕진은 잉어질을 연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잉어질 주법은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먼저 연주되었던 주법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지용구·김덕진과 지영희, 그리고 류대복과 김창규는 서로 사승 관계에 있다.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의 자료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지 않고 김창규와 지영희의 자료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스승에게 해당 주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연주되던 잉어질 주법의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풍류 계통에서는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영향을 받아 적어도 1960년대 후반에는 잉어질 주법을 일부 연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주산의 가락을 수용한 제3기의 구례풍류, 이리풍류 역시 잉어질 주법의 연주 유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이리풍류가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민간풍류 계통의 운지법은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운지법과 대동소이하나 지용구, 류대복, 대전풍류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먼저 지용구의 <타령> 음원은 2종이 있으며 그 중 조선정악단의 소속으로 남긴 음반에서는 제2장 제7각에서 潢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하여 한 옥타브 위의 선율을 연주한다. 류대복은 <상령산>과 <중령산>에서 黃을 1지로 연주하다가 운지를 벗어나는 고음이 출현할 때 仲을 1지로 하여 운지를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黃을 1지로 한 상태에서 음정을 한 옥타브 낮추어 연주한다. <타령>에서는 지용구와 마찬가지로 潢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하여 한 옥타브 위의 선율을 연주한다. 대전풍류는 <상령산>에서 10회의 운지 이동이 나타나는데, 이는 거문고의 선율을 그대로 연주하는 대전풍류의 특성상 해금의 음역에 맞추어 음정을 수정하지 않고 운지를 이동하면서 연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소결

20세기 줄풍류 해금 선율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 꾸밈음, 운지법, 운궁법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리듬꼴은 평균 14.5종의 리듬꼴이 사용되었으며 점차 부점을 많이 연주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 제1기의 이덕환, 민완식은 의 리듬꼴을 사용하였는데 제2기의 김천홍이 와 의 두 가지의 리듬꼴을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현재 국악원에서는 로 부점이 있는 리듬꼴을 주로 연주하는 형태로 전승되었다. 의 리듬꼴 역시 김천홍이 와 로 부점과 당김음을 활용한 두 가지의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중 의 부점을 활용한 한 가지의 리듬꼴을 계승하여 현행의 국악원에서 전승되고 있다.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은 평균 21.2종의 리듬꼴이 사용되었다. 이는 이왕직아악부의 14.5종보다 약 6.7종의 리듬꼴이 더 연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주자 별로 살펴보면 지영희가 15.6종을 사용하여 가장 다양한 리듬꼴을 연주하였으며 지용구, 김덕진, 김창규가 9종, 이리풍류가 8.6종, 류대복이 8.3종, 구례풍류가 6.2종을 연주하였으며 대전풍류가 4.2종으로 가장 적은 개수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줄풍류를 연주하였다. 민간풍류 계통의 경우 2분박 유형, 8분음표를 분할하여 연주 시 16분음표를 2회 반복하는 경우와 점 16분음표와 32분음표로 분할하는 부점리듬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를 당김음 박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따라 리듬꼴 사용에 있어 큰 편차가 나타났다.

둘째,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꾸밈음을 살펴본 결과, 이덕환은 앞꾸밈음을 주로 연주하였으며 민완식, 김천홍은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국악원에서는 대체적으로 뒤꾸밈음으로 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활을 변환하기 전에 꾸밈음을 연주하는 뒤꾸밈음으로 변환된 것은

꾸밈음을 더욱 부드럽게 연결하고 본음을 강조하는 형태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풍류 계통의 경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구례풍류는 모두 앞꾸밈음을 연주하였고 김창규, 지영희, 이리풍류는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전풍류에서는 꾸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운궁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잉어질의 경우 민완식은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다른 연주자와 잉어질 횃수를 비교하였을 때 하현도드리는 1회 더 많이, 염불도드리는 4회 더 적게 연주하였다. 민완식을 제외한 이덕환, 김천홍, 국악원의 잉어질 횃수 및 사용 위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덕환과 김천홍, 국악원에서 잉어질 박자 운용을 모두 다르게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덕환의 경우 潢을 길게 연주한 후 汰를 짧게 꾸밈음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김천홍은 ♩의 길이만큼 潢을 연주하고 점 8분쉽표(♩)에 해당하는 휴지부를 가진 후 汰를 연주한다. 반면 국악원에서는 16분 쉽표(♩) 길이의 짧은 휴지부를 가지는데 이는 김천홍의 잉어질이 아닌 이덕환의 잉어질 주법에 더 가깝게 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잉어질 사용 횃수는 큰 변동 없이 전승되었으나 박자의 운용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민간풍류 계통의 경우 김창규, 지영희, 이리풍류에서만 잉어질이 나타나는데 이는 잉어질이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이왕직아악부 계통과는 다른 양상이다. 민간풍류 계통의 지용구, 김덕진의 자료는 1930년대로 자료로, 동시대의 이왕직아악부 계통인 민완식, 이덕환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잉어질 주법은 이왕직아악부에서 먼저 연주되었던 주법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지용구·김덕진과 지영희, 그리고 류대복과 김창규는 서로 사승 관계에 있다.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의 자료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지 않고 김창규와 지영희의 자료에서는 잉어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스승에게 해당 주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왕직아악부에서 연주되던 잉어질 주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거나 혹은 현악기의 뜯동 주법을 연주할 때 그에 맞춰 잉어질을 구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용선의 가락을 수용한 구례풍류, 이리풍류 역시 잉어질 주법의 연주

유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례풍류에서는 잉어질을 연주하지 않으며, 이리풍류는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잉어질을 연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운지법을 살펴본 결과 전곡에서 모두 같은 운지법이 사용되었으며, 운지를 이동하는 장단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왕직아악부 시기에 확립된 운지법이 현행까지 변화되지 않고 계승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간풍류 계통의 운지법을 살펴본 결과 이왕직아악부 계통과는 구분되는 운지법으로 개방현과 潢 운지법이 확인된다. 류대복은 총 17회의 개방현을 사용하였으며 음역 확장, 음량 확대, 운지 유형을 확대하는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潢 운지법은 지용구와 류대복의 줄풍류에서 나타나는데, <타령> 제2장 제7각에서 피리와 해금을 제외한 악기가 고음역대를 연주할 때 黃을 1지로 하여 한 옥타브를 내리지 않고 潢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을 사용하여 다른 악기들과 같이 한 옥타브 상행하여 연주하고 있다. 대전풍류는 유일하게 <상령산>에서 10회의 운지 이동이 나타나는데, 이는 양금의 선율을 그대로 연주하는 대전풍류의 특성상 해금의 음역에 맞추어 음정을 수정하지 않고 운지를 이동하면서 연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다섯째, 계통별로 살펴본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 등의 음악적 요소를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은 악보를 통해 전승됨에 따라 큰 변동 없이 전승되었으나 시기가 흐름에 따라 다소 단순화된 형태로 전승되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리듬꼴을 살펴보면, 제1기는 평균 10.1종, 제2기는 평균 11.2종, 제3기는 평균 8.8종의 리듬꼴을 사용하였다. 리듬꼴의 사용 개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리듬형 역시 단순화되었고, 꾸밈음의 경우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하던 형태에서 뒤꾸밈음만 연주하게 되면서 꾸밈음보다는 본음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운궁법의 경우 잉어질의 휴지부가 짧아진 형태로 전승되었으며 운지법은 큰

변동 없이 전승되었다. 이는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악보를 통해 줄풍류를 전승함에 따라 현행까지 대동소이하게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민간풍류 계통의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듬꼴을 살펴보면, 제1기는 평균 9종, 제2기는 평균 10.9종, 제3기는 평균 6.3종의 리듬꼴을 사용하였다. 민간풍류 계통의 꾸밈음의 경우 제1기의 지용구, 김덕진, 제2기의 류대복, 제3기의 구례풍류는 모두 앞꾸밈음을 연주하였고 제2기의 김창규, 지영희, 제3기의 이리풍류는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제3기의 국악원은 뒤꾸밈음만 사용하며 대전풍류에서는 꾸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민간풍류 계통의 운궁법을 살펴보면 제2기의 김창규, 지영희, 그리고 제3기의 이리풍류에서만 잉어질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 악곡에서 잉어질이 동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이왕직아악부 계통과는 다른 양상이다. 민간풍류 계통의 운지법은 제1기의 지용구 및 제2기의 류대복이潢을 1지로 하는 운지법이나 개방현을 사용하였으나 제3기에서는 해당 운지법이 계승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간풍류 계통은 제1기, 제2기의 전문 연주자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연주됨으로써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에 있어 연주자 별로 다양하게 연주되어왔으나, 문화재로 지정되고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제3기에 들어서면서 매우 단순화된 형태로 전승되었음을 확인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줄퐁류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0세기 줄퐁류 해금 선율이 기록된 음원, 악보 자료 12종을 대상으로 하여 범계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첫째, 연구 대상을 검토하고 악곡명, 분장구조, 대강구조 등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줄퐁류 해금 선율의 전승 맥락을 살펴보았다. 둘째, 악곡별로 국립국악원의 피리·거문고 선율과 상호 비교하여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민간퐁류 계통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계통별로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 등의 음악적 특징을 확인하여 시기별 전개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이 되는 12종을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음원과 악보 자료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악곡 구분 및 분장구조, 대강구조가 서로 상이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악곡 구분은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에서 가장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립국악원의 줄퐁류의 경우 <세령산>을 4장 14각, <가락덜이>를 3장 10각 구성으로 하고 <상현도드리>는 돌장 포함 34각으로 연주한다. 반면 민간퐁류 계통에서는 <가락덜이> 초장을 <세령산>의 제5장으로 구분한다. 또한 <상현도드리>의 돌장을 <가락덜이> 제3장의 가장 마지막 각으로 구분하고, 국악원의 <가락덜이> 제2장을 <상현도드리>의 초장 첫 각으로 구분한다.

분장구조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퐁류에서는 <상령산>을 4장, <중령산>을 5장, <세령산>을 4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민간퐁류 계통에서는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을 모두 5장으로 구분한다. 또한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퐁류에서는 <가락덜이>를 3장, <상현도드리>와 <하현도드리>를 4장으로 구분하나 다른 지역의 퐁류에

서는 위 세 곡을 모두 3장으로 구분한다.

대강구조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상령산>, <중령산>의 경우, 이왕직 아악부 계통에서는 6·4·4·6박, 구례·이리·대전향제줄풍류는 6·4·6·4박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류대복은 10·10박으로 대강을 구분하였다. 이렇듯 악곡 구분, 분장구조, 대강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악곡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구분법이 서로 상이하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줄풍류의 해금 선율을 피리·거문고 선율과 비교하여 일치도를 파악하여 각 계통을 구분하였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는 해금 선율이 피리의 선율을, 민간풍류 계통에서는 거문고의 선율을 차용하여 연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경우 민완식은 90.7%, 이덕환은 92.9%, 김천홍은 94.1%, 국립국악원은 94.8%의 비율로 피리 선율과 일치하였으며, 거문고 선율과는 민완식은 74.1%, 이덕환은 72.0%, 김천홍은 72.0%, 국립국악원은 71.7% 일치하였다. 반면 민간풍류 계통에 해당하는 지용구는 피리와 68.6%·거문고와 87.0% 일치하였고 김덕진은 피리와 68.2%·거문고와 77.2%, 류대복은 피리와 66.8%·거문고와 89.3%, 김창규는 피리와 72.5%·거문고와 89.2%, 지영희는 피리와 69.6%·거문고와 86.3%, 구례향제줄풍류는 피리와 59.9%·거문고와 72.0%, 이리향제줄풍류는 피리와 73.3%·거문고와 85.7%, 대전향제줄풍류는 피리와 70.4%·거문고와 94.0% 일치하였다. 이는 이왕직아악부 계통보다 민간풍류 계통의 풍류방에서 상대적으로 관악기의 편성이 어려워 현악기 위주로 연주하였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왕직아악부 계통과 민간풍류 계통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 및 전개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을 살펴보았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의 리듬꼴은 평균 14.5종의 리듬꼴이 사용되었으며 16분음표를 2회 반복하는 리듬(♩)에서 점 16분음표와 32분음표로 분할하는 부점을 활용한 리듬(♩)으로 정착되었다. 민간풍류 계통의 경우 평균 21.2종의 리듬꼴이 사용되었다. 연주자 별로 살펴보면 지영희가

15.6종을 사용하여 가장 다양한 리듬꼴을 연주하였으며 지용구, 김덕진, 김창규가 9종, 이리향제줄풍류가 8.6종, 류대복이 8.3종, 구례향제줄풍류가 6.2종을 연주하였으며 대전향제줄풍류가 4.2종으로 가장 적은 개수의 리듬꼴을 사용하여 줄풍류를 연주하였다. 민간풍류 계통에서는 2분박 리듬(♩), 8분음표를 분할할 때 16분음표를 2회 반복하는 리듬(♩)과 점 16분음표와 32분음표로 분할하는 리듬(♩), 그리고 이를 당김음 박자를 사용하는 리듬(♩) 등에 따라 리듬꼴 사용에 있어 큰 편차가 나타났다.

꾸밈음의 경우,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는 앞꾸밈음으로 연주하여 꾸밈음 자체에 강세를 더하는 방법에서 점차 본음을 강조하는 뒷꾸밈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간풍류 계통에서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구례향제줄풍류는 모두 앞꾸밈음을 연주하였고 김창규, 지영희, 이리향제줄풍류는 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전향제줄풍류에서는 꾸밈음이 나타나지 않았다.

운궁법의 경우 잉어질 주법을 통해 전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 잉어질 주법의 사용은 대동소이 하였으나 김천홍의 경우 잉어질을 운용하는 박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민완식, 이덕환, 국악원에서는 잉어질 중 16분 쉼표의 휴지부를 가지는 반면, 김천홍은 점 8분쉼표의 긴 휴지부를 활용함으로써 곡에 긴장감을 높였다. 민간풍류 계통의 경우 김창규, 지영희, 이리향제줄풍류에서만 잉어질이 확인된다. 김창규는 林과 無의 단3도 관계에서 연주하는 잉어질, 仲과 無의 완전4도 관계에서 연주하는 잉어질, 그리고 潢과 汰의 장2도 관계에서 연주하는 세 가지의 잉어질 주법을 사용하였다. 지영희와 이리풍류는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잉어질과 대동소이하였으며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구례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에서는 잉어질을 연주하지 않는다.

운지법의 경우 이왕직아악부 계통에서는 전곡에서 모두 같은 운지법이 사용되었으며, 운지를 이동하는 장단까지 동일하여 큰 변동 없이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풍류 계통의 운지법을 살펴본 결과 이왕직아악부 계통과는 구분되는 운지법으로 김덕진과 류대복의 연주에서 개방현

과 潢 운지법이 확인되나 현재는 전승되지 않는다.

이를 제1기(1929~1939), 제2기(1959~1972), 제3기(1985~2015)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왕직아악부 계통의 경우 악보를 통해 전승됨에 따라 큰 변동 없이 전승되었으나 시기가 흐름에 따라 다소 단순화된 형태로 전승되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풍류 계통의 경우 제1기, 제2기의 전문 연주자들에 의해 줄풍류가 즉흥적으로 연주됨으로써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에 있어 연주자 별로 다양하게 연주되어왔으나, 문화재로 지정되고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제3기에 들어서면서 매우 단순화된 형태로 전승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전승되고 있는 국립국악원 줄풍류 및 문화재로 등록되어 전승되고 있는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의 해금 선율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선율을 진행 및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이 단순화된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주자 별로 다채롭고 유연하게 운용되었던 선율이 탈락하고 음악적 요소가 정형화된 형태로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전승 양상의 변화는 스승의 연주를 도제식으로 배우던 방식에서 악보를 통해 전승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며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악보의 사용은 보다 효율적으로 줄풍류를 학습할 수 있게 된 점, 단절될 위기에 있던 줄풍류가 현재까지 전승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20세기 줄풍류 해금 선율이 나타나는 12종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여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피리, 거문고 선율과 비교하여 동일 선율과 상이 선율을 객관적인 백분율로 파악하여 계통을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이왕직아악부 계통인 민완식, 이덕환, 김천홍, 국립국악원은 관악기의 선율을, 민간풍류 계통인 지용구, 김덕진, 지영희, 류대복, 김창규,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대전향제줄풍류는 현악기 선율을 차용하여 연주하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앞서 파악한 상이 선율을 중심으로 리듬꼴, 꾸밈음, 운궁법, 운지법 등의 음악적 요소를 고려하여 연주자 별 줄풍류 해금 선율의 특징

및 시기별 전승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줄풍류 음악적 연구에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고에서는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총 9곡의 민회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추후 도드리와 천년만세를 포함한 가즈회상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연하게 운용되었던 줄풍류의 본질을 상기하고, 획일적인 현행의 줄풍류에서 벗어나 연주자 별로 다양하게 연주되던 기존의 생명력 있는 줄풍류가 다시금 연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구례향제줄풍류』, 민속원, 2007.
- 강낙승, 『이리향제줄풍류』, 익산: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1995.
- 권도희, 『한국근대음악사』, 서울: 민속원, 2004.
- 남상숙·임미선, 『이리향제줄풍류』, 서울: 민속원, 2006.
- 류대복, 『해금교측본』, 평양: 조선음악출판사, 1959.
- 송방송, 『한국근대음악인사전』, 서울: 보고사, 2009.
- 신상철 편, 『구례향제줄풍류』, 미상.
- 이보형, 『향제풍류』,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5.
- 이후영, 『대전향제줄풍류』, 대전: 한밭정악회, 2005.
-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장상철, 『전추산 해금풍류』, 미상.
- 지영희, 『해금교본』,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 196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서울: 민속원, 2000.

2. 논문

- 강리경, 「현악영산회상 해금선율의 분절과 구조」,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고수영, 「줄풍류의 선율 구성에 관한 연구: 국악원줄풍류, 구례향제줄풍류, 지영희줄풍류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고진명, 「현악영산회상의 상현도드리 선율비교 연구: 해금과 거문고, 피리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성아, 「줄풍류 해금가락 비교 고찰 - 국립국악원 가락과 지영희 가락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 논문, 2002)
-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1920-1940년(Ⅰ)」, 『한국음악사학회』 (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3), 제12집.
-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1920-1940년(Ⅱ)」, 『한국음악사학회』 (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4), 제13집.
- 김소연, 「19-20세기 영산회상 거문고 선율 변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준희, 「1930년대 영산회상의 해금선율 비교 연구 : 이왕직아악부와 조선정악단, 빅타-조선악단의 연주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현희, 「지영희 해금 줄풍류의 시김새 연구 -1969년 음원 중 본영산을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서울: 국립국악원, 2019), 제40집.
- 김형섭, 「20세기 영산회상 가야금 선율의 변천 양상」,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남상숙, 「호남풍류의 전승사 및 음악적 특징-영산회상을 중심으로」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2005), 제4집
- 류지연, 「가야금 줄풍류 구성에 관한 연구: 가큰회상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박수아, 「인천줄풍류 해금선율 연구: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영배, 「전용선의 단소음악 연구: 산조와 줄풍류를 중심으로」, (용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은희, 「국립국악원 줄풍류와 현행 구례줄풍류의 비교연구 : 중령산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희정, 「20세기 초 거문고 줄풍류의 전개양상: 서울지역의 거문고가락을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병원, 「현행 영산회상 해금선율의 비사비죽성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혜진, 「국립국악원 줄풍류와 지영희 줄풍류의 비교 : 상령산의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서소선, 「국립국악원 영산회상과 구례향제줄풍류의 비교 연구 : 상령산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서울: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송진아, 「향제줄풍류의 양금 선율 분석 연구: 이리, 정경태, 광주, 구례를 중심으로」, (익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유희정, 「줄풍류 양금선율의 형성과정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귀영, 「김덕진의 산조합주 분석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슬기, 「가야금 줄풍류의 전승 지역별 음악적 특징」,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승희, 「지영희 해금 줄풍류 전승의 음악적 연구」, 『한국음반학』 25호, (한국고음반연구회, 2015)
- 이주은, 「영산회상 양금선율의 변천」,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임미선, 「20세기 풍류방 문화의 지형과 역사적 변동: 이보형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59집, (한국국악학회, 2016)
- 임혜정, 「조선정악단에 대한 일고찰 -일본 연주회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49집, (한국음악사학회, 2012)
- 정겨운, 「북한 전통해금 개방현 주법 연구」, 『국립국악원 논문집』 (서울: 국립국악원, 2022), 제45집
- 장하연, 「향제줄풍류의 가야금 선율 분석 연구: 구례, 대전, 광주, 이말량을 중심으로」, (익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최윤진, 「19-20세기 초기 영산회상 현악선율 연구: 양금과 거문고, 가야금 선율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허시라, 「지용구의 음악활동 초기 해금산조 창제의 음악사적 고찰」,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4)

3. 음반 및 음반해설

송혜진, “조선정악전승소원의 정악연주.” 『빅터 유성기 원반 시리즈 15 30년대 전통 기악연주 선집』, (서울: 서울음반, 1994)

이진원, “지용구 명인과 해금”, 『콜럼비아 유성기 원반(7) 정악의 원류를 찾아서 (기악편)(음반해설)』, (서울: LG미디어, 1996)

_____, “정악 기악 음반 소사.” 『콜럼비아 유성기 원반(7) 정악의 원류를 찾아서 (기악편)(음반해설)』, (서울: LG미디어, 1996)

_____, “해금시나위와 해금산조 음악.” 『콜럼비아 유성기 원반(7) 정악의 원류를 찾아서 (기악편)(음반해설)』, (서울: LG미디어, 1996)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Haegeum Melodies of *Julpungnyu* in the 20th Century

Jung, Gyeo-woon
Dep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scrutinized the development of Julpungryu Haegeum melodies in the 20th century using the following three methods. Firstly, we examined the overall context of the transmission of Julpungryu Haegeum melodies by reviewing the subjects of research. Secondly,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ng melodies of Piri and geomungos for each song and understanding the degree of agreement, we classified them into Yi Wang-jik's Ah-ak-bu line and folk music line. Thirdly, we examined the rhythmic patterns, embellishments, phrase ending methods, and finger techniques by each line to discuss th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way the melody develops. We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a result.

Firstly, the subjects of research are five types of audio sources from Ji Yong-gu, Kim Deok-jin, Min Wan-sik, Kim Chang-kyu, Kim

Cheon-heung, and six types of musical scores from Lee Deok-hwan, Ryu Dae-bok, Ji Yeong-hee, Gurye Hyangje Julpungryu, Iri Hyangje Julpungryu, and Daejeon Hyangje Julpungryu. Through the process of reviewing these, it was confirmed that the Julpungryu Haegeum melody was transmitted by professional musicians. This suggests a different transmission form from Gayageum, Geomungo, Yanggeum, and Danso, which have many non-professional musicians, as in the case of Haegeum, the melody was played and manipulated freely by professional musicians. Also, through the musical score materials, each Julpungryu had different song divisions and division structures, and the method of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songs by each line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Secondly, after comparing the degree of agreement with the melodies of Piri and geomungos for the five types of audio sources and six types of music score materials mentioned above and the 12 types of Julpungryu, including the Julpungryu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we classified them into Yi Wang-jik's Ah-ak-bu line and folk music line.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pungnyu of Yi Wang-jik's Ah-ak-bu line, it is played close to the melody of the Piri, and all the folk music lines play close to the Geomungo melody. This is believed to reflect the point that it has been mainly played around string instruments in the relatively folk music line.

Thirdly, we examined the rhythmic patterns, embellishments, phrase ending methods, and finger techniques to discuss th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way the melody develops in both Yi Wang-jik's Ah-ak-bu line and folk music line.

In the case of rhythmic patterns, in Yi Wang-jik's Ah-ak-bu line, it was established as a rhythm using a sub-beat that divides a dotted

16th note and a 32nd note in a rhythm that repeats 16th notes twice. In the case of the folk music line, there was a big deviation in the use of rhythmic patterns according to rhythms such as a half-beat rhythm, a rhythm that repeats 16th notes twice when dividing 8th notes, a rhythm that divides a dotted 16th note and a 32nd note, and a rhythm using a pulling beat.

In the case of embellishments, in Yi Wang-jik's Ah-ak-bu line, it was confirmed that it gradually changed from a method that adds emphasis to the embellishment itself by playing the pre-embellishment to the post-embellishment that emphasizes the main sound. In the folk music line, Ji Yong-gu, Kim Deok-jin, Ryu Dae-bok, and Gurye pungryu all played pre-embellishments, and Kim Chang-kyu, Ji Yeong-hee, and Iri pungryu used a mixture of pre-embellishments and post-embellishments, and the Gugak Center all played post-embellishments, and no embellishment appeared in Daejeon pungryu.

In the case of phrase ending methods, in Yi Wang-jik's Ah-ak-bu line, the 'Ingeojil' was transmitted unanimously, and in the case of Kim Cheon-heung, he used the rest part of 'Ingeojil' long to heighten the tension. As a result of checking the phrase ending methods of the folk music line, 'Ingeojil' was confirmed only in Kim Chang-kyu, Ji Yeong-hee, and Iri pungryu, and Ji Yong-gu, Kim Deok-jin, Ryu Dae-bok, Gurye pungryu, and Daejeon pungryu did not play 'Ingeojil'. In the case of finger techniques, in Yi Wang-jik's Ah-ak-bu line, the same finger techniques were used in all songs, and even the lengths of the finger movements were the same, so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transmitted without major changes. In the case of finger techniques of the folk music line, the open-string and 潢 finger techniques were confirmed in the performance of Kim Deok-jin and Ryu Dae-bok, but these are not currently being

transmitte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Haegeum melodies of Gurye Hyangje Julpungryu, Iri Hyangje Julpungryu, and Daejeon Hyangje Julpungryu, which are currently being transmitted 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the Julpungryu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have developed in a way that simplifies the timing and finger techniques compared to previous periods.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recall the essence of Julpungryu, which allowed flexible variations within a certain framework, and hope that the lively Julpungryu, which is outside of the uniform current Julpungryu, can be played again.

부 록 약 보

1. 상령산	398
2. 중령산	407
3. 세령산	416
4. 가락덜이	420
5. 상현도드리	423
6. 하현도드리	432
7. 염불도드리	439
8. 타령	452
9. 군악	468

상령산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8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중령산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The 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2 staves. From top to bottom, the parts are: 지용구 (voice), 이덕환 (voice), 류대북 (drum), 지영희 (voice), 김천홍 (voice), 구례종류 (voice), 이리종류 (voice), 대전종류 (voice), 국악원 해 금 (string), 국악원 거문고 (string), and 국악원 피 리 (string). The music is written in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and a common time signature.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accidentals, and articulation marks.

지용구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The second system of the musical score continues the composition with 12 staves, maintaining the same instrumentation as the first system. The notation shows a continuation of the melodic and rhythmic themes established in the first system, with some changes in dynamics and articulation.

지용구 (음원 굿김)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세령산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전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전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전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전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전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전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가락덜이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전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전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전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전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상현도드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하현도드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The 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3 staves. From top to bottom, the staves are labeled: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and 국악원 피 리. Each staff contains musical notation in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and a common time signature.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rests, and phrasing slurs.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The second system of the musical score continues with 13 staves, labeled with the same instrument names as the first system: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and 국악원 피 리. The musical notation continues across these staves, maintaining the same key signature and time signature as the first system.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This system contains the first 13 staves of the musical score. Each staff is labeled with an instrument name on the left. The notation includes treble clefs,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and a common time signature. The instruments are: 지용구 (Ji Yong-gu), 민완식 (Min Wan-sik), 이덕환 (Lee Deok-hwan), 류대복 (Ryu Dae-bok), 지영희 (Ji Yeong-hee), 김천홍 (Kim Cheon-hong), 구례풍류 (Gurye Pungryu), 이리풍류 (Iri Pungryu), 대전풍류 (Daejeon Pungryu), 국악원 해금 (Kugakwon Haegeum), 국악원 거문고 (Kugakwon Geomungo), and 국악원 피리 (Kugakwon Piri).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This system contains the second 13 staves of the musical score, continuing from the first system. The instrument labels are identical to the first system. The notation continues with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slurs, maintaining the same key signature and time signature.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천흥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염불도드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The 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4 staves. Each staff is labeled with a name on the left. The music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rests, and articulation marks such as accents and slurs. The piece begins with a melodic line in the first staff, which is then supported by the other instruments.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The second system of the musical score continues the piece with the same 14 staves. The notation shows a continuation of the melodic and harmonic material from the first system, with some changes in dynamics and phrasing. The instruments maintain their respective parts, creating a rich texture.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종류
이리종류
대전종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This system contains the first 13 staves of the musical score. It features vocal parts for Ji Yong-gu, Min Wan-sik, and Lee Deok-hwan, and instrumental parts for Ryu Dae-bok, Ji Yeong-hee, Kim Chang-gyu, Kim Cheon-hong, Gurye-bongryu, Iri-bongryu, Daejeon-bongryu, Haekim, Gukakwon Gumo-go, and Gukakwon Piri.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rests, and articulation marks like 'v' for vibrato.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This system contains the second 13 staves of the musical score, continuing the ensemble from the first system. It includes the same vocalists and instrumentalists. The notation continues with complex rhythmic patterns and melodic lines for each part.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민완식
이덕환
류대복
지영희
김창규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타령

지용규 1

지용규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혜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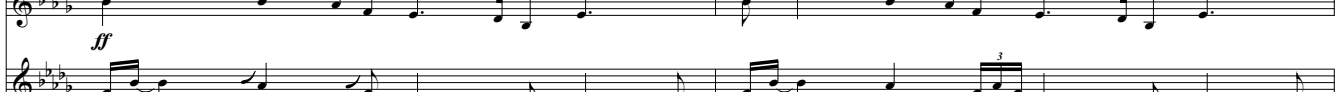
지용구 2  C C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ff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f* *mf*

김창규

지영희

김찬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1

지용구 2

김덕진

이덕환

류대복

김창규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군악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The 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 for 'Gunak' features twelve staves. From top to bottom, the staves are for vocalists/performers: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with *mf* and *mp* dynamics),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and 국악원 피 리. The music is written in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and a common time signature.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The second system of the musical score continues the piece with the same twelve staves as the first system.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patterns and melodic lines for each instrument and voice part.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4
 점차로 크게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f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 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 리

지용구
 김덕진
 8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mf*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흥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10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This system contains the first two measures of music for twelve instruments. The instruments listed on the left are 지용구 (Ji Yong-gu), 김덕진 (Kim Deok-jin), 이덕환 (Lee Deok-hwan), 류대북 (Ryu Dae-buk), 지영희 (Ji Yeong-hee), 김천홍 (Kim Cheon-hong), 구례풍류 (Gurye Pongryu), 이리풍류 (Iri Pongryu), 대전풍류 (Daejeon Pongryu), 국악원 해금 (Kugakwon Haegum), 국악원 거문고 (Kugakwon Geomungo), and 국악원 피리 (Kugakwon Piri). The notation is in a key with two flats and a common time signature. The first measure shows various rhythmic patterns, including quarter notes, eighth notes, and sixteenth notes. The second measure continues these patterns with some dynamics markings like *f* and *mf*.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This system contains the next two measures of music for the same twelve instruments. The notation continues from the first system. The second measure in this system includes a dynamic marking of *mf* (mezzo-forte). The instruments listed on the left are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and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12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

지용구
 김덕진
 이덕환
 류대북
 지영희
 김천홍
 구례풍류
 이리풍류
 대전풍류
 국악원 해금
 국악원 거문고
 국악원 피리